E-Book

The Scarlet Letter

주홍 글씨

너대니얼 호손 저 | 최재서 역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이 선정한 최고의 번역본이다.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인 《주홍 글씨》는 등장인물의 심리와 17세기 보스턴 청교도 사회의 분위기를 정교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국내 초역(初譯)임에도 불구하고 원문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옮겼을 뿐만 아니라 호손의 문체적 특징까지 잘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월의 무게가 더할수록 그 가치가 빛나는 번역문학의 전범이라 하겠다.



OLJE CLASSICS

OLJE CLASSICS
70

주홍글씨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사단법인 olje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 고전이나 문화 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 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 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정 기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주홍 글씨》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기아자동차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 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번역본을 남겨 주신 고(故) 최재서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최창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신 벗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 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올재 후원하러 가기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차 례

역자 서문 ··· 6

역자 해제 ··· 7

1. 옥문(獄門) ··· 28
2. 장터 ··· 30
3. 발견 ··· 41
4. 대면(對面) ··· 50
5. 바느질하는 헤스터 ··· 58
6. 펄(Pearl) ··· 68
7. 장관저(長官邸)의 객청(客廳) ··· 79
8. 요동(妖僮)과 목사(牧師) ··· 86
9. 의사(醫師) ··· 96
10. 의사와 환자 ··· 106
11. 마음속 ··· 116
12. 밤을 새우는 목사 ··· 124
13. 헤스터의 다른 일면 ··· 134
14. 헤스터와 의사 ··· 142
15. 헤스터와 펄 ··· 149
16. 숲 속의 오솔길 ··· 156
17. 목사와 신자 ··· 162
18. 쏟아지는 햇빛 ··· 173
19. 시냇가의 어린아이 ··· 179
20. 미로에 서 있는 목사 ··· 186
21. 뉴잉글랜드의 시제일(視祭日) ··· 197
22. 행렬 ··· 206
23. 주홍 글씨 나타나다 ··· 217
24. 후일담 ··· 226

역자 서문

너대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 1804~1864)은 미국에서 첫손에 꼽히는 소설가이고 《주홍 글씨(The Scarlet Letter)》는 그의 작품 중에서 첫손에 꼽히는 소설이다. 따라서 《주홍 글씨》는 미국 문학에서 첫손에 꼽을 만한 소설이다. 그렇기에 《주홍 글씨》의 번역을 담당하게 된 것을 나의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미스터 푸루노가 와서 적당한 작품이 없겠는가 말하기에 나는 첫마디에 "The Scarlet Letter!"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대답하고 나자마자 그 대답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반성하기 시작했다.
호손의 영어는 한 시대 이전의 고전 영어에 속한다. 영어학 연구로 공부하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번역하는 데는 아무래도 만만한 작품이 아니다. 호손의 소설은 세밀한 심리 묘사에 있어 세계 일류일뿐 아니라, 영혼의 미묘한 동태를 추구함에 있어 실로 독보적이다. 시대가 다르고 틀이 다른 우리말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호손의 예술을 살릴 수 있을지 참으로 아득한 일이었다.
이 소설을 번역하는 동안, 대구는 근래에 드문 혹서(酷暑)였다. 그러나 나는 그 더위를 잊어버리고 역업(譯業)에 정진하는 때가 많았다. 이 대작과 씨름하는 데 있어 더위는 도리어 좋은 자극제가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 서투른 번역을 통해서나마 호손의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많아지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1952년 8월 31일
대구 객사에서
최재서

역자 해제

1. 호손의 생애와 작품

너대니얼 호손은 1804년 7월 4일,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세일럼(Salem) 시에서 탄생했다. 아버지 너대니얼 호손은 선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자베스 매닝(Elizabeth Manning)은 얼굴이 곱고, 재주가 비상한 부인이었다. 호손 일가는 엄숙한 청교도 가족이었다. 아버지 너대니얼은 호손이 4살 때 이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호손 부인은 세상에서 멀리 떠나 오로지 자녀 교육에 헌신했다고 한다. 자녀는 호손까지 합해서 삼남매였다.

1818년부터 1819년까지 유가족은 메인(Maine) 주 레이먼드(Raymond)에서 지냈다. 이곳은 부인의 고향인데, 호손의 외조부 매닝은 가엾은 딸을 위해 넓은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아버지 없는 자식들에게 편히 자랄 곳을 마련해 주었다. 소년 호손은 이곳에서 자연과 벗이 되는 반면에 고독을 알게 되었다.

"나는 메인 주에서 하늘의 새처럼 지냈다. 내가 향락한 자유는 그렇게도 완전했다. 그러나 내가 저 저주받은 고독의 습성을 알게 된 것도 바로 그곳이었다."

호손은 만년에 당시를 회고하여 이렇게 말했다.

호손은 1819년에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할 겸 세일럼을 떠나 브런즈윅(Brunswick)에 왔다. 그의 독서 습관은 벌써 그전에 시작되었었다. 1821년에 보든 대학(Bowdoin College)에 들어갔을 때 그는 책을 가장 많이 읽은 학생이었다.

독서에 있어서는 호손이 으뜸이었을지 모르나, 다른 방면에 있어서는 그를 넘어서는 재주 있는 사람이 수두룩했다. 그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이는 헨리 롱펠로(Henry Wadsworth Longfellow, 1807~1882)와 프랭클린 피어스(Franklin Pierce, 1804~1869)였다. 롱펠로는 아메리카 최대의 시인이 되었고 피어스는 제24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그 밖에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조지 힐라드(George Stillman Hillard)인데, 호손이 궁지에 빠졌을 때 재정적 원조의 손을 뻗

쳐 불우한 천재로 하여금 문학의 길로 정진하게끔 해 준 사람은 바로 힐라드 그 사람이다.

1825년, 그가 25세 때 호손은 보든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 세일럼에 돌아와 12년 동안 계속되는 문학적 은둔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무슨 투철한 자각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아무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호손이 어중간한 태도로 이 문학 수련기를 보냈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문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경건한 태도로 나섰던 것이다.

그의 처녀작은 《팬쇼(Fanshawe)》이다. 그의 모교 보든 대학을 무대 삼아 어떤 유괴 사건을 취급한 소설인데, 뉴잉글랜드의 생활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무명작가의 처녀작을 전연 돌아다보지 않았다. 호손은 또 여기저기 잡지에 단편을 쓰기 시작했으나 그의 주머니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 시대의 수확으로서는 몇 편의 단편과 소년용 《세계 역사》가 있다.

세일럼 시대의 문학적 활동이 호손에게 세속적인 성공은 가져오지 못했지만 몇몇 친구에게 그의 문학적 천재(天才)를 인식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그중에서 대학 동창 호레이쇼 브리지(Horatio Bridge)는 세속에 등한한 이 문학적 천재를 위해 기어코 출세의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발표된 호손의 단편들을 모아 출판하되,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고, 인세는 저자 호손에게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보스턴의 출판사 굿리치(Goodrich)와 교섭했다. 물론 호손 자신은 전연 모르는 일이었다. 유명한 《트와이스 톨드 테일스(Twice-Told Tales)》가 1837년에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우정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단편집에 대해서는 롱펠로가 《북미평론(North American Review)》에서 격찬의 논문을 발표했지만 도무지 팔리지 않았고, 따라서 호손의 주머니에는 한 푼의 돈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단편집 속에는 후일 장편들 속에서 발전을 보게 된 호손 예술의 모든 요소가 포함돼 있었다. 호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빠뜨리지

못할 작품이다.

《트와이스 톨드 테일스》는 물질적 보수는 가져온 것이 없지만, 뜻밖의 방면에서 호손의 운명의 길을 열어 주게 되었다. 호손 모자가 메인(Maine) 주 외가로 떠나기 전 보스턴 시대에 이웃에 사는 피바디(Peabody) 가족과 가깝게 지냈는데, 메인 주로 이사 간 후로는 자연히 교제가 끊어졌다. 그러다가 《트와이스 톨드 테일스》가 나온 것을 보고 맏딸 엘리자베스(Elizabeth Peabody)가 이 청년 작가를 집에 초대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딸 메리(Merry Peabody)는 후일에 교육가 호러스 맨(Horace Mann)의 부인이 되었고, 막내딸 소피아(Sophia Peabody)는 신체가 허약한 데다, 세상 사람과 교제하기를 싫어하는 일종의 은둔벽(隱遁癖)이 있었다. 호손이 초대를 받아 처음으로 피바디 가족을 심방(尋訪)했던 날도 소피아는 2층 자기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언니 엘리자베스가 "얘, 우리 소설가는 바이런(Baron Byron)보다도 미남자다. 어서 내려와 보아라"라고 말해도 소피아는 기어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호손이 방문했을 때는 내려와 만났다. 그때의 모양을 엘리자베스는 일기에다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 이번에는 소피아가 2층에서 내려왔다. 간소한 옷을 입고 내려와서 소파에 앉았다. "제 동생 소피아입니다" 하고 소개했더니 호손은 벌컥 일어나서 소피아를 뚫어질 듯이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그저 정신없이 바라다 볼 뿐이었다.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소피아도 간간이 나직한 목소리로 몇 마디 말을 건네곤 했다. 소피아가 말할 때마다 호손은 또다시 열렬한 시선으로 소피아를 쏘아보았다. 만약 저분이 저러다가 누이동생과 연애를 하게 되면 어쩌나 하고 나는 덜컥 겁이 났다. 동생은 평소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애는 안 할 테야. 이 병신이 누구의 짐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호손은 소피아한테서 결혼의 승낙을 얻어 내는 데 성공했다. 그간 두 사람 사이에 주고 받은 연애편지는 브라우닝 부처의 그것만큼은 유명하지 않을지 모르나 역시 영문학의 보배이다. 호손이 결혼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결혼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연애편지는 좀 더 오래 계속되었다.

1839년에 호손의 숙망(宿望)이었던 고정 수입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친구들의 주선으로 보스턴 세관에 취직하여, 1839년 1월부터 출근했다. 지위는 검사관이었다.

1841년에 민주당이 실세하고 자유당이 정권을 잡는 통에 호손도 실직하고 말았다. 그래서 약혼한 지 2년이 지났건만 소피아와의 결혼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 시기의 수확이라고는 세 권의 소년 문학서뿐이다. 《할아버지의 의자(Grandfather's Chair)》(1 · 2집), 《아동들의 위인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책은 소피아의 언니 엘리자베스의 권면으로 썼다. 엘리자베스는 그 당시 보스턴에서 조그만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호손이 이 출판에서 얻은 돈은 겨우 1,000달러였다. 경리에 어두운 호손은 이 귀중한 돈을 죄다 브루크 농장(Brook Farm)에 투자해 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뉴잉글랜드의 초월주의자들이 경영하는 이상촌(理想村)이었다. 그러나 실망한 호손은 반년도 못 가서 이 촌락을 버리고 고향 세일럼으로 돌아왔다.

직업도 돈도 없고, 믿는 것이라고는 자기의 문필밖에는 없었다. 호손과 소피아는 빈곤을 각오하고 1842년 7월 9일 보스턴에서 결혼했다. 그때 신랑의 나이가 39세, 신부의 나이는 32세였다. 신혼부부는 콩코드(Concord)의 올드 맨스(The Old Manse)(舊 목사관)에서 인생의 첫 출발을 했다.

올드 맨스는 그전에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할아버지가 살았고, 또 그 뒤에는 에즈라 리프리 박사도 산 일이 있는 유서 깊은 구가(舊家)였다. 유명한 소로(Henry David Thoreau)의 《월든(Walden)》의 무대가 되는 곳도 이 부근이다. 이 집 근처에 콩코드라고 하는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고, 시내 속에 조그만 섬돌이

여기저기 깔려 있고, 봄과 여름이면 백합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얼음 지치는 애들로 말미암아 도리어 번성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호손은 별로 집필하는 일도 없이 신혼생활의 단꿈을 즐겼다. 이웃에는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윌리엄 엘러리 채닝(William Ellery Channing)이 살고 있었으니까 자주 찾아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긴 시간을 보냈다. 또 신혼부부는 사이좋게 괭이를 들고 밭에 나가 일을 하기도 했다.

1844년에는 장녀 유나(Una Hawthorne)가 출생했다. 이제는 앞밭에서 야채만 지어 가지고 지낼 형편은 못 되었다. 1846년에는 《낡은 저택의 이끼(Mosses from an Old Manse)》라는 단편집이 나왔지만 갑자기 늘어난 살림을 지탱할 수는 없었다. 1845년 5월, 마침 《트와이스 톨드 테일스(Twice-Told Tales)》를 출판하는 데 진력해 주었던 호레이쇼 브지리가 프랭클린 피어스를 데리고 올드 맨스로 찾아왔다. 두 사람이 방문 왔을 때 호손은 허청(虛廳)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호손이 몹시 궁한 것을 알고 구원해 주러 왔던 것이다. 그들은 호손에게 어떤 확실한 약속을 해 주고 돌아갔다.

피어스의 약속이란 세일럼 세관 검사관 자리에 취직시켜 주는 일이었다. 호손은 1845년 10월에 취임했다. 이듬해 가을에는 장남 줄리안(Julian Hawthorne)이 출생했다. 호손은 세일럼 세관에 취직한 이래로 다소의 시간적 여유를 얻어 《트와이스 톨드 테일스》 속편을 썼다. 그러나 그가 계획하고 있던 장편을 쓰기까지는 시간이 모자랐다.

1848년 1월에 테일러가 대통령이 되면서 호손은 면직됐다. 소설 집필을 위해서는 도리어 시원한 일이었지만, 닥쳐오는 생활고를 생각할 때는 암담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호손은 핼쓱한 낯으로 부인을 향해 "밀려 나왔어"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호손 부인은 "염려 마세요. 그러면 소설을 쓰실 수 있지 않아요?" 하면서 금화 150달러를 남편 앞에 내놓았다. 이런 때를 위해 남편 모르게 푼푼이 모아 두었던

돈이다. 호손은 이에 힘을 얻어 그날 오후부터 소설 집필을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주홍 글씨》였다.

호손이 이 소설을 쓰던 시기는 그의 일생 중에서 가장 곤란한 때였다. 오래 병석에 누워 있었던 그의 어머니는 그해 7월부터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현명한 부인이 마련해 두었던 약간의 저축은 병모 구환에 죄다 없어졌고, 호손 부인은 병간호에 매달려 집안일을 돌볼 틈이 없었으므로 호손은 이중으로 고통이었다. 7월 말일에 그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엔 그의 주머니도 텅 비고 말았다. 그러나 호손은 이 고난의 시기에 잘 싸웠다. 그는 매일 평균 9시간 집필했다고 그의 부인은 전한다. 그러나 한 자루의 붓으로 가난의 물결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실한 빈곤의 강적과 맞서게 되었다.

호손은 과거에도 두 번 우정의 구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번에 또 뜻밖에 우정이 나타남으로 인해 그는 위기를 면하고 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다. 1850년 1월 17일에 조지 힐라드는 편지 속에 환표(換票)를 한 장 넣어 보내왔다. 그 편지와 또 그 편지에 대한 호손의 답장은 미국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꾸미는 두 떨기의 꽃이다. 다음에 그 한 부의 역문을 게재한다.

"작년 일을 생각하여 귀형께서 지금쯤은 약간의 재정적 원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와 몇몇 친구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형의 천재(天才)를 찬미하고 귀형의 성격을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동봉(同封)의 금액을 모았습니다. 귀형의 건강과 행복을 충심으로 빌면서 이 돈을 보내드립니다. 나는 귀형의 칼날같이 날카로운 성품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의무를 운운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귀형이 미국 문학에 대해 일해 주신 공로에 대해 지극히 불충분하나마 보답을 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즉석에서 이 약소한 현금을 거

출했으며, 또 선물을 내놓으면서 따뜻한 말을 보탰다는 것을 만약 귀형께서 알아주신다면 귀형이 일찍이 물 위에 던진 팡(징검다리 돌)이 참으로 귀형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귀형을 잊고 있지 않으며, 또 앞으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귀형은 '먹을 걱정'에서 반드시 보호될 것입니다. '먹을 걱정'이란 내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할까 하는 데서 생겨나는 걱정입니다."

"우체국 현관에서 귀형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근심만은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만 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체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차고 사나운 서풍이 면상을 후려치는 것이 어떻게도 고마운지요. 이래서 두 눈이 붉어지고 퉁퉁 부은 데 대해 설명할 구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눈물 속에는 달콤하고도 쌀쌀한 그 무엇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기억되고 보호 받는다는 것은 달콤한 일입니다. 그 친구들의 일부는 나의 위인(爲人)을 잘 알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만 너그러운 신의(信義)를 통해서 나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친구들이 나의 평생을 통해 내가 해놓은 일이 지극히 빈약하지만 그래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달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조를 받게 된다는 것은 쓰라린 일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일이 참으로 또 정당하게도 수치거리임을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자부심만은 아닌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또 응당 부끄러워해야 옳을 일입니다. 실패의 과실은 적어도 대부분이 실패한 사람 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당연히 이 진리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진리의 칼을 내 심장에 들여댈 때도 그 칼끝을 피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강하고 유능하여 그 능력을 좋은 일에 응용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권리가 없습니다. 친애하는 힐라드, 주신 돈은 앞으로 오랫동안 나의 길을 순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친구들의 선심을 이용하면서도 그 자존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자극을 얻어 최대한의 활동을 함으로써 다시는 그들의 원조를 받을 필요가 없이 되는 일입니다. 주신바 이 금품을 나는 이렇게 보고 있으며, 또 내 수족을 부려 광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고역이든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1853년 12월에 호손은 본전에 이자를 붙여 갚음으로써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다. 1850년에 《주홍 글씨(The Scarlet Letter)》가 세상에 나오자 호손의 문학적 천재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당연한 보수였다. 이 출판으로 말미암아 별안간 넉넉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선 급한 재정적 위기는 면했고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제2의 대작을 쓰게 되었다. 1850년 봄에 호손은 그 어머니가 돌아간 올드 맨스(The Old Manse)를 버리고 레녹스(Lenox)에 조그만 집을 빌려 거기에서 1년 반을 지내는 동안 막내딸 로즈(Rose Hawthorne)를 얻었다. 간간이 친구들이 찾아오는 일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서재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안온한 가운데서 탄생된 것이 제2의 장편 《일곱 박공의 집(The House of the Seven Gables)》이었다. 이 소설도 대성공이었다. 제3의 장편 《블라이드데일 로맨스(The Blithedale Romance)》는 앞서 두 작품만큼은 성공하지 못했다.
1852년 6월에 호손 가족은 또다시 콩코드로 돌아와서 더 웨이사이드(The Waysi-de)라고 하는 구가를 거처로 정했다. 호손은 이 집에서 영주(永住)할 작정이었다. 호손이 이렇게 한적한 집에서 영주할 결심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의 누이동생 루이지아가 허드슨 강에서 배를 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참변이 있은 뒤, 인생이 더욱 귀찮아졌다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주를 스스로 맹서했던 이곳 콩코드를 호손이 일단 떠나지 않아서는 안 될 날이 왔다.

피어스가 대통령에 입후보했을 때 호손은 남북전쟁 때의 그의 공적을 기록한 전기를 출판하여 오랜 벗의 당선에 이바지한 일이 있었다. 피어스는 친구의 은공을 갚고자 하여 그를 영국 리버풀 영사에 임명했다. 그것은 돈도 생기는 상당히 좋은 자리였다. 그래서 호손은 1853년 7월에 콩코드를 떠나 리버풀로 갔다.
리버풀에는 1857년 8월까지 있었고, 임기가 끝난 뒤 약 1년 동안 유럽 각지, 특히 이탈리아를 주로 여행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고미술을 감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 시기의 문학적 수확은 다음과 같다. 소설 《대리석의 목양신(The Marble Faun)》, 영국 견문록 《우리의 고향》, 《프랑스 · 이탈리아 견문록》.

그가 고향 콩코드에 돌아온 것은 1860년 6월이었다. 고향에 돌아온 뒤 그는 《돌리버 로맨스(The Dolliver Romance)》라고 하는 소설을 시작했으나 끝맺지 못하고 말았다. 그는 죽음이 박두해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창작에 힘을 들일 생각이 없었다. 가족들의 권면도 있고 해서 호손은 출판사주 티크너(William D. Ticknor)를 따라 남부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 필라델피아까지 왔을 때 티크너가 변사했다. 친구의 장사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호손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피로로 말미암아 상태가 아주 말이 아니었다.
1864년 5월에 호손은 전 대통령 피어스를 따라 뉴햄프셔 주로 여행을 떠났다. 18일에 그들은 플리머스(Plymouth)에서 호텔에 묵었다. 이튿날 아침 피어스가 호손의 방에 가 보니 그는 벌써 빳빳한 시체였다. 5월 24일에 호손은 콩코드 부근 슬리피 할로우(Sleepy Hollow Cemetery)라고 하는 곳에 안장되었다. 롱펠로, 에머슨, 로웰(James Russell Lowell), 홈즈(Oliver Wendell Holmes) 등이 회장(會葬)했다.
호손은 유난히 명상적인 사람이었다. 자연의 품을 찾아 고독을 사랑하는 습성은 소년 시절부터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는 필요를 위해서는 사교를 할 줄도

알았지만, 천성적으로 사교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호손의 생애는 적어도 외면으로는 평면적이고 단조로운 일생이었다. 두 번 세관 관리를 지냈고, 리버풀 영사가 되면서 유럽에 있었던 일을 제외하고는 그 생애에는 특기할 만한 아무런 사건도 없다. 그는 평생 인생 문제를 명상하고 영혼의 비밀을 탐구했다고 해도 좋다.
호손의 명상벽은 그 어머니의 유전이라고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공통적인 경향이었다. 다만 그는 좀 더 심한 명상가였을 뿐이다.
호손의 작품에는 청교도 정신의 색채가 농후하다. 《주홍 글씨》에서는 청교도에서 말하는 '죄와 구원'이 중심 문제로 취급되어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호손은 청교도는 아니다. 원죄 의식, 선악의 투쟁, 자기 천착, 신의(神意)의 실현, 영혼의 구제 등 청교도들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삼아 일평생 싸웠다는 점에서는 물론 청교도적이었지만, 호손은 청교도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방법을 갖고 탐구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예술에서 번번이 청교도주의를 비판하고, 그것을 좀 더 높은 입장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다. 그 정신은 그때의 시대정신인 초월주의였다. 다음에 그의 사상적 배경을 보기로 하자.

.

2. 사상적 배경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단행된 영국의 종교개혁을 아직도 철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칼뱅 교리에 좀 더 충실하게 교회를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일파를 세상 사람은 청교도(Puritan)라고 일컬었다. 그들이 언제나 교회의 숙청(Purification)을 부르짖는 데서 생겨난 이름이다. 그들은 대부분이 부유한 중산층이었다. 구교, 즉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를 끊으면서도 아직 구교의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는 영국 교회〔高敎波〕는 지주 계층을 기반으로 삼는 구세력이었다. 이 구세력은 영국 왕실과 합작하여 급진파 청교도들을 누르려 했다. 따라서 청교도의 반항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 정치적 조건을 기반으로 삼는 심각한 사회적 투쟁이었다.

윌리엄 로드(William Laud)가 찰스 1세에게 등용되어 반동 세력을 구성하자 청교도에 대한 박해는 절정에 도달했다. '순례자의 아버지들(the Pilgrim Fathers)'이 영국을 버리고 자유의 천지를 신대륙에서 구한 것은 1820년 12월이었다. 이것이 미국 건국의 첫걸음이었다. 청교도들이 금과옥조로 믿는 칼뱅 신학의 중심 사상은 '예정설(豫定說)'이었다.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하느님은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에덴동산의 모든 축복을 그들 인간〔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다. 이 축복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즉 지식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이었다. 그러나 아담은 이브의 유혹을 받아 하느님과의 약속을 깼고, 그 결과 에덴동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복까지도 잃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인류는 자자손손 죄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무한한 자비심에서 성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구제받을 사람들을 대리하여 수난하도록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제를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벌을 면하였으며, 그 외의 사람들은 영원히 벌을 받게 된다.

청교도로서는 자기가 신에게 구제를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는 생명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그들은 그 해답을 언제나 자기 자신 내부에서 구했다. 청교도들의 명상과 또 때로는 병적인 심리 분석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호손의 문학은 청교도주의의 전통을 지키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말한 것처럼 호손은 청교도주의를 묵수(墨守)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순례의 아버지들이 영국을 떠날 때 그들은 물론 자유를 구해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뉴잉글랜드에 정주한 청교도들은 영국의 청교도들보다 좀 더 보수적이고 전제적이었다. 가혹한 자연과 무서운 인디언들과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본국 정부의 압박을 항상 느끼고 있는 그들로서는 신앙과 사상의 힘으로써 그들의 내부를 결속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에는 이미 민주주의 사상이 팽창했는데, 뉴잉글랜드 식민지에서는 청교도들이 일종의 귀족사회를 이루어 전제적인 세력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자유를 갈망하는 뉴잉글랜드 백성들이 언제까지나 이 질곡에 얽매여 살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1830년대의 청년 지식인들은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게 되었다. 그들의 대표자는 문인 에머슨(Ralph Waldo Emerson)과 호손과 소로(Henry David Thoreau), 설교가 올컷(Amos Bronson Alcott), 파커(Theodore Parker), 비평가 리플리(George Ripley)와 풀러(Margaret Fuller), 역사가 클라크(James Freeman Clarke)와 밴크로프트였고, 그중에서도 대표자는 에머슨이었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초월주의자라고 일컬었다.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는 독일의 관념 철학, 특히 칸트 철학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 칸트 철학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사상은 “체험세계는 정

신세계를 계시(啓示)한다"라는 것이다. 이 명제로부터 청교도들은 "신은 모든 인간에 내재한다"라는 결론을 쉽사리 끌어낼 수 있었다. 이것은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는 초월주의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적합한 사상이었다. 과거로부터 해방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고독 속에 살아야 한다고 초월주의자들은 믿었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에 따르면 사회는 언제나 과거를 대표하는 "구의상(舊衣裳)"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회를 버리지 않고서는 자유로울 도리가 없다. 고독은 자연 속에서 발견된다. 이리하여 에머슨은 1836년에 그의 처녀작 《자연론(自然論)》을 가지고 등장했으며, 소로는 1845년 월든 호수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유명한 《월든(Walden)》을 썼다. 자연은 풍족하고 완미하기 때문에 인간의 요구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고 에머슨은 부르짖는다. 인간의 모든 기술은 자연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문명이란 자연과 완전히 융합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는 말한다.

물질세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정신세계에 있어서도 자연은 부족하다. 미술과 음악과 언어의 원리가 모두 다 자연 속에 계시되며, 도덕과 영혼의 비밀이 자연 속에서 발견된다. 또 자연은 신성의 현현이므로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만 신에 도달할 수 있다. 자연은 신의 세계를 계시하는 수단인 동시에 인간에 내재하는 신성을 외면화하는 방편이다.

초월주의자들은 개성의 존엄성과 인격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1837년 8월 31일에 에머슨은 하버드 대학에서 유명한 〈미국의 학자 정신(The American Scholar)〉을 강연했는데, 비평가들은 이날을 정신적인 미국 독립 선언일이라고 일컫는다. 에머슨은 그 강연 중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게으른 지성이 무쇠 뚜껑 밑으로부터 내다볼 날, 기계적 기술의 행사보다 좀 더 훌륭한 그 무엇으로써 몹시도 지연된 세계의 기대를 만족시킬 날이 머지않았다. 다른 대륙들의 학문에 의존하여 그 견습생 노릇을 하던 시대는 차

츰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

초월주의는 원래 구(舊) 신학 사상에 대한 반항이었다. 그들은 신을 인식함에 있어 다른 누구보다도 철저하지만,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의 해설을 통해서 신에 접근하는 것을 절대로 멸시한다. 그들은 심지어 성 바오로의 복음조차도 진정한 기독교의 모방이라 생각했다. 자기 자신 내부의 신을 발견한 사람만이 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그러니 만큼 그들은 기성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초월주의는 당시의 뉴잉글랜드 사회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과격한 사상이었다. 이 점을 무엇보다도 웅변적으로 말하는 것이 에머슨의 생애이다. 그는 목사이면서도 과격한 신학 사상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에머슨의 사상을 양극단에서 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주(自主)〉와 〈보상(報償)〉 2편의 논문이다. 자연의 고독 속에서 발견되는 영혼의 자유로운 상태를 에머슨은 ‘자주’라고 한다. 그러나 개개인이 이렇게 자주 속에 고립되고 말면, 결국 인류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보상’이다. 고독의 보상은 좀 더 높은 영혼과 좀 더 넓은 자유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인간은 사회의 인습을 버리고 고독 속에서 영혼의 진리를 탐구함으로써 ‘초영혼(超靈魂)’의 세계에 도달한다. 초영혼이란 인간 각자가 내포하는바 ‘좀 더 훌륭한 자아’가 사회 인습에서 해방됨으로써 자연히 도달되는 좀 더 넓은 세계이다. 해방된 영혼들은 이 높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높고 넓은 조화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 인류 사회의 극치이며, 신의(神意)의 실현이라고 에머슨은 생각했다.

호손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소설의 여주인공인 헤스터의 죄를 취급했다. 특히 초영혼의 사상은 이 소설의 결말에 대해서 열쇠가 된다. 단죄의 표식으로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단 여자가 앞으로 올 무슨 행복을 기대나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참

회의 생활을 계속하고, 고백의 기회를 얻지 못하여 고민 끝에 죄수대 위에서 절명하는 딤즈데일은 이제야 자기의 영혼이 구제받았다는 것을 큰 소리로 선언한다. 그들은 초영혼 세계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뻐한 것이다.

3. 뉴잉글랜드의 사회생활

나는 전항에서 《주홍 글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상적 배경을 소개했다. 여기에서는 또 그런 취지로 뉴잉글랜드 사회생활의 몇 가지 면을 소개하기로 한다.

칼뱅 신학은 신의 인자성보다는 엄격성에 더 노출되어 있었다. 황막한 신대륙에 이주한 청교도들은 준법정신을 한층 더 강조했다. 대체로 그들은 신약보다도 구약을 더 존중했다. 구약에는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엄격한 율법이 좀 더 세목적으로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뉴잉글랜드는 정치 · 경제 · 습속 등 모든 면에 있어 신의 율법을 기초로 하는 사회였다.

뉴잉글랜드 백성들은 일상생활의 일거일동(一擧一動)에 이르기까지 법률의 구속을 받았다. "안식일에 고기만두를 만들지 못하고, 댄스와 카드와 주악(奏樂)을 금함"은 물론, "남자는 일정한 길이 이상으로 머리를 기르지 못하며 여자는 레이스 옷을 입지 못하며 스랫슈〔옷의 안감을 뒤집어 보이는 재단법〕는 매 소매에 하나, 등에 하나 이상은 허하지 않음"이라고 법령에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청교도들이 남녀 관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는 우리가 쉽사리 상상할 수 있는 바이다. 헤스터의 비극은 이러한 지나친 엄격성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뉴잉글랜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 첫째 목사, 둘째 교사, 셋째 의사였다. 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 전문적 지식이란 보잘 것 없었다. 그 시대의 유일한 외과적 치료법은 방혈법(放血法)〔폭음 · 폭식하여 혈액과다증을 일으킨 사람의 혈관을 절개하여 혈액을 방출하는 방법〕이었다. 그나마도 의사가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이발사가 담당했다. 지금도 이발소 앞에 가면 빨간색과 흰색을 칠한 원주(圓柱)가 서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유습인 것이다.

내과에서 지배적인 세력을 가지는 것은 미신(迷信)이었다. 정신병과 악마퇴치병에는 '성(聖) 요하네 약'이 1등이었고, '두꺼비 태운 가루'는 만병통치약으로 애용되었

다. 그중에서 가장 근거 있고 권위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인디언의 약초였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헤스터(Hester)가 목사인 딤즈데일(Arthur Dimmesdale)과 정을 통하게 된 것은 그 남편 칠링워스(Roger Chillingworth)가 인디언에게 붙잡혀 삼림 지방에서 약방(藥方)을 연구하는 동안의 일이었다. 딤즈데일이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건강이 좀먹어 들어갈 때, 칠링워스는 그를 간호한다는 명목으로 목사와 동거하면서 그 악마적인 복수심을 만족시킨다. 이리하여 의술은 이 소설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식민지 시대는 아직도 미신이 유행하던 시대였다. 과학이 발행되지 않은 데다 청교도들의 영혼 탐색은 병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히 미신이 성할 수밖에 없었다. 미신은 호손의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주홍 글씨》에서도 미신이 번번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호손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이용했다. 죄의 씨인 펄(Pearl)이 인간세계를 떠난 일종의 요물처럼 취급되었고, 또 딤즈데일이 발광하는 날 밤의 묵시록적인 장면은 미신이라고 하면 이 이상 더 미신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 호손은 이러한 소박한 청교도들의 미신을 상징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예술의 가치를 한층 더 높였다. 이 소설에서 중심적인 흥미를 끄는 붉은 A자(字) 그 자체가 일종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주홍 글씨》를 읽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요소이다.

4. 《주홍 글씨》의 의미

이야기 줄거리로 볼 때 《주홍 글씨》는 지극히 간단한 소설이다. 행방불명된 늙은 학자의 젊고 고운 아내가 자기 교회의 목사와 불의(不義)의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는다. 그러나 법관들 앞에서 어린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결코 대지 않는다. 장소는 엄격한 청교도들이 전제(專制)하는 보스턴이다.

법관의 처단에 의해 죄의 여인 헤스터는 주홍 글씨 A를 가슴에 차고 형대 위에 서서 일반 공중의 구경거리가 되며, 그 후로도 일평생 그 죄의 표식을 가슴에서 떼지 못한다. A는 간음, 즉 Adultery의 약자이다.

군상과 더불어 이 참혹한 광경을 보고 있는 두 사내가 있다. 한 사람은 위정자들과 더불어 높은 발코니 위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는 죄의 공범자인 청년 목사 딤즈데일. 또 한 사람은 마침 인디언 사회에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고 독사 같은 복수심에 불타는 노의사(老醫師) 칠링워스.

딤즈데일은 그 높은 정신과 깊은 학식과 인류 동포에 대한 동정심과 황홀한 웅변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평판이 마치 아침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 같았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좀먹어 들어간다. 육체의 병을 고칠 줄 알 뿐만 아니라 육체 속에 있는 정신의 비밀을 알아내는 데 특수한 재주를 가진 칠링워스는 목사의 병을 간호한다는 명목으로 목사와 동거하면서 그의 일거일동(一擧一動)을 감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수의 마수로 그의 목을 조금씩 조금씩 졸라 들어간다. 끊임없는 회한과 고민, 야만적인 자학 행동 등이 얽히고설켜, 딤즈데일의 건강은 완전히 파괴되고, 발광 직전 상태에 도달한다.

그의 인기가 최고 절정에 달하여 일반 민중이 그를 천사나 성자처럼 우러러보는 순간에 그는 어린 펄의 손목을 잡고 헤스터의 부축을 받으면서 그가 당연히 7년 전에 섰어야 할 형대로 올라가 스스로 옷가슴을 잡아 벗기며 가슴 위에 나타나 있

는 죄의 표식을 폭로하고 절명한다.

작가 호손의 생애가 그러하듯 이 소설도 표면에 나타나는 행동만 가지고 따진다면 무척 단조로운 이야기다. 그러나 《주홍 글씨》는 외면보다도 내면, 육체보다도 정신, 행동보다도 심리의 세계를 그리는 소설이다. 죄와 회한, 선악의 투쟁과 영혼의 구제라는 인류 영원의 문제를 그 테마로 삼고, 영혼의 생태와 호흡, 그 고민과 생장과 퇴보를 마치 동물학자나 생물학자처럼 세밀히 관찰하고, 마치 귀금속의 세공사와 같이 영묘하고 정밀하게 표현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독자는 이 작품의 반의반도 읽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호손은 이 작품에서 보스턴을 무대 삼아 청교도주의를 대변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비평가들도 있지만, 그들은 이 작품의 반면밖에는 못 본 사람들이다.

이 비극에 등장했던 세 인물이 다 죽고 난 뒤에 딤즈데일의 무덤 곁에 있는 헤스터의 무덤 위에 비석만이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그 비석에는 검은 바탕에 주홍 글씨 A만이 조각되어 있었다. 청교도주의는 말하자면 검은 바탕이다. 주홍 글씨가 나타나는 바탕이며 원인이다. 그 주홍 글씨는 청교도가 제정할 때는 물론 죄의 표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난의 여인이 그것을 가슴에 차고 일평생 참회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그 표식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빛나게 되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즉 작가가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다. 호손은 이 소설에서 결코 청교도주의를 대변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두침침한 청교도의 그늘 속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꿈을 그리고, 희미한 주홍 글씨의 광명을 따라가서 이상의 모습을 찾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주홍 글씨》는 영혼 세계를 주로 취급하는 작품이니만큼, 상징적 수법이 극도로 이용되었다. 주홍 글씨 A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죄악 속에서 생겨난 아이인 펄까지도 완전히 한 상징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니 만큼 작가가 말

하고자 하는 진리와 이상도 무슨 신학적 이론이나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상징적인 방법으로, 이를테면 인물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 상혼의 변모, 단편적인 대화 등으로 독자 앞에 암시된다. 이런 것들을 마치 염주처럼 꿰매서 한 편의 호손론(論)을 써 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거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독자에 대한 친절이 될지는 의문이다. 이 작품의 의미는 독자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이 서투른 해설을 이만 그친다.

The Scarlet Letter

Nathaniel Hawthorne

주홍 글씨

너대니얼 호손

1. 옥문(獄門)

칙칙한 옷에다 운두가 뾰족한 모자를 쓴 수염이 난 사내들이 수건을 쓰기도 하고 혹은 맨머리로 나온 여인네들과 섞여서 어떤 목조건물 앞에 모여 있었다. 그 건물의 문짝에는 튼튼한 참나무 널을 썼고, 또 굵직굵직한 대못이 박혀 있었다.

새 식민지의 창건자들은 애초에 어떤 인간적인 덕성과 행복의 이상향을 계획했든 간에 실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선 그 처녀지(處女地)의 일부를 떼어서 공동묘지로, 또 일부를 떼어서 감옥의 터로 정하는 것이 건설 초기의 필요 사항의 한 가지라는 것을 으레 인정하고들 있었다. 보스턴(Boston)의 조상들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아이작 존슨(Isaac Johnson)의 토지의 일부를 택하여 묘지를 정할 무렵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콘힐(Cornhill) 근처에 감옥을 지었었다고 추측해도 과히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 후 점점 무덤 수효가 늘어서 아이작 존슨의 무덤은 킹스 채플(King's Chapel) 공동묘지에 빽빽이 들어찬 무수한 무덤들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 이민들이 이 거리에 입주(入住)한 지 십오 년 내지 이십 년이 지난 뒤에 이 감옥은 벌써 바람과 비와 기타 시대(時代)의 자취를 남기어 그렇지 않아도 이맛살을 찌푸린 듯한 험상스러운 얼굴에다 한층 더 암담한 표정을 주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참나무 문에 달려 있는 묵직한 쇠고리에 녹이 슬어 있는 것도 이 신세계(新世界)〔America〕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색이 창연해 보였다. 죄악에 관계되는 일이 매양 그러하지만, 이 감옥도 청춘 시대를 모르고 지내 온 듯싶었다. 이 추악한 건물 앞에 풀밭이 있고, 또 건물과 수레 다니는 길 사이에도 풀밭이 있는데, 우엉, 비름, 나팔꽃, 기타 볼꼴 없는 풀들이 꽉 덮여 있었다. 이 풀들은 벌써부터 감옥이라는 문명사회의 악화(惡華)를 맺은 이 땅과 서로 통하는 무슨 성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문간 한편 옆에는 찔레꽃 덤불이 있어, 그 뿌리는 바로 문턱 아래까지 뻗어 있었다. 그리고 덤불 위에는 유월 아침을 맞이하여 귀여운 구슬 같은 꽃송이들이 조랑조랑 달려 있었다. 그들은 죄수가 감옥으로 들어갈 때, 또는 죄가 확정된 죄인이 형장(刑場)으로 끌려나올 때, 대자연의 깊은 마음은 그들을 동정할 줄 알고, 그들에 대하여 친절할 줄도 안다는 표시로 그 향기로운 냄

새와 섬세한 미(美)를 내비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찔레꽃 덤불은 이상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남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황막한 원시시대 땅에서 자라나서 그들 위에 솟아 있던 큰 소나무와 참나무들이 다 쓰러진 뒤까지도 남아 살아 있는 것인지, 또는 죽어 성자(聖者)가 된 앤 허친슨(Ann Hutchinson)이 감옥으로 들어갈 때에 그 발에 밟힌 흙속에서 솟아난 것인지—이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도 있지만—결정을 내리지는 말기로 하자. 이 소설의 이야기는 저 불길한 문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문턱 위에 찔레꽃이 피어 있으니 그 한 송이를 꺾어서 독자에게 진정할 수밖에. 그 한 송이 찔레꽃이 우리의 이야기가 굴러가는 도중에 발견될지도 모르는 어떤 아름다운 도덕의 꽃을 상징하거나, 또는 유혹에 지기 쉬운 인간성과 그 비애의 이야기의 암흑한 결말을 완화시켜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뜻밖의 다행이라 하겠다.

2. 장터

지금부터 약 이백 년 전 어느 여름날 아침, 보스턴의 감옥 거리에 있는 감옥 앞 풀밭 위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모두들 정첩(鋌)을 댄 참나무 문을 뚫어지게 바라다보고들 있었다. 만약 그것이 다른 사회의 일이거나, 뉴잉글랜드(New England)라 할지라도 후세의 일이었다면 이 착한 백성들의 수염이 더부룩한 얼굴을 돌같이 굳게 만든 그 심각한 표정은 무슨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조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적어도 어떤 유명한 죄인을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사형 집행하는—이런 경우에 법정의 판결이란 주민들의 일반적인 감정을 그저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전조가 되는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청교도(Puritan)들의 성격이 아직도 엄격하던 초기에 있어 이러한 추측을 그렇게 쉽사리 내릴 수는 없었다. 그것은 게으름뱅이 흑인 노예나, 또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기어코 그 부모네가 장관 손에 넘겨 보낸 불효자식이 형장에서 태형을 받는 장면일지도 모를 일이며, 또는 안티노미아파(派)(Antinomian)[1]의 사제나 퀘이커(Quaker) 교도[2]나 기타의 이단적인 신자가 회초리를 맞으며 거리에서 쫓겨나가는 장면인지도 모를 일이며, 또는 하는 일 없이 떠돌아다니던 인디언이 백인들이 마시는 화주(火酒)를 마시고 거리에서 발광을 하다가 붙들려서 곤장을 맞으며 숲 그늘로 추방을 당하는 장면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혹은 총독의 심술 사나운 미망인 히빈스(Hibbins)[3] 여사처럼 마술쟁이가 교수대(絞首臺) 위에서 사형을 받는 장면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어느 경우나 구경꾼들의 얼굴에는 대체로 비슷한

1 이 일파는 존 아그리콜라(John Agricola)의 신앙만능론(信仰萬能論)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교도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도덕적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설이다.

2 정식 명칭은 '프렌드 교파(Friend 敎派)'이다. 영국의 조지 폭스(George Fox)에서 시작됐다. 이 일파는 1650년대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기성 교회를 무시하고 종교 정치에 반대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에게 몹시 추해(追害)를 받았다. '퀘이커'란 '몸을 떠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그들의 신앙심이 높아질 때에는 몸을 떤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3 마술(魔術)을 부렸기 때문에 사형을 받았다. 총독의 미망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누이동생이라고 나온다.

엄숙한 표정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들 사회에서는 종교와 법률이 거의 동일했으며, 또 그들 성격 속에서는 종교와 법률이 철저히 융합하여 공중규율(公衆規律)에 관계되는 처벌이라면 극히 중한 것이나 아주 가벼운 것이나 매한가지로 존중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백성들인지라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형대(刑臺) 위에 서 있는 죄인이 이러한 구경꾼들로부터 설혹 동정심을 구한댔자, 그 동정심은 미미하고 쌀쌀한 것이었다. 그 반면에 있어 지금 같으면 어느 정도의 수치나 비웃음을 살 만한 형벌이 그 시대에는 사형이나 받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위엄을 갖추고 나서는 것이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여름날 아침에 구경꾼들 속에 섞여 있는 여자들이 장차 무슨 형벌이 나타나는가 해서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은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그 시대는 아직도 세련되지 못한 시대인지라, 페티코트(petticoat)[4]나 파딩게일(farthingale)[5]을 입은 여자들이 일반 공중 앞에 나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대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 속으로 그 적지 않은 체통을 들이밀고 하는 일을 점잖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은 없었다. 구영국(舊英國)에서 탄생하고 자라난 아내와 딸들은 육칠 대(代) 후 세대의 여자들보다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질이 거칠었다. 육칠 대를 내려오는 동안에 대대의 여자들은 그 어머니보다도 성격의 힘이 약해지거나 부실해진 것은 아니나, 혈색이 연약해지고, 용모가 섬세해지고 청춘 시절이 짧아지고 체질도 약해졌다. 지금 옥문 앞에 모여 서 있는 이 여자들은 남자와 같은 엘리자베스(Elizabeth) 여왕이 여성의 대표로서 그리 부적당할 것도 없던 그 시대로부터 반세기 밖에는 뒤떨어져 있지 않았었다.[6] 그들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같은 나라의 여자들이었다.

그들의 고향 영국의 소고기와 맥주[7]가 그들의 체격을 구성하는 양식이었다고 한다

4 서양 여자들이 입는 치마.

5 허리가 좁고 아래가 떡 벌어진 치마.

6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을 통치한 것은 1558년부터 1603년까지니까, 뉴잉글랜드의 2세(世)들은 약 50년 뒤떨어지는 셈이다.

7 영국 사람들은 소고기와 맥주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도덕의 식사라 함은 교양을 의미한다. 그것도 별로 세련된 것은 아니었다.

면, 그들의 성격을 구성하는 정신의 양식—도덕—도 소고기나 맥주보다 더 세련된 것은 아니었다. 화창한 여름 아침 해가 이 여자들의 넓은 어깨와 발육이 잘된 가슴과 둥그스레하고 붉은 두 볼들 위에 쬐고 있었는데, 그 붉은 볼들은 저 먼 고향 영국에서 무르익은 그대로이지, 이곳 뉴잉글랜드의 공기 속에서 바랠 겨를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주부(主婦)—그들의 대부분은 주부인 모양이었다— 사이에서는 대담한 말과 높은 목소리가 보통이었는데, 현대의 우리가 듣는다면 그 말의 내용에 있어서나 성량(聲量)에 있어서나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여보시오, 마나님들" 하고 오십 남짓한 얼굴이 못생긴 부인 하나가 말을 꺼냈다. "내 소견을 잠깐 말하렵니다. 우리들 다 나이도 지긋하고, 점잖은 신자들이 아닌가요? 그런 우리들이 말이죠, 이 헤스터 프린(Hester Prynne)과 같은 죄인을 다룬다면 일반 공중에 이익이 된단 말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 다섯 사람이 이렇게 삥 둘러 서 있는 앞에 나와서 그 화냥년이 심판을 받는다면 말이죠, 그년이 과연 우리들의 존귀하신 법관님들이 내리신 것과 같은 그런 판결로써 면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저 여자의 목사이신 딤즈데일(Dimmesdale) 목사님은 자기 교당 안에서 그런 나쁜 사건이 나타난 것을 몹시 근심하고 계시대요." 또 한 여자가 말했다.

"법관님들은 다 신앙심이 두터운 훌륭한 양반들이지만, 좀 인자한 마음이 지나치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을철을 당한 부인네의 소리였다. "적어도 헤스터 프린 이마빼기에다 화인(火印)[8] 하나쯤은 찍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라면 그 화냥년도 조금 따끔 했겠지. 정녕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옷가슴에다 헝겊때기[9]나 한 장 붙여 준대봤자, 그 못된 년이 콧방귀나 뀌겠어요? 두고 보세요, 그년이 이제 브로치(broach)나 무슨 그런 이교도들의 패물로 그것을 가리고서는, 여전히 뻔뻔스럽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테니까요."

"아아 그렇지만요" 하고 어린아이 손목을 잡은 젊은 여자가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8 옛날 서양에서는 죄인이나 천업부(賤業婦)의 이마에다 화인(火印)을 찍는 관습이 있었다.

9 주홍 글씨 A를 의미함.

말참견을 했다. “감추고 싶거든 마음대로 감추라고 내버려 두세요. 마음속의 고통이야 갈 데 있나요.”

“이건 다 무슨 소리에요? 가슴 위에다 패를 채우느니 이마 위에다 도장을 찍느니, 그게 다 무슨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기에 모여 있는 자임(自任) 판사들 중에서 동정심도 제일 없거니와 얼굴도 제일 못생긴 여자가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 여자는 우리들 모든 여성에게 망신을 시켰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옳지요. 이런 데 대해서는 법이 없단 말씀입니까? 왜요, 성경에도 있고, 법률집에도 있지요. 이런 훌륭한 법률을 무효로 만든 법관들은 자기네의 아내나 딸들이 탈선을 안 하면 다행인 줄 알아야 할 걸요.”

“부인네들, 마십시오” 하고 군중 속에서 남자 하나가 소리를 쳤다. “교수대를 무서워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도덕심밖에는, 그래, 부인네들은 아무 도덕심도 없단 말씀입니까? 참 한심한 일이로군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옥문에 자물쇠가 돌고 헤스터 프린이 나옵니다.”

옥문이 안으로부터 활짝 열리면서, 마치 어둠 속에서 환한 햇빛 속으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은 무섭고 험하게 생긴 형리(刑吏)였다.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는 관장(官杖)을 쥐고 있었다. 이 사람의 직책은 청교도 법률을 여지없이 가혹하게 죄인에게 집행하는 일이지만, 그 얼굴 속에 벌써 음산한 가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형리는 왼손으로는 관장을 내밀고 오른손으로는 여자의 어깨를 잡으면서,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었다. 여자는 문턱까지 끌려나오다가 형리의 손을 홱 뿌리치고, 마치 자기 자신의 자유의사로 걸어 나오는 것처럼 환한 데로 성큼 나섰는데, 그 태도 속에는 천연적인 인품과 기개가 풍겨 있었다.

품안에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데, 난 지 겨우 석 달 밖에 안 되는 갓난아기였다. 갑자기 환한 햇볕을 쬐자 어린아이는 눈을 깜박거리며 조그만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말았다. 석 달 살아오는 동안 이 아이는 어실어실한 지하실이 아니면 컴컴한 감방밖에는 모르고 지내왔으니까 의당 그러할 것이다.

젊은 어머니가 군중 앞에 완전히 자태를 나타내자 어린아이를 가슴에 부둥켜안는 것이 제일 먼저 솟아나는 감정인 듯싶었다. 그러나 모성애의 본능에서 그렇게 했

다는 것보다는 그 옷에다 꿰맸거나 혹은 달아 놓은 어떤 표적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치의 증거, "갓난아기"를 가지고 다른 표적을 감춰 보았자 잘 되지 않을 것을 현명하게도 판단하고, 어린아이를 도로 팔에다 안더니 여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거만한 미소가 떠돌고, 두 눈에는 조금도 수줍어하지 않는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그 옷가슴에는 고운 붉은 천으로 A자를 오려 달았는데, 글씨 언저리에는 금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고, 또 현란한 화초 무늬를 두르고 있었다. 그것은 호화 풍려(豐麗)한 상상력과 예술적인 솜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자가 입고 있는 옷에다가 최고의 장식적 효과를 나타낼 만했다. 그 화려한 치장은 그 시대[10]의 취미에 맞는 일이었지만, 아메리카 식민지의 사치법(奢侈法)[11]은 엄중히 금하는 것이었다.

이 젊은 여인은 키가 크고 어디 한군데 흠잡을 데 없는 몸맵시였다. 머리카락은 까맣고 숱이 많은 데다, 광택이 돌아서 햇빛이 번들번들 반사되고 있었다. 얼굴 모양이 단정하고 안색이 호화스러운 데다가, 이마가 번쩍 들리고 까만 눈이 움푹 패어서 몹시도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귀부인다운 용자(容姿)를 구비하고 있었다. 지금 세상[12]에서는 섬세하고 연약하고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우미(優美)한 것을 귀부인의 표징(表徵)으로 삼고 있지만, 그 시대는 위풍(威風)이 있고 점잖은 것이 귀부인의 특징이었다. 헤스터 프린이 감옥에서 나올 때보다도 더 귀부인답게 보인 적은 없었다. 여기서 귀부인답다는 말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옛날 해석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전의 이 여자를 아는 사람들은 헤스터가 환란의 구름에 덮여 그 모습이 흐려지고 컴컴해졌을 것으로 예상했건만, 그 얼굴이 한층 더 빛나고 첩첩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불행과 치욕의 그늘에다 도리어 해무리〔後光〕를 던져 주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예민한 관찰가였다면 이러한 헤스터의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가슴 아픈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그 복색은 이번 행사에 입기 위하

10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는 영국에서 가장 사치한 시대였다.

11 평민의 사치를 금하고 특권계급의 위신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법령(法令)인데, 대략 13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실시되었다.

12 호손이 이 글을 쓴 시대는 19세기 중엽, 즉 낭만주의〔romanticism〕 시대이다.

여 헤스터 자신이 옥중에서 일부러 만들었고 또 공상(空想)이 달리는 대로 꾸며낸 것이라 그 자유분방한 회화적(繪畵的) 특색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현재 헤스터의 정신적 태도—걷잡을 수 없는 막다른 기분—를 여실히 표현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헤스터 자신을 완전히 변모시켜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게 된 초점은 기괴한 수를 두르고 그의 가슴을 환하게 비춰 주는 주홍 글씨였다. 그래서 이전의 헤스터 프린을 친히 아는 사람들은 지금 그를 처음 보는 것 같은 인상을 갖게끔 되었다. 그 글씨는 일종의 마력을 가지고 헤스터를 보통 인간관계로부터 분리하여 고독한 세계 속에 가둬 버리는 듯했다.

"그년 바느질 솜씨야 사실 그만이지." 여자 구경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저렇게 요란스럽게스리 죄의 표식을 고안해 내는 건 저 뻔뻔스러운 화냥년이 아마도 처음일 거요. 여러분네, 저거야말로 존귀하신 우리의 법관들을 면대해서 비웃으면서, 그분들이 죄로 생각하고 내리신 것을 도리어 자랑거리로 삼는 거지 뭐요?"

"저 간사스러운 어깨로부터 그 호사스러운 가운을 벗겨 버리면 좋지." 노파들 중 가장 쌀쌀하게 생긴 것이 입속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괴상스럽게 꿰매 단 주홍 글씨 대신에 내 속곳 갈래라도 찢어주련다. 그것이 더 어울릴 거야."

"여러분들 좀 조용하십시다." 그들 중 제일 젊은 여인이 소곤소곤 말했다. "그 여자에게 들리지 않도록들 하세요. 수놓는 바늘 하나하나가 그 여자의 가슴을 찌르지 않은 것은 없답니다."

무서운 형리가 막대기를 들며 고함을 쳤다.

"자 여러분, 비키시오! 비켜! 국왕님의 명령입니다. 길을 터놓으시오. 지금부터 정오 지나 한 시까지,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여자의 화려한 복색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에, 미스트레스(mistress) 프린을 세워둡니다. 죄지은 자를 백일천하에 끌어내는 우리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의 법이 얼마나 공정한가를 아시오. 자, 마담 헤스터, 날 따라와. 그리고 그대의 주홍 글씨를 장(場) 바닥에서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란 말이야."

구경꾼들 속에 곧 좁은 길이 틔어졌다. 맨 앞에는 형리가 서고, 그 뒤에는 얼굴

이 꺼멓고 무서운 사내들과 쌀쌀하게 생긴 여자들이 질서 없이 와와 따라가는 틈에 끼어서 헤스터 프린은 지정된 형장(刑場)으로 걸어갔다. 호기심을 가진 학교 아동들이 뭣도 모르고 다만 오늘 반공일(半空日) 휴가를 얻었다는 것이 기뻐서, 행렬 앞에 달음박질치고 있었다. 달음박질하면서도 연해 머리를 돌려 프린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품에 안긴 눈을 깜박거리는 갓난아기를 엿보기도 하고, 또는 프린의 가슴에 달려 있는 수치스러운 글씨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옛날에는 감옥에서 장(場)거리까지 그다지 먼 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끌려가는 죄수의 경험을 가지고 잰다면 그것은 상당히 먼 거리라고 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태도는 거만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보려고 모여든 구경꾼들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서 헤스터는 무한한 고통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심장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사람이 와서 걷어차고 짓밟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격이었다. 인간의 천성 속에는 불가사의하고도 자비로운 하느님의 섭리가 있어 형벌을 받을 때에는 그 아픈 것을 모르고 나중에 가슴을 쑤시는 고통으로써 비로소 자기가 받은 형벌을 깨닫게 된다. 그런고로 헤스터 프린도 거의 태연한 태도로 시련의 일부분을 무난히 통과하여 장터 서쪽 끝에 있는 형대 앞까지 왔다. 그것은 보스턴에서 제일 먼저 지은 교당 추녀 끝에 달아 지었는데, 얼른 보면 교당의 부속 건물 같아 보였다.

사실상 이 형대는 그 당시 형벌 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이삼 대(代)가 지난 현대에는 다만 역사적 유물로서만 남아 있지만 옛날에는 마치 프랑스혁명당원—테러리스트—들 사이에서 단두대가 생각되고 있던 것과 같이 선량한 시민 도덕을 향상시키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형구(刑具)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얼른 말하면 그것은 일종의 가쇄단(枷鎖壇)이었다. 이 단 위에 징벌도구의 틀이 서 있는데 사람의 머리에 칼을 씌우고 일반 공중이 볼 수 있게 얼굴을 쳐들도록 만든 장치였다. 죄인에게 욕을 보인다는 사상이 나무와 무쇠로 만든 그 기구 속에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 개인의 과실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 죄인으로 하여금 얼굴을 감출 수 없게 한다는 이 형벌보다도 더 인간의 공통적인 본능에 위반되는 무법(無法)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형벌의 요점은 결국 이것이다. 다른 죄인들의 경우에도 바이없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 헤스터 프린의 경우에도 판결문에는 헤스터 프

린을 일정한 시간 가쇄단 위에 세워 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목에다 칼을 씌우고 얼굴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그렇지만 걸핏하면 죄인에게 이런 욕을 보인다는 것이 이 흉악한 형구의 고약한 특징이다. 자기의 역할을 잘 알고 있는 헤스터는 나무 층계를 올라가 둘러싸고 있는 군중 앞에 나섰다. 이 형단의 높이는 어른 어깨 키만 하였다.

이때에 만약 군중 속에 가톨릭 신자가 있었다면 그는 옷치장이나 얼굴 모양이 그림같이 고운 데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 속에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 무엇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렇게도 다수의 유명한 미술가들이 다투어 그리려고 하던 그 모습, 이 세계를 구제해 주실 어린아이를 낳으신 순결한 모성의 신성한 모습—물론 비교적이지만, 이런 모습을 연상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광경을 보면 인간 생활의 가장 신성한 성질 속에 가장 심각한 죄악의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한층 더 어두워 보이고, 그 품안에 안긴 어린아이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한층 더 하느님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 장면에는 엄숙한 기분이 떠돌고 있었다. 동포 인간이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전율을 느끼는 대신에 웃어버릴 만큼 사회가 아주 부패하기 전 시대에 이러한 장면에는 으레 엄숙한 기분이 지배하기 마련이었다. 헤스터 프린의 수형(受刑)을 목격하는 이 사회는 아직도 단순하고 소박한 단계를 지나지는 않았었다. 설혹 헤스터의 판결이 사형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형 집행의 광경을 그대로 보고 있을 만큼 엄숙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경을 보고 그저 농담거리로 삼는 그러한 몰인정한 사회는 아니었다. 이 사건을 웃음거리로 돌리고 싶은 기분이 설혹 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총독, 수 명의 고문관들, 판사, 장군, 목사들과 같은 위엄 있는 사람들의 엄숙한 얼굴 앞에서 그러한 기분은 질려서 압도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들은 공관(公館) 발코니에 혹은 앉고 혹은 일어서서 밑에 있는 형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러한 인물들이 그들의 지위와 관직의 위엄을 손상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관중의 일부분이 될 때에 판결의 집행이 엄숙하고도 효과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아도 조금도

그릇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로써 지금 관중은 음침하고 정숙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를 뚫어지게 주목해 보고 특히 시선이 그 가슴으로 집중되는 무언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 불행한 죄인은 여자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몸을 버티고 서 있었다. 그것은 참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다. 가지가지의 모욕으로 나타나는 일반 공중의 거만 무례한 태도가 가시처럼 혹은 독을 칠한 단도처럼 달려들지라도, 원체 감정에 흐르기 쉽고 열정적인 이 여인은 그것을 꾹 참으려고 단단한 결심을 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엄숙한 기분 속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은 차라리 저들의 저 딱딱한 얼굴이 자기를 보고 비웃는 얼굴로 씰그러졌으면 오죽이나 좋을까 생각할 지경이었다. 사내, 여자, 목소리가 높은 어린아이들이 제각기 한 마디씩 웃어 대면서 군중 속으로부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면 헤스터 프린은 도리어 격분과 멸시로써 대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납덩어리처럼 무거운 이 형벌을 받으려니, 여인은 간간이 허파의 김을 모두 다하여 고함을 지르면서 형대에서 뛰어내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발광을 할 것처럼 느껴졌다.

지금 자기가 맨 중심이 되어 있는 장면 전체가 별안간 눈앞에서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다시 희미하게 나타나서 서투른 그림이나 허공에 나타나는 환상의 떼처럼 껌벅거렸다. 헤스터의 정신력과 기억력은 보통 사람보다도 강했기 때문에, 서부 광야의 접경에 있는 이 조그만 도시의 거칠고 투박한 거리들의 풍경이나, 운두가 뾰족한 모자, 넓은 챙 밑으로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얼굴들과는 다른 딴 풍경이나 얼굴들을 자꾸만 눈앞에 그려 보고 있었다. 지극히 쇄말(瑣末)하고 대수롭지 않은 가지가지의 기억, 어렸을 적과 학교에 다니던 때의 생각, 운동하던 때와 아이들과 싸우던 장면, 처녀 시절 친정에서 지내 오던 일들—이 모든 것이 그 후에 나타난 중대한 사건들의 추억과 엉클어져서 머릿속에 구름 떼처럼 솟아올랐다. 기억 하나하나가 똑같이 선명하여 마치 다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전체가 한 편의 연극 같기도 했다. 그것은 아마도 잔인한 형벌과 가혹한 현실에서 도망하기 위하여 그의 정신력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과거의 환상들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이 형대는 헤스터가 행복하던 소녀 시절부터 걸어온 길을 지금 그에게

환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망루였다. 이 처참한 망루 위에 서니 구 영국에 있는 고향 마을과 그 마을에 있는 친정집이 보인다. 거무스레한 돌로 지은 퇴락한 집, 비록 가난에 병든 것 모양이었으나마, 현관 위에는 반쯤 지워진 가문(家紋)이 남아 있어 유서 깊은 가문(家門)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아버지 얼굴이 보인다. 이마 위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점잖은 수염이 하얗게 세어 구식인 엘리자베스 시대의 주름깃〔褶衿〕 위에 나부낀다. 어머니의 얼굴도 보인다. 추억 속에서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얼굴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해 보고 근심해 주시는 표정이 떠돌고 있었으며, 또 그러한 표정은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주 딸이 걸어가는 인생 행로에 자애로운 충고라는 방해물을 놓아주곤 하였다.
헤스터 자신의 얼굴이 보인다. 한창 피어오르는 처녀의 꽃 같은 얼굴이 항상 들여다보는 컴컴한 거울 속을 환히 비춰 준다. 또 하나 얼굴이 보인다. 어지간히 나이 먹은 사내 얼굴—혈색이 좋지 못하고 살이 빠지고 어디인지 모르나 학자다운 모습이다. 여러 해 등불 밑에서 두툼한 책들을 정독(精讀)하는 동안에 안력은 약해지고 눈 껍질이 짓물렀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을 판독(判讀)하려고 할 때에 그 짓무른 눈은 비밀을 뚫고 들어가는 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헤스터는 역시 여인인지라 이 서재승방(書齋僧房)의 인물을 회상할 때마다 으레 그 기형됨을 발각해 낸다—왼편 어깨가 오른편 어깨보다 약간 높다. 추억의 화랑(畵廊) 속에서 다음번에 나타나는 장면은 유럽 대륙 어떤 도시의 좁고 고불고불한 길거리들, 높고 컴컴한 집들, 굉장한 교회들, 공공건물들, 그 밖에도 오래된 기묘한 집들이다. 여기에서 새살림이 헤스터를 기다리고 있었다—기형의 학자와 관계는 아직도 여전하고 새살림이라고는 하나, 그것은 마치 쓰러져 가는 담 위에 돋아난 푸른 이끼 모양으로 케케묵은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러한 새살림이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이 장면들 대신에 청교도 식민지의 시커멓고 거칠거칠한 장터가 나타난다. 거리 사람들이 모여들어 무서운 눈초리로 헤스터를 흘겨본다. 이렇게 눈살을 맞고 있는 사람은 헤스터—갓난아기를 품안에 안고 금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주홍 글씨를 옷가슴에 달고 형대 위에 서 있다.
그것은 참말일까? 헤스터는 별안간 어린아이를 껴안았다. 어린아이는 놀라서 으

앙 하고 울었다. 헤스터는 머리를 수그리고 주홍 글씨를 보았다. 심지어 만져 보기까지 했다. 그러고는 어린아이와 그 수치스러운 표적이 다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그것들은 다 현실이었다. 기타 모든 것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다.

3. 발견

주홍 글씨를 달고 있는 여인은 군중 변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마음을 붙드는 한 인물을 발견하자, 마침내 뭇사람의 무서운 눈살을 맞아 가며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는 강렬한 의식으로부터 구원되었다. 인디언 한 사람이 인디언 옷을 입고 거기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인디언이 영국 식민지를 찾아온다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으니까 보통이라면 인디언의 모양이, 특히 이런 때에 헤스터 프린의 주목을 끌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헤스터의 마음속으로부터 기타 모든 인물과 생각을 몰아낼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인디언 바로 곁에 분명히 그 인디언의 친구처럼 보이는 백인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문명인의 옷과 야만인의 옷을 괴상야릇하게 섞어서 입고 있었다.

그는 키가 작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잡혔으나, 아직 노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의 얼굴에는 총명한 지혜가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오래 정신 수양을 하여 얼굴 모습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러한 힘이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외부에까지 나타나게 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얼른 보면 잡색 옷을 되는 대로 걸쳐 입은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기괴한 체격을 감추거나 혹은 좀 덜 나타나게 하려고 해 본 것이지만 그의 한편 어깨가 다른 편 어깨보다도 높다는 것은 헤스터 눈에는 뻔히 보였다. 초췌한 얼굴과 다소 기형적인 그 몸을 보자마자 헤스터는 다시 한 번 아이를 꽉 껴안았다. 그래서 아이는 다시 한 번 으앙 하고 울었다. 그러나 어머니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 낯선 사나이는 장터에 들어온 후 곧 헤스터가 그를 채 발견하기도 전에 헤스터를 주목해 보았었다. 인간의 정신 내부를 살펴보는 것에 익숙했고, 그래서 내부 정신과 관계를 갖지 않는 외부의 물질은 아무 가치도, 중요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그도 처음에는 이 여자를 그저 시시하게 보고 있었다. 그러다 별안간 그의 두 눈이 찌를 것처럼 날카로워졌다. 몸이 비비 틀리는 증오심이 그의 얼굴을 지나갔다. 마치 뱀이 얼굴 위를 스르르 기어가다가 잠깐 정지하고 똬리를 트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격렬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시커

메졌다. 그러나 그는 의지력을 가지고 금세 그 표정을 억제하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그 한순간 말고는 그 표정이 태연한 안색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조금 더 지나니까 그의 감정의 격동은 외면으로는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그의 천성 깊은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헤스터 프린이 자기를 뚫어질 듯이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자가 자기를 알아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허공에 몸짓을 해 보이더니 그 손가락을 자기 입술 위에다 놓았다.

그는 자기 곁에 서 있는 거리 사람의 어깨를 치면서 격식을 차리는 정중한 말로 물었다.

"여보시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이며, 또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 이 양반, 이 지방에는 생소한 모양이로군." 거리 사람은 질문자와 그 동행인 인디언을 이상스럽게 보면서 대답했다. "이 지방 양반 같으면 반드시 헤스터 프린의 소문을 들었을 텐데. 저 여자는 신성한 딤즈데일 목사님 교당 안에서 대단히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나는 이 지방에는 생소한 사람이오. 본의가 아닌 방랑 생활을 오래 해 왔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많은 재앙을 만나, 저 남쪽에 있는 이교도들에게 붙잡혀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디언이 내 몸값을 받고 나를 노예에서 풀어주기 위하여 따라온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만 헤스터 프린—옳게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저 여인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 때문에 저렇게 형대에 끌려 나왔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야만지에서 오래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훌륭한 땅—죄지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내다가 위정자와 백성들 앞에서 처벌하는 뉴잉글랜드 같은 훌륭한 나라에 오게 되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저기에 있는 저 여자는 어떤 영국 출생 학자님의 아내였습니다. 오래 암스테르담에 살다가 몇 해 전에 우리들이 사는 이 매사추세츠로 이주할 작정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볼일을 처리하고 있었더랍니다. 아, 그런데 여자가 보스턴에서 이 년

나마 사는 동안 남편한테서는 한 번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독수공방을 지키다가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단 말입니다.”
“아하—잘 알겠습니다.” 낯선 사나이는 씁쓸한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학자님은 이런 것도 좀 책에서 배워 두었다면 좋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례올시다만 여자 품안에 안겨 있는 저 어린아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보니까 난 지 서너 달 되는 모양인데.”
“사실 말씀이지. 그것은 아직도 수수께끼랍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만한 다니엘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거리 사람은 대답했다. “마담 헤스터는 절대로 자백을 안 합니다. 법관들이 구수회의(鳩首會議)를 했지만 소용이 있나요? 범인은 필시 이 슬픈 광경을 사람들 모르게 서서, 그러나 하느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구경하고 있을 겁니다.”
“학자님 자신이 와서 비밀을 조사해 보면 좋을 텐데.” 낯선 사나이는 또 한 번 씽긋 웃으면서 말했다.
“아직도 생존해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겠죠.” 거리 사람이 대답했다. “그런데 우리 매사추세츠의 법관들은 이 여자가 젊고 미인이며, 또 그 남편은 틀림없이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에게 우리의 정당한 법률을 극단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벌은 물론 사형이죠. 관대한 처분으로 헤스터 프린은 세 시간 동안만 형대에 서고 그 후로는 죽는 날까지 저 수치의 표적을 가슴에 달고 다니기로 되었답니다.”
“참 현명한 판결입니다.” 낯선 사나이는 엄숙히 머리를 수그리며 의견을 말했다. “그래야 저 여자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산 설교가 될 것입니다. 저 수치스러운 글씨가 무덤 비석에 새겨지는 날까지. 하지만 이 죄악의 공범이 저 형대에 나와 여자 옆에 서 있지 않은 것은 화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알게 되겠죠! 알게 되고 말고요! 되고 말고요!”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는 거리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따라온 인디언에게 몇 마디 수군거리더니 두 사람은 군중을 헤치고 사라져 버렸다.
이러는 동안 헤스터 프린은 여전히 형대 위에 서서 낯선 사나이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너무도 강하게 쏘아보니까 나중에는 정신이 완전히 그쪽으로 흡수되어 지금까지 눈앞에 보이던 모든 물체가 사라져 버리고, 다만 그 사나이와 자기 두 사람만이 남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지금 헤스터는 뜨거운 백주 태양이 얼굴을 내리쬐고 그 수치를 환하게 비춰 주는 한복판에서 수치의 표적을 가슴에 달고 죄악 속에서 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다. 그리고 거리 사람들은 무슨 축제일이나 당한 것처럼 모두 쏟아져 나와서 가정의 아늑한 난로의 희미한 불빛에서나 혹은 교회당에서 면사포를 쓰고 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을 보고 있다. 그러나 헤스터가 저 낯선 사나이와 단독으로 만났다면 이러한 가운데서 만나는 것보다도 더 무서웠을 것이다. 이렇게 수천 명 목격자 앞에 서 있는 것이 한편 무섭기는 하지만 또 한편 그것이 도리어 숨을 곳이 된다는 것을 헤터스는 잘 알고 있었다. 자기네 단 두 사람이 면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천 명 군중을 사이에다 두고 만나는 것이 훨씬 낫다. 헤스터는 말하자면 숨을 곳을 찾아 군중의 면전으로 뛰어 들어온 셈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물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을 두려워했다. 이러한 생각에 마음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헤스터는 자기 등 뒤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모든 군중이 알아들으라고 높고 엄숙한 음성이 다시 한 번 그의 이름을 외칠 때까지 헤스터는 듣지 못했다.

"여봐라, 잘 들어라. 헤스터 프린이여!" 헤스터 프린이 서 있는 형대 바로 위에 공관에 부속된 일종의 노대(露臺)가 있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관리들을 모아 놓고 공식 행사에 필요한 예식을 갖추면서 유고(諭告)를 내리는 장소였다. 이 노대 위에 벨링햄(Bellingham) 총독이 앉아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총독이 앉아 있는 의자 주위에는 군졸 네 명이 창을 들고 서서 일종의 의장병(儀仗兵) 노릇을 하고 있었다. 총독은 검은 새의 깃이 달린 모자를 쓰고 도련에 수놓은 저고리를 입고 검은 우단(羽緞) 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신사인데, 얼굴 주름살 속에 가혹한 인생 체험이 나타나 있었다. 이 식민지의 시초와 진보와 현재의 발전 상태는 그 근원이 청년의 일시적인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년의 엄격 냉정한 정력과 노년의 지혜 속에 있느니만큼(이 식민지가 이 만큼 발달한 것은 최초에 상상하고 희망한 것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벨링햄은 이 사회의 두령이

며 겸하여 대표자가 되기에 부적당하지 않았다. 총독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고관들은 모두 다 위엄 있는 모양을 차리고 있었다. 관권(官權)의 모든 형식은 하늘이 정해 주신 제도의 신성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던 옛날에는 관리들은 으레 그러했다. 그들은 물론 착하고 바르고 어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과실을 범한 여자의 마음을 심판하고 복잡 미묘한 선악의 갈피를 바로잡는 데 지금 헤스터 프린이 대면하고 있는 이들보다도 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전 인류 가족 중에서 골라내기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마당에서 인간의 동정심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따뜻한 저 군중 가슴속에 있다는 것을 헤스터는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기에 눈을 들어 노대 위를 볼 때에, 이 불행한 여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몸이 덜덜 떨렸던 것이다.

헤스터의 주의를 깨우친 목소리는 유명한 존 윌슨(John Wilson) 목사의 음성이었다. 보스턴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목사인데 대학자였다. 또 그 시대의 대부분 목사들과 같이 친절하고 온정미 있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온정미는 그의 이지만큼 발달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윌슨과 같은 대목사의 경우에 있어 자랑거리보다는 수치거리였다. 반백 머리에 주교 모자를 쓰고, 그는 서 있었다. 평소에 컴컴한 서재의 그늘진 광선에만 익숙한 회색빛 눈은 헤스터의 갓난아기 눈처럼, 티끌 하나 없는 햇빛에 깜박거리고 있었다. 옛날 설교집 면지에 붙어 있는 판화(版畵) 초상화 같은 얼굴이었다. 그 초상화가 설교집에서 걸어 나와서 인간의 죄와 열정과 고민의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노대에 나타나서 헤스터의 문제를 운운할 자격은 없었다.

“헤스터 프린이여!” 하고 목사는 말을 시작했다. “나는 네가 영광스럽게도 그 설교를 배청(拜聽)할 수 있었던 이 젊은 형제와 오래 토론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는 자기 곁에 앉아 있는 얼굴이 창백한 젊은이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현명하고 공정하신 위정자들 앞에서, 일반 주민들이 듣는 데서, 네 죄의 비루함과 흉측함을 너에게 간유(諫諭)하는 데는 이 분이라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 드렸다. 네 성질을 나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만큼, 이런 중대한 타락으로 너를 유인한 남자의 이름을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도록 너의 고집을 꺾기 위하여 혹은 달래고

혹은 위협하는 데 있어, 이 형제는 나보다 유능한 심판자이시다. 그러나 이 형제는 젊은이치고는 지나치게 현명한 분이지만, 역시 젊은이의 지나친 친절심으로써 내게 반대해 말하기를, 대낮에 이렇게 다수의 군중 앞에서 억지로 여자의 비밀을 폭로시킨다는 것은 여자의 천성 그 자체를 그르치는 일이라 하였다. 나도 이 분에게 설명하려고 한 바이지만 수치는 죄를 범했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그 죄를 외부에 표시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딤즈데일 형제, 다시 묻거니와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 가엾은 죄인을 취급하는 사람은 당신이라야 옳겠습니까, 나라야 옳겠습니까?”

노대를 점령하고 있는 관리와 목사들 사이에서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벨링햄 총독은 권위 있는 목소리로, 그러나 충분한 존경심을 가지고, 윌슨 목사가 수군거리던 이야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딤즈데일 목사님, 이 여자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고로 이 여자를 권고하여 회개시키고, 회개했다는 증거로서 자백을 시킨다는 것은 마땅히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장관이 솔직하게 호소하는 말을 듣고 군중의 시선은 일제히 딤즈데일 목사에게로 모였다. 그는 영국의 대학들 중에서 가장 이름 있는 어떤 대학을 나온 젊은 목사였다. 그는 당대의 학문 전체를 이 원시림의 나라로 수입한 사람이었다. 그의 웅변과 열렬한 신앙심은 그가 장래에 고명한 목사가 되리라 하는 보증을 이미 그에게 주고 있었다. 허여멀건 이마가 드높아서 눈과 천야만야(千耶萬耶)인데, 둥근 갈색 눈에는 우울한 빛이 가득 차 있고, 입은 힘 있게 다물 때가 아니면 언제나 약간 떨려 신경질적인 예민성과 강한 자제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천부(天賦)의 재질(才質)과 학문의 수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목사의 풍모 속에는 약간 보통과 다른 점이 있었다. 무엇인가 근심하는 듯한, 깜짝 놀란 듯한, 혹은 반쯤 겁난 표정—마치 “나는 인생행로에서 길을 잃어 갈 바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숨어 살아야만 안심이 됩니다” 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사 직책이 허락하는 대로 그는 그늘진 오솔길을 걸으면서 단순한 아동 같은 생활을 했다. 이런 은둔 생활에서 나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는 청신한 표정과 향기와

이슬같이 순결한 사상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천사의 말을 듣는 것 같은 감명을 받는다고들 말했다.
윌슨 목사와 총독이 군중 앞에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여자의 신비한 영혼—비록 오독(汚瀆)되었으나 여전히 신성한 여자의 영혼—에 대하여 말해보라고 요청한 목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된 청년 목사는 두 볼에서 핏기가 없어지고 입술은 떨렸다.
"나의 형제, 저 여인에게 말씀하시오." 윌슨 목사는 말했다. "저 여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중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 여인의 영혼을 감독하시는 형제에 대해서도 중대한 일입니다. 사실을 자백하라고 권하십시오."
딤즈데일 목사는 머리를 수그리고 묵묵히 기도하는 것 같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헤스터 프린." 그는 노대 난간 위에 몸을 구부리고 여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지금 윌슨 선생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겠지. 또 나의 곤란한 책임도 알았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 영혼의 평강에 대하여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의 지상 형벌이 그대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대는 그대와 더불어 죄를 범했고 그대와 더불어 고난을 받는 그 남자의 이름을 말할 것을 명하노라. 그 남자에 대한 그릇된 동정심이나 자비심으로 인해서 침묵을 지키지는 마시오. 비록 그 남자가 어떤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수치스러운 형대 위 그대 옆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일평생 죄스러운 마음을 숨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 것이오. 그대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말하자면 그로 하여금 죄에다 위선을 덧붙이도록 유혹—아니 강제하는 외에 그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을 것인가? 하느님은 그대에게 공중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어 그대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마음 밖에 있는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셨소. 그 남자는 아마도 스스로 그런 좋은 기회를 붙잡을 용기가 없는 모양이니, 지금 그대의 입술에 선물된 쓰디쓴, 그러나 유익한 그 술잔을 어찌 그에게 거절하는가. 깊이 계심(戒心)하시오."
청년 목사의 음성은 떨리면서도 곱고 풍족하고 깊고 띄엄띄엄 했었다. 말하는 직

접 내용보다도 연중 나타나 있는 감정이, 듣는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려 그들을 한 가락 공명으로 일치시켰다. 헤스터 품에 안겨 있던 갓난아기까지도 감화를 받아, 물끄러미 허공을 쳐다보던 시선을 목사에게로 돌리며 그 조그만 두 주먹을 쳐들고, 반은 기쁜 듯 반은 슬픈 듯한 소리를 내었다. 목사의 호소가 어떻게도 힘이 있었는지 사람들은 헤스터가 죄인의 이름을 부르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자 자신이 그 지위의 귀천을 막론하고 어쩔 수 없는 심정에 끌려 선뜻 나서서 형대로 올라올 줄만 알았다.

헤스터는 머리를 흔들었다.

“여자여, 하느님의 자비심에는 한도가 있으니. 그 정도를 삼지 말라.” 목사는 전보다도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저 어린아이도 음성을 낼 수 있는 재주를 타고나서, 네가 이제 들은 그 훈계를 알아들었다는 표시를 했다. 남자의 이름을 자백하라! 이름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네 가슴에서 주홍 글씨를 떼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헤스터 프린은 윌슨 목사의 얼굴이 아니라 청년 목사의 근심 많은 눈을 쏘아보면서 말했다. “이 죄악의 화인은 너무도 깊이 찍혀 있습니다. 도저히 표적을 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자신의 죄악과 동시에 그이의 고민도 같이 참으려 하옵니다.”

“이년 말해라!” 형대를 둘러싼 군중 속에서 엄숙하고도 쌀쌀한 음성이 부르짖었다. “말해라. 그리고 네 아이에게 아비를 찾아 주어라.”

“말하지 않아요!” 헤스터 프린은 시체같이 얼굴이 하얘지며 대답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헤스터는 잘 알고 있었다. “내 아이는 하늘 아버지를 찾아가지요. 지상의 아버지는 알리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노대에서 내려다보면서 자기 설유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딤즈데일은 이렇게 입 속에서 중얼중얼 말했다. “참 굳세고 도량이 짧은 여자의 마음이로군. 절대로 말하지 않으렵니다.”

가련한 죄인의 마음이 완고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윌슨 목사는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던 죄악에 관한 연설을 군중 앞에서 하기 시작했다. 죄악 문제의 모든 부문을 취급하되, 특히 주홍 글씨에 대해서 자주 말했다. 도도한 연설이

한 시간 너머 군중의 머리 위를 흘러갈 때에 주홍 글씨는 사람들 사상 속에서 한층 무서운 모양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글씨의 주홍색은 마치 지옥 굴속 불길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다. 연설을 하는 동안 헤스터 프린은 수치의 단 위에 까딱도 안 하고 서 있었는데 눈은 흐릿하고, 얼굴에는 피곤한 무관심의 표정이 떠돌고 있었다. 헤스터는 그날 아침 인간이 참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참았다. 그의 성질은 기절함으로써 강렬한 고통을 피하는 그러한 부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무감각이라는 돌같이 굳은 외피를 뒤집어쓰고 동물적인 생활 기능을 안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목사의 설교는 우레처럼 사정없이 헤스터의 귀를 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시련이 반쯤 지나자 어린아이는 찌르는 듯한 목소리로 울어댔다. 아이 울음을 멈추려고 기계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어린아이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동정도 안 하는 것 같았다. 감옥으로 다시 끌려들어갈 때에도 꼭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이래서 헤스터는 군중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쇠 빗장을 지른 옥문 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감옥 안 컴컴한 길을 지나갈 때에 주홍 글씨는 이글이글 불타는 광선을 던지고 있었다고, 뒤를 따라가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고들 있었다.

4. 대면(對面)

감옥으로 돌아온 뒤에 헤스터는 극도로 흥분 상태였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에 무슨 폭행을 가하지나 않을까, 혹은 또 그 가엾은 어린아이에게 반미치광이 짓을 해서 상처를 입히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부절한 경계가 필요했다. 밤이 되자 흥분은 더욱 심해서, 꾸짖어도 위협해도 여자의 발악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그래서 브래켓(Brackett) 전옥은 의사를 불러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브래켓이 말하는 의사란 그리스도교 의술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인디언들이 약초와 산의 풀뿌리 등속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을 죄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실을 말하면 헤스터 자신에 대해서도 전문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더 급했다. 어머니 가슴에서 젖을 빨아먹고 사는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 체내에 편만(遍滿)된 흥분과 고민과 절망을 젖과 함께 빨아들인 모양이었다. 어린아이는 지금 경풍을 일으켜 몸이 비비 꼬이고 있었다. 그 어머니가 그 하루 동안 참아오던 정신적 고통이 이 어린 신체 내부에서 악화되었다는 유력한 증상이었다.

전옥의 뒤를 따라 음침한 감방에 들어온 사람은 괴상하게 생긴 저 노인—군중 속에 끼어서 주홍 글씨를 가슴에 찬 여인으로부터 그렇게도 심각하게 주의를 끌던 노인이었다. 그는 이 감옥 안에 유하고 있었다. 무슨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몸값을 치르고 그를 빼내 오는 데 관하여 관리들이 인디언 추장들과 교섭이 끝날 때까지 여기에다 두는 것이 제일 적당한 처사라 하여 그리된 것이었다. 그 이름은 로저 칠링워스(Roger Chillingworth)라 했다. 전옥은 그를 안내해 가지고 들어와서 잠시 머물러 있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방안이 좀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전옥은 퍽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린아이는 아직도 울고 있었지만 헤스터 프린은 곧 죽은 사람처럼 잠잠해졌다.

"미안합니다만 이 여자와 나와 단둘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의사는 말했다. "내게다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곧 이 감옥 안을 조용하게 만들어 드리리다. 그리고 미스트레스 프린은 앞으로 이전보다도 순종하게 될 것을 장담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선생은 참 명의이십니다." 브래켓은 말했다. "이 여자는 꼭

무엇에 들린 여자 같았습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여자의 정신 속에서 마귀를 몰아내는 일이라면 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낯선 사나이는 방 안에 들어올 때, 자기도 그 한 사람이라고 자칭하는바 의사다운 침착한 태도로 들어왔다. 전옥이 물러가고 자기와 여자 단 두 사람이 서로 대면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안색은 변함이 없었다. 여자가 군중 속에서 이 남자를 발견했을 적에 그렇게까지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표시하고 있었다. 칠링워스는 먼저 어린아이 병부터 보았다. 그 아이는 바퀴 달린 침대 위에서 몸부림을 치며 울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 아이를 진정시켜 주는 것이 급한 일이었다. 어린아이를 세밀히 진찰한 다음 옷 속에서 가죽 상자를 꺼냈다. 약이 들어 있는 모양이었다. 그 속에서 약을 한 알 꺼내더니 물에다 탔다.

“연금술을 오래 연구한 데다가 약초 성능에 정통한 인디언들과 일 년 이상을 같이 지내왔더니, 이제는 박사를 자칭하는 의사들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가 됐단 말이다. 자, 여인네, 이 아이는 그대의 아이이지 내 아이는 아니오. 또 내 목소리나 얼굴을 제 아비의 목소리나 얼굴로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오. 그러니 이 약은 그대 자신의 손으로 떠서 먹이시오.”

헤스터는 내미는 약을 물리쳤다. 그와 동시에 몹시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내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당신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복수를 하시렵니까?” 헤스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라구!” 의사는 반은 비웃는 어조, 반은 위안시키는 어조로 말했다.

“내가 무엇이 답답해서 이 불행한 사생아를 해친단 말이오? 그 약은 효력이 대단합니다. 설혹 그 아이가 내 아이—그대의 아이인 동시에 내 아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좋은 약을 쓸 수는 없을 거요.”

여자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의사 자신이 어린아이를 자기 품에다 안고 손수 약을 떠서 먹였다. 약은 즉시로 효험을

나타내어 이 의사 간판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어린 환자의 신음도 가라앉고, 몸을 태질하듯이 하던 경풍도 차차로 멎었다. 아이들이란 아픈 것이 멎으면 으레 그러한 것이지만 이 아이도 수 분 이내에 깊은 잠이 들어 숨소리도 고왔다. 이제는 명의라고 하게끔 된 이 의사는 다음에는 여자를 진찰했다. 침착하고도 세밀하게 맥을 보고 눈을 검사했다. 의사가 자기의 눈을 들여다볼 때에 여자의 마음은 움츠러들고 몸이 떨렸다. 그렇게도 익숙한 시선이었건만 오늘은 이다지도 괴상하고 쌀쌀했기 때문이다. 다 보고 나서 자기 진찰에 만족한 듯한 의사는 또 한 첩 약을 지었다.

"나는 지옥의 망각천(忘却川)[13]이나 망우제(忘憂劑)[14] 같은 것은 모르지만, 광야에서 많은 비법을 배워 왔소. 이것도 그 하나이오. 파라셀수스(Paracelsus)[15]만큼이나 오래된 내 자신의 비법을 인디언들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었더니 그 대신으로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이 이 처방이오. 죄가 없는 양심만큼 진정력은 없으리다. 그 양심은 내가 줄 수 없소. 하지만 그 약은 정욕이 팽창해서 상기하는 것을 가라앉힐 것이오. 마치 폭풍이 부는 바다 물결 위에 기름을 부은 듯이."

그는 약 잔을 헤스터에게 내주었다. 헤스터는 느릿느릿, 그러나 날카롭게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그 잔을 받아 들었다. 꼭 공포의 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남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몰라 의심이 가득 찬 표정이었다. 헤스터는 또 잠들어 있는 자기의 갓난아기도 보았다.

"나는 죽으려고도 생각해 보았어요." 헤스터는 말했다. "죽고 싶었어요. 나 같은

13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지옥 들어가는 곳에 레테(Lethe)라는 강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이 강물을 마시면 전세(前世)의 일을 모두 다 잊어버린다고 하였다. 레테는 망각(忘却)이라는 뜻이다.

14 망우제(忘憂劑)는 그리스 원명으로 네펜시(Nepenthe)이다. 서사시 《오디세이(Odyssey)》에도 나오는데, 시인은 이 약을 설명하여 "모든 고통과 분노를 잠들게 하고 비애(悲哀)에다 망각을 가져다주는 약"이라 했다.

15 그의 본명은 테오프라스투스 필리푸스 아우레올루스 봄바스투스 폰 호엔하임(Theophrastus Philippus Aureolus Bombastus von Hohenheim)이다. 1493년 스위스의 아인지델른(Einsiedeln)에서 나서 1541년에 죽었다. 마술과 연금술과 점성술, 의술을 행하면서 유럽 명지(名地)를 편력(遍歷)하였다. 바젤 대학교(University of Basel)에서 물리학과 의학을 가르쳤다.

인생도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 온당하다면 죽기를 기도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잔 속에 죽음이 들어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잔은 지금 제 입술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셔라." 그는 여전히 냉랭하고 침착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대는 나를 그렇게도 모르는가? 헤스터 프린. 평소에 내 마음속이 그렇게도 얄궂던가? 설혹 내가 마음속에 복수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대를 살려 두어서—모든 생명의 해독과 위험이 침로하지 못하도록 약을 먹여 살려 두어서—이 불붙는 수치의 표식이 그대의 가슴 위에 여전히 불타도록 해 두는 일보다도 더 훌륭히 내 계획에 맞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긴 손가락을 주홍 글씨 위에다 놓았다. 당장에 주홍 글씨는 새빨갛게 단 쇠 모양으로 헤스터의 가슴을 지지며 들어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헤스터의 부지불식중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런고로 살아서 너의 운명을 걸머지고 다니란 말이다. 세상 남자와 여자들이 보는 앞에, 과거에 네가 너의 남편이라고 부르던 남자가 보는 앞에, 저기 있는 저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살기 위하여 이 약을 먹어라."

이 이상 권면을 듣지 않고 헤스터는 잔의 약을 죄다 마셔 버렸다.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어린아이가 자고 있는 침대로 가서 앉았다. 그동안 의사는 이 방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의자를 끌어당겨서 여자 곁에 앉았다. 여자는 이렇게 차리는 것을 보고 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정인지 의술인지 혹은 또 세련된 잔인성인지, 그 동기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자기의 육체적 고통을 구하고 나서, 이번에는 과거에 자기한테서 가장 심각하고 다시는 취소할 길이 없는 상처를 받은 남자로서 자기를 취급하려 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헤스터" 하고 그는 말을 꺼냈다. "그대가 무엇 때문에 또 어찌해서 그 구렁에 빠졌는가, 그보다도 어찌해서 내가 그대를 발견하게 된 저 수치의 형대로 올라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묻지 않겠소. 그 이유는 뻔한 것이오. 나의 어리석음과 그대의 약함이 원인이었소. 사상에 종사하는 사람, 큰 도서관들의 책을 파먹고 사는 좀벌레, 굶주린 지식의 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생의 좋은 시절은 다 보내어 이미 시

들었고—그러한 내가 그대와 같은 청춘과 미와 무슨 인연이 있을 것이오?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불구(不具)인 내가 지력(智力)의 소질을 가지면 젊은 여자들 안목에서 나의 육체적인 불구를 가릴 수 있다는 망상을 어찌 가질 수 있었겠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현인이라 하오. 현인이라는 것이 만약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는 미리 이 모든 것을 알았어야 할 것이오. 내가 저 무서운 대삼림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교인들의 식민지에 발을 들여 놓았을 제, 나를 만나 주는 최초의 사람이 그대 헤스터 프린—치욕의 초상처럼 군중 앞에 서 있는 그대이리라 하는 것을 알았어야만 할 것이오. 아니 우리가 결혼을 하고 교당 돌층계를 걸어 내려오는 그 순간에 벌써 우리의 길 맨 끝에 타고 있는 화장(火葬) 불을 보았어야만 할 것이오!"

헤스터는 까부라져 들어갈 것 같았으나, 남자가 마지막에 슬그머니 단도로 수치의 표적을 찌르는 데는 그대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내 감정을 솔직히 말씀드린 것은 당신도 잘 아시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오." 그는 대답했다. "다 내가 어리석은 탓이오. 그건 내가 이미 고백한 바이오. 그렇지만 내가 결혼하는 순간까지 나는 무의미한 생활을 해 왔던 것이오. 인생이라고 아무 즐거움도 없었소. 나의 마음은 다수한 손님을 맞아들이기에 넉넉한 집이었지만, 그 집안에는 불기 하나 없어 쓸쓸하고 차디찼었소. 나는 불을 켜 보고자 갈망했었소. 비록 나이 들고 모양이 침침하고 신체가 불구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주울 수 있도록 인생 도처에 흩어져 있는 그 단순한 행복이 또한 나의 행복도 되려니 하는 것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꿈 같지도 않았소."

"당신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한 일을 했습니다." 헤스터는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죄송하다는 건 피차일반이오." 그는 대답했다. "싹이 터 나오는 그대의 청춘을 속여서 나의 노쇠(老衰)와 거짓되고 부자연한 관계를 맺게 했을 때 첫째 잘못은 내 잘못이었소. 나도 헛되이 사상을 탐구하고 철학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오. 그래서 나는 그대에 대하여 복수를 구하거나 모해를 계획하지는 않소. 그러나 우리 두 사람에게 악을 행한 남자가 살아 있지 않소! 그건 누구요?"

"그건 묻지 마세요!" 헤스터는 단호한 표정으로 남자의 얼굴을 쏘아보며 대답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알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음험하고도 무엇인가 스스로 믿는 데가 있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는 반문했다. "절대로 그놈을 알 수 없다! 이것 봐, 헤스터. 내 말을 믿으시오. 외면 세계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세계이거나 막론하고 우주의 비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렬하고 무조건하게 그 일평생을 바친 사람들 눈으로부터 완전히 가려져 있는 비밀이란 별로 없게 마련이오. 그대는 그대의 비밀을 기웃거리는 군중으로부터 숨길 수야 있겠지. 또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지만 목사나 관리들이 그대의 가슴속에서 남자의 이름을 비틀어 빼앗아 기대와 더불어 형대에 나와서 설 짝패를 만들어 주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숨길 수야 있겠지. 그러나 나라는 사람은 그들과는 좀 다른 감각을 가지고 그 남자를 찾아낸단 말이야. 나는 이 남자를 찾기를 책에서 진리를 찾는 것과 같이 할 것이며, 연금술에서 황금을 찾는 것과 같이 할 것이야. 그자와 나의 사이에는 일종의 공감이 있어서 그자 곁에 가면 곧 나를 알아볼 것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놈은 벌벌 떨 테지. 그러면 나 자신도 별안간 상대방에게는 전연 발견되지 않으면서 떨기 시작할 테지. 조만간 그놈은 필연코 내 물건이 되고야 말 테지."

주름살 잡힌 학자의 눈이 어떻게도 난란(爛爛)한 빛으로 자기를 쏘아보는지, 헤스터는 그 눈이 자기의 비밀을 읽을까 봐 무서워서 두 손으로 가슴을 부둥켜안았다.

"그자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그놈은 여전히 내 물건이야!" 운명이 자기에 가담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놈은 그대처럼 수치의 글씨를 옷가슴에 차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그놈 가슴속에서 그 글씨를 읽을 거야. 그렇다고 그놈을 위해서 공포심을 갖지는 마시오. 어련히 하느님께서 정당한 처벌을 해 주시려고. 내가 쓸데없이 간섭을 해서 그놈을 인간 법률의 손에다 넘기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는 마시오. 법률의 손에다 넘겨주면 그건 내가 밑지는 일이란 말이오. 또 내가 무슨 그놈의 생명을 모해한다거나, 그놈의 명예를—내 판단으로는 상당히 평판이 높은 놈인 모양이니까—망치려고 흉계를 꾸민다고 상상하지도 마시오. 살려 둡시다! 할 수 있거든 세간 평판 속에 숨

어 보라시오! 아무래도 내 물건이거든!"
"당신이 하시는 일은 자비로운 일 같습니다만" 하고 헤스터는 한편 당황하고 한편 무서워서 말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협박 같아요."
"과거에 나의 아내였던 그대에게 명하노니, 그대가 그대의 정남(情男)의 비밀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비밀을 지키시오! 이 땅에는 나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소. 그대가 과거에 나를 남편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누구 보고나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지구의 변두리 이 황무지에 나는 나의 천막을 치려 하오. 어째서 그렇게 하느냐? 다른 데 가면 나는 방랑자이고 인간관계를 떠난 존재이지만, 여기에 오면 한 여자와 한 남자와 한 어린아이를 발견하는데 그들과 나 사이에는 가장 긴밀한 인연이 존재한단 말씀이오. 그 관계가 사랑이든 미움이든, 정당하든 부당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소. 헤스터 프린, 그대와 그대의 사내는 내 것이오. 나의 가정은 그대와 그대의 사내가 있는 곳에 있소. 그러나 내 비밀을 깨면 안 되는 것이오."
"무엇 때문에 당신이 비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헤스터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게 이 비밀 계약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면서 질문하였다. "어째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공표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고 남자는 대답했다. "정절 없는 여자의 남편이었다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지. 혹은 딴 이유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고. 하여튼 사는 데까지 살다가 이름 없이 죽자는 것이 나의 목적이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그대의 남편은 이미 죽어 없어졌고, 다시는 아무 소식도 없으리라고만 알려 두란 말이오. 말로나 손짓으로나 눈짓으로나 나를 아는 척하지 마. 무엇보다도 네가 아는 그 남자에게 나의 비밀을 속삭이지 마. 만약 이 약속을 어기는 날이면 알지? 그의 명성, 그의 지위, 그의 생명—다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정신 차리시오!"
"제 비밀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헤스터는 말했다.
"선서(宣誓)하시오!" 그는 명령했다. 헤스터는 선서했다.
"자, 그러면" 하고 로저 칠링워스(라고 이후로는 부르기로 하자)는 말했다.

“난 갑니다. 당신 어린아이와 주홍 글씨를 데리고 혼자 계시오. 그런데 어떻소? 헤스터, 판결문에는 밤에 잘 때도 그 주홍 글씨를 달고 자라고 쓰여 있습디까? 밤에 무서운 꿈을 꿀 것이 무섭지 않아요?”

“어째서 저를 보고 그리 웃으십니까?” 헤스터는 남자의 눈과 표정이 근심스러워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은 산속에 출몰하면서 인간을 괴롭히는 악마와 같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나를 유인하여 나의 영혼을 괴멸시키는 계약을 맺게 한 것입니까?”

“아니오, 그대의 영혼은 아니오.” 칠링워스는 또 한 번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결코 당신의 영혼은 아니오.”

5. 바느질하는 헤스터

헤스터의 형기(刑期)는 이제 끝났다. 옥문은 활짝 열리고, 헤스터는 환한 태양 속으로 걸어 나왔다. 만백성을 다 같이 쬐어 주는 태양이건만, 이 여인의 아프고 병든 마음에는 그 가슴 위에 있는 주홍 글씨를 비춰 주는 것밖에는 아무 목적도 없는 듯이 생각되었다. 저번에 옥문에서 걸어 나와서 장거리에 섰을 때는 손가락질을 받고 인류 공통의 불명예가 되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아무도 따르지 않고 혼자서 옥 문턱을 걸어 나오니 한층 더 현실적인 고통이 있었다. 그때에는 부자연한 신경의 긴장과 또 그 투쟁적인 성격의 힘으로써 버텼다. 그래서 수치의 장면을 일종의 처참한 승리의 장면으로 돌려 꾸밀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평생에 한 번밖에는 일어나지 않는 고립되고 절연(絕緣)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정력을 기울여 안온한 생활이라면 수십 년을 살아도 넉넉할 만한 생명력을 발분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를 처벌하는 법률 그 자체—무서운 얼굴을 가진 거인(巨人)인데, 그 무쇠팔 속에는 인간을 멸진(滅盡)하는 힘도 있지만 또한 떠받드는 힘도 있다—그러한 힘이 치욕의 무서운 시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를 버티게 해 주었었다. 그러나 지금 감옥 문으로부터 혼자서 걸어 나오는 이 순간부터 일상적인 관습이 시작된다. 헤스터는 지금 자기 재주껏 버티고 밀고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그는 벌써 현재의 비애를 통하여 장래로부터 원조를 청할 수는 없었다. 내일은 그 자체의 시련을 가져올 것이며, 그다음 날도 그러할 것이며, 또 그다음 날도 그러할 것이다. 매일매일 시련이 오지만, 언제나 마찬가지로 참기에는 너무나 슬픈 시련이었다. 먼 장래 허구한 날, 같은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지만 짐을 부릴 날이 없으리라.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쌓이면 수치더미에다 비참을 쌓아 올리리라. 그 장구한 세월 자기의 개성이라는 건 죄다 버리고 살아야만 하는데 교회 설교가와 도학자(道學者)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여 일반적인 상징으로 삼을 것이며 약한 여자의 죄 깊은 열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견본으로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젊고 순결한 사람들은 가슴 위에 주홍 글씨가 불타고 있는 저 여자—자기—를 보라고 그들은 가리킬 테지. 자기도 점잖은 집

의 딸이었으며, 앞으로 여인이 될 어린아이의 어머니이며, 과거에는 순결했었건만 그러한 자기를 손가락질하여 죄악의 형상이며 본체이며 실체라고 가리킬 테지. 이 수치를 일평생 떠밀고 나가다 죽으면 자기 무덤 위에는 수치만이 기념탑처럼 홀로 남아 있을 테지.

헤스터의 판결문 속에는 거주지를 청교도 식민지에 제한한다는 문구는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의 앞에 개방되어 있는 셈이었다.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자유였고, 또는 유럽 어느 나라로 가서 자기의 인물과 신분을 새로운 환경 속에 감추고 전연 딴 세상에 나타난 것처럼 사는 것도 자유였고 또 측량할 수 없이 깊고 컴컴한 대삼림에도 역시 길은 열려 있으니까 그리로 가던 원체 자유분방한 그 자신의 천성이 원주민들과 동화(同化)하여—그들의 관습과 생활은 그를 단죄한 법률과는 아무 인연도 없는 것이다—자유롭게 살 수도 있었건만, 이 여인이 수치의 표본밖에는 될 것이 없는 이 땅을 꼭 자기의 고향이라고 불러야만 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처럼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숙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력으로 누를 수도 없고 피하려야 피할 도리도 없는 감정이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한 장소에—무슨 비상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 생애에다 어떤 물이 들게 한 장소에서—뱅뱅 돌게 하고 유령처럼 자주 찾아 들게 하는 운명적인 힘을 갖는다. 그리고 그 생애 속에 물든 색채가 인생을 슬프게 하는 암담한 빛이면 그럴수록 이 숙명의 힘은 강해지는 법이다. 헤스터의 죄와 수치는 헤스터를 땅에다 비끄러매는 뿌리였다. 마치 신생(薪生)이 구생(舊生)보다도 더 강한 동화력(同化力)을 가지고 다른 모든 순례자나 방랑객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들지 않는 이 황무한 수풀땅을 헤스터 프린의 쓸쓸하고 처량한 그러나 일생의 고향으로 만든 듯싶었다. 이 고향과 비교한다면 지상의 다른 모든 땅은 헤스터에게는 생소했다. 심지어 행복하던 어린 시절과 순결하던 처녀 시절이 다시 오래전에 옷장 속에 간직해 둔 옷들처럼 어머니 보호 밑에 보관되어 있는 영국의 촌락조차도 그러했다. 헤스터를 이 땅에다 비끄러매는 줄은 쇠사슬이었다. 속 깊은 영혼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으나 끊을 수 없는 철사였다.

또 이러한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물론 그 감정은 헤스터가 자기 자신으로

부터도 감추려고 하는 비밀이었고, 비밀이 마치 굴에서 기어 나오는 뱀 모양으로 자기의 가슴속에서 나오려고 뭉클뭉클할 때에 헤스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는 했지만—그러한 별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를 이 숙명적인 땅과 길에 붙들어 두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 땅에 한 분이 살았고 그 발로 이 길을 걸어 다녔다. 헤스터는 자기가 그 사람과 결합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었다. 그 결합은 물론 이 지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최후 심판 날에는 두 사람을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갈 것이며 또 심판대를 그대로 그들 결혼의 제단으로 돌려 꾸며 그들이 미래영겁(未來永劫)으로 맺어질 수 있는 보상을 약속해 주는 결합이었다. 영혼의 유인자 악마는 다시금 이러한 생각을 헤스터의 명상 속에 침입시켰고 그래서 헤스터가 열광적, 필사적으로 그 생각을 움켜잡았다가 그것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는 재미나다는 듯이 껄껄 웃었다. 헤스터는 이러한 생각을 막 다다라서 생각해 본 일은 없고, 그런 생각이 솟아오를 적엔 급히 쫓아 버려 깊은 가슴속에 묻어 두려 하였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뉴잉글랜드에 사는가, 그 동기를 오래 생각해 본 결과 스스로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결론이란, 사실 반면은 진리이고 반면은 자기기만이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자기의 죄는 여기에서 일어났으니 지상의 벌도 여기에서 받아야 한다. 자기가 앞으로 매일매일 받는 수치의 고통은 자기의 영혼을 깨끗이 씻을 것이며,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보다도 더 순결한 정신을 만들어 내리라. 수난의 결과로 자기는 좀 더 성자(聖者)다워지리라…….

이러한 이유로써 헤스터 프린은 도망가지 않았다. 보스턴 거리의 변두리, 바닷물과 반도가 연접하는 해변 근처, 그러나 어느 동네와도 접근해 있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초가집이 하나 있었다. 어떤 초기의 이민이 짓고 살다가, 그 부근 땅이 너무도 메말라서 농사가 되지 않고 거리가 멀어서 사회적 활동—그때에는 제법 사회적 활동이 주민들의 습성이 되어 있었다—을 하기에 불편한 탓으로 버리고 간 집이었다. 숲이 우거진 산 밑 분지를 건너다보면 서쪽 바다가 환히 내다보이는 해변에 서 있었다. 이 반도에 특유한 자차분한 나무숲은 이 초가집을 사람들 눈으로부터 가려주는 것보다는 도리어 세상에 숨어 살고 싶어 하고 또 당연히 숨어 살아야

할 사람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놓는 편이 더 많았다. 아직도 자기를 의심하여 잠시도 감찰의 눈을 쉬지 않는 법관의 허가를 얻어 있는 세간살이를 떠 싣고 이 조그맣고 쓸쓸한 집으로 이사를 와서 헤스터는 어린아이와 단 둘이서 살림을 시작했다. 이사 오자마자 신비로운 의심의 그림자가 이 장소에 붙게 되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인간 사회를 떠나 한적하게 사는지 이유도 모르고—번번이 집 아주 곁에까지 와서 헤스터가 창 밑에서 바느질하는 것, 혹은 문간에 서 있는 것, 혹은 좁은 앞뜰에서 일하는 것, 혹은 거리로 가는 길을 걸어 나오는 것을 구경하곤 했다. 그리고 가슴 위에 매달린 주홍 글씨를 보고는 질겁해서 도망치는데, 한 아이가 도망가면 다른 아이들도 공포심에 전염되어 와 하고 뿔뿔이 달아나는 것이었다.

그 처지가 몹시 고독하고 또 감히 찾아와 줄 만한 벗이라고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헤스터는 식량이 떨어지는 위험을 보지는 않았다. 헤스터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이 식민지에서는 그 기술을 부려 먹고살 만한 여유는 아직도 적었지만—무럭무럭 자라는 어린아이와 그 자신의 양식을 대기에 넉넉했다. 그 기술이란 이제나 그제나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술—바느질이었다. 헤스터는 그 섬세하고 기괴한 기술을 묘한 수로써 글자를 만들어 지금 가슴에다 차고 있지만, 귀족 부인들이 그 기술을 보았더라면 반색을 하고 달려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금라주단에다 좀 더 호화롭고 좀 더 정신적인 인간의 정교를 가하는 기술이었다.

청교도들의 복색은 대체로 흑(黑) 일색이었으니까 이곳 식민지에서도 헤스터의 수와 같은 사치한 수예품에 대해서는 별반 주문이 없었을지 모르나, 그래도 이런 종류의 정교한 수예품이라면 무엇이나 환영하는 시대의 취미는 우리들의 엄격한 조상들도 그 영향을 면할 수 없었다. 하기는 차마 버릴 수 없는 가지가지의 유행을 고국에다 버리고 떠나온 그들이었다. 목사의 안수례(按手禮)라든가 관리의 취임식이라든가 혹은 신정부의 선포식 같은 공공 행사는 정책적으로도 위용을 갖추고 절차가 복잡한 예식과 침침하면서도 연구가 많은 장엄미(壯嚴味)를 띠는 것이 특색이었다. 주름이 깊은 것, 정성들여 만든 띠, 현란한 수를 놓은 장갑, 이런 것들은

권력의 고삐를 잡는 사람들의 관리 신분에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비록 사치법은 이러한 호사를 평민계급에게는 금지했지만, 지위와 금전의 위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허용되었다. 또 장례식의 옷만 하더라도—수의였던, 유가족의 비통을 표현하기 위하여 검은 나사(羅紗)와 눈같이 흰 베로 만든 가지가지의 복잡한 무늬였던—헤스터 프린의 수공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했다. 갓난아기 옷—베로 만든 장옷—도 또한 수입의 길을 열어 주었다.

차츰차츰 꽤 빠르게 헤스터의 수예품이 퍼져서 현대말로 하면 유행을 보게끔 되었다. 그렇게도 비참한 운명을 가지는 여자에 대한 동정심에서 그러했는지 평범하고 무가치한 물건에 대해서조차 소설적인 가치를 붙여 주는 병적인 호기심에서 그러했는지 혹은 또 현대처럼 그때에도 무슨 불가해한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구하다 얻지 못한 것을 어떤 사람에게다 부여하게 되었는지, 혹은 또 헤스터가 아니고서는 채워줄 수 없는 무슨 공허가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헤스터에게는 언제든지 상당한 보수가 있는 일거리가 있어, 하루에 몇 시간이든지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바느질 일을 할 수가 있었다. 허영심은 화려하고 장엄한 예식 때에 헤스터의 죄 많은 손으로 지은 옷을 입음으로써 자괴지책(自愧之策)을 삼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헤스터의 바느질은 장관 옷깃에서도 볼 수 있었고, 군인들의 소매 위에서도 볼 수 있었고, 목사의 띠 위에서도 볼 수 있었다. 또 그것은 갓난아기 모자를 장식했고, 죽은 사람 관 속에 넣어서 곰팡이가 슬고 썩기도 했다. 그러나 신부의 순결한 홍안(紅顏)을 가리는 흰 면사포에 수를 놓아 달라고 청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예외는 사회가 여전히 용서 없는 엄격성을 가지고 이 여인의 죄를 흘겨보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헤스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극히 간소하고 금욕적인 음식물과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그저 충분한 식량을 얻으면 좋았지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다. 헤스터 자신의 옷은 아주 험한 감에다 컴컴한 빛깔이었다. 다만 일평생 달고 다녀야 할 주홍 글씨가 유일한 장식이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옷은 공상적이라고 할지 혹은 또 기괴하다 할지, 그러한 재주를 부려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이러한 의복의 사치는 벌써부터 이 어린아이 속에 싹트기 시작하여 무슨 깊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요

괴(妖怪)한 매력을 한층 더 높여 주고 있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리라. 자기 어린아이의 옷을 차려 주는 데 필요한 약간의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은 죄다 자선사업에 썼다. 불행한 점에 있어선 오히려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시주(施主)를 모욕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 재주를 좀 더 훌륭한 일에 써먹을 수도 있는 여러 시간을 헤스터는 가난한 사람들의 험한 옷을 만드는 데 소비했다. 이러한 사업 속에 회한의 관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며, 또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데서 헤스터가 자기 자신의 향락을 제단의 제물처럼 희생으로 바쳤다는 것도 있음직한 일이다. 헤스터의 천성 속에는 호화롭고 육감적이고 동양적인 특색이 있었다. 이러한 호화로운 미에 대한 취미는 이 여인의 평생을 두고, 기막히게 고운 바느질밖에는 다시 써먹을 데가 없었다. 잔바느질 일 속에서 부인네는 남자가 알지 못하는 쾌락을 얻는다. 헤스터 프린에게 바느질은 생활의 정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으며 또 따라서 정열을 진정시키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헤스터는 다른 모든 기쁨과 같이 이 기쁨도 죄악이라 해서 물리쳤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양심이 일일이 내달아서 간섭을 하는 병적인 상태는 이 여인의 회개라는 것이 진정으로 착실한 회개가 아니라, 그 밑에 의심스러운 그 무엇, 깊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무엇이 들어 있지나 않은지 의심되는 바이다.

이런 방식으로 헤스터 프린은 이 세상에서 맡아 볼 직분을 갖게 되었다. 이 사회는 이 여인의 가슴에다 카인의 낙인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표적을 채워 주었지만, 그러나 원래 강한 성품과 비상한 재주를 타고난 이 여자를 그대로 내던질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 사회와 교제하는 모든 부면(部面)에 있어 자기도 그 사회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연상시킬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세상 사람들의 일거일동, 일언반구, 심지어 그가 우연히 접촉하게 되는 사람의 침묵까지도 그가 이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혹은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었다. 또는 그가 전연 딴 세계에서 살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인간과는 전연 별개의 기관과 감각을 가지고 인류의 공통한 성질과 통하는 듯싶었다. 유령이 가정의 노변(爐邊)에 자주 찾아오면서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느끼게 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헤스터도 인간 사회의 윤리적인 관계를 떠나서 고립해 있지만, 늘 그 곁에 붙어 산다. 가정의 기쁨을 가지고 웃는 일도 없고, 친척의 슬픔을 가지고 우는 일도 없다. 간혹 금단의 동정심을 표시하는 데 성공하는 일이 있다 쳐도 그것은 다만 상대방의 가슴속에 공포심과 불쾌감을 일으킬 뿐이다. 사실상 헤스터가 세상 사람들 가슴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란 이러한 감정과 또 그렇지 않으면 쓰디쓴 멸시감뿐이었다. 그 시대는 세련된 시대는 아니었다. 헤스터는 자기의 처지를 잊어버린 일은 한 번도 없고 또 잊어버릴 위험성도 없었지만, 세상 사람이 거친 손으로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에는 자기의 처지가 새삼스럽게도 또렷하고 뼈아프게 자각되는 것이었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서 선심을 쓰려고 하면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미는 손을 보고 욕설을 퍼붓는 수가 많았다. 무슨 소관이 있어 높은 사람 집을 찾아갈 때 그 집 마님들은 헤스터의 가슴속에다 쓰디쓴 독을 몇 방울 떨어뜨려 넣어주는 것이 버릇이었다. 부인네들은 일상다반사를 가지고도 능히 사람을 해치는 독약을 조제하는 재주가 있는데, 그 부인네들은 이러한 표면으로는 심상한 듯한 악의를 가지고 요술을 부려서 헤스터를 해치는 수도 있었고 또는 공공연한 험구(險口)로 해치는 수도 있었다. 그러한 험구는 살이 벗어진 상처를 사정없이 후려치듯이 아무 방비도 없는 헤스터의 가슴 위에 떨어졌다. 헤스터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잘 훈련했었다. 이러한 공격에 대꾸한 일은 한 번도 없었고, 다만 창백한 뺨 위에 빨간빛이 떠올랐다가는 다시 깊은 가슴속으로 가라앉으면 또 그만이었다. 그는 참았다—참으로 수난자답게 참았다. 그러나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금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수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심술궂게도 비틀려서 저주의 말이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몇 해가 되어도 죽지 않고 항상 살아 있는 청교도 법정의 유죄 선고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흉측하게 마련된 정신 고통을 두고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치 심장의 고동을 느끼듯 느꼈다. 목사들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발을 멈추고 훈계 설교를 시작하면 길 가던 사람들이 이 가엾은 죄 많은 여자 주위에 모여들어 조소와 분노

를 섞어서 빙글빙글 웃어댔다. 오늘은 주일이니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신 미소를 나도 받으련다 믿고 교당에 들어가면 재수 없이도 자기가 목사의 설교 재료가 되는 수가 많았다. 차츰 아이들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어린아이 하나만 데리고 소리 없이 길거리를 지나가는 이 무서운 여자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그들의 양친으로부터 흡수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모녀가 길 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지나고 난 뒤에는 먼 데서 소리를 지르며 쫓아갔다. 그 지껄이는 말이 아이들 마음에는 특별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만 무의식적으로 지껄여대는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만큼, 헤스터에게는 무서웠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헤스터의 수치는 자연계 전체가 알고 있을 만큼 그 소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았다. 나뭇잎들이 자기 죄악의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속삭였다 할지라도, 여름 산들바람이 그것을 중얼거렸다 할지라도, 또 겨울 모진 바람이 소리 높게 그것을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지껄이는 소리 이상으로 깊은 고통을 헤스터에게 주지는 못했을 것이다. 낯선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때에는 또 별다른 특별한 고통을 받았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으레 호기심을 가지고 주홍 글씨를 들여다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헤스터의 영혼 속에 새로 낙인을 찍어 주었다. 그래서 번번이 헤스터는 손으로 표적을 감추고 싶은 생각을 억제할 수 없었으나 그래도 꿀꺽 참았다. 그러나 주홍 글씨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도 마찬가지로 아프게 찔렀다. 늘 보고 지내는 쌀쌀한 눈초리는 참을 수 없이 아팠다. 요컨대 헤스터 프린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눈이 와서 표적 위에 닿을 때에는 항상 쑤시는 듯한 고통을 받았다. 상처는 언제까지나 감각을 잃지 않았다. 감각은 잃어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예민해졌다.

며칠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한 번, 헤스터는 참으로 인간다운 시선이 와서 수치의 낙인 위에 머무르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 고통의 절반이 덜리는 것처럼 일시적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다음 순간에 새로운 고통이 전보다도 높은 고동을 가지고 다시 솟아났다. 그 짧은 시간에 헤스터는 새로 죄를 범했던 것이다. 헤스터는 혼자서 죄를 지었던가?

기괴하고 고독한 생(生)의 고민으로 말미암아, 헤스터의 상상력은 퍽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의 도덕적 · 이지적 소질이 만약 연약했더라면 이러한 영향은 좀 더 컸을 것이다. 그가 외면적으로 접촉을 가지는 좁은 세계 안에서 저 쓸쓸한 걸음걸이로 왔다 갔다 할 때, 불현듯 주홍 글씨가 자기에게 무슨 전연 새로운 감각을 주는 것처럼 생각되는 수가 있었다. 물론 그것은 공상이었지만,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 가슴속에 숨어 있는 죄악에 대한 공감적인 인식을 그 자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믿기는 송구한 일이나, 그것을 믿지 않는 수가 없었다. 이러한 비밀이 계시될 때마다 헤스터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악천사(惡天使)의 흉측한 속삭임이 아닐까? 사람들의 순결한 척하는 외면적 가장은 한낱 거짓에 지나지 않고, 만약 진리를 나타낼 곳이 있다면 헤스터 프린 이외의 다수한 사람 가슴 위에서도 주홍 글씨가 불붙어 나오리라는 것을 아직도 반밖에는 악에 사로잡히지 않은 이 싸우는 여인—헤스터에게 설복시키려 하는 속삼임이 아닐까? 그러면 지극히 몽롱하나마 아주 뚜렷한 이 암시를 헤스터는 진리로서 승인해야 할 것인가? 그 비참한 경험 전체를 통하여 이런 직감처럼 무섭고도 진저리나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직감은 천만부당한 불경스러운 기회에 나타나서 헤스터를 깜짝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했다. 길을 가다가 점잖은 목사나 관리들을 지나치게 될 때—세상 사람들은 마치 고대에 천사들과 벗하는 인간을 우러러보았던 것처럼 이들을 우러러보았다—헤스터의 가슴 위에 있는 새빨간 수치의 표적이 무슨 공감을 느껴가지고는 들먹거릴 때가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악마가 내 곁에 와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반문하는 수가 많았다. 억지로 눈을 들어 보면 눈앞에는 사람이라고는 이 세상의 성자밖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바에 의하면 일평생 가슴속에다 눈(雪)을 간직했었다는 어떤 부인네의 성자연(聖者然)한 찌푸린 얼굴과 면대했을 적에 헤스터는 일종의 신비로운 자매 관계가 고집스럽게도 머리를 쳐들고 나타난 일도 있었다. 그 부인네 가슴에서 한 번도 태양을 쬐어 보지 못한 눈과, 헤스터 프린 가슴 위에서 불타는 수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었던가? 또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전신이 전기가 오른 것처럼 찌르르 하면서 "보라, 헤스터여, 여기에 네 동무가 온다!" 하고 예고하는 소리가 들려 머리를 쳐들어 보면 자기 앞에 꽃 같은 처녀가 지나가면서 주홍 글씨를

흘깃 곁눈질해 보면서 부끄러워서 슬쩍 눈을 돌리는데, 마치 그 처녀의 순결성이 이렇게 잠깐 엿봄으로써 더럽혀진 것처럼 두 볼에는 희미하고도 싸늘한 주홍색이 피어오른다. 아아, 악마여, 저 치명적인 주홍 글씨를 마술사로 부리는 악마여, 너는 이 가엾은 죄인이 존경할 대상으로 노소를 막론하고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으려는가?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언제나 죄악의 가장 슬픈 결과의 하나이다. 약한 여자의 천성과 또 무정한 남자 사회의 법률에 희생된 이 가엾은 여인이 아직도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로서 헤스터 프린이 동포 인류 중 자기처럼 죄가 깊은 인간은 없다고 아직껏 믿으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 음산한 옛날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언제나 무슨 흥미 있는 사실이 있으면 그것에다 기괴한 공포심을 덧붙여서 생각하기 마련이었는데, 이 주홍 글씨에 대해서도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덧붙여 우리들은 쉽사리 그것을 한 토막의 무서운 전설로 꾸밀 수도 있을 정도이다. 그들은 주장해 말하기를 그 표식은 다만 지상의 물감 통에서 물을 들인 빨간 천 조각만은 아니고, 지옥 불에 빨갛게 달아 있기 때문에 밤중에 헤스터가 나다닐 때에는 으레 그 주위가 환해진다고들 하였다. 주홍 글씨는 헤스터의 가슴을 그렇게도 깊이 태웠기 때문에 이러한 풍문 속에는 회의적인 현대 사람이 좀체 믿을 수 없는 어떤 진리가 있었다는 것을 단언해 두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6. 펄(Pearl)

나는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야기한 일이 별로 없다. 그 어린아이는 이루 측량할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죄악의 정욕이 잡풀처럼 우거진 속에서 가련하고도 불멸한 한 떨기의 꽃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이다. 어린아이가 매일처럼 자라는 것을 보고, 매일처럼 광채가 높아가는 미모를 보고, 하루하루 총기가 나타나서 그 작은 얼굴 위에다 떨리는 햇빛을 던져 주는 것을 볼 때에, 그 슬픈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처럼 생각되었을까! 펄(Pearl)—이라고 어머니는 아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어린아이 얼굴 모양이 진주 같다고 해서 그리 부른 것은 아니다. 진주라면 그 광채가 고요하고 희고 비(非)열정적이라야 하겠는데 이 아이 얼굴에는 그러한 공통점은 없었다. 헤스터가 어린아이 이름을 펄이라고 부른 것은 그 가치를 위해서—다시 말하면 그 아이는 헤스터가 모든 것을 바치고 얻은 어머니의 유일한 보물이었기 때문이다. 참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인간은 이 여인의 죄를 주홍 글씨로써 표식했다. 그 표식은 사람을 불행으로 인도하는 강한 힘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처럼 죄를 지은 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동정심을 가져도 감히 가까이 올 수가 없었다. 인간이 이렇게 벌을 준 죄악의 직접 결과로서 하느님은 이 여인에게 귀여운 아이를 주셨다. 이 어린아이가 안길 자리는 바로 그 치욕의 가슴—이래서 그 양친을 영원히 인류 후손과 연결시켰고, 마지막에는 천당에 가서 축복받는 영혼이 된다. 그러나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에 헤스터 프린의 가슴속에는 희망보다도 근심이 많았다. 헤스터는 자기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만큼 그 결과가 좋으리라는 신념을 가질 수가 없었다. 매일매일 헤스터는 자라나는 아이의 성품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여다보았다.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를 갖게 된 시초—죄악과 무슨 관련을 가지는 어둡고 괴이한 특성이 나타나지나 않을까 가슴을 졸였다. 확실히 육체적인 결함은 하나도 없었다. 그 완전한 체격과 활기와, 아직도 단련되지 않은 사지가 그 운동에 있어 천연적으로 교묘한 점 등 여러 가지 점에 있어 이 아이는 낙원 동산에 태어났어도 좋을 만한 아이였다. 인류 최초의 부모가 추방을 당하고 난 뒤에도 에덴동산

에 남아서 천사들의 동무가 될 만한 아이였다. 이 아이는 일점 흠이 없는 미모와 으레 같이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는 천연적인 맵시를 타고났다. 그 입은 옷이 비록 아무리 간소하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에게 그 옷이 그 아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시골 무명옷을 입히지는 않았었다. 이 어린아이의 어머니는 어떤 병적인 의도를 가지고—독자는 앞으로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만—구할 수 있는 중 가장 사치한 옷감을 구해다가 자기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도로 활동시켜 어린아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입을 옷을 마르고 치장하고 하였다. 이 작은 계집애의 천성 타고난 미모가 눈부신 데다가,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나오면 그것이 호화로운 옷을 통해서 광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린아이 주변에는 찬란한 무리가 생겨 컴컴한 초가집 마룻바닥을 환히 비추었다. 그러나 험한 무명옷이 흙장난에 찢고 더럽혔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여전히 그림같이 고왔다. 펄의 신체 속에는 마술 같은 무한한 변화성(變化性)이 배어 있었다. 이 한 어린아이 속에 말하자면 수많은 어린아이가 들어 있는 셈이었다. 농가의 갓난아기가 가지는 들꽃 같은 아름다움으로부터 공주의 어리나마 화려한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미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정열적인 특색과 깊은 색채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언제까지나 잃어지지 않았다. 만약 어떤 신체적 변화가 생겨서 그 특징이 좀 희미해지고 그 색채가 좀 창백해졌다면, 이 아이는 그 본색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따라서 이미 펄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성이 많은 그 외모는 이 어린아이의 여러 가지 성질을 증명하는 것이며 또 그것을 잘 표현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 어린아이의 성질은 변화성과 동시에 심오성(深奧姓)을 가지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성질은 그 아이가 목숨을 타고난 이 세계와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또 그것에 순응하는 경향도 없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공포심은 부질없는 공포심이었을 것이다. 이 아이를 규칙에다 복종시킬 수는 도저히 없었다. 이 아이에게 생존을 주는 데 이미 이 세상의 대법칙을 깨트렸었다. 그 결과 생겨난 어린아이는 어떠냐 하면, 그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틀림없이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혼돈 상태였

다. 혹 무슨 질서가 있었다면 그것은 독특한 질서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변화와 배열(配列)의 중심점을 발견한다는 것은 곤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연 불가능했다. 이 아이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헤스터 자신뿐이다. 헤스터는 이 아이가 정신세계로부터 그 영혼을 빨아들이고 지상의 물질로부터 그 육체적 구조를 얻어 들이던 저 중요한 시기에 자기 자신이 어떠했던가를 회고하면 비록 지극히 막연하고 불충분하게나마 이 아이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정열적인 정신 상태는 바로 뱃속의 아기가 도덕 생활의 광선을 받아들이던 전도체(傳道體)였다. 비록 원래의 광선이 아무리 희고 맑았다고 할지라도, 중간 매개체가 가지는 불순한 색채—적혈색(赤血色)과 황금색이 얼룩진 불꽃같은 광채와 시커먼 그림자를 흡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 시기에 헤스터의 정신이 겪은 가지가지의 투쟁이 펄 안에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었다. 헤스터는 이 어린아이 속에서 자기 자신의 걷잡을 수 없고, 죽음을 돌아보지 않는 무엇에 반항하고 싶은 심정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 가슴속에 깃들었던 우울과 실망의 몽롱한 그림자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명랑한 조광(朝光) 속에 환히 비쳐 있었다. 그러나 지상 생활의 날이 지나면 그것은 폭풍과 선풍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는 성품이기도 했다.
그 시대의 어린이 훈육은 지금보다도 훨씬 엄격했었다. 성경이 명하는바 무서운 눈으로 흘기고, 심한 말로 꾸짖고, 번번이 회초리로 때리고 하는 일은 못된 일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에 처벌하는 방책으로 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모든 적성을 발육시키고 증진시키는 데 유익한 정신적 양식으로 채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외동딸의 홀어미가 되는 헤스터 프린은 어린아이를 지나치도록 엄격하게 기른다는 모험을 좀처럼 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과오와 불행을 잘 알고 있는 헤스터는 자기 관리하에 위탁된바 어린 영혼에 대하여 어려서부터 인자하지만 엄격한 통제를 가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것은 헤스터의 재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다. 인자하게 웃어도 보이고, 무섭게 눈을 흘겨도 보았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방식이 다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안 뒤에는 헤스터는 마침내 옆에 물러서서 어린아이 천성이 지배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는 없

었다. 물론 육체적인 강제와 억제라는 것은 그 행동이 계속하는 동안은 효력이 있었다. 이런 종류 이외의 훈련 방법이라고 해서 어린 가슴에 호소도 해 보고 철없는 머리에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어린 펄은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들어 주는 때도 있고, 들어 주지 않는 때도 있었다.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아무리 힘을 들여 설명해 보았자, 타일러 보았자, 호소해 보았자, 그것이 모두 다 부질없는 노력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어떤 독특한 표정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럴 때의 표정은 그렇게 총명하면서도 무어라 설명할 수 없었고, 고집이 세고, 어떤 때에는 아주 고약했고, 그러나 대개는 왕성한 정신력이 넘쳐흐르는 상태였다. 그래서 헤스터는 그럴 때마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아이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펄은 인간의 아이라기보다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요정(妖精) 같았다. 초가집 마룻바닥에서 한바탕 괴상한 장난을 하다가는 어른들을 비웃는 듯한 미소를 던지며 도망가 버리곤 했다. 그러한 표정이 자유분방하고 반득반득하고 호수 속처럼 검은 눈 속에 나타날 때마다, 어린아이는 멀리 이 세상을 떠나 인간의 손으로 만져 볼 수 없는 구름 속의 존재가 되고 만다. 마치 허공에서 돌다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 없이 사라지고 마는 희미한 광선처럼 생각되었다. 이러한 모양을 보고 있는 헤스터는 아이한테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도망가는 어린 요정을 쫓아가서 붙잡고 품안에 꼭 껴안으며 열렬한 키스를 퍼붓는다. 애정이 솟아올라 키스를 한다기보다는 펄이 인간의 살과 피를 가진 유령이 아닌 육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해 보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붙잡힐 때 펄은 아주 유쾌하고 음악적인 웃음을 터트리지만, 어머니는 그럴수록 이전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것이었다.

펄은 헤스터가 그렇게도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얻었고 이제는 이 세상에 그것 하나밖에는 없는 유일한 보배였지만, 그 펄이 참으로 속상하게 굴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헤스터는 기가 막혀 와앙하고 울음이 터지는 때가 있었다. 그러다가는 또 무엇이 이 어린아이 비위에 거슬리는지, 얼굴을 찡그리고, 조그만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무서운 얼굴을 지어 보이면서 불만 있는 표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다음에는 또다시 그전보다도 높은 목소리로 웃어대는 때도 간혹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인간의 비애라는 것을 전연 모르는 것 같기도 했다. 또는 이것은 좀 더 드문 일이지만—슬픔으로 몸부림을 치며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목이 메어 숨이 끊어져 가는 소리로 하소연하는 수도 있었다. 마치 자기도 인간의 심정을 가졌다는 것을 이렇게 통곡함으로써 증명하려고 애쓰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터져 나오는 애정에도 헤스터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별안간 나타난 것처럼 별안간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어머니는 마치 어떤 신령을 불러내기는 했지만 요술을 부리는 도중에 무슨 잘못이 생겨서 이 새롭고 불가해한 신령을 조종할 주문을 얻지 못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위안을 얻는 때는 다만 어린아이가 고요히 잠들었을 때뿐이었다. 그때는 아이가 확실히 자기의 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고요하고 즐거운 행복의 한때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빵긋이 떠지는 눈 밑에서부터 심술궂은 표정이 희미하게 나타나면서 어린 펄은 잠이 깨고 만다!

어언간 펄은 어머니의 항상 웃는 얼굴과 듣기 싫은 소리의 품을 떠나서 제법 사교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다—그 시기가 어쩌면 그렇게도 빠르게 왔던가? 펄의 새소리처럼 맑은 소리가 장난하는 아이들의 우렁찬 음성과 혼합해서 들려오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집 아가도 저 장난꾸러기 아이들과 같이 노는구나 하고 깨닫게 될 수 있었다면 헤스터 프린은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펄은 나면서부터 아동 세계로부터 추방당한 어린아이였다. 악마의 아이이며 죄악의 산물이며 죄악의 표식인 펄은 세례를 받은 아이들과 같이 놀 권리가 없었다. 어린아이는 벌써 자기의 고독한 상태—자기 주위에 범할 수 없는 원(圓)을 그려 놓는 운명의 힘, 요컨대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 자기가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벌써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본능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없었다. 감옥에서 석방되던 때 이래로 헤스터는 펄을 안 데리고 밖에 나간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어머니가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에는 으레 펄도 따라 나와 있었다. 처음에는 품에 안긴 갓난아기였더니 좀 지난 뒤에는 어린 계집애가 되어 어머니의 손가락 하나를 주먹으로 잡고 어머니가 한 발 가는 동안에 세 걸음 네 걸음씩 옮겨 디디면서 어머니의 조그만 동무가 되었다. 식민지의 어린이들

이 길가 잔디밭에서 노는 것, 혹은 집 문턱에 나와 있는 것, 혹은 청교도의 교육이 용서할 만한 무서운 장난들을 하고 있는 것을 헤스터는 보았다. 그 아이들의 장난이란 대체로 교회 가는 흉내, 퀘이커 교도를 회초리로 때리는 흉내, 인디언과의 모의전(模擬戰)에서 머리 껍질을 벗기는 흉내, 마술 흉내를 내면서 서로 무서움을 주는 유희 따위였다. 펄은 이러한 장난을 보았고, 또 열심히 주목해 보았다. 그러나 그 아이들과 동무가 되려고 해 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다른 아이가 말을 걸어도 펄은 대답하지 않았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자기 주위에 모여드는 날이면 펄은 길바닥의 돌을 주워서 아이들에게 던지고 날카로운 의미가 통하지 않는 고함을 지르고 해서, 그것이 비록 어린아이의 분노이지만 자못 무서웠다. 어머니는 그 고함을 들을 때마다 몸이 떨렸다. 그것은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로 무슨 마술의 주문을 부르짖는 것같이 들렸기 때문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어린 청교도들은 이 지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종자들이기 때문에 벌써 이 모녀가 이방(異邦) 사람이거나 혹은 딴 세상 사람이거나, 하여튼 보통 인간들과는 몹시 다르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고들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마음속에서 이 모녀를 멸시했고, 또 번번이 욕설을 퍼부었다. 펄은 이런 감정을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가슴에 사무치는 분노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맹렬한 분노심의 폭발은 어머니가 볼 때에 일종의 가치와 심지어 위안 재료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그렇게도 번번이 실망시키던 발작적인 변덕성은 아니었고, 적어도 어떤 착실한 기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자기 자신 내부에서 발생했던 악의 그림자를 또다시 지금 이 어린아이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역시 두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적개심과 격정을 펄은 불가양도적 권리(不可讓渡的權利)에 의하여 헤스터의 가슴으로부터 상속받았던 것이다. 어머니와 딸이 똑같이 인간 사회로부터 절연된 은거 상태 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 성질 속에는 헤스터 프린의 미칠 듯 동요하는 성질이 유전되어 있었다. 그러한 성질은 물론 헤스터가 펄을 낳기 전 이야기이고 그 후로는 모든 것을 순하게 만드는 모성애로 말미암아 진정되었다.
펄이 집에 있을 때에는 어머니의 오막살이 안에 친구가 번다하여 조금도 심심하지

가 않았다. 어린이의 항상 창조적인 정신 속에서 생의 마력이 나타나 무수한 물체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데, 그것은 마치 횃불이 가닿는 데마다 불을 질러 놓는 것과도 비슷했다. 천만뜻밖의 물건들—이를테면 막대기, 한 뭉텅이 넝마, 꽃 같은 것이 펄의 마술 꼭두각시가 되어 놀아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외양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이 어린아이의 내면세계의 무대 위에 나타나는 어떤 연극에나 적합한 인형 배우가 되었다. 펄의 갓난아이 목소리 하나가 무수한 상상 속 인물—늙은 사람과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로 변하여 서로 대화를 했다. 늙고 검고 엄숙한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려 음음하고 침침한 소리를 낼 때에는 그것이 그대로 청교도의 어른들이 되었다. 마당에 돋아나는 흉한 잡풀들은 그 청교도의 아이들—그래서 펄은 그들을 막 후려갈기고, 사정없이 뽑아 버렸다. 이 아이의 지능이 활동하는 형상이 다종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함에는 참으로 놀랄 만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속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별안간 초자연적인 활동을 일으켜 돌진하고 난무하는가 하면, 그다음 순간에 마치 급박하고 열광적인 생명의 만조(滿潮)에 기진맥진한 것처럼 까부라지고 만다. 그러면 그 뒤에는 다른 형체들이 나타나서는 또 아까와 같은 자유분방한 활동을 개시한다. 마치 북극광(北極光)의 몽환적인 작용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것은 아무 실체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공상의 작용이었고 자라나는 정신력의 유희였는데, 이러한 것은 총명한 어린아이들의 정신 속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다만 펄은 인간 동무가 전연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해 내는 환상들을 동무로 삼는 경향이 좀 더 강할 뿐이다. 그리고 또 이 어린아이의 독특한 점은 자기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솟아나온 산물들을 적개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펄은 동무를 만들어 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용의 이빨을 여기저기에 뿌려두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무장한 적군들이 솟아나면 그 아이는 싸우러 달려가는 것이었다.[16] 이 어린것이 벌써부

16 페니키아(Phoenicia)의 왕자. 카드모스(Cadmus)가 부왕의 명을 받아 누이동생 에우로페(Europe)를 구원하러 갔었다. 에우로페는 제우스(Zeus) 신(神)에게 납치되어 갔었다. 카드모스의 부하들은 용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다. 그래서 카드모스가 용을 죽이고 그 이빨들을 땅에다 뿌렸더니 거기에서 무수한 군대가 솟아나왔다. 카드모스가 그들 군대 속에 돌(石)을 하나 던져 주었더니 그들은 서로 가지려고 싸우다가 다 죽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터 불우(不遇)한 세상을 항상 자각하고 장래 인생 투쟁에 있어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저렇게도 무섭게 실력을 양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원인이 모두 다 자기 자신 속에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펄을 보다가 어머니는 번번이 일감을 무릎 위에 떨어뜨리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저절로 터져 나오는 울음 속에서 부르짖었다. "오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약 당신이 아직도 저의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내가 낳은 이 아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목이 메어 가슴이 터질 듯한 어머니의 소리를 곁에서 엿듣거나 혹은 또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알아들은 펄은 예쁘고 생기 있는 조그만 얼굴을 쳐들어 어머니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다시 장난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이 어린아이의 행동 중에 독자에게 전해야 할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남아 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나온 뒤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어머니의 웃는 얼굴은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어머니가 웃을 때에 조그만 입을 가지고 태중의 웃음을 웃어 보이고 그것이 나중까지도 희미하게 기억되어, 과연 그 때의 그것이 진정한 웃음이었던 것이 아닌가—그러한 것이 애정 속에서 토론되고는 하지만, 펄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다. 펄이 나중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기억은 참으로 어머니 가슴 위에 있는 주홍 글씨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요람 위에 몸을 구부리고 내려다 볼 때에 갓난아기의 시선은 주홍 글씨 변두리에 있는 금실수가 희미하게 번득거리는 데로 끌려갔다. 조그만 손을 들어 그것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면서 웃는데 막연히 웃는 얼굴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을 알아본 것같이 웃는 얼굴이었다. 그것이 이 갓난아기 얼굴에다 무척 큰 아이의 얼굴 같은 표정을 주었었다. 그때에 헤스터 프린은 가슴이 선뜻하여지며 본능적으로 그 운명적인 표적을 떼어 버리려고 움켜쥐었다. 펄의 어린 손이 와서 무엇을 아는 듯이 만져 주는 데서 받은 고통은 참으로 무한했다. 그랬더니 또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고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자기와 장난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나 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웃어 보였다. 그때로부터 헤스터는 한시도 어린아이가 잠들 때 말고 도무지 안심을 못했다. 참으로 잠시도 고요히 스스로 즐기는 시간이 없었다. 펄의 시선이 또다시 주홍 글씨로 오지 않는 때가 이 주일 삼 주일씩

계속되는 수도 사실 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뜻하지 않은 때에 마치 급살병이 달려들 듯이 펄의 큰 눈이 여전히 독특한 웃음과 기묘한 표정을 가지고 돌아오곤 했다.

어머니들은 갓난아기 눈동자 속에 비치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다보기 좋아하지만, 헤스터도 어떤 때 펄의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에 희롱하는 듯한 요사스러운 표정이 두 눈 속에 나타났다. 그것을 보자 헤스터는—근심이 많은 고적한 여자는 으레 영문 모를 망상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지만—별안간 펄의 까만 눈동자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다른 얼굴을 본 것같이 생각했다. 그것은 악의를 가지고 싱글싱글 웃어 보이는 악마와 같은 얼굴이면서도 자기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얼굴과 모습이 꼭 같았다. 다만 자기가 알고 있는 얼굴은 저렇게 싱글거리지도 않고 또 악의라고는 조금도 없는 얼굴이지만, 마치 어떤 악마가 이 아이의 정신 속에 들어가 앉아서 비웃으며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후에도 헤스터가 이와 동일한 환상에 고통을 받은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다만 뚜렷한 정도가 처음만 못할 따름이었다.

펄은 혼자서 뛰어다닐 만큼 자랐다. 어느 여름날 오후 뜰에서 꽃을 한 줌 따가지고 와서 어머니 가슴에다 한 포기 한 포기 던지면서 좋아라 했다. 그리고 던지는 꽃이 주홍 글씨를 바로 맞힐 때마다 어린 요정(妖精)처럼 춤을 추며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 헤스터는 얼른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자부심인지, 체관(諦觀)인지, 혹은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으로써만 자기의 회개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음인지, 헤스터는 손으로 가리고 싶은 욕망을 물리치고, 주검처럼 창백한 얼굴로 꼿꼿이 앉아, 다만 어린아이의 자유분방한 눈을 슬프게 들여다볼 뿐이었다. 꽃 화살은 여전히 날아 들어와 거의 실수 없이 과녁을 맞혔다. 이렇게 해서 받은 어머니의 가슴 상처는 이 세상의 무슨 향약(香藥)으로도 고칠 수 없고, 또 저세상에서 구해 볼 도리도 없었다. 마침내 꽃이 다 없어지니까 어린아이는 가만히 서서 헤스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때에 반득반득하는 눈동자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속에서 웃고 있는 악마의 얼굴이 내다보고 있었다. 사실로 내다보았는지 어쩐지, 하여튼 어머니는 그렇게 상상했었다.

"아가, 넌 무엇이냐?" 어머니는 목소리를 쥐어짰다.
"엄마, 펄이지 뭐야!" 어린아이의 대답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펄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익살맞은 팔짓, 몸짓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굴뚝으로 훌쩍 날아올라 갈 것 같았다.
"너는 진정으로 내 아가냐?" 헤스터는 물었다.
공연히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니었다.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질문했던 것이다. 펄의 총기가 하도 놀라워서 어머니는 이 아이가 자기 생존의 비밀을 죄다 알고 있어 지금 그 비밀을 폭로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왜, 엄마 펄이라니까 그래요!" 어린아이는 아직도 익살맞은 춤을 추며 대답했다.
"너는 내 아가는 아니다! 내 아가는 아냐!" 어머니는 농담 삼아 말했다. 가장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중에도 이렇게 농담을 하고 싶은 기분이 간간이 솟아나는 것이 이 어머니의 천성이었다.
"그럼 엄마한테 말해 봐라. 넌 누구니? 또 누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내 주셨니?"
"그건 엄마가 말해 줘요!" 어린아이는 별안간 심각한 표정을 띠고 어머니 앞에 와 무릎에 매달리면서 말했다. "엄마가 가르쳐 달란 말이에요."
"너의 하늘 아버지가 보내어 주셨단다!" 헤스터 프린은 대답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어머니 얼굴 위에 약간 주저하는 빛이 떠도는 것을 날카로운 펄의 눈은 그대로 놓치지 않았다. 평소의 장난기가 또 나왔든지, 혹은 무슨 악마가 뒤에서 충동을 했든지, 펄은 조그만 둘째손가락을 들어 주홍 글씨를 만졌다.
"그 양반이 날 보내 주시지는 않았어." 펄은 단정적으로 말했다. "난 하늘 아버지는 없어요!"
"요년, 입을 다물어라! 그런 수작을 해선 안 돼!"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것을 꿀꺽 참으며, 어머니는 대답했다. "하느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이 세상에 내보내셨다. 이 어미까지도 하느님이 내보내주셨어. 그러니 너야 말할 것 있니? 이 요물 같은 년아,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디서 나왔단 말이냐?"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줘요!" 펄은 같은 소리를 자꾸만 되풀이하는데, 심각한 표정은 벌써 없어지고, 웃으며 마룻바닥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 말은 엄마가 할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헤스터 자신이 의문의 미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해결 지을 수가 없었다. 헤스터는 반은 우습고 반은 몸이 떨리는 그런 기분에서 이웃 사람들이 하던 말을 회상했다. 이웃 사람들은 이 아이 아버지를 아무리 알려고 해 보아도 알 도리가 없고 또 한편 그 아이의 성질에 괴상한 데가 있어서, 가엾은 펄은 악마의 자식이라 말들 했었다. 악마의 자식이 그 어머니의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서 어떤 흉악한 목적을 이 세상에 행한다는 이야기는 천주교 시대 이래로 항상 들어온 바이다. 구교의 적들이 비방하는 것을 들으면 루터(Luther)는 지옥의 악마 일족의 자손이었다 한다. 펄은 그러한 악마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펄은 뉴잉글랜드 청교도들 사이에서 이렇듯 재수 없는 조상을 안아맡게 된 유일한 아이는 아니었다.

7. 장관저(長官邸)의 객청(客廳)

헤스터 프린은 어느 날 장갑 한 켤레를 가지고 벨링햄 장관 관저를 방문했다. 그 장갑은 장관 본인의 주문을 받아 도련을 치고 수를 놓았는데 무슨 중대한 예식 날 소용된다는 것이었다. 인민투표의 결과로 벨링햄은 최고 지위로부터 한 두어 서너 계단 내려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식민지 관계(官界)에서는 둘, 셋을 다투는 지위였다. 하필 이때에 헤스터가 그렇게도 권세 있고 활동력 있는 인물을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던가? 주문받은 장갑을 전해 준다는 외에도 좀 더 중대한 이유가 있었다. 종교와 정치에 대하여 좀 더 엄격한 질서와 원칙을 존중하는 상류계급 주민들 간에 자기로부터 어린아이를 빼앗아 가자는 계획이 있다는 말을 벌써 전부터 헤스터는 듣고 있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펄은 악마의 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선남선녀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그 어머니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리스도 교도로서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그 전도를 가로막는 장해물(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 반면에 만약 이 어린아이가 참으로 도덕적 종교적으로 발전할 능력이 있고 또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소질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확실히 그러한 특전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다만 그러자면 현재의 어머니 헤스터 프린보다는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선량한 보호 밑에 두자는 것이었는데, 무리한 말은 아니었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시키는 사람들 중에서 벨링햄은 가장 일심한 사람들 중 하나라는 풍문이 있다. 지금 세상 같으면 시회 위원회(市會委員會)에 위탁될 문제가 이렇게 국가 공사로서 토론되고 그 토론에 고명한 정치가들이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이상하고 좀 우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 순박한 시대에 있어서는 헤스터와 그 어린아이의 안녕 행복에 관한 문제와 같은 것이 입법부의 심의와 행정부의 결의거리가 되는 것이었다.

한 마리 돼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식민지 입법부 내에 격렬한 논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조직 그 자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게 되던 시대는 이 소설의 시대보다 그리 이른 시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헤스터 프린이 그 고적

한 오막살이를 떠나서 장관 관저로 갈 때에 근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한편에서 떠드는 일반 공중과 또 한편에서 대자연의 동정에 지지를 받는 고적한 어머니 사이에 이건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라고 생각할 만큼, 헤스터는 자기의 권리를 투철히 자각하고 있었다. 어린 펄은 물론 동행했다. 펄은 벌써 어머니를 따라 발걸음도 가볍게 달음질할 수 있는 나이였다. 요새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하고 있으니까 그보다 먼 길이라도 능히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걸어가다가는 안아 달라고 조르고 조금 가다가는 내려 달라고 야단을 치고, 내려 주면 어머니보다 앞서 풀밭을 뛰어가고 하는 것은 신체의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변덕스러움에서 나오는 것이었으리라. 펄의 호화 사치한 미모에 대해서 나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깊고 뚜렷한 광채를 가지고 빛나는 미, 명랑한 안색, 깊은 맛과 동시에 총명한 맛을 가지는 눈, 현재에도 윤택한 갈색이니까 장래에는 거의 흑색에 가까운 빛으로 변할 것이 분명한 머리카락, 이 어린아이 전신은 불이 붙는 듯하였고, 그 불은 전신에서 퍼져 나오는 듯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떤 정열적인 순간에서 아무 예측도 없이 솟아나온 싹인 듯싶었다. 어머니는 이 아이의 옷을 고안할 제 그 호화 다채로운 상상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했다. 진홍색 우단 윗도리 하나만 해도 독특한 재단에다 풍부한 수를 놓고 또 그 위에다 금실로 기괴현란(奇怪絢爛)한 무늬를 첨부했다. 혈색이 그만 못한 아이에게 입혔더라면 그 얼굴이 더욱 창백하고 초췌하게 보였을 그렇게도 강렬한 색채가 도리어 펄의 미모에는 꽉 어울렸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오는 펄은 일찍이 천상에서 이 지구에 뛰어내려온 중 가장 현란한 불꽃인양 싶었다.

펄이 입는 옷의 특이한 점과 또 펄의 모양 전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헤스터가 숙명적으로 가슴에 달고 다니는 표적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별개의 형식을 가지는 주홍 글씨—생명을 가지는 주홍 글씨였다. 그 새빨간 수치가 머리를 속속들이 태워서 모든 생각이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된 것처럼, 어머니 자신이 무슨 옷이나 다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애정의 대상과 죄고(罪苦)의 표식 사이에 유사점을 만들어 내려는 것처럼 몇 시간이든지 그 병적인 기교를 아낌없이 기울였다. 그러나 사실인즉 주홍 글씨가 헤스터의 죄악의 표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펄도 역시 그러했다. 두 가지가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헤스터는 펄 속에 주홍 글씨의 모습을 그렇게도 완전하게 표현했던 것이다.
모녀의 걸어오는 모양이 거리에 나타나자 청교도의 아이들은 유희를 그만두고 (침침한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에겐 그런 것이 유희였다) 쳐다보면서 자못 엄숙한 얼굴로 서로들 이야기했다.
"얘 좀 봐라. 저기에 주홍 글씨 여인이 지나간다. 그러나 그뿐인가, 주홍 글씨와 꼭 같은 것이 또 하나 곁에 따라간다! 자, 우리 저년들에게 진흙을 얹어 주자."
그러나 대담한 펄은 눈을 흘기고, 발을 구르고, 쪼그만 주먹을 내휘둘러 위협을 해 보이면서 돌연히 이 일단의 적을 향하여 돌진했다. 그래서 그들을 죄다 쫓아 버렸다. 이렇게 맹렬히 애들을 다그쳐 가는 펄의 모양은 어린아이들의 역병―홍역이나 무슨 그런 종류의 돌림병을 연상시켰다. 이러한 돌림병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죄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나온 아직 날개도 채 돋지 않은 심판의 천사들이었기 때문이다. 펄은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썼는데 그 목청이 어떻게도 높든지 도망가는 아이들은 가슴이 덜렁덜렁했다. 승리를 얻은 펄은 가만히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서 빵긋이 웃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다시는 모험에 부닥치지 않고 모녀는 벨링햄 장관 관저에 도착했다. 커다란 목조 가옥이었다. 그와 같은 양식의 가옥들이 우리나라 구(舊) 도시 거리거리에 지금도 남아 있다. 겉에는 이끼가 돋고, 무너져서 썩어 들어간다. 그 안에서 생겨났다가 컴컴한 방 속에서 사라지고만 가지가지의 슬픈 일, 기쁜 일들―어떤 것은 기억되고 어떤 것은 잊혀지고―을 생각할 때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그 당시는 가옥 표면에는 아직도 청신한 맛이 있었고, 환한 창들로부터는 즐거운 빛이 비쳐 나오고 있었다.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죽음은 아직도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집의 외관은 매우 쾌적했다. 벽에는 흰 회칠을 하고, 회 속에는 무수한 유리 조각을 섞어 넣었기 때문에 해가 비스듬히 쬐면 마치 두 손으로 금강석 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했다. 그 찬란함은 엄숙한 청교도 통치자의 저택이라기보다는 알라딘(Aladdin) 궁성에 어울릴 만했다. 건물은 또 그 시대의 기묘한 취미에 따라서 신기하고 얼른 보기에 신비스러운 초상과 도형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러한 그림들은 회가 마르기 전에 그려 두면, 회가 마르면서 굳어져, 후세 사람들이 보고 찬미하도록 되어 있다. 펄은 이 집의 휘황찬란한 모양을 보고 좋아서 날뛰고 춤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서 햇빛을 모조리 벗겨다가 자기에게 달아 달라고 몹시 졸라댔다. 그러면 햇빛과 같이 놀겠다는 것이다.

"그건 할 수 없다, 펄." 어머니는 말했다. "너 자신이 너의 햇빛을 모아야 한다. 난 너에게 줄 햇빛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문 앞으로 가까이 갔다. 문은 아치형이었고, 좌우에는 좁은 탑—본 건축에서 조금 내민 탑—이 부축하는 것처럼 솟아 있고, 두 탑에는 살창문이 달려 있는데, 필요할 때에는 나무로 만든 덧문을 내리게 되어 있었다. 문에 달려 있는 쇠방망이를 들어 안내를 청했다. 안에서 장관의 종이 나왔다. 영국의 자유민이었으나 현재는 7년 간 노예 신분으로 있었다. 그 기간 종은 주인의 재산이라, 소나 가구 모양으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이었다. 종은 푸른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 또 훨씬 전부터 영국 가정에서 전해 내려오는 종의 복색이었다.

"장관님께서 댁에 계시는지요?" 헤스터는 물었다.

"네, 계십니다." 종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주홍 글씨를 쏘아보았다. 이 종은 이 땅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 주홍 글씨를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히 보았던 것이다. "각하께서 지금 안에 계시기는 합니다만, 목사님 두 분하고 또 의사 선생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 뵐 수가 없을 겁니다."

"하여튼 들어가겠어요." 헤스터 프린은 대답했다. 그 태도가 단호하고 또 가슴 위에 무슨 번쩍번쩍하는 표식이 있어 이 여자가 무슨 이 지방 귀부인이나 되는 줄 알고 종은 방해하지 않았다.

이리해서 어머니와 어린아이는 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벨링햄 장관은 이 새 집을 지을 때에 영국 본국에 상당한 재산을 가진 신사들의 주택을 본떠 설계를 하고, 그 밖에 건축 재료의 성질이라든가 풍토의 변화라든가 기타 사회생활의 별다른 양식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가미했었다. 두 사람이 지금 들어온 방은 넓고 상당히 높은 대청이었다. 대청에서 다른 방들로 직통할 수 있게 되어, 말하자면

이 대청은 중앙 연락처였다. 이 넓은 방 한쪽 끝에는 두 개의 탑—탑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방문 좌우가 좀 움푹 들어가 있었다—에서 들어오는 빛이 환히 비치고 있었다. 이와 반대쪽 끝에는 일부분 커튼으로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환한 광선이 쬐고 있었다. 그 광선은 우리가 옛날 책에서 흔히 읽게 되는 궁형창(弓形窓)인데, 창 밑에는 폭신폭신한 방석들이 깔려 있다. 방석 위에는 이절판(二折判)의 큰 책이 놓여 있는데 역사책이 아니면, 무슨 그런 내용이 있는 문헌일 것이라, 현대 사람들이 객청 맨 가운데 의자 위에 금칠한 테를 두른 책을 펼쳐 놓아두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읽도록 해 두는 것과 같은 격식이다. 객청 안의 가구들을 보면 묵직한 의자가 몇 개—그 등에는 참나무 꽃을 화환으로 표시한 정교한 조각이 베풀어 있다. 같은 취미의 탁자가 한 개. 가구 전체가 엘리자베스 시대나, 좀 더 이른 시대에 속하는 물건들인데, 총독이 그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반입해 온 상속 재산들이었다. 인심 좋은 옛날 영국의 풍습을 결코 버리고 오지 않았다는 표시로 탁자 위에는 커다란 놋 잔이 놓여 있는데, 만약 헤스터나 펄이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면 바로 전에 마시고 남은 맥주 찌꺼기 거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벽에는 초상화들이 쭈룩 걸려 있는데 벨링햄 가문의 조상들 초상화였다. 어떤 인물들은 가슴에 갑옷을 입고 있고, 또 어떤 인물들은 굉장한 주름 깃을 단 평복을 입고 있었다. 옛날 초상화를 보면 으레 나타나 있는 엄하고 무서운 표정이 그들 초상화의 특색이었다. 이 세상을 떠난 위인들의 초상화라기보다는 유령들처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오락과 향락을 엄격하고 용서 없이 비판하고 있는 듯싶었다.
참나무 벽판자 가운데쯤에 갑옷 한 벌이 걸려 있었다. 사진에 나오는 갑옷들과 같은 조상 유물은 아니고, 최근대 제품이었다. 그것은 벨링햄 장관이 뉴잉글랜드로 부임해 오던 바로 그해에 런던(London)의 어떤 무구사(武具師)가 만든 것이었다. 강철로 만든 두갑(頭甲), 흉갑(胸甲), 경갑(頸甲), 한 쌍의 장갑(掌甲), 그리고 그 밑에는 검이 한 자루 매달려 있었다. 모두 다 번들번들하지만 특히 투구와 흉갑은 완전히 닦아 놓았기 때문에 백광(白光)을 던지면서 마룻바닥 어디랄 것 없이 어른어른 비치고 있었다. 이 찬란한 갑옷과 투구는 부질없이 자랑하기 위해 걸어 놓은 것은 아니었다. 총독은 엄숙한 검열식장(檢閱式場)에서 혹은 연병장에서 여러 번

이 무구를 차고 나왔었다. 뿐만 아니라 피쿼드(Pequod) 전쟁[17] 때에는 일 연대를 거느리고 이 갑옷을 빛나게 했었다. 원래 법률가로 자라서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동료로서 베이컨(Bacon), 코크(Coke), 노이에(Noye), 핀치(Finch)[18] 등 이름을 운운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상습이었지만, 이 새 나라의 긴급한 사태는 벨링햄 장관을, 정치가 겸 통치자인 동시에 또한 군인으로 만들었다.

어린 펄은 아까 이 집 전면이 번쩍번쩍하는 것을 보고 좋아했지만, 이번에는 갑옷이 번들번들한 것을 보고 또 좋아했다. 그래서 거울처럼 환한 흉갑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다.

“엄마!” 하고 아이는 소리를 질렀다. “엄마 그림자가 보여요. 좀 봐요, 봐요.”

어린아이 비위를 맞출 겸, 헤스터는 들여다보았다. 흉갑은 돋보기 거울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 독특한 효과로 말미암아 주홍 글씨가 몹시 확대되고 과장되어 나타난 것을 헤스터는 보았다. 그래서 전신 중에서 이 부분만이 두드러져 나오고 다른 부분은 완전히 그 뒤에 숨어 버린 것같이 생각되었다. 펄은 옷 쪽을 손가락질하며 투구 위에 나타나 있는 그림자를 가리켰다. 어머니를 보고 생글생글 웃는 얼굴인데, 헤스터가 매우 익숙해진 요물 같은 총기가 어린 얼굴 위에 나타났다. 심술궂게 놀려대는 듯한 표정도 여전히 거울 속 그림자에 나타나 있었다. 다만 그 그림자가 몹시 확대되고 그 효과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헤스터 프린이 볼 때에 그것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펄의 형태를 뒤집어쓰려고 하는 새끼 마귀 같았다.

“펄, 이리 오너라.” 어린아이 팔을 끌어당기며 헤스터는 말했다. “이리 와서 고운 정원을 보아라. 꽃이 보는지도 모른다—산속에서 보던 꽃들보다도 더 고운 꽃들이.”

그래서 펄은 반대쪽에 있는 궁창(弓窓) 앞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정원 길을 내다보았다. 정원 길에는—바싹 깎은 잔디가 보료처럼 깔려 있고, 좌우 가장자리에는 관목(灌木)을 심었는데 아직도 투박한 애송이 나무들이었다. 이 집 주인공은 대서

17 1637년 뉴잉글랜드 사람들과 피쿼드 인디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18 엘리자베스 시대의 저명한 법학자들이다.

양 건너 생존 경쟁이 극심한 이 굳은 땅에다 화려한 영국식 취미의 정원을 모종해 보려는 노력은 전연 무망한 것이라 해서 일찌감치 단념해 버린 모양이었다. 배추가 바로 눈앞에 자라고 있었다. 상당히 먼 곳에 뿌리를 가지는 호박덩굴이 중간의 길을 더듬어 와서 객청 바로 창 밑에다 큼직한 산물 하나를 내어 놓았는데 이 황금덩어리 같은 야채 산물은 뉴잉글랜드 땅이 장관 각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호화스러운 장식물의 하나라는 것을 벨링햄에게 경고하는 양 싶었다. 그 외에도 찔레꽃 덤불이 몇 군데 있었고, 능금나무도 대여섯 그루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반도에 맨 먼저 이민해 온 블랙스톤(Blackstone) 목사가 심었던 나무들의 후손일 것이다. 블랙스톤 목사는 반전설적(半傳說的)인 인물인데,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 으레 누렁소 잔등에 앉아서 유유하게 걸어 나오시는 어른이다.

펄은 찔레꽃 덤불을 보고 빨간 찔레꽃 한 포기를 따 달라고 조르며, 아무리 달래도 듣지 않았다.

“예쁜 내 아가, 펄, 울지 말아. 뜰 안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니? 장관님이 오시나 보다. 그리고 손님들도 따라 오시는 모양이다.”

사실상 정원 길을 걸어 이쪽으로 수명의 인물이 걸어오고 있었다. 펄은 어머니가 자기를 달래려고 애쓰는 것을 업신여겨 보고 마지막으로 빽 소리 지르고서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것은 뭐 어머니의 명령에 복종해서가 아니라, 새 인물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변하기 쉬운 어린아이의 호기심이 동했기 때문이었다.

8. 요동(妖僮)과 목사(牧師)

벨링햄 장관은 너그러운 가운과 편한 캡을 쓰고 맨 앞에 걸어오고 있었다. 그 당시의 노신사들은 집 안에서 쉴 때에는 이런 옷을 입기 좋아했다. 그는 지금 손님들에게 자기 집 토지를 안내하고 무슨 개량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흰 수염 아래에 벌어진 정교한 주름 깃은 엘리자베스 왕조 시대의 구식 풍습 그대로 돌연히 넓어서 그 위에 얹힌 장관의 머리는 꼭 소반에 담은 세례 요한[19]을 보는 것 같았다. 얼굴 모양이 엄격하고 또 인생의 가을철도 지나서 서리에 맞은 듯한 전체의 인상은 그가 전력을 다하여 자기 주위에 끌어 모으려고 애쓰는 세속적인 향락의 가지가지 방편들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우리의 엄숙한 조상들은 인간의 존재를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으레 인생은 시련과 투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버릇이었고 또 의무가 명령하는 대로 진심하게 재산과 향락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안락의 방편과 사치 같은 것을 순연히 버리는 것을 양심적 행동으로 생각했다고 추측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면 존 윌슨과 같은 존경할 만한 목사는 그런 이론을 설교하지는 않았었다. 눈보라치듯 흰 수염을 훨훨 날리는 윌슨 목사의 얼굴은 지금 벨링햄 장관 어깨 너머로 보인다. 그는 지금 배와 복숭아를 뉴잉글랜드 땅에 옮겨 심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또 포도 같은 것도 해가 잘 드는 정원 담에 의지해서 자라는 것이 천연적인 습성이지만, 그렇지 않은 풍토에서도 억지로 자라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다. 영국 교회의 풍족한 품안에서 자라난 이 노(老)목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과 안락한 것에 대해서 유서가 깊고 계통이 바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나, 또는 헤스터의 사건과 같은 범행을 공식으로 비난할 때에는 몹시 엄격해 보이지만 사생활에 있어서는 퍽 온정미가 있고 인자해서, 그 시대의 어느 목사보다도 사람들에게서 열렬한 애정을 받고 있었다.

장관과 윌슨 목사 뒤에 두 사람 손님이 따라왔다. 한 사람은 아서 딤즈데일(Arth-

19 헤롯이 무희 헤로디아의 딸에게 상을 주려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담아 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온다.

ur Dimmesdale) 목사—헤스터 프린이 망신을 당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이 억지로 짧은 역할을 맡아 보았었다는 것을 독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 곁에는 노인 로저 칠링워스가 따라오는데, 이 의술의 대가는 최근 이삼 년 동안 이 도시에 살아왔다. 이 학자는 청년 목사 딤즈데일의 친구 겸 의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 청년 목사는 교회 관계 일 때문에 함부로 자기의 사생활을 희생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건강이 아주 좋지 못했었다.

장관은 손님들보다 앞서 돌층계를 두서너 단 올라와서 객청 문 문짝을 열자, 바로 앞에 어린아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헤스터 프린은 커튼 그늘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 가려져 있었다.

"이건 대체 무엇이냐?" 벨링햄 장관은 자기 앞에 있는 새빨간 어린아이 모양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고(故) 제임스 왕조 때에 나도 번번이 궁중(宮中)에 가면 무도회에 참석하는 영광을 가졌었는데, 그때에 이런 것을 보고는 이번이 처음이로군. 무슨 축제일이 되면 요런 어린 요정들이 수없이 모여들었건만 그래서 그들을 사연자(司宴者)라 불렀지. 그런데 이런 손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를 들어왔단 말인가?"

"아아, 참!" 윌슨 노인은 부르짖었다. "고놈의 새, 날개도 붉다! 우리가 영국에 있을 때 호화로운 그림을 그린 색 유리창으로 햇빛이 들여 쬐고 마룻바닥 위에 황금색과 진홍색 인물상들이 어른어른 하던 시절에는 이런 것을 본 것 같다만. 참으로 어린아이야, 넌 도대체 누구냐? 너희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이상야릇한 복색을 차려 주더냐? 너는 신자의 아이냐, 에? 너 문답서를 아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요동(妖僮)이냐, 선동(善童)이냐? 그런 건 다 저 유쾌한 영국에 천주교의 유물과 같이 버리고 온 줄만 알았더니."

"난 엄마 아이예요. 그리고 내 이름은 펄이에요." 새빨간 요동은 말했다.

"펄? 차라리 루비(Ruby)라는 편이 낫겠다. 네 빛깔을 보니 코랄(Coral)이니 레드로즈(Red rose)니 하는 편이 도리어 나을 듯싶다." 노목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어린아이 뺨을 만져 주려고 손을 내밀었으나 어린아이는 몸을 피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아이 어머니는 어디 있는가? 아, 저기에 있군." 그는 장관에게로 얼굴을 돌

리며 귓속말로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들이 토의하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바로 저기에 이 아이 어머니 헤스터 프린이 있으니 그 불행한 여인을 보십시오.”
“불행하다는 말씀입니까?” 장관은 버럭 소리 질렀다. “이런 아이의 어미라면 필연코 붉은 여자일 것이며 훌륭한 바벨론의 표본일 것[20]이라고 단정해야 마땅할 일이죠. 허나 마침 잘 왔소. 지금부터 곧 이 문제를 조사해 봅시다.”
벨링햄 장관은 세 사람 손님을 거느리고 문 안으로 들어왔다.
“헤스터 프린!” 천성 엄한 눈으로 주홍 글씨의 주인공을 쏘아보면서 그는 말했다. “요새 그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단 말이야. 저기 저 어린아이 속에 있는 영원불멸한 영혼을 그대와 같이 엎드러져 구렁에 빠진 인간의 지도에다 맡겨 두어도 과연 권세를 가지는 우리들이 양심의 직책을 이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신중히 토의해 보았어.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그대가 말해 보오. 이 아이의 이 세상의 행복과 또 영원한 내세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를 그대의 보호로부터 분리해서 온당히 입히고 엄하게 교육하고 하늘과 땅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등사(等事)에 대해서 그대는 아이에게 무슨 일을 해 줄 수 있는가?”
“제가 여기에서 배운 진리를 이 어린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헤스터 프린은 이렇게 말하면서 새빨간 표식 위에다 손가락을 얹었다.
“이 여자야, 그것은 수치의 표적이야!”
엄격한 장관은 대답했다. “우리가 그대의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이관하려 하는 것은 바로 그 글씨가 가르치는 죄악 때문이야.”
“그렇지만” 하고 어머니는 얼굴이 좀 더 창백해지면서도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20 “붉은 여자”와 “바벨론”은 다 음녀를 의미한다. 이 부분은 신약 요한계시록 17장 3~5절을 근거로 하는 말이다.
3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표적은 저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처럼 가르쳐 줍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제 자신에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그 교훈으로써 좀 더 현명해지고 좀 더 선량해질 수 있습니다."

"신중히 처리합시다." 벨링햄은 말했다.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을 잘 생각해 봅시다. 윌슨 목사님, 펄—이라니까 그렇게 부릅시다—펄을 좀 시험해 주십시오. 그 아이가 과연 그 연배 아동들에게 적합한 그리스도교의 훈육을 받았는가, 좀 시험해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목사는 팔 달린 의자에 앉아서 펄을 두 무릎 사이로 끌어당기려고 해 보았다. 그러나 이 아이는 과거에 자기 어머니밖에는 친히 몸을 대어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도망가서 층계 위 단에 섰다. 호화로운 깃을 가진 열대산(熱帶產) 새가 지금 허공으로 날아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한 형국이었다. 윌슨 목사는 이 뜻밖의 일에 적잖이 놀랐다. 그는 인자한 할아버지다운 인물이라, 평소에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해 왔기 때문이었다. 놀라면서도 여전히 시험을 계속해 보려고 노력했다.

"펄." 무척 엄숙한 음성으로 그는 말했다. "너는 어른의 교훈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커서 어른이 될 때에 아주 값있는 진주 보배를 네 가슴에다 찰 수 있단 말이야. 아가, 너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 말해 보아라."

펄은 누가 자기를 만들었는지 참 잘 알고 있었다.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난 헤스터 프린은 하늘 아버지에 관해서 어린아이와 처음으로 이야기한 뒤로부터 곧 여러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었다. 이러한 진리란, 듣는 아이의 지식 정도가 아무리 미숙하다 할지라도 참 열심히 듣기 마련이다. 펄이 삼 년 평생에 배운 교훈은 참 상당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 기도초보나 웨스트민스터 문답서 제1단을 가지고 시험을 한대도, 비록 이들 유명한 책의 외면적 형식에는 익숙하지 못했을망정 내용에 있어서는 훌륭히 시험을 감당해 냈을 것이다. 어느 아이나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고, 특히 펄은 보통의 열 배는 가지고 있는 심술이 공교롭게도 이 순간에 이 어린아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펄은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입을 열면 무슨 잘못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였다. 친절한 윌슨 노인

의 질문에 대해서 무례하게도 여러 차례 대답을 거절한 다음 손가락을 입에 물며 마침내 대답했다.

“나를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난 우리 엄마가 옥문 곁에 있는 찔레꽃 덤불에서 따 왔어요.”

이 엉뚱한 생각은 펄이 문 밖에 붉은 장미 덤불 근처에 서 있음으로 해서 암시되었었을 것이다. 또 이리로 오는 도중에 옥문에서 찔레꽃을 보았던 것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늙은 로저 칠링워스는 생긋 웃으며 청년 목사 귓속에다 무어라고 수군거렸다. 헤스터 프린은 의사의 얼굴을 보았다. 헤스터는 지금 그 운명이 간들간들하는 판이지만, 이 노인의 얼굴이 몹시도 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와 작별한 이래로 원래 보기 흉한 얼굴이 아주 추악해졌고, 검던 얼굴빛이 더 검어졌고, 그 불구인 모양이 더 현저했다. 일순간 시선이 마주쳤다. 그러나 헤스터는 곧 또다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면에 모든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건 참 두려운 일이로군!” 총독은 펄의 대답을 듣고 아득해졌던 그 놀라운 감정에서 서서히 깨어나면서 말했다. “누가 자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그래 세 살 난 아이란 말이요? 이 아이는 틀림없이 영혼에 있어서나, 현재의 타락에 있어서나, 장래의 운명에 있어서나, 무엇에 있어서나 암흑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같아서는 이 이상 질문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헤스터는 펄을 붙들고 힘 있게 품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아주 사나운 표정으로 청교도 장관을 노려보았다. 세상에 버림을 받아 고독히 지내는 가운데서 이것만이 그의 마음을 살려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보배였다. 자기는 전 세계에 항거해서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죽는 날까지 지킬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하느님이 그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헤스터는 부르짖었다. “하느님은 저로부터 다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신 대신으로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저의 행복입니다! 행복인 동시에 고통입니다. 펄은 저를 이 세상에 살려 둡니다! 그러나 살려 두는 동시에 저를 벌줍니다. 여러분은 못 보십니까?—그 아이는

주홍 글씨입니다. 다만 그것과 다른 점은, 그 아이는 사랑을 받을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만큼 저의 죄를 벌주는 힘이 백만 배나 더 강합니다. 천하가 없어도 이 아이는 못 뺏어 갑니다. 그전에 제가 죽을 겁니다."

"가엾은 여인이여." 친절심이 없지 않은 노목사는 말했다. "어린아이는 잘 보호해 주리다. 그대 이상으로요."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저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언성을 높이며 헤스터는 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절대로 이 아이는 내줄 수 없어요." 여기서 헤스터는 별안간 무슨 생각이 나서 청년 목사 딤즈데일 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지금 순간까지 헤스터가 눈짓 한 번 하지 않던 청년 목사였다. "제 대신에 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저의 목사였고 영혼의 감독자였으니까, 이분들보다는 저를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결코 이 아이를 내놓지 않을 거예요. 제 대신에 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이분들이 가지시지 못한 동정심을 가지셨으니까, 제 마음속을 잘 알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권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그 아이와 주홍 글씨밖에 남은 것이 없을 때에 그 권리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잘 아실 거예요. 제 청을 꼭 들어주세요. 이 아이는 죽어도 못 내놓겠어요. 꼭 들어주세요."

이 격렬하고도 기묘한 진정—헤스터의 입장이 하도 절박해서 마침내 이 여자를 거의 미치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호소였다—을 받고 딤즈데일은 즉시에 한 걸음 걸어 나왔다. 그 얼굴은 창백하고, 또 그가 특히 흥분될 때에 으레 하는 버릇처럼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있었다. 헤스터가 군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던 날보다도 더 초조한 안색이었다. 건강이 쇠약해 그런지, 또 다른 무슨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나 크고 검은 두 눈 속에는 수심이 가득히 괴어 있었다.

"이 여인이 하는 말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말을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떻게도 곱고 떨리고 힘찬지 넓은 방 안이 쩌렁쩌렁 울리고 속이 텅 빈 갑옷이 반향을 일으킬 정도였다. "헤스터가 하는 말과 또 그 말을 하게끔 하는 그 감정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그 어린아이를 주셨고, 그와 동시에 그 어린아이의 천성과 요구에 대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아린아이의 천성을 보매 아

주 특별한 모양인데, 그런 데 대한 지식은 어머니 말고는 다른 아무 인간도 갖지 못한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머니와 이 어린아이 사이에는 또한 두렵게도 신성한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아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점을 좀 더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말을 가로챘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말을 계속하였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경솔하게도 죄악 행동을 인정하심으로써 모독적인 욕망과 신성한 사랑과의 구별을 경홀히 생각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비의 죄악과 그 어미의 수치 사이에 난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심정에 대하여 여러모로 감화를 주기 위하여 하느님 손에서 나타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그렇게도 열렬하게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축복을 위하여, 그 어머니 일생 중 유일한 축복을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또 그 어머니 자신이 우리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어머니의 죄를 벌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나타나서 어머니의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며, 근심스러운 기쁨 속에서도 두고두고 고민을 재발(再發)시키는 마음의 가시가 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러한 사상을 그 아이의 복색 속에서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가슴을 태우는 붉은 표적을 힘 있게 우리들에게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윌슨 목사는 말했다. "나는 또 저 여인이 자기의 아이를 한량이나 만들려는 줄 알았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딤즈데일 목사는 말을 이었다.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저 여인은 저 어린아이의 생존 속에서 하느님이 이루신바 엄숙한 기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영혼을 살려, 악마가 유인하여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더 암흑한 구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하느님이 그 어린아이를 주신 것이라고 저 여인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므로 죄를 지은 저 가엾은 여인이 저 영혼을 키워서 의로운 길로 인

도하라고 그 어머니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시시각각으로 그 어머니의 타락을 회상시킬 것이며, 또 만약 그 아이를 천당으로 보내게 되면 조물주의 신성한 약속에 의하여 그 어린아이가 양친을 천당으로 인도하리라 함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죄를 지은 저 어미는 죄를 지은 그 아비보다도 행복합니다. 헤스터 프린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 그 두 사람을 하느님이 섭리하신 대로 그대로 둡시다."

"선생은 참 이상하게도 열렬히 말씀하시는군요." 로저 칠링워스는 딤즈데일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나의 젊은 형제가 하신 말씀 속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윌슨 목사는 말을 첨부했다. "각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 가엾은 여인을 위해서 잘 변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관은 대답했다. "그 의견이 참 좋은 의견이니까, 이 문제는 현재대로 그대로 두기로 합시다. 적어도 이 여인에 관해서 또다시 무슨 나쁜 소문이 날 때까지는 그대로 두기로 합시다. 하지만 목사님이 직접 하시든가, 또는 딤즈데일 목사님이 하시든가, 저 아이에게 대하여 교회 문답 시험을 정식으로 하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또 적당한 시기에는 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회에 내보내도록 교구역원(敎區役員)이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목사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대여섯 걸음 물러가, 묵직한 창커튼 주름 그늘에 반쯤 가려서 섰다. 마룻바닥 위에 떨어져 있는 그의 그림자는 그의 열렬한 호소의 흥분으로 말미암아 퍼들퍼들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는 무궤도(無軌道)하고 날아다니는 소요동 같던 펄이 슬그머니 그의 곁으로 가서 자기의 두 손바닥으로 그의 손을 움켜잡고, 자기의 뺨을 그 위에다 얹었다. 그 애무(愛撫)하는 모양이 어떻게도 다정스럽고 또 천연스러운지, 보고 있던 헤스터는 "저것이 과연 내 딸 펄일까?" 하고 의문을 일으킬 정도였다. 그러나 어린아이 가슴속에는 애정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 수 있었다—비록 평소에, 그 애정은 열정으로 표현되어 왔고, 현재처럼 그 열정이 자상스러운 마음으로써 부드러워진 적은 평생에 한 번도 없었지만 이 목사에 대해서는 오래 갈구하는바 여자의 애정 말

고는 이 어린아이다운 애호처럼 다감한 것은 없었다. 그것은 정신적 본능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우러나온 것이었고, 따라서 그의 속에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애정의 발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주위를 돌아다보고 나서 손을 어린아이 머리 위에다 놓고 잠깐 주저하다가 어린아이 이마에다 키스를 했다. 어린 펄의 집정 없는 감정의 기분은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하하 웃고, 객청을 뛰어 달아났다. 달음질하는 모양이 어떻게도 나비 같은지 윌슨 목사는 저 아이의 발끝이 땅바닥에 닿는가 어쩐가 하고 의문을 제출했다.
"저 어린 말괄량이는 필연코 마술을 부리는가 보오." 윌슨 목사는 딤즈데일 목사에게 말했다. "노파의 빗자루[21]가 없어도 능히 공중으로 날아갈 거요."
"참 괴상한 아이로군요!" 로저 칠링워스도 의견을 말했다. "저 어린아이 속에서 어머니의 일부를 발견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철학자가 저 어린아이의 성질을 분석하여 그 조직을 기초로 해서 그 아비가 누구인가를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이교철학의 원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염려되는 일입니다." 윌슨 목사가 말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단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의(神意)가 스스로 계시(啓示)되지 않는다면 이 비밀은 비밀로 남겨 두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지요. 그럼으로써 아비에게 버림을 받은 가엾은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선량한 신자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친절심을 표시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헤스터는 펄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났다. 그들이 돌층계를 내려갈 때 창문이 열리더니 히빈스(Hibbins) 양이 얼굴을 환한 데로 쑥 내밀었다고 전하는 말이 있다. 히빈스 양은 벨링햄 장관의 성질이 고약한 누이동생인데, 수년 후에 마녀라고 해서 처형을 당한 바로 그 여자였다.
"쉬, 쉬." 히빈스 양이 말했는데 그 불길한 인상이 쾌적한 새 건축물에다 그림자를 던져 주는 것 같았다. "오늘밤 나 따라오오. 산속에 가면 재미나는 친구가 있답니

21 마녀는 빗자루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닌다는 미신이 있었다.

다. 예쁜 헤스터 프린도 같이 온다고 악마에게 거의 약속을 했죠."
"저는 못 가니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세요." 헤스터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전 집에서 우리 펄을 봐 주어야겠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딸을 빼앗아 간다면 나도 산속에 가서 악마 장책에다 제 이름도 기입하겠지만 그땐 제 피로 적을 걸요!"
"두고 봐요. 좀 있으면 이 댁도 오게 될 테니." 히빈스 양은 다시 창문 안으로 얼굴을 끌어들이면서 눈을 흘겨보았다.
히빈스 양과 헤스터 프린 사이에 이상과 같은 담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벌써 청년 목사의 주장—타락한 어머니와 약한 마음에서 생겨난 어린아이와의 관계를 끊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의 실제 증명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도 일찍이 어린 펄은 그 어머니를 악마의 줄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것이다.

9. 의사(醫師)

로저 칠링워스라고 하는 가명 밑에 원 이름이 있었는데, 그 원명은 절대로 토설하지 않기로 그 주인공이 결심했다는 이야기는 독자가 이미 기억하는 바일 것이다. 헤스터 프린의 수치스러운 구경거리를 보고 있는 군중 속에 길에 지친 늙은 나그네 한 사람이 서 있었다는 이야기, 그 나그네는 원시림 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이야기, 모처럼 가정의 단란을 꿈꾸고 돌아온 그 나그네는 바라고 온 그 여인이 죄악의 표본으로 군중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 이야기들은 이미 말했다. 여자의 몸이 모든 사람의 발밑에 짓밟히고 있었다. 욕설이 거리 가운데서 헤스터 주변에 물끓듯 하고 있었다. 그 친척이나 순결하던 처녀 시절 동무들의 귀에 만약 이 소문이 들어간다면 그들은 헤스터의 불명예에 전염될 것밖에는 아무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헤스터와의 관계가 친하고 신성한[22] 사람일수록 받는 불명예의 비례는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여자와의 관계가 다른 누구보다도 친하고 신성하던 사람이—선택권은 자기 자신에 있는 이상—무엇 때문에 나서서 이 반갑지 않은 유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것인가? 그는 수치스러운 형대 위에 여자의 곁에 서서 망신을 당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헤스터 프린밖에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고, 헤스터의 침묵에 대해서는 자물쇠와 열쇠 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 그는 인류 명부에서 자기 이름을 아주 빼버리기로 정했었다. 그리고 이전의 관계와 이해에 관해서는 벌써 오래전에 소문이 그를 매장해 버린 대로 바닷속에 가라앉은 사람처럼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질 작정이었다. 일단 이러한 목적이 실현된 뒤에는 곧 새로운 이해가 발생할 테고, 따라서 새로운 목적이 생겨날 테지. 그것이 비록 죄 되는 일은 아닐지라도 흉측한 목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전기능(全機能)을 발휘시킬 만한 힘을 가지는 목적이었다.

이러한 결심을 따라서 그는 로저 칠링워스라는 이름으로 청교도 도시에 거주를 정했다. 소개라고는 그가 보통 사람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력밖에는 아무

22 신성한 관계란 결혼 관계를 말한다.

것도 없었다. 그는 일평생의 연구로 말미암아 당대 의학에는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의사라 자칭했다. 그래서 의사로서 친절한 접대를 받았다. 의술이나 외과 기술의 기술자는 식민지에는 희귀한 존재였다. 의사들은 대서양을 건너온 대부분 이민들의 종교적 염심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들의 좀 더 고급하고 미묘한 기능은 인간 신체를 연구하는 데 물질화되고 말아서 복잡한 인체 조직 내부에 있는 생명을 정신적으로 관찰하는 힘은 상실된 모양이었다. 그러나 정신적 관찰이라는 것은 그 자체 내부에 생명의 모든 요소를 포함할 만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어쨌거나 훌륭한 보스턴 거리의 건강은 의약에 관계되는 한, 약국을 경영하는 늙은 집사의 손에 위탁되어 왔었다. 그는 면허장을 가지고 자기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 신앙심과 경건한 태도로써 증명하는 편이 더 많았다. 외과 의사로서는 그 고상한 의술도 간간이 실시하지만 평소에는 면도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의술계에 대하여 로저 칠링워스는 혜성 같은 존재였다. 얼마 안 가서 그는 무게 있고,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고대 의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피력하였다. 그 의서들에 나오는 처방은 으레 가지가지의 약재를 조합해서 불로장생약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꾸며 대었다. 게다가 인디언족에 붙잡혀 있는 동안 원생(原生) 초근목피의 각 성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얻었었다. 대자연이 무지몽매한 야만인들에게 선사한 간단한 이 약방들은 그렇게도 많은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걸려서 완성시켜 놓은 양약방(洋藥方)과 마찬가지 정도로 믿고 있다는 것을 그는 서슴지 않고 환자들에게 단언했다.

외부에서 떠들어온 이 학자는 적어도 외면적인 종교 생활에 관해서는 모범적이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딤즈데일 목사를 선택했다. 이 청년 목사는 그 학자적 평판이 지금껏 영국 옥스퍼드(Oxford) 대학에 살아 있지만, 좀 더 열렬히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정해 주신 사도 못지않은 인물이라 보고들 있었다. 그래서 요행 그가 천수를 보전한다면, 아직도 미약한 뉴잉글랜드의 교회를 위해서 마치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부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해서 이루어 놓았던 것만한 위대한 행적을 남기리라 믿고들 있었다. 바로 그 무렵에 딤즈데일 목사의 건강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일상생활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 청년 목사의 안색이 창백한 것은 그가 자기 임무에 너무도 열심이고, 교구 사무를 이행하는 데 너무도 양심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텁텁한 지상 생활이 자기 정신의 남포를 흐리게 하지 못하도록 자주 단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는 탓이었다. 만약 딤즈데일 목사가 참으로 죽게 되었다면, 그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뜬세상이다. 그러니 만큼 이 세상은 그분의 발에 밟힐 자격도 없다—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목사 자신은 그 독특하고 겸허한 태도로써 그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맹세했었다—나를 이 세상에서 물리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지상에서 가장 비천한 나의 임무를 이행하는 것조차 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했지만, 딤즈데일 목사의 건강이 쇠약해졌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었다. 몸이 수척해지고, 음성은 아직도 곱고 풍족하지만, 어느 구석인가 쇠약을 예언하는 듯한 우울한 음조가 있었다. 또 조금만 놀라운 일이 있던가, 또는 무슨 돌발적인 사고가 있던가 하면 으레 손을 가슴 위에다 얹고, 처음에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다음에는 파래지면서 무슨 고통이 있는 듯한 안색을 보이는 것을 사람들은 번번이 발견했다.

청년 목사의 건강 상태는 이러했다. 그리고 로저 칠링워스가 거리에 나타났을 때에는 여명과 같은 그의 생명이 비시(非時)에 꺼질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심히도 절박했었다. 그가 처음으로 무대에 나타났을 때에 그가 어디서 왔는지—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북극에서 솟아났는지—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신비로운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쉽사리 기적적인 모양으로 높아질 수 있는 모양이었다. 이제 알고 보니 의술가였다. 그는 풀을 뜯고, 들꽃을 따고, 산 나뭇가지를 꺾고—보통 사람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초목들 중에서 숨은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하는 것을 사람들은 늘 보아서 잘 알고 있었다. 케넬름 딕비 또는 기타 유명한 학자들이 다 자기의 동료던가 그렇지 않으면 자주 서신 왕복을 하는 사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다. 케넬름 딕비의 업적이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마술에 못지않은 것이라고 일반이 숭앙하고 있었다. 그러면 학계에서 그만한 지위를 가지면서 그는 무엇 때문에 이 식민지로 왔을까? 그의 활동

세계는 마땅히 유럽 도시일 텐데, 그는 이 황무한 땅에서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 풍설이 떠돌았는데, 하느님이 절대적인 기적을 행하셔서 저명한 의학박사를 독일 어떤 대학으로부터 반짝 공중으로 운반해다가 딤즈데일 목사의 서재 문 앞에다 내려놓았다는 풍설이다. 이 터무니없는 풍설을 일부의 지각 있는 사람들까지도 믿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좀 더 현명한 신앙가들은 하느님이 소위 기적적 행사라고 하는 무대효과를 노리지 않아도 능히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로저 칠링워스가 때마침 도착했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다 하느님의 섭리라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었다.

의사가 청년 목사에 대하여 비상한 흥미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과히 틀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선 교인으로서 목사의 접촉을 얻었고, 다음에는 차츰 내숭한 그의 예민성으로부터 우정과 신임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목사의 건강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러나 기어이 고쳐 보겠다고 말했다. 또 빨리 고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지도 않으리라고도 말했다. 딤즈데일의 교인들 중에서 장로, 집사, 노부인, 처녀들은 의사가 저렇게도 솔직하게 자진해서 고쳐 보겠다고 하니 한 번 시험을 해 보라고 사뭇 졸라대다시피 했다. 딤즈데일 목사는 그들의 간청을 조용히 물리쳤다.

"나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두 볼이 전 주일보다도 더 창백 초췌해지고 목소리가 떨리고, 또 가슴 위에 손을 얹는 버릇이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 항상 나타나는 습관이 되고 말았으니, 이 청년 목사가 어찌 같은 소리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 일에 피로했는가? 그는 죽고 싶은가? 보스턴의 선배 목사들과 그의 교회 집사들은 딤즈데일에게 이런 질문을 엄숙하게 제출했다. 하느님이 그렇게도 분명히 내밀어 주시는 원조의 손을 물리치는 죄인으로서 딤즈데일 목사를 취급한다는 말까지도 그들은 하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이 말을 들었다. 마침내 의사의 진찰을 받아 보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로저 칠링워스의 전문적 의견을 청할 때에 딤즈데일 목사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만약 하느님의 뜻이라면, 당신의 의술을 나 때문에 증명하느니보다는 차라리 나

는 나의 고역과 죄악과 고통을 빨리 끝내고, 지상에 속하는 것은 모두 다 무덤에 묻어 버리고, 정신적인 것만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사라지고 싶습니다.”

“아아” 하고 로저 칠링워스는 대답했다. 일부러 꾸며서 그러한지 또는 천성이 그러한지는 모르나, 이 사람의 태도에는 언제나 태연한 데가 있었다. “젊은 목사님들은 흔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생명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인생을 그렇게도 쉽사리 포기해 버린단 말씀이야. 하기야 땅위에서 하느님과 동행하시는 신성한 목사님들이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새 예루살렘 황금 도로를 하느님과 동행하고 싶을 테죠.”

“아닙니다” 하고 청년 목사는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가슴이 찌르는 듯 이맛살을 찌푸리며 반박했다. “천당에서 걸어 다닐 자격이 있다면야 이 지상에서 일하는 데 좀 더 만족을 느끼겠죠.”

“훌륭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렇게 자기 겸손을 하신단 말이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신비의 인물, 로저 칠링워스는 딤즈데일 목사의 건강 지도자가 되었다. 그 의사는 비단 목사의 병에만 흥미를 가질 뿐이 아니라 그 환자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도 비상한 흥미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었으니까, 두 사람이 연령적으로 퍽 차이가 있으면서도 차츰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게 되었다.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한편 의사가 약초를 채집할 겸도 하여 두 사람은 해안 또는 산속에서 오랜 시간을 거닐었다. 그들의 이야기 소리는 물결이 철썩 부딪치는 소리, 또는 먼 데서 바다가 우짖는 소리, 혹은 나무들 꼭대기에서 바람이 부르는 찬송가들과 어울리곤 하였다. 또 의사가 목사의 초대를 받아 그의 서재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수도 있었다. 이 학자와 자리를 같이할 때에 목사는 황홀한 인물의 매력을 느꼈다. 그는 이 노(老)학자 속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깊이와 넓이의 교양을 발견하고 있었다. 또 그와 동시에 넓고 자유로운 사상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것은 동료 목사들 속에서 구하려야 구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실상 그는 이 의사 속에 이런 점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었다. 딤즈데일 목사는 진정한 목사, 진정한 종교가였다. 하느님을 공경하는 감정이 풍족히 발달되고 그 정신은 신앙의 제도를 따라 강력히 추진하며 날이 갈수록 그 바퀴자리는 더욱더 깊어 가는 그러한 종교

가였다. 어느 사회에 갖다 놓아도 이 사람을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말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언제나 신변에 신앙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의 평강에 대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이었다. 그것은 비록 무쇠 틀 속에 그를 가둬 두기는 하지만 또한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는 별개 종류의 지성에 속하는 매개를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는 데 간간이 정신적 구원을 느꼈고, 심지어 가슴이 떨리는 기쁨조차도 느꼈다. 마치 창구멍이 하나 뚫려서 비좁고 답답한 서재 속에 자유로운 공기가 불어 들어오는 격이었다. 서재 속에서 그는 남포등 밑에, 혹은 낮에 겨우 새어 들어오는 광선 밑에서, 책에서 떠오르는 곰팡이 냄새—감정적 혹은 도덕적인—를 맡으며 인생을 소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공기는 너무도 맑고 싸늘하여 오랫동안 순순하게 마실 수는 없었다. 그래서 목사와 그가 데리고 있는 의사는 소위 교회의 정통세계로 다시 물러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로저 칠링워스는 자기 환자를 세밀히 조사했다. 일상 생활 중에 친숙한 길을 걸어가는 그를 관찰하는 동시에, 어떤 새로운 도덕적 장면과 부딪칠 때—그 장면의 새로움은 새로운 비밀을 그의 성격 표면 위에 끌어낼지도 모른다—그가 취하는 모양을 주목해 보았다. 그는 자기 환자에게 효험을 보여 주기 전에 그 인물을 잘 알아 두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인간의 신체란 그 감정과 이지의 특수성에 물들지 않을 수 없다. 내부의 감정과 상상력은 특별히 강하고 예민했기 때문에 그의 신체적인 병은 그 감정과 상상력 속에 원인을 가진다는 것은 과연 있음직한 일이었다. 그래서 로저 칠링워스는 기술자인 동시에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의 자격으로 그 환자의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가 그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원리 원칙을 파헤치고, 과거의 추억들을 엿보고, 모든 부분을 신중히 들춰보고, 이러하기를 마치 어두운 굴속에서 보물을 찾는 탐광가(探鑛家)처럼 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탐색을 할 허가와 기회를 가지는 조사자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란 그리 흔하지 못하다. 무슨 중대한 비밀을 가지는 사람은 마땅히 의사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으리라. 특히 그 의사가 선천적인 총명성에다가 또 그 이상 무어라고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직관력(直觀力)이라고 할까—을

가지는 경우, 그가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려 드는 자아심(自我心)도 없고 또 남이 보기에 불쾌한 어떤 노골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자기의 마음과 환자의 마음을 아주 친밀하게 접촉시킬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 환자가 과거에 이런 일도 생각했던가 하는 정도의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의사에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재주를 가지는 경우,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에 조금도 안색을 동하지 않고 동정의 말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과 음성 없는 호흡만 가지고 듣다가 간간이 한 두어 마디 알아들었다는 뜻을 표현하는 경우, 이러한 은밀한 성질에다가 의사라고 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인물의 유리한 입장이 결합될 때에는 어떤 불가피한 순간에 가서 환자의 영혼은 녹아 버려 시커먼 그러나 투명한 액체처럼 흘러나오면서 모든 비밀을 백일천하에 쏟아 놓게 되고 만다.

로저 칠링워스는 위에서 말한 능력을 모두 다, 혹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갔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두 개의 교양 있는 정신 사이에 일종의 친밀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신은 인간의 사상과 연구의 전분야(全分野)를 무대로 삼아 서로 접촉했다. 그들은 윤리와 종교, 공적 문제와 사적 인물 등 모든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했다.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쌍방에서 많이 이야기했다. 반드시 무슨 비밀이 있으리라고 의사는 상상하고 있건만, 그러한 비밀은 한 번도 목사의 의식 사이에서 빠져 나와서 의사의 귀에 들어간 일이 없었다. 딤즈데일 목사의 육체적인 병의 진정한 성질조차도 결코 자기 앞에서 똑바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의사는 생각하고 있었다. 참 이상하게 비밀을 지키는 환자도 다 보았다.

얼마 후에 로저 칠링워스가 제안을 하고, 딤즈데일 목사의 친구들이 주선을 해서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의 생명이 바닷물처럼 밀려서 들어오고 밀려서 나갈 때마다 의사—목사의 건강을 염려하고 그에게 무한한 애착을 가지는 의사—의 눈앞을 통과하게 되었다. 몹시도 반가운 이 목적이 도달되었을 때에 주민 전체가 무척 기뻐했다. 청년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꽃 같은 처녀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그에게 귀의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아내를 삼으면 어떠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

람들이 번번이 권해 보았지만, 이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방법밖에는 없다. 그런데 딤즈데일 목사가 이러한 권면에 굴복할 가망성은 당분간은 없었다. 독신 생활이 교회 규율의 중요한 조목이나 되는 것처럼 그는 이런 종류의 제안을 일체로 배척하였다. 딤즈데일 목사는 스스로 택해서 남의 식탁에서 맛없는 빵을 먹고, 남의 화롯가에서 몸을 녹이고자 하는 사람의 일평생 치운 팔자를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상, 이렇게 경험이 많고 마음이 인자한 노의사가 청년 목사를 아들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스승처럼 위하는 마음을 합해서 시종한다면, 그야말로 전 인류 중에서 둘도 없는 적임자라 할 것이다.

두 벗이 같이 살게 된 새 집에는 종교심이 두터운 미망인이 살고 있었다. 훌륭한 집안의 여자였다. 그 집은 후에 킹스 채플 교당 엄숙한 건물이 들어앉게 된 터 바로 근처에 있었다. 한편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원래는 아이작 존슨의 사유지였다. 엄숙한 사색을 환기시키기에 알맞은 풍치라, 목사와 의사가 각기 사용하기에 적합한 집이었다. 이 집 주인이 되는 미망인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에서 앞방을 목사에게 제공했다. 양명한 데다 겹창이 두꺼워서, 마음이 내키면 겹창을 내려서 마치 달빛 같은 그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방안 벽들에는 고블랭(Gobelin)[23] 직조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벽전(辟氈)을 삥 둘러쳤다. 벽전의 그림들은 매양 성경의 이야기—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예언자 나단의 이야기[24] 같은—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들은 아직도 빛이 낡지 않았으나, 장면에 나타나는 고운 여자의 얼굴[25]이 재화를 고하는 예언자의 얼굴[26]처럼 컴컴해 보였다. 이 방 안에다 얼굴이 창백한 목사는 장서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다. 장서 중에는 초대 그리스도교 교부들의 양피이절판책(羊皮二絕版册)과 유태학자들의 법률 책과 수도사의 책들이 수두룩했다. 신교의 목사들은 이러한 부류의 저술가들을 한편 욕설하

23 고블랭(Gobelin)은 15세기 프랑스에서 모전(毛氈) 공장을 일으킨 형제이다.

24 이 이야기들은 구약 사무엘 하 11장, 12장에 나온다.

25 다윗에게 빼앗긴 우리야의 아내.

26 구약 성경에서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선지자 나단(Nathan).

면서도 자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집 딴 쪽에다 로저 칠링워스는 연구실 겸 실험실을 설비했다. 물론 현대 과학자가 완전하다고 승인할 만한 것은 못되었지만 그래도 제법 증류기니 약품 조합하는 기구들을 장치했다. 전문 연금사(鍊金師)들은 벌써 이런 것들을 이용할 줄 알고 있었다. 이런 편리한 가운데서 두 사람 학자는 자기 분야에 자리를 잡고 나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정답게 왕래하며, 각기 호기심을 가지고 엿보곤 하였다.

아서 딤즈데일 목사의 가장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앞서도 암시한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을 하느님이 마련해 주셨다—그들이 교당에서 혹은 가족 예배에서 혹은 혼자서 그렇게도 열렬히 기도를 올리면서 구하던 목적, 이 청년 목사의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느님이 마련해 주셨다고 상상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요새에 와서 목사와 신비한 의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사회 일부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전연 별개의 독특한 견해를 가지기 시작했다. 무식한 대중이 제 눈을 가지고 무엇을 보려고 할 때에 그것은 영 속기 쉽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그 위대하고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그 자신의 판단을 내릴 때에 그 결론은 왕왕 심원하고 정확하여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진리와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번만 하더라도 그들 대중은 로저 칠링워스에 대하여 어떤 선입관을 품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법 반박거리가 될 만한 무슨 자료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견해를 변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늙은 장인(匠人)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삼십 년 전 영국에 토마스 오버버리(Thomas Overbury) 암살 사건[27]이 일어났을 때 런던의 시민이었던 그 장인이 그전에 그 의사를 본 일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때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무슨 이름이었었는지는 잊어버렸다. 오버버리 사건에도 관계된 유명한 마술사 포먼(Forman) 박사와 동료로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또 그가 인디언들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는 동안 인디언 마술사같이 주문을 읽어 의술의 학식을 많이 늘렸다고 암시하는 사람도 두어 서너 사람 있었다. 이들 인디언 마술사는 요술이 능해서 사람의 병을 귀신같이 고친다는 것이

27 1613년 4월 23일에 발생한 사건이다. 오버버리는 영국의 저술가이다.

일반적으로 신앙되고 있었다. 또 다수한 사람들이 로저 칠링워스가 거리에 나타난 이래로, 특히 딤즈데일 목사와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 그 얼굴 모양이 몹시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중에는 냉정한 판단력과 실제적인 관찰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른 문제 같으면 이 사람들의 의견이 썩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표정이 조용하고 명상적이고 학자다웠다. 그런데 요새 와서는 이전에 볼 수 없던 괴악한 표정이 그 얼굴 위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주 보면 볼수록 그러한 표정이 심해져 갔다. 무식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의 실험실의 불은 하계에서 끌어온 것이며, 그 연료는 지옥에서 가져오는 것이라서 자연 그 얼굴이 연기에 그을려서 꺼매진다 하였다.
요컨대 아서 딤즈데일 목사는 그리스도교 세계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특별히 신성한 다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탄 자신, 또는 로저 칠링워스로 가면을 쓰고 나온 사탄의 사자에 침노를 받고 있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 악마의 사자는 어느 기간 하느님의 허가를 받아 목사와 우정을 맺고 그 속에 잠복하면서 그의 영혼에 대하여 흉계를 꾸미고 있다.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지각 있는 사람들은 물론 목사가 이긴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들 있었다. 목사는 문제없이 이 투쟁에서 이길 테니까 그때에는 승리의 영광으로 변모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리라고 사람들은 반석 같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들 있었다. 그 반면에 목사는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도중 필시 치명적인 고민을 통과하려니 생각하매 가슴이 아팠다.
아아! 저 가엾은 목사의 깊은 눈 속에 나타나 있는 침울과 공포의 표정으로 보건대 그 투쟁은 심각하고 또 그 승리는 결코 확실하지 않다.

10. 의사와 환자

늙은 로저 칠링워스는 평생을 통하여 기질이 조용하고, 따뜻한 인정미는 없으나 친철하고, 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순결하고 공정한 사람이었다. 그가 연구 생활을 시작할 때에 그는 마치 재판소의 판사와 같은 엄격하고 공평한 태도로써 오직 진리만을 원하는 정신으로 시작했다고 그는 자처했었다. 그 연구하는 문제가 비록 인간의 열정이나 자기 자신이 받은바 어떤 악행이 아니라, 허공에 그려보는 기하학적 선이나 도형일지라도 연구하는 정신은 마찬가지라고 자처했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무서운 마술적 흥미와 여전히 조용은 하지만 맹렬한 일종의 필연성이 이 노인을 꽉 붙들고, 그 명령을 완전히 실행할 때까지는 결코 놔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마치 산속에서 금을 찾는 탐광자(探鑛者)처럼 목사의 가슴속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혹은 또 죽은 사람 가슴속에 묻혀 있는 보물을 찾기 위하여 무덤을 파헤치는 유대군 모양으로, 그러나 발견하는 것은 주검과 부패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만약 그가 찾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면 그의 영혼을 위하여 참으로 슬픈 일이다.

간간이 의사의 눈에서 불이 번쩍 비치는 때가 있었다. 그 광선은 마치 용광로의 불길처럼 시퍼렇고 불길했다. 혹은 또 버니언(Bunyan)의 소설에 나오는 화염—산중 무서운 문에서 홱 뛰어나와서 펄펄 흔들리며 순례자 버니언의 얼굴을 비춰 주던 저 처참한 불길[28] 같았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이 흉측한 탐광자가 작업하고 있는 땅은 아마도 그의 용기를 고취해 줄 만한 그 무슨 증적을 나타냈던 모양이다.

어떤 때 의사는 혼자 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목사를 순결하다고 보고, 또 얼른 보기에 아주 정신가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역시 그 아버지 계통으로나 혹은 어머니 계통으로 강한 동물성(動物性)을 유전 받았다. 이 광맥 방향으로 어디 좀 더 파 보자!"

28 버니언의 소설《천로역정》에 나오는 장면이다.

그래서 의사는 목사의 컴컴한 내부를 으레 탐색하면서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를 뒤져 보았다. 그 자료들은 민족의 안녕 행복을 희구(希求)하는 높은 뜻이니, 따뜻한 인류애니, 순결한 감정이니, 천연적으로 경건한 정신이니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 사색과 연구로 말미암아 보강되고, 신의 계시로 말미암아 조명(照明)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로저 칠링워스와 같은 탐광자에는 쓰레기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고 돌아서서 또 다른 방향으로 탐광을 개시했다. 그는 주인이 선잠 들어 있는—혹은 활짝 깨어 있을지도 모르는 방안에서 그 주인이 눈 속의 능금처럼 존중하는 보물을 훔쳐내기 위해서 침입하는 도둑 모양으로 발소리를 조심하고 경계의 시선을 굴리면서 가만가만히 더듬어 갔다. 미리 조심을 하건만, 마룻바닥이 이따금 삐거덕 소리를 내고, 옷이 와삭 소리를 내기도 하고, 혹은 너무 가까운 데까지 가면 그림자가 주인 얼굴 위에 가리기도 했다. 바꿔 말하면 예민한 신경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직관력을 나타내기 잘하는 딤즈데일 목사는 자기의 평강에 해로운 그 무엇이 자기와의 관계 속에 침입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자각하게 되는 때가 번번이 있었다. 그러나 늙은 로저 칠링워스도 마찬가지로 직관력에 가까운 지각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가 깜짝 놀란 듯한 시선을 그에게로 던질 때에 의사는 으레 다정하고 주의 깊고 동정심 많은, 그러면서도 결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친구처럼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신경이 병적(病的)으로 변하기 마련인데, 그러한 병적인 정신 상태가 딤즈데일 목사로 하여금 모든 인간을 의심하게끔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는 좀 더 완전하게 의사의 인물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자기의 친구로서 아무도 믿지 않는 목사는 그 원수가 사실로 나타냈을 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의사와의 친교를 여전히 계속하여 매일처럼 의사를 자기의 서재에서 만나기도 하고, 자기가 의사의 실험실로 찾아가서 초약 만드는 법을 오락 삼아 구경하기도 했다. 어떤 날 공동묘지 쪽으로 열린 창문을 열어 놓은 창턱에 팔꿈치를 얹고 한손으로 이마를 짚고, 목사는 로저 칠링워스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에 마침 노인은 단으로 묶은 괴상스러운 풀들을 검사하고 있었다. 목사는 요새 무엇이나—사

람이건 물체건—똑바로 보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이번에도 의사를 곁눈질해 보며 말했다.

“선생님, 그 흐물흐물하는 풀들을 어디서 채집했습니까?”

“바로 이곳 묘지에도 있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일을 계속하면서 대답했다. “처음 보는 풀들입니다. 어떤 무덤에서 발견했는데 그 무덤에는 이 흉악한 풀들밖에는 비석도 아무것도 기념될 만한 것이 없습디다. 이 풀들은 아마 죽은 사람 심장 속에서 자라나오면서 시체와 같이 묻힌 어떤 무서운 비밀을 표징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비밀을 자백하는 것이 좋을 뻔했죠.”

“아마 무척 자백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던 게죠.” 딤즈데일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요?” 의사가 반문했다. “무엇 때문에 자백을 못합니까? 우주 자연의 힘이 죄악의 고백을 요구하는 것은 참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 잡초까지도 매장된 심장에서 자라나서 고백되지 않은 죄악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선생, 그것은 선생의 공상에 지나지 않는 거요.” 목사는 대답했다. “내 예감이 똑바로 맞는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 마음속에 숨어 있는 비밀을 말로나 표적으로나 폭로시킬 수 있는 힘이란 하느님의 자비심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가짐으로써. 죄를 짓는 자는 숨긴 것이 모두 다 폭로되는 날까지 기어이 그 비밀을 지키려고 고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인간의 사상이나 행동을 폭로시킬 때에 그것을 인과응보의 일로서 그렇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확실히 천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내 견해가 과히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외부의 표적들은 최후 심판 날에 가서 어두운 인생 문제가 해명되는 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서 있는 모든 이성동물(理性動物)들에게 이 지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명하는 데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선생이 말씀하는 것과 같은 불행한 비밀을 가지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 날에 가서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서 그 비밀을 고백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차세(此世)에서 그 비밀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로저 칠링워

스는 곁눈으로 목사를 보며 말했다. “무엇 때문에 죄지은 자들이 그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위안을 좀 더 빨리 이용해서는 아니 됩니까?”
“대부분 그렇게들 하죠.” 그때에 마침 지긋지긋한 고통이 심장을 침노하는 것처럼 목사는 가슴을 꽉 부둥켜안으면서 말했다. “참 허다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임종석에서뿐 아니라, 살아서 튼튼할 때나 명성이 자자한 때에도 그리했습니다. 비밀을 쏟아 놓은 뒤에는 죄를 진 형제들이 어떻게도 기뻐하는지요. 자기 자신의 오독(汚瀆)된 호흡으로 오랫동안 숨이 막혔다가 별안간 공기를 마시는 사람들 같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시체를 자기 심장 속에다 묻어 두느냐 말입니다—당장에 내던져서 시체의 보관을 우주 자연에다 내맡기지 아니하고.”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시체를 묻어 두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딤즈데일 목사는 대답했다. “좀 더 명백한 이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천성의 기본 조직 그 자체로 말미암아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하기는 또 비록 그들이 죄는 지었지만, 여전히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에 대하여 열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흉측하고 추악한 자기의 모양을 드러내기를 꺼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요? 폭로한댔자 그로써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고, 앞으로 좀 더 훌륭한 일을 해서 과거의 죄악을 속죄한달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심으로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갓 내린 눈같이 순결한 척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지우려야 지울 수 없는 더러움으로 얼룩이 져 있지만.”
“이네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로저 칠링워스는 평소보다도 약간 말에다 힘을 주며, 또 가볍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그들의 사랑, 하느님 봉사에 대한 그들의 열의—이런 것들은 그들의 죄악과 동거해도 좋고 아니 해도 좋은 문제입니다. 요컨대 그들의 범죄는 그러한 죄인들이 동포 인류에 들어올 때에 문을 열어 주었으며, 그래서 그 죄인들은 필연코 그들 내부에서 지옥의 종족을 번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려거든 그들의 더럽힌 손을 창공을 향

해 들지 말라고 하시오! 만약 그들이 동포 인류에 봉사하고자 원하거든 양심의 힘과 실지를 표시하여 억지로라도 참회하고 스스로 겸손하라고 하시오! 어질고 거룩하신 선생께서 허식(虛飾)이 하느님 자신의 진리보다도 낫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더 낫다는 것을 나에게 신앙시키시려는 것입니까?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지도 모르지요." 목사는 무슨 당치 않은 말이나 혹은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을 물리치는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는 자기의 너무도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기질을 건드리는 화제가 나타날 때에는 언제든지 도망치고 마는 버릇이 있었다. "그런데 참 선생께서 나의 약한 신체를 간호해 주시는데, 내가 참으로 효험을 보았다고 선생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용하신 선생께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로저 칠링워스가 채 대답도 하기 전에 맑고 자지러지는 듯한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연접해 있는 공동묘지로부터 들려왔다. 여름철이라 창문을 열어 놓고 있었다. 목사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헤스터 프린과 어린 펄이 묘지를 건너가는 길로 오는 것을 보았다. 펄은 맑은 해와 같이 고왔다. 그러나 심술궂은 장난기에 취해 있었다. 이런 기분이 생겨날 때에 이 아이는 동정이라든가 인간적 접촉이라든가, 그런 세계로부터 완전히 떠나 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아이는 지금 불경스럽게도 무덤에서 무덤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이 세상을 떠난 어떤 위인의 가문(家紋)이 새겨져 있는 넓고 편편한 비석—바로 아이작 존슨의 비석인지도 모른다—이 있는 데까지 와서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좀 온순하게 굴라고 명령하고 애원하는 어머니 말에는 대답도 안 하고, 어린 펄은 춤을 멈추고 무덤 곁에 나 있는 키가 높은 우엉의 가시 열매를 따기 시작했다. 열매를 한 줌 따더니 어머니 가슴에 달려 있는 주홍 글씨 가장자리에다 꽂기 시작했다. 물론 가시가 있으니까 잘 붙는다. 헤스터는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았다.

그때에는 로저 칠링워스도 창 앞에 와서 심각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아이 성질 속에는 법칙도 없고, 권위에 대한 존경도 없고, 인간의 명령이나 의견에 대한 존경도 없단 말이야." 로저 칠링워스의 이 말은 목사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전날에는 글쎄 스프링필

드에서 조년이 바로 총독님에게 함부로 물을 끼얹는 것을 보았구려! 도대체 무슨 아이입니까? 저 요물은 악으로 빚어 놨는가요? 저 아이 속에 무슨 발견할 수 있는 우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깨어진 법칙의 자유밖에는 아무것도 없죠." 딤즈데일 목사는 마치 그 자신도 머릿속에서 그 점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처럼 심상하게 대답했다. "저 아이가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소이다."

어린아이도 이들의 말을 들었던 모양이라, 유쾌한 기분과 총명한 지혜가 웃음으로 터져 나오는 명랑하고도 장난꾸러기다운 얼굴로 창문을 올려다보면서 가시가 돋은 우엉 열매 한 개를 딤즈데일 목사에게다 던졌다. 예민한 목사는 흥분해서 이 가시 총알을 피하려고 움찔했다. 이 모습을 보고 펄은 아주 재미있어서 손바닥을 두드렸다. 헤스터도 부지불식중에 창문을 올려보고 있었다. 이렇게 늙은이, 젊은이, 네 명이 묵묵히 마주 바라다보았다. 한참 있다가 아이는 또 깔깔대고 웃으면서 부르짖었다. "엄마 와요! 와요! 저 악마가 엄마 붙잡는대요. 벌써 목사님을 붙잡았으니까 엄마도 붙잡을 거예요. 어서 와요! 그렇지만 펄은 못 붙잡을 걸!"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끌고 갔다—무덤들 사이를 뛰며 춤추며 기괴한 재주를 부리면서 땅속에 묻혀 있는 과거 세대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또 그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는 무슨 생물 같았다. 마치 새로운 우주 원소(宇宙元素)를 가지고 전연 새로 창조된 것처럼 보였다. 그 아이는 독자적인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법칙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무슨 기괴한 행동이 있어도 그것을 그 아이의 죄로 돌릴 수는 없는 그러한 아이였다.

"저기에 가는 여자는 그 죄과가 무엇이었던 간에 숨은 죄악의 비밀은 조금도 없습니다—그러한 비밀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목사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헤스터 프린은 그 주홍 글씨를 가슴에다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만큼 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있다가 로저 칠링워스는 이렇게 말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목사는 대답했다. "하지만 저 여인을 대리해서 답변할 수는 없지요. 그 여인의 얼굴에는 차마 볼 수 없는 고통의 표정이 나타나 있었습니

다. 그러나 저 가엾은 여인 헤스터처럼 수난자가 자기의 고통을 자유롭게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가슴속에 숨겨두는 것보다는 반드시 나을 것이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야기 소리가 끊어졌다. 의사는 채집해 온 약초를 다시 검사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목사님께서는 조금 아까 목사님의 건강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셨죠?"

"네, 그랬죠. 꼭 알고 싶습니다. 죽든 살든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명백하게 말씀드리면" 하고 의사는 여전히 분주하게 약초를 정리하면서 한편 눈을 경계적으로 목사 위에다 두고 말했다. "목사님의 병환은 좀 괴상한 병환입니다. 무슨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내 눈앞에 나타난 증상을 가지고 본다면 표면에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제가 목사님을 매일처럼 진찰하고, 외양에 나타나는 증세를 주의해 보아 온 지도 벌써 몇 달인데, 응당 목사님을 중병 환자로 봐야 옳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학식 있고 주의성 많은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단념해 버릴 정도의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라고 할까요—목사님 병환은 제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 말씀이 수수께끼 같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목사는 곁눈으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말했다.

"좀 더 명백히 말씀 드리면," 의사는 말을 계속했다. "어어, 실례의 말씀이라면 목사님의 용서를 빌어야 하겠는데……. 하느님의 조화로 목사님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책임지게 된 제가 한 친구로서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병환의 모든 증상을 저에게 죄다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지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는 반문했다. "어린아이가 아닌 바에야 의사를 청해 놓고 아픈 데를 감추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의 병환 증상을 제가 죄다 알고 있단 말씀이죠?" 로저 칠링워스는 선명하고 강렬하고 총기가 집중된 눈으로 목사의 얼굴을 쏘아보면서 냉정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의사 앞에 외면적인 신체적 고장만을 자백할 때에 그 의사는 왕왕 자기가 부탁받은 병의 절반밖에는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것이 전부이며 그것으로써 끝난다고 보는 육체적 질병이란, 결국 정신적 부분 속에 있는 어떤 병환의 증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추호라도 목사님의 비위를 상하게 한다면 또다시 용서를 빌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목사님은 가장 그 신체가 정신과 연결되어 있고, 말하자면 도구로서의 신체가 정신을 흡수해서 정신과 육체가 동일화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상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는 약간 창황하게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말했다. "선생이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 노릇을 한다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 속의 병은—" 하고 로저 칠링워스는 목사가 말을 중단시키는 데는 조금도 주의를 두지 않고 여전한 음성으로—그러나 키가 작고 얼굴이 검고 기형적인 신체를 일으켜 초췌하고 파리한 목사와 마주 서면서 말을 계속했다. "정신 속에 있는 병—정신 속의 아픈 곳이라 해도 좋겠지요—은 곧 신체 속에 적당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만약 목사님께서 의사가 목사님의 신체적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면, 목사님의 영혼 속에 있는 상처나 고장을 죄다 의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천만에! 당신에게는 안 돼요! 이 세상 의사에게는 안 돼요!" 딤즈데일 목사는 난란(爛爛)한 눈을 크게 뜨고 험악한 눈초리로 로저 칠링워스를 노려보며 열렬히 부르짖었다. "당신에게는 안 돼요! 만약 그것이 영혼의 질병이라면 나는 이 우주에 단 한 분밖에는 아니 계시는 영혼의 의사님에게 내 몸을 맡길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면 나를 고쳐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의롭고 지혜로운 생각에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나를 처분하시게 합시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간섭을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수난자와 하느님 사이에 감히 간섭하려 드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오?" 격분해서 목사는 방에서 뛰어나갔다.

"어차피 잘됐다." 로저 칠링워스는 심각한 미소로 목사가 나가는 뒷모양을 바라다보며 혼잣말 했다. "밑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곧 또다시 친구가 될 테지. 그렇지

만 작자가 격정에 휘둘리어 방에서 뛰어나가는 꼴은 가관이다! 한 가지 버릇이 백 가지 버릇이거든! 이 경건하신 딤즈데일 선생님이 과거 어떤 순간에 정욕에 못 이겨 굉장한 추태를 부렸단 말이거든!"

이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이전과 같은 입장에서 꼭 같은 정도로 우정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청년 목사는 두어 서너 시간 자기 방에 들어앉아서 생각한 뒤에 아뿔싸 너무도 흥분해서 망측하게도 화를 냈구나, 의사의 말 속에는 이렇게 화를 내야만 할 아무런 구실도 이유도 없었건만, 이렇게 반성하기 시작했다. 칠링워스의 말은 의사가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말에 지나지 않았고, 또 자기 자신이 분명히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는데, 자기가 어째서 그렇게도 난폭하게 노인을 떠밀쳤던가, 그는 스스로 의아했다.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은 딤즈데일은 시각을 다투어 로저 칠링워스의 방으로 찾아가서 충분하게 진사(陳謝)의 뜻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자기의 건강을 보아달라고 부탁했다. 건강을 돌보아달라는 부탁은 비록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날〔죽는 날〕까지 허약한 신체를 보존시켜 달라는 의미였다. 그랬더니 "아, 해 드리고말고요" 하면서 로저 칠링워스는 약속을 했고, 또 즉시에 의사로서 목사의 건강 감시를 계속했다. 의사는 그 환자에 대하여 신의를 가지고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회견이 끝날 때에는 즉시로 그의 방을 나왔고, 방을 나올 때에는 으레 신비롭고도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그의 윗입술에 떠돌고 있었다. 이러한 표정은 딤즈데일 목사가 보는 앞에서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문턱을 넘어서면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유한 환자로군!" 그는 중얼거렸다. "좀 더 깊이 조사해 봐야겠다. 정신과 육체 사이에 괴상한 공감이 있다. 의술의 발달을 위해서라도 기어이 이 문제를 철저히 연구해 봐야겠다."

위에서 말한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가서 우연히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대낮에 딤즈데일 목사가 책상 위에다 커다란 책을 펼쳐 놓고 의자에 앉아서 자기도 모르게 깊이 잠들고 말았다. 이 책은 필시 사람을 졸리게 하는 무슨 굉장한 힘을 갖는 작품이었을 것이다. 평소에 딤즈데일의 잠은 가볍고 발작적이어서 마치 나뭇가지를 뛰어다니는 작은 새 모양으로 조금만 해도 깨기 쉬운 사람이었던 만

큼, 그가 이렇게 깊은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의 정신이 전에 없이 깊은 잠 속으로 물러가 있었기 때문에 로저 칠링워스가 별반 특별한 경계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왔을 때에도 잠은 깨지 못했다. 의사는 똑바로 환자 앞으로 가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잡아 젖혔다. 그 옷은 지금까지 의사도 못 보게 그의 가슴을 가리던 옷이었다.

그때에 이상하게도 딤즈데일 목사가 부르르 떨면서 좀 움직움직했다.

그러나 그때 의사의 표정이 얼마나 기쁨과 놀라움과 무서움으로 미칠 것 같았을까! 그 처참한 환희로 말하자면 눈과 얼굴만 가지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불구인 몸뚱이 전체를 통해서 터져 나왔고, 심지어 천장으로 두 팔을 내뻗고, 두 발로 마룻바닥을 구르고 하는 똑 미치광이 같은 행동 속에도 나타나 있었다. 이 순간의 늙은 로저 칠링워스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귀중한 인간의 영혼이 천당에서 사라지며 악마의 세계로 빼앗길 때에 사람이 어떤 짓을 할까를 물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의사의 환희와 사탄의 환희가 서로 다른 점은 의사의 환희 속에 놀라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는 점이다.

11. 마음속

앞장에서 이야기한 사건이 있은 뒤로 목사와 의사의 교제는 표면적으로는 동일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이전과 전연 다른 성격의 교제였다. 지금 로저 칠링워스의 지능 앞에는 아주 명백한 길이 열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처음에 걸어가려고 계획했던 바로 그 길은 아니었다. 표면으로는 온량하고 냉정한 것 같았지만, 이 불행한 노인의 내면에는 깊고 깊은 악의가 있어, 그것이 지금까지는 잠재해 있었으나 이제는 표면에 나타나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악의에 끌려 그는 과거에 인간이 자기 원수에 대하여 실행했던 어떤 복수보다도 더 은밀한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다. 신임을 받는 벗이 되자. 그래서 모든 공포와 회한과 고민과 무익한 후회와 아무리 몰아내도 되돌아오는 죄악 의식을 모두 다 자기 앞에 와서 털어 놓게 하자! 이 세상으로부터 감춰진 죄악의 비애—이 세상의 넓은 마음이 그것을 알았다면 동정하고 용서했으련만—를 동정심도 없고 절대로 용서도 않는 자기 앞에 와서 폭로시키도록 하자! 그 비밀인 재물을 모두 다 내 앞에 쏟아 놓게 하자!(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복수의 빚을 나에게 갚지는 못한다)—이것이 로저 칠링워스의 계획이었다.

목사의 성질이 수줍고 감각이 예민하고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이유가 지금까지 이러한 계획을 방해해 왔었다. 하느님은 복수하는 자와 복수받는 자를 다 같이 하느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시면서 가장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사실은 용서하시는데, 이번에도 하느님은 로저 칠링워스의 흉계를 돕는 대신으로 어떤 다른 일을 행하셨다. 그러나 로저 칠링워스는 적어도 이런 정도로 만족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기에 대해서 하느님의 계시가 있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계시가 천상에서 내려온 것이었든 혹은 기타 어디서 온 것이었든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하는 동안에 목사의 외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내부까지도 그의 눈앞에 폭로되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 영혼의 일거일동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때로부터 그는 가엾은 목사의 영혼 연극을 구경하는 관객이 될 뿐만 아니라,

실로 그 내부 연극의 주연배우가 되었다. 그는 자기의 뜻대로 목사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 고민의 고동을 틀어 목사를 흥분시키고 싶을 때에는, 언제든지 목사의 주리를 틀 수가 있었다. 나사만 비틀면 되는데, 의사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또 별안간 공포심을 가지고 목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을 때에는 마치 마술사가 지팡이를 젓는 대로 무수한 유령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형형색색의 유령들이 나타났다. 주점의 유령, 더 무서운 수치의 유령, 별의별 유령들이 목사 주위에 구름 떼같이 모여들어 그의 가슴을 손가락질했다.

이 모든 일이 완전히 은밀한 기술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목사는 무슨 흉악한 존재의 눈이 늘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것을 막연히 깨닫고 있었지만, 그 진정한 성질을 분명히 인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사실 그는 의심스러운 눈과 두려운 마음으로서 또 때로는 맹렬한 증오심을 가지고 불구자 늙은이 의사를 바라다보았다. 의사의 몸짓, 걸음걸이, 희끔희끔한 수염, 지극히 간단하고도 아주 심상한 행동, 옷 모양—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진절머리가 나는 꼬락서니였다. 이것은 목사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깊고 깊은 반감을 품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의사에 대한 이러한 의심과 증오심에 대해서 별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으니만큼 딤즈데일 목사는 신체 일부분에 병집이 있으면 그 독소가 감정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예감이 그 외의 특별한 원인을 가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로저 칠링워스에 대해서 이처럼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는 데 대하여 그는 스스로 꾸짖고, 응당 그것으로부터 끌어내야 할 교훈을 무시하고, 그러한 감정을 뿌리째 뽑아 없애려고 최대의 노력을 했다. 그것도 안 되었지만, 그는 그저 원칙적으로 노인과의 교제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노인의 목적을 완성시켜 주는 기회를 부절히 제공하고 있는 셈이었다. 가엾고도 처량한 노인—피해자보다도 더 비참한 복수자—는 이 목적에다 전심전력을 바치고 있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병들고, 암담한 영혼의 환난에 가책을 받고, 가장 치명적인 원수의 흉계에 걸려들고—그러면서도 딤즈데일 목사는 성직(聖職)에서 혁혁한 명성을 누리고 있었다. 참으로 그는 그 인기의 대부분을 그 비애로 말미암아 얻고 있었다. 그의 이지적 소질과 도덕적 지각력과 감정을 체험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은 그 일상생활의 초자연적인 활동 상태를 유지했다. 그의 평판은 지금도 자꾸만 높아 가는 도중인데, 벌써 동료 목사들의 평판을 압도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 중의 몇 사람은 그보다도 착실한 명성을 아직도 누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딤즈데일이 이 세상에 살아온 시간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깊은 종교학 연구에다 소비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견실하고 가치 있는 학문에 있어서는 젊은 형제보다도 좀 더 깊이 정통할 수 있었다. 또 딤즈데일보다도 정신 조직이 좀 더 강하고 천성 타고난 이해력이 좀 더 명민하고 치밀하고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소질이 적당한 이론적 성분과 혼합될 때에는 아주 점잖고 유능하고 위엄 있는 목사가 된다. 또 지루하게 책을 읽고 참을성 있게 사색함으로써 천부(天賦)의 능력을 연마하고 좀 더 좋은 세상과—성자들은 인간세계의 옷을 입은 그대로 순결한 생활에 안내되어 이런 세계로 들어간다—영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그 능력이 영혼화된 성부(聖父)들도 있었다. 이들이 갖지 못하는 재주는 오직 오순절(五旬節) 천상으로부터 불의 혀(火焰)가 되어 선택된 제자들에게 강림한 하느님의 선물[29]뿐이었다. 다만 여기서 하느님의 선물이라 함은 알지 못하는 외국어 실력을 의미함이 아니라, 심정의 고유한 언어로써 사해동포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30]을 의미한다. 다른 점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이들 성부가, 하느님의 최종(最終), 최귀(最貴)한 성직자 증명이 되는 "불의 혀"[31]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들이 설혹 그런 능력을 구해 보려고 몽상한댔자, 최고의 진리를 주위에서 흔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와 비유로써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

29 이 부분의 비유는 그리스도가 언어의 기적을 나타낸 장면에서 유래되는 것인데, 그 출처는 사도행전 2장 1~4절이다. 그 부분을 풀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순절 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다. 그때 별안간 천상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 방 안에 가득 찼다. 그다음에는 그 소리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각 제자에게 임하였다. 그때에 각 제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30 호손이 여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 그대로의 언어 기적이 아니라, 진리를 비유한 언어로써 일반 대중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문학적 재능을 말한다.

31 열렬한 언어로써 진리를 인간 심정에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높고 먼 세계로부터 멀리 희미하게 지상으로 떨어질 뿐이었다.

딤즈데일 목사는 그 여러 가지 성격상 특징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나중 부류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만약 그의 선천적인 경향이 죄악 또는 고민의 무거운 힘으로 말미암아 중도에 꺾이지 않았다고 한다면—그 죄악과 고민이 무엇이었던 간에—그는 신앙과 신성의 높은 산봉우리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죄악과 고민의 무거운 짐이 그를 가장 비천한 수준까지 끌어내렸던 것이다. 그는 원래 영혼적인 인간이라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천사들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화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인류 동포에 대한 그렇게도 친근한 동정심을 그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공명하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샘물 솟듯 하는 슬프고도 그럴듯한 웅변으로써 자기 자신의 고민을 일일이 무수한 사람들 가슴속에 전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죄악과 고민의 무거운 짐이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청중을 탄복시켰지만, 간혹 무서운 때도 있었다. 청중은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 청년 목사를 신성의 기적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이를 지혜와 꾸짖음과 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복음을 대변하는 자라 상상했다. 그들이 볼 때에 이 목사가 걸어 다니는 땅까지도 신성해 보였다. 교당 처녀들은 그의 주위에서 얼굴이 파래졌다. 그들의 열정은 종교적 감정을 너무도 많이 흡수한 결과 그 열정이 바로 종교이려니 상상했고, 그들의 흰 가슴속에 있는 열정을 가장 정성스러운 제물처럼 그대로 제단 앞에 가져왔다. 신자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노쇠하면서도 아직 근력이 좋은데, 목사가 저렇게 몸이 허약하고 혈색이 좋지 못한 것은 목사가 먼저 천당에 가려는 것이라 믿고, 그 자손들에게 죽거든 뼈를 저 젊은 목사의 신성한 무덤 바로 곁에 묻어 달라고 유언했다. 근자에 딤즈데일은 줄곧 자기의 무덤을 생각해 보는데, 그럴 때마다 그 무덤 속에는 필시 저주받은 시체가 묻힐 테니 과연 그 무덤 위에 풀이 날까 하고 스스로 의문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신자들이 이렇게까지 존경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진리를 숭배하고, 생명의 생명으로서 신성한 본질을 갖지 않는 일체의 물

건을 순연히 아무 무게도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 속임 없는 그의 진정이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무엇인가? 실체인가? 희미한 중에서도 희미한 그림자인가? 그는 설교단에 서서 있는 목청을 다하여 자기의 본체를 말하고 싶었다—"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검은 목사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 신성한 강단에 올라와서 창백한 얼굴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여러분을 대리하여, 지고하시며 전지하신 하느님과의 영교(靈交)를 감히 행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에녹의 신성[32]을 발견하십니다. 내가 땅을 걸어 다닐 때 뒤에 광명이 남기 때문에 내 뒤에 오는 순례자들은 그 광명을 따라서 축복의 나라로 인도되리라고 여러분은 상상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세례의 손을 놓았습니다. 나는 이 지상을 떠나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별의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버리고 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희미한 아멘 소리와 더불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당신들의 목사로서 이처럼 존경과 신뢰를 받는 나는 그러나 순연히 부패한 자이며 거짓된 자입니다!"

딤즈데일 목사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설교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층계를 걸어 내려오지 않으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강단에선 목을 가다듬고 떨리는 숨을 깊이 들이 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나오는 입김은 영혼의 암흑한 비밀이 가득 차서 나왔다. 사실로 말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니, 백 번도 더 되었다. 말을 했다! 그러나 어떻게 말했던가?—자기는 아주 비열한 자이다. 가장 비열한 자보다도 더 비열하며 죄인들 중에서 가장 중한 죄인이다, 혐오할 자이며, 상상할 수 없는 불의자라 말했다. 그리고 비참한 자기의 육체가 전능하신 하느님의 불붙는 분노로 말미암아 타서 움츠러드는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만이 괴상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보다도 더 솔직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더럽힌 바 강단으로부터 그를 끌어내리려 했던가? 그런 일은 사실상 없었다. 그들은 죄다 그 말을 들었지만, 그럴수록 그를 한층 더 존경할 뿐이었다. 목사의 이러한 자책적

32 에녹은 창세기 5장 18절에 나오는 "하느님과 동행한" 선인이다.

인 말들 속에 얼마나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는가를 그들은 조금도 추측하지 못했다. "신성한 청년이다!" 그들은 저희들끼리 말했다. "지상의 성자이다! 아아, 저분이 그 순백한 영혼 속에 저만한 죄악을 발견하실 때에야 당신이나 나의 영혼 속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꼴을 발견하실 것이오?" 신자들이 자기의 참회를 어떤 눈으로 볼까 하는 것을 목사는 잘 알고 있었다. 그도 꽤 음험하고 후회할 줄 아는 위선자였다. 그는 죄 많은 양심을 고백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도 해 보았지만 스스로 속았다는 위안은 일순간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또 하나 스스로 인정하는 죄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꼭 사실을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아주 그럴듯한 거짓으로 꾸며 보였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천성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비참한 자기 자신을 미워했다.
그의 내면적 고민은 그를 여러 가지 행동으로 휘몰아 갔는데, 그 행동들은 그가 그 속에서 낳고 자라고 한 신교 교회의 개화된 광명보다는 썩 낡은 천주교의 타락한 신앙을 좇는 행동들이었다. 쇠를 잠궈 둔 딤즈데일 목사 사실(私室) 안에 피가 묻은 채찍이 있었다. 신교 중에서도 청교도에 속하는 이 목사는 번번이 그 채찍을 자기의 어깨에다 가했다. 이렇게 스스로 채찍질하는 동안 그는 쓰디쓴 웃음을 짓는다. 웃으면 웃을수록 사정없이 자기를 채찍질한다. 다른 경건한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단식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처럼 육체를 정화하고 그럼으로써 천상의 광명을 전달할 수 있는 좀 더 훌륭한 매체가 되기 위해서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 회오(悔悟)의 고행으로 두 무릎이 떨리어 쓰러지도록 채찍질을 계속한다. 그와 동시에 그는 매일 밤을 새운다. 어떤 때에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떤 때에는 희미한 등불 밑에서, 또 어떤 때에는 그중 환한 불을 켜 놓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행의 수단으로서 부절한 내성을 구체화했지만, 그 자신을 정화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철야 기도를 하고 있으면 머리가 핑핑 돌고, 눈이 아물아물해진다. 그러면 환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들은 자체의 희미한 광선에 비춰 컴컴한 방 한편 구석에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다보고, 어떤 것들은 좀 더 선명한 자태로 자기의 곁에 나타나서 거울을 들여다본다. 그다음에는 악마와 같은 모양의 환영 떼가 모여들어 창백한 목사를 빙글빙글 비웃으며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한다. 이번에는 눈부신 천사의 떼가 나타나 슬픔을 가득히 머금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데 따라 공기처럼 희미해진다.

이번에는 청년 시절에 죽은 그의 벗들과, 성자처럼 낯을 찌푸린 수염이 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의 옆을 지나가는데, 어머니는 지나갈 적에 낯을 돌린다. 어머니의 혼령이라면, 비록 지극히 희미한 혼령일지라도, 이 꼴을 보고 동정하는 시선쯤 던져 줄 법하건만! 기괴한 상념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광경을 나타내고 있는 방 속으로 헤스터 프린의 환영이 주홍빛 옷을 입힌 펄을 데리고 스르르 미끄러져 간다. 지나가면서 손가락을 들어 처음에는 자기 가슴 위에 있는 주홍 글씨를 가리키고, 그다음에는 목사 자신의 가슴을 가리켜 보인다.

이 환영들에게 그는 한 번도 속지 않았다. 어느 때나 그는 이지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무 실체도 없음으로 해서 그들의 정체를 식별하고, 그들이 저기 있는 조각한 참나무 책상이나 가죽으로 뚜껑을 하고 주석(朱錫)으로 등을 매고한 크고 네모반듯한 성경처럼 실질적인 물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영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가엾은 목사가 현재에 취급하고 있는 중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실질적인 물건들이었다. 하느님이 정신의 기쁨과 양식을 삼으려고 마련해 주신 우리 주위의 모든 물체로부터 현실성의 심수(心髓)를 빼앗아 버리게 된다는 것은 딤즈데일 목사와 같이 허위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말할 수 없는 불행이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우주 전체가 거짓이다. 그것은 만져 볼 수도 없고, 만져 보면 주먹 속에 움츠러들고 만다. 그 자신도 허위의 광선 속에 나타나는 한 그림자가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딤즈데일 목사에게 이 지상의 존재를 계속시키고 있는 유일한 진실은 그의 깊은 영혼 속에 들어 있는 고민과 그 얼굴 위에 역력히 나타나는 고민의 표정이었다. 만약 그가 웃을 수 있는 힘을 발견하고 유쾌한 얼굴을 가질 수 있었다면, 벌써 딤즈데일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우주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말았을 것이다.

위에서 막연히 암시는 했지만 선명하게 가려내는 것은 단념하고 말았는데—그런 기괴한 환영들이 나타나는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목사는 별안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새로운 생각이 퍼뜩 머리에 솟아났다. 그렇게 하면 다만 일순간일

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니 생각해 보았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것처럼 극히 주의해서 옷을 차려입고 또 그때와 같은 걸음걸이로 조용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12. 밤을 새우는 목사

말하자면 꿈속에 걸어서, 또 사실 일종의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서, 딤즈데일 목사는 벌써 여러 해 전에 헤스터 프린이 처음으로 공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던 장소에 도달했다. 그때의 형대가 칠 년 동안의 바람과 태양 광선에 시커멓게 낡았고, 그 후로도 무수히 단 위에 올라서게 된 죄인들에 밟혀서 닳아졌지만 여전히 공관 추녀 밑에 서 있었다. 목사는 층계를 올라갔다.

오월 초순 캄캄한 밤이었다. 흑(黑) 일색의 구름이 하늘 꼭대기로부터 지평선까지 전 공간을 싸고 있었다. 헤스터 프린이 형벌을 받을 때에 목격자로 서 있었던 그 군중을 지금 불러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단 위에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전연 발견할 수 없고, 한밤중 캄캄한 가운데 사람의 그림자조차도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리 전체가 잠들어 있었다. 발견당할 염려는 전연 없었다. 그렇게 할 생각만 있었다면 목사는 동쪽 하늘이 붉어질 때까지 아무런 위험성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위험성이 있었다면, 음습한 야기(夜氣)가 신체 내부에 스며들어서 관절염을 일으키고 목을 상하여 기침병을 발생시키고 내일 아침 그의 기도와 설교를 기대하고 오는 신자들을 실망시키는 일뿐이었다. 그가 그의 밀실에서 피가 묻은 채찍을 자기 몸에 휘두르는 것을 본 사람 말고는 아무도 그를 볼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는 여기에 왔던가? 그것은 회한의 흉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던가? 과연 그것은 흉내였다. 그러나 그 흉내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희롱하고 있었다! 그것은 천사들이 보고 낯을 붉히며 우는 반면에 악마들은 기뻐서 껄껄대고 비웃는 흉내였다. 그는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뒤를 따라 오는 회한의 여신에 휘몰려 이곳까지 쫓겨 왔던 것이다. 그러나 회한의 여신의 자매이며 단짝이 되는 것은 비겁의 여신이다. 회한의 여신이 그를 밀어서 죄악을 폭로하는 문 앞까지 끌고 가면, 으레 비겁의 여신은 그를 잡아 돌리는 것이었다. 가엾고도 불행한 인간이다! 이처럼 마음이 약한 사람이 어찌 죄악을 걸머질 자격이 있을 것인가? 죄악이란 무쇠 신경을 가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참던가, 혹은 또 너무도 사정이 절박할 때에는 그들의

세차고 영악한 힘을 발휘하여 죄악을 그 자리에서 내던지던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인간이다. 마음이 약하고 감정이 예민한 우리 주인공은 그 어느 것도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것저것 해 보기는 계속해서 해 보았다. 그래서 하느님을 무시하는 죄와 악의 고민과 해 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는 회개를 한데 모아, 풀려고 해서야 풀 수 없는 매듭을 짓고 말았다. 이렇게 부질없이 속죄를 표시하려고 애쓰면서 형대 위에 서 있을 딤즈데일 목사는 마치 온 우주가 자기 가슴 바로 심장 위에 나타나 있는 주홍빛 표적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크나큰 공포심에 억눌리고 말았다. 그의 가슴 바로 그 자리에 그의 육체를 쏠고 그의 신체 내부에 독을 퍼뜨리는 고통의 이빨이 있었다. 별반 그렇게 하려는 의지의 노력도 없이, 그렇다고 그것을 억제할 힘도 없이, 그는 고함을 질렀다. 그 고함은 밤하늘에 은은히 울리어 집들마다 반향을 일으키며 먼 산들로부터 메아리쳤다. 마치 악마의 무리가 그 속에서 불행과 공포를 발견하고, 그 소리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았다.

"이제는 됐다!" 목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중얼거렸다. "거리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나 달려 나와서 여기서 나를 발견할 테지."

그러나 그렇지는 않았다. 고함은 실제보다는 훨씬 크게 그 자신의 귀에 울려 깜짝 놀랐던 모양이다. 거리 사람들은 잠이 깨지 않았다. 설혹 잠이 깼다 할지라도 고함을 꿈속에 들은 무슨 무서운 소리나 그렇지 않으면 마녀의 소리로 알았을 것이다. 그 시대에는 마녀들이 사탄과 더불어 공중을 날아가는 소리가 이민들이 살고 있는 거류지나 혹은 쓸쓸한 움막집들 위에서 번번이 들렸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드는 소리가 전연 들리지 않으므로 목사는 얼굴을 내놓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저쪽 다른 거리에 있는 벨링햄 장관 댁 창문에 노 장관이 손에 초롱을 들고, 흰 나이트캡을 머리에 쓰고, 길고 흰 가운을 걸쳐 입고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아닌 밤중에 초혼(招魂)을 받아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는 유령처럼 보였다. 분명히 고함이 그의 잠을 깨웠던 것이다. 같은 집 다른 창에는 장관의 누이 히빈스 양도 초롱불을 들고 나타났다. 초롱불에 비춰 보니 이 먼 곳에서도 그 찌푸린 불만스러운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살창문으로 얼굴을 내놓고 불안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 마술 노파는 분명히 딤즈데일의 고함을 들었었다. 그 고함이 여기저기서 반

향―했기 때문에 그것을 악마들과 마녀들의 소리로 해석했다. 히빈스 양이 이들과 동무가 되어 산속으로 소풍 다닌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다.

벨링햄 장관의 초롱불이 비치는 것을 보고 노파는 곧 자기의 초롱불을 끄고 사라지고 말았다. 아마도 구름 속으로 올라간 모양이다. 목사는 다시는 노파의 거동을 못 보았다. 장관은 한참을 정신 차려 어둠 속을 보고 나서—깜깜 절벽이라 절구 속을 들여다보는 격이었다—창으로부터 자취를 감췄다.

목사는 비교적 기분이 평온해졌다. 그러자 깜박깜박하는 조그만 등불이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먼 데서 비치다 차츰 가까워졌다. 그 등불은 기둥을 비췄다가 울타리를 비췄다가 살창 유리를 비췄다가 물이 가득 찬 통(槽)이 붙은 펌프를 비췄다가 무쇠 노커(knocker)(문에 노크할 수 있게 만든 장치)가 달린 참나무 궁형문(弓形門)을 비췄다가 층층대 노릇을 하는 통나무를 비췄다가 하면서 일일이 살펴보는 표시를 했다. 딤즈데일 목사는 자기의 운명이 파멸을 향하여 시시각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삼 분만 지나면 등불이 자기를 비춰서 오래 숨겨 온 비밀을 폭로시키리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금 발소리가 들려오는 사람의 등불이 비춰 주는 물체의 세밀한 부분을 일일이 주의해서 보았다. 등불이 차츰 가까워지는 데 따라 환한 불빛 속에서 그는 그의 동료 목사—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단히 소중한 친구인 동시에 직업상 아버지라고 해야 할 사람—윌슨 목사의 모양을 보았다. 그는 어떤 사람의 임종석에서 기도를 드리고 오는 길이려니 하고 딤즈데일은 추측했다. 사실도 그러했다. 이 노목사는 바로 그때에 이 세상을 떠난 윈트로프 장관의 임종석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금 등불로 발밑을 비추며 윌슨 목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모양이 마치 고대의 성자들처럼 찬란한 무리(圓光)—이 침침한 죄악의 밤 어둠 속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는 광명—에 싸여 있는 것 같았다. 이 세상을 떠나는 장관이 그에게 영광의 유산을 물려주고 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저 먼 천당의 영광을 몸에 입고 지금 천당 문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순례자(장관)를 관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껌벅거리는 초롱불이 딤즈데일에게 이런 생각을 암시했는데, 딤즈데일 자신은 이런 생각을 하자 스스로 웃고—거의 비웃고—생각하기를 이러다가는 정말로 미치지나 않을까 하였다.

윌슨 목사가 한편 손으로 몸에 걸친 제네바 클로크(cloak)를 휘어잡고 또 한 손으로는 가슴 앞에 초롱불을 잡고 형대 바로 곁을 지나갈 때에 딤즈데일 목사는 소리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우리 잠시 동안 재미난 이야기라도 합시다."

이거 큰일 났구나! 딤즈데일 목사는 참으로 그런 말을 했던가? 한순간 그는 그런 말이 자기의 입술 사이에서 빠져나갔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상상 속에서 발언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늙은 윌슨 목사는 발밑에 진 길을 살펴 가며 형대 쪽은 전연 돌아다보지도 않고 느릿느릿 걸어서 지나가고 말았다. 껌벅거리는 초롱불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을 때에 목사는 최후의 수분이 참으로 아슬아슬한 불안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전신에 퍼지는 피로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었다. 사실은 일종의 처참한 장난끼로 일시적인 정신적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조금 지난 뒤에 또다시 장난치고 싶은 기분이 엄숙한 사상의 유령들 속에 스며들어 왔다. 처음 당해 보는 이야기에 팔다리가 꼿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과연 형대 층계를 걸어 내려갈 수 있을까 의심했다. 동이 트면 자기는 이 자리에 뻗어져 있을 테지. 근처 사람들이 차츰 일어나기 시작할 테지. 제일 먼저 일어나 나오는 사람이 어슬어슬한 새벽 속에서 높은 형대 위에 쓰러져 있는 희미한 형체를 발견할 테지. 그러면 그 사람은 무섭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기고 하여 반광란(半狂亂) 상태로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깨워 유령을 보러 오라고 불러낼 테지—그 사람은 정녕코 그 형체를 사형 집행을 받은 어떤 죄수의 유령으로 알 테니까. 집마다 새벽의 소동이 날개를 퍼덕이며 일어날 테지. 그러면 아침 해는 점점 환해지는 가운데서 노인들은 플란넬(flannel) 잠옷을 입은 그대로 부랴부랴 일어나고, 부인네들도 미처 잠자리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일어날 테지. 평소에는 사람 앞에서 머리 한 올 흐트러지는 일이 없던 점잖은 사람들이 악몽에 시달린 듯한 광란의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뛰어나올 테지. 벨링햄 장관도 제임스 왕조 시대의 주름 깃을 삐뚤게 달고 내달을 테지. 히빈스도 치마에 나뭇가지를 꽂고 보통 때보다도 더 낯을 찡그리고—어제는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었으니까—달려올 테

지. 또 윌슨 목사는 한밤을 임종석에서 보내고 나서 모처럼 영광의 성자들을 꿈꾸는 판에 이렇게 새벽에 잠이 깨어지는 것은 성가시면서도 할 수 없이 일어나 나올 테지. 딤즈데일 목사, 교당의 장로들과 집사들, 그리고 그를 우상처럼 숭배하여 그 순백한 가슴속에다 그를 위한 사당(祠堂)을 지어 놓은 처녀들도 모여 올 테지—그러나 처녀들은 너무도 급해서 그 흰 앞가슴들을 미처 손수건으로 가리지도 못하고, 요컨대 모든 거리 사람이 문턱에 걸려 고꾸라지며 형대 주위에 모여들어 놀랍고 두려운 얼굴을 들어 쳐다볼 테지. 달려온 그들은 동천의 붉은 햇살을 이마에 받고 있는 누구를 그곳에서 발견할 것인가? 얼어 죽게 되고, 수치에 형편없이 되어 과거에 헤스터 프린이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에 서 있는 아서 딤즈데일 목사 이외의 그 누구를 발견할 것인가?

자기 자신이 그려낸 환상의 기괴한 공포로 말미암아 정신이 없어진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요란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자기도 끝없이 놀랐다. 그랬더니 곧 경쾌하고 간드러진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뒤따라 일어났다.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의 웃음이었는데, 그것이 고통의 감정인지 쾌락의 감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인 것만은 알아챘다.

"펄! 펄!" 한참 있다가 목사는 불러 보았다. "헤스터! 헤스터 프린! 당신이오?"

"네, 접니다. 헤스터 프린입니다." 깜짝 놀란 듯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여자가 자기 앞으로 가까이 걸어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저하고 펄입니다."

"윈트로프(Winthrop) 장관 댁 밤샘하고 오는 길이에요. 수의 치수를 재 가지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헤스터! 펄을 데리고 이리로 올라오시오. 당신과 펄은 과거에 여기 선 일이 있었지만 그때 나는 같이 서지 않았었소. 자, 곧 올라와서 우리 셋이서 같이 섭시다."

헤스터는 잠자코 층계를 올라갔다. 그리고 펄의 손을 잡고 단 위에 섰다. 목사는 어린아이의 다른 편 손을 어루만져 붙잡았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의 심장 속에 새로운 생명—그 자신의 생명과는 별개의 생명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서 혈관을 달음질했다. 마치 모녀는 그들의 따뜻한 생명을 가사 상태에 빠진 그의 신체 조직 속에 전도해 주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은 전기의 사슬처럼 꽉 연결되었다.

"목사님!" 펄은 낮고 그윽한 목소리로 불렀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목사는 물었다.
"내일 낮에도 엄마하구 나하구 같이 여기에 서실래요?"
"아니, 그건 안 돼, 펄!"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순간에 공중 앞에 폭로될 것을 두려워하는 공포심—그렇게도 오랫동안 그의 고민이었던 공포심—이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왈칵 솟아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별안간 나타난 이 결합 상태를 한편 무척 기뻐하면서 한편 무서워서 벌써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건 안 된다, 내 딸아! 어느 날이던 엄마하고 너하고 같이 서마. 그렇지만 내일은 안 돼." 펄은 하하 웃으며 손을 잡아 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손은 목사가 꽉 붙들고 있었다.
"조금만 더 있자꾸나. 내 딸아!" 그는 말했다.
"그렇지만 내일 낮에 엄마 손하고 내 손을 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실 거예요?" 펄은 또다시 물었다.
"내일은 안 돼. 다른 날 잡아 주마." 목사는 대답했다.
"최후 심판 날에—" 목사는 귓속말로 대답했다. 참으로 괴상한 대답이나, 진리를 가르치는 전문가라는 의식이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시켰던 것이다. "그때에는 심판석 앞에서 엄마, 너, 내가 같이 서야 한다. 그렇지만 이 세상 햇빛은 우리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펄은 다시 한 번 깔깔댔다.
그러나 딤즈데일 목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줄기 광선이 구름에 덮인 하늘을 멀고 넓게 비추었다. 그것은 분명히 유성이 만들어 내는 광선이었다—허공에서 불이 붙다가 지나면 꺼지고 마는 것을 야경(夜警)들이 번번이 보게 되는 저 유성. 그 광선은 하늘과 땅 사이에 덮여 있는 빽빽한 구름을 완전히 밝혀 줄 만했었다. 대창궁(大蒼穹)은 거대한 등불의 원탑(圓塔)처럼 환해졌다. 그 광선은 눈에 익은 거리 풍경을 백주와 같이 환하게 비춰 주지만, 비상한 광선이 비칠 때에 평범한 물체가 으레 받게 되는 삼엄미(森嚴味)를 띠고 있었다.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다가 마지막에는 기묘한 처마 끝이 되는 목조 가옥, 벌써 이른 봄풀들이 돋아나는 문간과 문턱들, 갓 일궈 놓은 시커먼 뜰 앞 땅, 그다지 닳지도 않은 수레 길—장

거리까지 가도 그 길 좌우에는 풀이 돋아 있다. 이 모든 것이 눈에 환하게 보였다. 환하게 보이면서 또한 이상야릇한 모습—지상의 물건들에다 이전과는 다른 도덕적 해석을 주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한 속에 딤즈데일 목사와, 가슴 위에 주홍 표적을 달고 있는 헤스터 프린, 그 자체가 무슨 상징처럼 두 사람을 연결하는 펄이 서 있었다. 이 세 사람은 대낮같이 밝은 이상하고도 장엄한 광선 속에 서 있었다. 마치 모든 비밀을 폭로시키는 것은 별빛이고, 결합해야 할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것은 아침 햇빛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싶었다.

어린 펄의 눈 속에는 마력이 있었다. 그리고 목사를 쳐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그 표정을 번번이 요정처럼 만들어 놓는 심술궂은 미소가 떠돌고 있었다. 펄은 자기의 손을 목사의 손으로부터 빼내어 길 건너 쪽을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목사는 두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부둥켜안고 하늘 꼭대기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 시대에는 해와 달이 뜨고 지고 하는 일보다도 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유성의 현상이나 기타의 자연 현상을 초자연적 근원에서 나타나는 무슨 계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보통의 일이었다. 그래서 밤하늘에 나타나는 불붙은 창(槍), 불길을 뿜는 검, 활, 한 전동(箭筒)의 화살은 인디언과의 전쟁에 대한 전조가 되었다. 역병이 돌 때에는 그전에 주홍빛 광선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했다. 식민지 시대부터 독립전쟁 시대에 이르기까지 좋거나 언짢거나 간에 뉴잉글랜드에 발생한 유명한 사건치고 이러한 자연현상에 미리 경고되지 않은 사건이란 하나도 없었다. 군중이 다 함께 보게 되는 수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어떤 단독 목격자가 보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저 신념처럼 믿게 되는 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그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그런 현상을 보고, 확대하고 찌그러뜨리고 나중에 제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구성해 버리는 것이다. 국가 민족의 운명이 두려운 이들 상형문자로써 하늘의 장막 위에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한 생각이었다. 그렇게도 넓은 두루마리일지라도, 하느님이 한 민족의 운명을 그 위에 쓰시기에 지나치게 넓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신념은 우리 조상들 심정에 특히 맞는 바였다. 그들의 나이 어린 공화국은 특별히 친밀하고 극진한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똑같은

기록장 위에서 자기 개인에만 관계되는 어떤 계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어떠할까? 이런 경우에 자연계의 기적이라 하는 것은 극도로 흥분된 정신 상태의 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무슨 강하고 비밀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병적인 자유 명상에 빠져 있을 때에 그의 자아중심주의는 자연계 전체에까지 확충되고, 마지막에는 천공 그 자체가 자기 영혼의 역사와 운명을 기록하는 한 장의 종이로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늘 꼭대기를 올려다 볼 때에 굉장히 큰 A자가 암홍색(暗紅色)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순전히 그 자신의 눈과 정신의 병 탓으로 돌린다. 바로 그때 그 장소에 유성이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불타면서 나타났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양은 죄악의 가책을 받는 그의 상상이 그렸던 것과 같은 모양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 윤곽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만일 다른 죄인이 보았더라면 별다른 표식을 발견했을지도 모를 정도이다.
이 찰나의 주위 사정은 딤즈데일 목사의 심리 상태의 특색을 나타낼 만큼 되어 있었다. 하늘 꼭대기를 올려다보는 동안 그는 펄이 형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서 있는 로저 칠링워스를 손가락질해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목사는 기적의 문자를 발견하는 바로 그 시선을 가지고 그를 발견했던 모양이다. 그 때에 유성이 흘러 모든 물체와 같이 그의 얼굴에다도 새로운 표정을 주었다. 혹은 또 이때에 의사는 평소처럼 자기의 표정을 숨기지 않고, 부주의하게도 희생자 목사에 대한 악의를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만약 유성이 하늘을 비추고 땅의 모양을 드러내고 하는 그 무서운 광경에 질리어 헤스터 프린과 목사가 최후 심판 날을 상상하게끔 되었다고 한다면, 로저 칠링워스가 악마의 괴수가 되어 찡그린 낯으로 싱글싱글 웃으며 이제는 내 차지라고 쾌재를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도 그럴 법한 일이다. 그 표정이 그렇게도 선명했다고 할까, 혹은 목사의 감각이 그렇게도 강렬했다고 할까, 하여튼 유성이 사라진 뒤에도 글자는 뚜렷하게 어둠 위에 남아 있는 듯싶었고, 그래서 마치 거리며 뭐며 할 것 없이 일체, 멸진(滅盡)된 것 같았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는 공포에 압도되어 가쁘게 숨을 쉬며 물었다. "저

사람을 보니 떨립니다! 당신은 저 사람을 아시오?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헤스터는 자기의 약속을 회상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정말 영혼이 떨립니다!" 목사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좀 어떻게 해 주시구려! 왜 그런지 자꾸 저 사람이 무서워요!"
"목사님!" 하고 펄이 말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냐, 빨리 말해라!" 목사는 어린아이 입술에다 바싹 귀를 대며 말했다. "빨리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목소리로."
펄은 그의 귓속에다 무어라고 오물오물 이야기했다. 그 말은 확실히 인간 언어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애들이 한 시간이나 혼자서 무어라고 지껄일 때에 하는 소리와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다. 설혹 그 이야기가 로저 칠링워스에 대한 무슨 비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박학(博學)한 목사의 귀에는 전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고, 그래서 그의 정신 혼란을 더욱 조장할 따름이었다. 그러자 요정 같은 어린아이는 하하 하고 소리 높여 웃어댔다.
"너 나를 조롱하니?" 목사는 말했다.
"목사님은 겁쟁이! 목사님은 거짓말쟁이!" 펄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일 낮에 엄마 손과 내 손을 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죠?"
"선생님" 하고 바로 단 아래까지 와 있었던 의사가 말했다. "거룩하신 딤즈데일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서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책에만 팔려 있으니까, 착실한 보호자가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학자들이란 눈을 뻔히 뜨고도 꿈을 꾸고, 자면서도 걸어 다니기가 일쑤이니까요! 자, 선생님 이리 오십시오. 친구의 자격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서 이리 오십시오. 제가 댁까지 안내해 드릴 테니."
"내가 여기 있는 줄을 어떻게 아셨소?" 목사는 무서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물었다.
"하, 참!" 로저 칠링워스는 대답했다. "난 아무것도 몰랐죠. 윈트로프 장관님 작고하시는데 가서 제 의술로 뭐 좀 편히 해 드릴까 하고 밤을 새웠답니다. 장관님은 좋은 데로 가시고 그래서 나도 집으로 돌아오던 길인데, 저 이상야릇한 별이 번쩍하지 않습니까? 목사 선생님! 제발 절 따라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주일 예

배를 잘 못 보실 걸요! 아아, 참, 보십시오. 얼마나 선생님의 신경을 어지럽히는가, 그 흉악한 책들이! 작작 공부를 하시고 좀 더 휴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야간의 공상이 점점 더 발생한단 말씀이에요."

"당신을 따라 집으로 가리다." 딤즈데일은 말했다.

흉악한 꿈을 꾸다가 잠이 깨어 근력은 하나도 없고 머리만 무거운 사람처럼 전신에 오한을 느끼면서 그는 의사가 말하는 대로 끌려서 갔다.

그 이튿날인 주일날 그는 여전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는 그가 죽은 뒤까지도,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던 중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감이 충만한 설교였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들이 죽는 날까지 딤즈데일 목사에 대하여 신성한 감사를 품겠다고 스스로 가슴속에 맹세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에 그는 교당 일꾼이 검은 장갑 한 켤레를 들고 마주 나오는 것을 만났는데, 보니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장갑이었다.

"오늘 아침 저 죄인들이 벌을 받는 단 위에서 이 장갑을 발견했어요." 일꾼은 말했다. "사탄이 선생님에게 무례한 농담을 할 양으로 거기다 일부러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놈, 참, 여전히 멍텅구리인 데다 소경이거든요! 깨끗한 손이야 장갑으로 가릴 필요가 있나요?"

"이거 참 고맙네그려." 말은 엄숙하나 마음속으로는 질겁했다. 그의 정신이 어떻게도 혼란했던지 그는 어젯밤 일을 꿈속의 일처럼 생각하게끔 되어 있던 판이다.

"과연 내 장갑 같아 보이는군!"

"사탄이 그것을 훔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이제부터는 맨손으로 그놈을 대하세요." 일꾼은 심각한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아 참, 그런데 말이죠. 어젯밤에 괴변이 나타났다는 말 들으셨어요? 중천에 주홍빛으로 A자가 나타났다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ANGEL(천사)의 약자라고 해석해요. 훌륭하신 윈트로프 장관님이 바로 어젯밤에 천사가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표시하는 무슨 괴변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었던 모양이죠."

"나는 아무 말도 못 들었네." 목사는 대답했다.

13. 헤스터의 다른 일면

전번에 딤즈데일 목사와 기묘한 상봉을 하게 되었을 때에 목사가 어떠한 신세에 떨어져 있는가를 보고 헤스터 프린은 깜짝 놀랐다. 그의 신경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도덕적 의지력은 아주 타락해서 어린아이의 그것보다도 더 약했다. 비록 그의 지적 능력은 아직도 원래의 근력을 보존하고 있지만, 혹은 병으로 인하여 자연히 병적인 정력이 생기기도 했겠지만 도덕적 힘은 힘없이 땅위를 기어 다니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면의 사정을 알고 있는 만큼 헤스터는 목사 자신의 정당한 양식 활동 이외에 어떤 무서운 힘이 그의 안강(安康)과 휴식에 대해서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 가엾은 타락한 목사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그가 본능적으로 발견한 원수를 막아 달라고 자기—세상에 버림을 받은 여자—에 구원을 청할 때에 벌벌 떨고 있는 모양을 보고 헤스터의 영혼은 완전히 감동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최대 원조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정했다. 사회를 떠나서 오래 은거 생활을 하는 도중의 외부적인 표준을 가지고 선악 관념을 재는데 아주 서틀러졌기 때문에 헤스터는 이 목사에 관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이 세상 누구에 대해서나 진배없는 책임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적어도 그런 것처럼 생각했다. 자기와 인류사회를 비끄러매는 인연—꽃과 비단과 금과 기타 무엇이나 물질적인 인연—은 이미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 자신과 목사 사이에는 서로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인연이 있었다. 다른 모든 인연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의무를 동반했다.

헤스터 프린은 지금 그 수난 생활 초기에 우리가 그를 발견했던 것과 같은 지위에서 있지는 않았다. 세월이 오고는 갔다. 펄은 올해 일곱 살이었다. 수 바탕에 현란한 주홍 글씨를 가슴에 단 그 어머니는 거리 사람들의 낯익은 존재가 된 지 이미 오래였다. 사회 안독(案牘)에서 뛰어나면서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이해에 저촉되는 일도 없고, 남의 편리를 방해하는 일도 없는 사람의 경우는 매양 그러기가 쉽지만, 헤스터 프린에 관해서도 일종 사회적인 존경이 나타났다. 이기심이 발동하

지 않는 한 인간의 성질은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더 쉽게 한다는 것은 과연 인류의 취할 점이라 하겠다. 최초의 적개심을 자꾸만 자극해서 변화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 증오심이란 서서하고 조요한 과정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사랑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다. 헤스터 프린의 문제에 있어 자극하거나 남을 귀찮게 하거나 하는 일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사회 처사에 대하여 아무 불평도 없이 순종할 뿐, 한 번도 맞서서 싸운 일이 없었다. 그는 자기가 받는 고통의 대상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 동정에 기대지도 않았다. 또 그와 동시에 사회에서 분리되어 수치의 생활을 하는 몇 해를 흠이 없이 순결하게 살아왔다는 것이 몹시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인류 안목에서 이제는 잃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고 무엇을 얻을 희망도 욕심도 없고, 그래서 자연히 윤리 도덕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 이 가엾은 인류 방랑자를 사회 정로(正路)로 다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헤스터는 인류 공유의 공기를 마시고, 충실한 노동과 손재주로써 어린 펄과 자기 자신의 그날그날의 빵을 버는 외에 이 세상의 특권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요구한 일이 없었지만, 누구에게 시물(施物)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그는 솔선해서 자기도 인류의 자매려니 자처한다는 것을 세상에서 알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이 요구할 때마다 넉넉지 못한 양식을 내어 주기를 이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다. 비록 마음이 고약한 가난뱅이가 매일처럼 문전까지 가져다주는 음식이나 제왕의 옷에 수를 놓을 수 있는 솜씨로 지어다 주는 옷의 값으로 욕사발을 퍼붓는 수가 있어도 여전하였다. 역병이 돌 때에 헤스터처럼 일심으로 구완하는 사람이 없었다. 천재(天災)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주민 전체에 관계되는 일이건 개개인에 관계되는 일이건 사회에 버림 받은 이 여자는 즉시로 그 재앙 속에 자기 처소를 발견했다. 그는 환란에 어두워진 집에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가족의 한 사람으로 왔다. 마치 그 어둠침침한 곳이야말로 그가 인류 동포와 교제할 수 있는 매개 장소인 양이었다.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 주홍 글씨가 번들번들할 때 그것은 비현실적인 광채로 말미암아 집안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었다. 다른 장소에서는 죄의 표적이지만 병자의 방에서는 촛불이었다. 병자가 최후 순간에 숨이 가쁠 때에는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 영원의 세계로 그 광명을 던져 주기도 했다. 이 세상의 광선은 차츰

어두워 가고, 미래 세계의 광선은 미처 도달되지 못할 무렵에 주홍 글씨는 떠나는 영혼에게 발 디딜 곳을 가리켜 주었다. 이런 비상시일수록 헤스터는 인정미가 있고 푼더분한 성질의 여자라는 것이 나타났다. 그 성질은 절실한 기대에 한 번도 어그러짐이 없고, 아무리 큰 요구를 해도 그 인정은 말라 드는 법이 없는 인간 애정의 샘물이었다. 수치의 표적을 달고 있는 그의 가슴은 진실로 베개가 필요한 사람에게 푹신한 베개가 될 뿐이었다. 그는 자작(自作) 임명한 "자비의 성모동정회(聖母童貞會)"의 한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이나 그 자신이 이런 결과를 전연 예상하지 않았을 때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권능의 손이 이 여자를 이러한 직책에다 임명했다고 해야 옳을지도 모른다. 주홍 글씨는 그 천직의 상징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주홍 글씨 A자를 벌써 최초의 의미로는 해석하려 하지 않으리만큼 헤스터 속에서 도움과 실천력과 동정심을 발견하고들 있었다. 그들은 말하기를 A는 ABLE(유능)을 의미한다 했다. 헤스터 프린이 가지고 있는 여자의 힘은 그만큼 강했다.

헤스터를 용납하는 집은 어두운 집뿐이었다. 햇빛이 또다시 들어오면 그는 벌써 그 집에 있지 않다. 그의 그림자는 이미 문턱을 넘어 사라지고 만다. 그가 열심히 봉사해 준 사람들 가슴속에 설혹 감사한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감사의 보수를 받기 위하여 뒤돌아보는 일도 없이 한집 식구처럼 도움이 되는 이 벗은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리에서 만나도 머리를 들어 그들의 인사를 받는 법이 없었다. 굳이 가까이 오면 그는 주홍 글씨에다 손가락을 대며 그대로 지나가고 말았다. 자부심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타나는 외양은 꼭 겸손이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마음에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게 되었다. 민중의 성질은 전제적(專制的)이라서, 이쪽에서 정의를 너무 강하게 요구할 때에는 보통 정도의 정의도 거절하는 수가 있다. 그러나 이쪽에서 호소하면 정의 이상의 것을 주는 수도 또한 많다. 전제자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관대심에 호소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헤스터 프린의 태도를 이런 종류의 겸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사회는 이 여자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도, 혹은 응당 받을 값이 있는 이상으로, 인자한 얼굴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위정자와 학자들은 헤스터의 좋은 성질의 감화력을 인정해 주는 데 있어 일반 사

람들보다도 좀 더 시간이 걸렸다. 그들이 일반 대중과 공통적으로 가졌던 편견이 그 내부에서 무쇠 틀로 견고히 방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편견을 날려 보내기란 훨씬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찌푸리고 딱딱한 얼굴의 주름살이 누그러져서 몇 해만 가면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변해 버릴지도 모를 형편이었다. 지위가 높으니만큼 자연히 일반 백성의 도덕에 대한 보호를 책임지게 된 사람들의 형편은 대략 이러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개개인은 누구나 헤스터가 마음이 약해서 죄에 타락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용서하고들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들은 주홍 글씨를 한 번 죄—그 죄 때문에 헤스터는 그렇게도 오래고 지루한 참회를 계속해 왔다—의 표식으로 보지 않고, 그 후에 나타난 그의 무수한 선행의 표식으로 보기 시작들 했다. "수놓은 표적을 달고 다니는 저 여인을 아시오?" 그들은 타향 사람이 올 때에는 으레 설명을 했다. "저 여인이 바로 우리 헤스터—가난한 사람에겐 참 친절하고, 병든 사람은 극력 구완해 주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위안을 주는 우리 고을의 헤스터입니다." 인류의 죄악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일이 있을 적에 그것을 극구 매도(極口罵倒)하는 것이 인정의 보통인지라 자연 옛날의 나쁜 소문이라면 언제까지나 수군거리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자체의 눈으로 볼 때에도 헤스터의 주홍 글씨가 수녀(修女) 가슴 위에 매달린 십자가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이었다. 그 표식은 그것을 차는 사람에게 일종의 신성미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위험 속을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었다. 설혹 그가 도둑의 굴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표식은 그의 생활을 보호해 주었을 것이다. 어떤 때 인디언 한 명이 이 표적에 대고 활을 쏘았더니, 살은 맞고도 아무 상처도 주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다수한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있었다.

헤스터 자신의 정신에 대해서 표적이 주는바 영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표적이 표시하는 대사회적 지위는 강력하고도 독특한 것이었다. 그 성품 중에서 연하고 고운 새싹들은 새빨갛게 달은 화인에 죄다 타서 떨어진 지가 이미 오래고, 그 뒤에는 다만 빤빤하고도 처참한 자국이 남아 있을 뿐, 아직도 생각해 주는 동무가 남

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동무로 하여금 얼굴을 돌리게 했을 것이다. 신체의 아름다운 모양까지도 동일한 변화를 받고 있었다. 그 원인은 그 옷 모양을 일부러 연구해서 준엄하게 차리는 데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또 감정을 태도 위에 나타내는 버릇이 전연 없어졌다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그 호화 현란하던 머리카락을 아주 잘라버렸는지 혹은 모자 속에 완전히 감춰버렸는지, 하여튼 황금처럼 빛나던 머리카락이 태양 속에 광채를 뿜는 일이 전연 없어진 것도 또한 변모였다. 헤스터의 얼굴 속에 사랑의 여신이 내려와서 앉을 만한 자리가 이미 없어졌고, 그의 신체는 비록 소상(塑像)처럼 존엄은 하지만 열정이 와서 품안에 껴안아 주고 싶어 할 만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그 가슴은 다시는 애정의 여신의 베개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은 그 일부의 원인이 이러한 데도 있었겠지만, 더 큰 원인은 딴 데 있었다. 그가 언제까지나 여자로 있으려면 영구히 존재해야만 하는 어떤 본질적인 성질이 그로부터 떠나갔다. 여자가 특히 가혹한 인생 체험을 통과할 때에 그 여성다운 성품과 신체가 받는 운명과 냉혹한 발전상(發展相)이란 왕왕 이러한 것이다. 연약하면 죽고, 살려면 연약한 성질을 뭉개 없애거나, 그렇지는 못해도 다시는 표면에 나오지 못하도록 마음 깊은 곳에 처박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외양도 그렇게 돼야 한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정당한 이론일 것이다. 과거에 여자였다가 중간에 여자를 그만둔 사람은 마술의 손가락이 접촉하면서 다시 한 번 변모 작용을 일으켜 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또다시 여자가 될 수 있다. 과연 헤스터 프린이 일후에 이러한 마술의 접촉을 받아 변모를 일으키게 될는지 두고 보자.

대리석같이 차디찬 헤스터의 인상은 그 원인을 대부분 주위 환경—그의 생활이 열정과 감정으로부터 사상으로 일대 전환을 했다는—으로 돌릴 수 있었다. 세계에서 고립된 여자—전연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다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 펄이 있을 뿐—설혹 그것이 탐탁한 일이라고 바라봤자 옛날 지위를 다시는 복구할 길이 없는 고독한 여자—헤스터는 끊어진 쇠사슬의 고리들을 죄다 내던지고 말았다. 이 세계의 법칙은 벌써 그의 정신에 대해서는 법칙이 아니었다. 갓 해방된 인간 지성이 그전 수백 년 동안보다도 활발하고 넓은 활동 범위를 차지하던 시대였다. 무인이 귀족과 제왕들을 쓰러뜨린 건 벌써 그전 이야기였다. 이들보다도 대

담한 사람들은 고대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는 고대의 고루한 제도를 타도하고 재조직했다. 현실적은 아니나마, 그들이 살고 있는 이론 세계에서는 그러했다. 헤스터 프린은 이러한 정신을 흡수했다.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는 이미 평범사(平凡事)가 되고 만 사상의 자유를 헤스터는 몸에다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주홍 글씨에 표식된 죄보다도 더욱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바닷가 쓸쓸한 움막집에도 사상은 찾아왔다. 감히 뉴잉글랜드의 다른 어느 집도 찾아갈 염의도 못 할 사상. 이런 수상스러운 손이 만일 그들의 문을 두드렸다면 그 집 주인은 그를 악마보다도 더 위험스러운 손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가장 대담하게 사색하는 사람일수록 외부적인 사회 규칙에 대해서는 가장 온순하게 복종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사상만으로써 족했지, 사상에다 실천의 살과 피를 입힐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태는 썩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때에는 헤스터가 한 종파(宗派)의 창건자(創建者)로서 앤 허친슨(Anne Hutchinson)과 손을 마주 잡고 역사에 남았을지도 모른다. 헤스터에는 예언자의 일면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헤스터는 청교도 사회의 근본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죄인으로 엄중한 재판을 받아 사형에 처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고, 또 아마도 그 사형을 달게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데서 어머니의 사상적인 정열은 설치되고 말았다. 천의는 어린 계집애의 신체를 빌어 여성의 씨와 꽃의 보관을 위탁하면서, 이리 떼 같은 곤란 속에서 그 씨를 가꾸고 꽃을 피게 하라고 명했다. 모든 것이 불리했다. 전 세계가 그에게 적대(敵對)했다. 어린아이 성질 그 자체 속에 무슨 잘못된 점이 있어, 항상 그 아이가 잘못 태어난 것을 표시했고—아마도 그 어머니의 무궤도한 열정의 소산일 것이라—그래서 헤스터로 하여금 분한 마음에 대체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이 좋은 징조냐 나쁜 징조냐 하고 자문하도록 만드는 수가 많았다.

여성계 전체에 관해서도 이와 똑같은 암담한 문제가 헤스터의 머릿속에 자주 일어났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과연 반가운 일인가?—비록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경우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 생존에 관해서는 문

제가 부정적으로 결정된 지 이미 오래였다. 그것은 이미 낙착된 문제로서 집어치우고 말았다. 사색적인 경향은 여자를—남자도 마찬가지지만—조용하게 만드는 반면에 또 슬프게 만든다. 헤스터는 자기 장래에 전연 무망한 사업을 내다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 일보로서 사회 조직 전체를 파괴하고 새로 건설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남성의 성질 그 자체, 또는 천성이 되다시피 한 장구한 유전적인 그 습성을 본질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여자는 공평하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곤란을 없앤다 해도, 여자 자신이 좀 더 중대한 변화를 치르기 전에는 이러한 예비적 개혁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만약 그런 대변화를 치르게 되면 여자의 영묘(靈妙)한 본질—여자의 가장 진실한 생명이 들어 있는 바탕—이 아마도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비록 여자라고 하지만 그 심장이 정상적이며 건강한 고동을 이미 잃어버린 헤스터 프린은 깜깜한 정신의 미궁 속에서 아무 실마리도 없이 헤매고 있었다—어떤 때는 넘을 수 없는 절벽을 만나 길을 피하고, 어떤 때는 깊은 굴에 빠져 다시 돌아 나오기도 하면서 주위에는 쓸쓸하고 처량한 풍경 뿐, 어느 구석을 보나 아늑하고 따스한 데는 없었다. 무서운 회의심이 왈칵 덮쳐서 당장에 펄을 천당으로 보내고 자기 자신도 영원한 정의가 정해 주는 대로 어느 미래 속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나 않을까 생각하는 때가 빈번했다.

주홍 글씨의 사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딤즈데일 목사가 밤을 새우던 날 그와 만나고 난 뒤에 새로 생각해 볼 문젯거리가 생겨났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나 희생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이 나타났다. 그는 목사가 몸부림치고 있는 몹시도 비참한 상태를 직접 목격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비참한 상태에서 목사는 몸부림치는 일조차도 못 하고 있었다. 목사는 완전히 정신병은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그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남모르게 가슴을 찌르는 회한 속에 어떤 고통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나, 그보다도 치명적인 독이 구제자로 가장한 손으로 말미암아 주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비밀한 원수가 친구이며 구원자로 가장하고 항상 그의 곁에 붙어 있으면서, 모든 기회를 이용

하여 딤즈데일 목사의 미묘한 성질의 원천에다 독약을 뿌리고 있었다. 자초에 앞으로 불길하게 예상될 뿐이고 길한 일은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러한 처지에다 목사를 내던졌다는 것이 자기의 실책이 아니었던가—자기의 진실과 용기와 충성이 부족했던 탓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에 로저 칠링워스가 가면을 쓰고 지낸다는 음모에 묵종(默從)하는 수밖에는 목사를 좀 더 암담한 파멸의 운명으로부터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헤스터로서는 유일한 변명의 재료였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방침을 취했었는데, 이제 와 보니 둘 중에서 더 불행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과거의 잘못된 죄를 갚자고 그는 결심했다. 여러 해 동안 가혹하고 엄중한 시련을 받는 도중에 헤스터도 이제는 굳세졌다. 감방에서 로저 칠링워스를 처음으로 만나던 날 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여지없이 낮아지고, 아직도 머릿속에 새로운 수치로 말미암아 반광란 상태에 빠져 로저 칠링워스를 상대로 싸우기에는 자기의 힘이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때와는 같지 않다. 그때와 비교하면 헤스터는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섰다. 그 반면에 노인은 비루한 짓을 해서 복수를 하느라고 헤스터의 지위—아니 그보다도 얕은 지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마침내 헤스터 프린은 전 남편을 만나서 그가 분명히 손아귀에 넣고 있는 희생자의 구출을 위하여 힘자라는 데까지 노력해 보자고 결심했다. 그 기회는 머지않아서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펄을 데리고 반도의 쓸쓸한 곳을 산보하고 있으려니까 마침 늙은 의사가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약 뿌리를 캐려고 몸을 구부리는 것을 발견했다.

14. 헤스터와 의사

헤스터는 펄을 보고 내 저기서 약초 캐는 저 노인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 물가로 뛰어가서 조개를 캐든지 해초나 뜯으면서 놀고 있으라 했다. 아이는 새처럼 날아갔다. 작은 흰 발을 벗고 물가로 철벅거리며 갔다. 가다가는 여기저기서 딱 정지하고 웅덩이를 흥미 있게 들여다보았다. 썰물에 생긴 웅덩이들은 펄이 엿보기에 알맞은 거울들이었다. 들여다보는 웅덩이 속에서 예쁜 아가씨가 까맣고 반들반들한 고수머리를 하고 눈언저리에 요정 같은 미소를 띠며 내다본다. 펄은 다른 동무가 없었기 때문에 물속의 아가씨보고 우리 손목 잡고 뜀박질하자고 부른다. 그러나 물속의 그림자 아가씨도 똑같이 손짓을 하며 "여기가 더 좋다. 네가 이리로 오너라!" 하는 듯하다. 그래서 펄은 웅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정강이까지 들어갔을 때 보니, 물속에 자기 자신의 흰 두 다리가 보인다. 좀 더 깊은 속으로부터 조각조각 부서진 웃음 조각들이 떠올라 이리저리 물 위로 흘러 다닌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는 의사에게 말을 걸었다. "저어,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관계되는 말입니다."

"아하아, 이 늙은 놈에게 말씀이 있다는 건 미스트레스 헤스터인가요?" 그는 구부정하던 허리를 펴면서 말했다. "말씀 듣고말고요. 그런데 참, 당신의 좋은 평판이 사면팔방에서 들려옵디다. 어젯밤만 해도 어질고 착하신 어떤 관리 양반이 당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회의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귓속말로 전해 줍디다. 그 주홍 글씨를 당신 가슴으로부터 떼어 버려도 공중의 안녕질서에 방해가 아니 되지 않을까 하는 토론이었답니다. 나도 곧 떼어 버려도 무방하리라고 단단히 말씀해 두었죠."

"이 표적을 떼어 버린다는 것은 관리들의 마음대로는 아니 될 걸요. 내가 그것을 면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표적은 저절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는 못해도 별다른 의미를 가지는 별다른 표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아, 좋거든 더 달고 계시오. 부인네들이란 몸치장에 대해서는 제 고집대로 하게 마련이니깐. 그 글씨의 수가 화려해서 당신 가슴 위에서 아주 멋들어지단 말이야!"

헤스터는 아까부터 노인의 모양을 세밀히 바라다보고 있었다. 지나간 칠 년 동안에 얼마나 그 모양이 변했나를 보고, 한편 놀라면서도 또 한편 이상하기도 했다. 뭐 별로 더 늙었다는 것은 아니다. 늙어가는 자취는 얼굴 위에 뚜렷이 나타나 있지만, 나이에 지지 않고 아직 근력이 왕성해서 신체가 민첩해 보였다. 그러나 헤스터의 머릿속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학식 있는 사람의 조용하고 온화하던 옛날 모습은 간곳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열심히 무엇을 수색하는 듯하고도 잔인한, 그러나 한편 무슨 비밀을 열심히 감추려고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한 표정을 싱글거리는 것으로 감추려는 것이 그의 소원이며 의도인 듯싶었다. 그러나 이 나중 표정은 그를 배반하여 그를 비웃는 듯이 얼굴 위에 껌벅거렸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그만큼 더 그의 흉측한 가슴속을 엿볼 수 있었다. 또 간간이 그의 두 눈에서 시뻘건 불이 번쩍하고 내닫는 수가 있었다. 마치 이 노인의 영혼은 불이 붙었는데 불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컴컴한 흉벽(胸壁) 내부에서 뭉깃거리다 열정의 바람이 우연히 불어 들어오면 순간적인 불길을 터뜨리는 듯싶었다. 그러면 그는 질겁해서 덮어 누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얼굴을 꾸며 보이려고 애를 썼다.

인간은 적당한 기간을 두고 악마의 직책을 행하기만 하면 그 자신이 악마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얼른 말하자면 로저 칠링워스는 그러한 능력의 유력한 증거였다. 이 불행한 노인은 칠 년 동안이나 고통이 가득한 인간의 정신을 부절히 분석하는 데 열중하고, 거기서 쾌락을 얻고, 또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불같은 고통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그것을 보고는 좋아서 빙글빙글 웃는 동안, 이렇게 철저히 변신했던 것이다.

주홍 글씨는 헤스터 프린의 가슴 위에서 불붙고 있었다. 여기에도 또 하나 인간의 파멸이 있는데 그 책임은 일부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헤스터는 충분히 자각하고 있었다.

"내 얼굴 속에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봅니까?" 의사는 물었다.

"저를 울리는 그 무엇이 있어요—제게 아직도 눈물이 남아 있다면요." 헤스터는 대답했다. "그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저기 계신 저 불행한

양반 말입니다.”

“그 양반이 어쨌단 말이오?” 의사는 마치 이 화제가 자기도 대단히 흥미가 있다는 것처럼 열심인 표정으로 부르짖었다. 또 사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을 만나 이 문제를 토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고 있었다.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면, 나도 지금까지 그 양반의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시오. 나도 대답할 테니.”

“우리가 요전번에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에는” 하고 헤스터는 말을 시작했다. “벌써 칠 년 전 일입니다만 우리 두 사람의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을 당신의 마음대로 저에게 강요했죠. 그 양반의 생명과 명성이 당신 손에 달려 있으니, 당신의 명령대로 침묵을 지키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 스스로를 결박하는 데 있어 무겁고 불안한 생각이 없지 않았습니다. 인류에 대한 일체의 의무를 벗어 던진 저이지만 그분에 대해서만은 의무가 남아 있어요. 당신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데 있어 나는 그 의무를 배반하라고 속삭이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래로 당신처럼 그분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일일이 미행합니다. 잘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언제나 그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마음속을 뒤집니다. 마음속을 파헤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쑤십니다. 당신의 독수(毒手)는 그의 생명을 붙들어 매일매일 눈뜬 채로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저는 제가 충성심을 가지고 받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 대해서 불신 행위를 해 왔단 말씀입니다.”

“그 밖에 도리가 없지 않았소?” 로저 칠링워스는 반문했다. “내 손가락 하나가 그 인간에게로 가는 날이면 그를 강단에서 끌어내려 감옥에다 던지고, 그다음에는 아마도 교수대로 보냈을 텐데.”

“차라리 그게 나을 뻔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나쁜 일을 했단 말이오?” 로저 칠링워스는 또다시 물었다. “헤스터 프린, 내 말을 좀 들어 보시오. 의사가 왕한테서 받던 것중 비싼 금을 가지고도 내가 저 불쌍한 목사에게 거저 해 준 것과 같은 구완을 사지는 못했을 것이

오. 내 간호가 없었더라면, 목사의 생명은 범행 이 년 내에 고민으로 죄다 타버렸을 것이오. 헤스터, 그의 정신은 그대의 주홍 글씨와 같은 무거운 짐을 그대처럼 견뎌낼 힘이 없단 말이오. 굉장한 비밀을 폭로시키려면 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의술로써 할 일은 죄다 했어요. 그가 지금 숨을 쉬고 땅 위를 기어 다닌다는 것은 모두 다 내 덕이란 말이거든."

"차라리 진작 돌아가시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여인네 말 참 잘했소." 로저 칠링워스는 여자가 보는 앞에서 처참한 심장의 불길을 뿜으며 부르짖었다. "진작 돌아가시는 편이 나을 뻔했지! 이 인간이 겪은 것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소. 아마도 최대의 원수 앞에서. 그는 나를 의식하고 있었소. 어떤 힘이 마치 저주처럼 항상 그의 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는 자각하고 있었소. 또 어떤 정신적인 감각으로—조물주는 이 사람처럼 예민한 인간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으니까—결코 호의를 갖지 않는 손이 자기의 마음 줄(心絃)을 당기고 있으며 오직 악을 구하는 눈이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악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소. 그렇지만 그 눈과 손이 바로 내 것이었다는 것은 몰랐지. 이들 종족에 공통된 미신으로써 그는 자기가 악마에 팔린 몸이라 죽어 저 세상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맛을 미리 보이느라고 무서운 꿈과 절망적인 생각과 회한의 가시와 용서의 절망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러나 그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나의 그림자였단 말이오! 그가 가장 비열하게도 해를 입힌 사나이—가장 처참한 복수의 영원한 독을 먹고 이 세상에 살아 온 사나이가 그의 주변에 있다는 증거였단 말이오. 과연 그는 바로 보았소. 그의 팔꿈치에는 악마가 있었소! 과거에는 인간 심정을 가졌었지만 그를 특별히 괴롭히기 위하여 악마가 된 인간이!"

불운한 의사는 이 말들을 토하다가 별안간 거울 속에 비치는 자기 얼굴 대신에 어떤 낯모를 흉악한 얼굴이 대신 비치는 것을 본 것처럼 공포의 표정을 띠우며 두 손을 번쩍 쳐들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도중에 몇 해 만에 한 번씩 그 도덕의 본연한 모습이 심안에 뚜렷이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다. 그는 아마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자기의 본연한 모습을 본 일이 있었을 것이다.

"당신은 그이를 그만큼 욕보였으니, 이제는 그만하면 넉넉하지 않아요?" 헤스터는 의사의 표정을 눈치채면서 말했다. "그이는 당신에게 빚을 죄다 갚지 않았어요?"

"아, 아니오, 아니오! 빚이 더 늘었을 뿐이오." 의사는 대답했다. 이야기해 가는 데 따라 맹렬한 표정은 없어지고 침울한 표정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헤스터, 구 년 전의 나를 기억하시오? 그때만 해도 나는 인생의 가을철이었지—그나마 이른 가을도 못 되고. 그때까지 나는 평생을 열렬하고 연구적이고 사색적이고 조용한 생활에다 바쳐 왔었지. 그리고 그러한 생활은 내 자신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겸하여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고—물론 이것은 내 자신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따라오는 부산물이지만—하는 데 바쳐 왔었지. 내 생활만큼 평화롭고 천진한 생활도 없었고, 또 내 생활만큼 풍족한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생활도 없었소. 나를 기억하시오? 당신은 나를 좀 쌀쌀한 인간으로 보았을지 모르나, 나라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많이 해 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욕심이 없고, 또 따뜻한 애정은 없었을지 모르나 친절하고 공정하고 신의가 굳은 인간이 아니었소? 그러한 모든 성질을 가지는 인간이 아니었소?"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헤스터는 말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무엇이오?" 그는 헤스터의 얼굴을 쏘아보면서 질문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 내부에 있는 악마성이 숨김없이 나타나 있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나는 이미 그대에게 말하였소. 악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오?"

"저였습니다." 헤스터는 떨면서 대답했다. "그분도 그분이려니와 제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저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까?"

"그대는 주홍 글씨에다 맡겼지." 로저 칠링워스는 대답했다. "그래도 앙갚음을 못한다면 나도 그 이상을 할 수 없소."

"주홍 글씨는 충분히 당신의 앙갚음을 했습니다." 헤스터 프린은 대답했다.

"내 의견도 꼭 같소." 의사는 대답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 관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거요?"

"저는 비밀을 말씀드리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헤스터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말했다. "그이는 필경 당신의 본성을 발각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

지, 그건 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에 대해서 오래 신임이라는 빚을 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해독과 파멸의 원인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겠어요. 그분의 명성과 현세의 신분—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을 쓰러뜨리느냐 보존하느냐 하는 것은 순연히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참 영혼 속으로 지지고 들어오는 시뻘건 무쇠 덩어리 진리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구하게 그분이 그 처참하게도 공허한 생활을 이 이상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신에게 애걸하지는 않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이로울 것은 없습니다. 제게 대해서도 이로울 것은 없고, 당신에 대해서도 이로울 것은 없습니다. 어린 펄에 대해서도 이로울 것은 없습니다! 이 무서운 마궁(魔宮)에서 우리를 구제해 낼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어째 동정심이 움직일 것 같기도 하군." 로저 칠링워스는 한편 찬미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 헤스터가 표현하는 절망 속에는 거의 장엄한 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에게는 위대한 성품이 있었지. 그대가 나의 사랑보다도 좀 더 좋은 사랑을 일찍이 만났더라면 아마도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오만. 헛되이 탕진된 그대의 좋은 성품을 나는 슬퍼하오."

"저도" 하고 헤스터 프린은 대답했다. "그 어질고 바른 분을 악마로 변신시킨바 증오심을 슬퍼합니다. 제발 그 증오심을 깨끗이 씻어 버리시고, 다시 한 번 인간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중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 이상 보복은 당연히 그 권리를 가지는 전능하신 하느님에게 맡기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분을 위해서나, 당신을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아무 이익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캄캄한 악(惡)의 미궁에서 헤매는 사람들, 우리가 길 위에 뿌려 놓은 죄악에 발길마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이고 또 용서하고 아니 하는 것은 당신 마음대로니까, 당신에게는 이로울지 모릅니다. 그 유일한 특권을 포기하실 겁니까? 그 귀중한 이익을 배척하실 겁니까?"

"조용히 해라, 헤스터! 조용히!" 노인은 침울하고도 엄격한 얼굴로 대답했다. "용서할 힘은 내게는 없다. 그대가 말하는 그러한 힘은 내게는 없다. 이 오래 잊어버

렸던 옛날 신앙이 다시 돌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고민을 설명해 준다. 그대의 그릇된 한 걸음으로 인하여 그대는 악의 씨를 뿌려 놓았다. 그러나 그 순간이래로 모든 것은 암흑(闇惑)한 필연성이었다. 너희들은 나에게 불의를 행했다고 하지만, 그 행동은 죄악이라는 망상뿐이지, 사실상 죄악 될 것은 없다. 또 나는 악마 같다고 하지만, 잠깐 악마의 직분을 배웠을 뿐이지 사실상 악마는 아니다. 모두 다 운명이다. 악의 꽃은 필대로 피게 하라! 그대도 그대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고 저기 계신 그분을 그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는 손짓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또다시 약초 캐는 일로 돌아갔다.

15. 헤스터와 펄

불구 노인 로저 칠링워스는—그 얼굴이야말로 꿈에 볼까 봐 무서운 얼굴이다—이렇게 헤스터 프린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며 땅 위로 걸어갔다. 여기저기서 풀잎을 뜯고 뿌리를 캐고 해서는 한 손에 든 바구니에다 넣었다. 허리를 굽히고 걸어갈 때에 흰 수염은 땅에 닿을락 말락 했다. 한참 그 뒷모양을 바라다보고 있던 헤스터는 기괴한 공상에 사로잡혀 스스로 의문을 일으켰다—이른 봄 연한 풀들이 저 발밑에서 말라들지나 않을까? 저 타락한 푸른 봄 잔디 위에 갈 지(之) 자로 샛노랗게 탄 발자국이 생겨나지나 않을까? 저 풀들은 어떤 종류의 풀들일까? 무슨 풀을 뜯으려고 저 노인은 저렇게도 열심히 몸을 구부리는 것일까? 땅이 의사 눈의 독기를 받아 어떤 흉측한 생각에 감응되면, 그의 손끝이 닿는 데마다 이름 모를 독이 솟아나지나 않을까? 몸에 이로운 풀들이 한 번 그의 손에 닿을 때 모두 다 악성적인 독풀로 변하게 된다면 그는 만족할까? 온 우주를 환히 비춰 주는 태양이 과연 저 노인 위에도 쬐일까? 혹은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불길한 그림자의 원(圓)이 저 불구자를 따라다니지나 않을까? (십중팔구 그렇게 보인다) 저 노인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는 별안간 땅속에 가라앉고 가라앉은 자리에는 땅과 초목이 마르고, 그 자리에 어언간 벨라도나〔nightshade〕, 층층나무〔dogwood〕, 사리풀〔henbane〕 같은 이 풍토의 갖은 악초(惡草)들이 나타나서 보기에도 끔찍하게 우거지지나 않을까? 혹은 박쥐 날개를 타고 중천으로 올라가면서,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흉악해 보이지나 않을까?

"죄가 있건 없건, 난 저 노인이 밉다." 헤스터 프린은 아직도 그의 뒷모양을 바라다보며 격렬하게 말했다.

헤스터는 이러한 자기의 증오심을 스스로 꾸짖으면서도, 그것을 누를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었다. 스스로 증오심을 누르려고 노력하면서 헤스터는 먼 나라에서 두 사람이 혼인을 해 결혼 생활을 하던 시절을 회고해 보았다. 저녁때가 되면 학자는 한적한 서재에서 나와서 아늑한 등불 밑에 혼인의 웃음이 환히 빛나는 가운데 앉았다. 책에 묻혀서 오랜 시간을 고독히 보내는 동안에 심장이 싸늘해졌다. 그 심

장을 녹이자면 이런 미소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장면이야말로 바로 행복한 장면이라고 그때는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 후 지내온 생활의 침침한 안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은 헤스터의 추억 중에서도 가장 꼴 보기 싫은 추억에 속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그런 장면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던가. 스스로 의심했다. 도대체 자기는 어떻게 저런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갖게 되었던가, 스스로 이상히 생각했다. 헤스터는 자기가 과거에 이 남자의 미지근한 손을 잡고 입술과 시선을 서로 합하고 지냈다는 것을 지금 후회하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그의 곁에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끔 자기를 꾀었다는 것은, 그 후 자기가 칠링워스에 대해서 가한 어떤 죄악보다도 더욱 비열한 죄악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렇다. 나는 저 노인이 싫다!" 헤스터는 전보다도 더욱 격렬하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는 나를 속였다! 내가 그에게 불의를 행한 것보다도 그가 내게 더 많은 불의를 행했다."

여자의 손을 얻되, 그 손과 동시에 마음속의 최고의 애정을 얻지 못한다면 그의 손이 떨려 주저함이 마땅하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좀 더 강력한 손이 와서 여자의 정열을 깨워 놓을 때에 (로저 칠링워스의 경우가 그러했지만) 그가 안온한 만족—그것은 행복을 대리하는 차디찬 대리석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을 무슨 따뜻한 현실처럼 여자에게 강제해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연히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그 비참한 운명이니까. 그러나 헤스터는 벌써 전에 이러한 남편에 대한 불온한 생각을 청산했어야만 될 일이었다. 그러한 생각은 무슨 전조였던가? 칠 년 동안이나 주홍 글씨의 가책을 받아 그렇게도 불행을 겪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못했던가? 늙은 로저 칠링워스의 멀어져 가는 뒷모양을 바라다보고 있는 짧은 시간에 솟아나는 감정은 헤스터의 심리 상태를 막연하게나마 밝혀 주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헤스터 자신도 자기 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노인의 그림자가 사라진 뒤에 헤스터는 아이를 불렀다.

"펄! 펄! 너 어디 있니?"

정신 활동이 한 번도 쇠약해져 본 일이 없는 펄은 어머니가 약초 캐던 노인과 이

야기하고 있는 동안 장난 거리가 없어 심심하지는 않았다. 앞서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웅덩이 물속에 비치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놀았다. 손짓을 해서 불러 보아도 그림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에는 자기 자신이 물속—형체 없는 땅과 도달할 수 없는 하늘이 서로 융합하는 세계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림자와 자기 자신 둘 중에서 하나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장난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펄은 벚나무 껍질로 배들을 만들어 그 위에다 달팽이집을 가득 실었다. 그리고 그 배를 물 위에다 띄웠는데, 그것은 뉴잉글랜드의 어떤 무역상인의 배보다도 더 많은 상품을 싣고 대양을 건너가는 판이었다. 그러나 그 배들의 대부분은 해안 부근에서 좌초하고 말았다. 펄은 산 각어(鱟魚) 꼬리를 잡았고, 성어(星魚)를 두어 서너 마리 사로잡았고, 해파리를 햇볕에 쬐어 녹여 버렸다. 그다음에는 밀물을 따라 허옇게 줄을 치는 물거품을 한줌씩 움켜쥐어 바람에 던지고, 그 물거품들이 눈송이처럼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발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쫓아가기도 했다. 해변에서 먹이를 주워 먹으며 날아다니는 바닷새 떼를 보고, 심술궂은 펄은 조약돌을 앞치마에 소복이 모아 가지고, 바위 틈으로 살금살금 뒤쫓아 가서 새들에게 돌을 던지는 데 감탄할 만한 재주를 보였다. 가슴이 희고 등이 거무스레한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돌에 맞아 부러진 날개로 날아가는 것을 펄은 분명히 보았다. 그러나 그때에 이 요동(妖童)은 한숨을 짓고 장난을 그만두었다. 바닷바람처럼 자유롭고 펄 자신처럼 분방한 어린 새에게 상처 입힌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마지막으로 펄은 여러 가지 해초를 모아 깃도 만들고 목도리도 만들고, 머리 수건도 만들었다. 펄은 방장과 의상을 고안해 내는 재질(才質)을 어머니에게서 물려 받았다. 인어의 옷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 치장으로 거머리말(eelgrass)을 뜯어다가 항상 어머니 가슴에서 보아 눈에 익은 무늬를 만들어 가슴에다 달았다. A자였다. 다만 그 빛은 주홍이 아니라 초록이었다! 어린아이는 가슴 위의 글씨를 굽어보면서 이상야릇한 흥미를 느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사명은 이 글씨의 숨은 의미를 나타내는 일인 양 싶었다.

'어머니가 보면 그건 무슨 의미냐고 물으실까?' 펄은 생각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에 펄은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어린 바닷새처럼 가볍게 뛰어

어머니 앞으로 가서는 춤을 추며, 웃는 얼굴로 자기 가슴 위에 있는 장식을 손가락질해 보였다.

“펄!” 한참 묵묵히 바라다보다가 헤스터는 말했다. “네 어린 가슴 위에 있는 그 초록 글씨는 아무 의미도 없다. 하지만 너는 엄마가 평생 차고 다니는 이 글씨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아니?”

“알고말고요. 엄마.” 어린아이는 대답했다. “머리글자(頭文字)에요. 엄마가 글씨책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헤스터는 어린아이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새까만 눈 속에 번번이 나타나는 저 기묘한 표정이 여전히 나타나 있었지만, 과연 그가 정말로 이 글씨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딱 알 수는 없었다. 기어이 그 점을 밝혀 보고 싶은 어떤 병적인 욕구가 헤스터 가슴속에 솟아올랐다.

“펄, 무엇 때문에 엄마가 이 글씨를 달고 다니는지 너 아니?”

“알고말고요!” 펄은 명랑한 얼굴로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대답했다. “그건 목사님이 늘 가슴 위에 손을 얹는 것과 같은 이유이지 뭐예요!”

“그럼 목사님이 가슴 위에 손을 얹는 이유는 뭐니?” 얼토당토않은 어린아이 말에 웃음을 띠면서 헤스터는 말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노릇이었다. “그 글씨가 엄마 말고 다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니?”

“엄마, 내가 아는 건 다 말했어요.” 펄은 평소보다도 심각한 표정을 띠면서 말했다. “그건 아까 엄마와 이야기하던 저 노인 보고 물어보세요! 저 노인은 아실지도 몰라요. 이건 참말인데요. 엄마, 이 주홍 글씨는 무슨 의미에요? 또 엄마는 무엇 때문에 그 글씨를 가슴에다 붙이고 다니세요? 또 그리고 목사님은 왜 항상 가슴 위에다 손을 얹으세요?” 펄은 두 손으로 어머니 손을 잡고 열심히 어머니 눈을 들여다보았다. 무궤도하고 변덕성이 많은 이 아이 성질 속에서 이것은 퍽 드물게 보이는 현상이었다. 이 아이는 지금 어린아이다운 자신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접근하여 동정의 일치점을 발견하려고 두뇌를 쥐어짜며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헤스터는 생각했다. 이러한 펄의 모양은 이전에는 잘 볼 수 없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펄을 참으로 외딸처럼 진심을 쏟아서 사랑해 왔었지만, 그 대

신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서 정처 없이 부는 사월 바람 같은 애정밖에는 더 기대하지 않기로 스스로 훈련해 왔었다. 그러한 어린아이의 애정이란 잠시 불다가는 제김에 진하고, 난데없는 열정의 바람이 불기도 하고, 아주 기분이 좋을 때에도 별안간 골을 내고, 그 애정을 가슴에 받아들일 때에 어머니를 쓰다듬어 주기보다는 쌀쌀히 대하는 수가 더 많았다. 그러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면, 이렇게 어머니를 박대한 값이라고 일종의 애정 비슷한 감정으로 어머니 볼에다 키스를 해 주고 자상하게 머리카락을 만져 주고 그러고는 또 장난으로 달아나 버린다. 그러면 어머니 가슴에는 꿈꾸는 듯한 황홀한 기쁨이 남을 뿐이다. 그나마도 어머니이니까 이 아이의 성품을 이만큼이나 평가해 주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귀염성 없는 특징밖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 특징에다 좀 더 어두운 빛을 두고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몹시 조숙하고 예민한 펄이 벌써 어머니의 벗이 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의 슬픔을 딸에게 말한대도 모녀간의 존경심이 조금도 손상됨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헤스터 머릿속에 왈칵 솟아올랐다. 어린 혼돈세계와 같은 펄의 성격 속에 처음부터 변함이 없는 한 가지 원리—꿈쩍도 안 하는 용기와 꺾을 수 없는 의지력과 잘 훈련만 하면 자존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굳센 자부심과 조금이라도 내부에 허위를 숨기는 것이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맹렬한 멸시감이 나타나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실 그런 징조도 보였다. 이 아이는 또 애정도 가지고 있었다—비록 지금까지는 설익은 과일 모양으로 쓰고 떫은 것이었지만. 이렇게 순량한 성품을 타고나기는 했지만 만약 이 요동이 자라서 고상한 부인이 되지 못하는 날에는 그 어머니에게서 유전받은 악이란 참말로 굉장하리라고 헤스터는 생각했다.

주홍 글씨의 수수께끼를 언제나 머릿속에 두고 그것만 생각한 펄의,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경향은 선천적인 성품인 양 싶었다. 세상 물정을 알기 시작한 극히 초기부터 그 아이는 마치 자기의 사명처럼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느님은 이 아이에게 이런 성품을 주심으로써 정의와 보복의 계획을 실현한다고 헤스터는 공상해 보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 관련해서 자비와 은혜의 목적이 있는지도 모른다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만약 어린 펄을 이 세상

보통 어린아이보다도 무슨 정신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려온 아이로 신앙심과 신뢰감을 가지고 접대해 준다면, 이 아이는 어머니 가슴속에 싸늘하게 누워 그가 누울 무덤으로 변해버리는 비애를 위안해 주고, 한때에 그렇게도 날뛰던 열정—지금도 아주 죽어 없어졌거나 잠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무덤 같은 가슴속에 감춰져 있을 뿐인 열정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나 않을까?

지금 헤스터의 가슴속에서 들고 있는 생각은 이러한 생각들이었다. 단순한 생각뿐만이 아니라, 마치 누가 자기 귀에다 대고 귓속말이나 한 것처럼 몹시도 뚜렷한 인상을 가지고 나타났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에 취해 있는 동안 어린 펄은 자기의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얼굴을 위로 쳐들고, 어머니의 가슴속을 살피려는 듯한 질문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했다.

“엄마, 그 글씨는 무슨 의미에요? 그리고 왜 그걸 달고 다니세요? 또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항상 가슴 위에다 손을 얹으시나요?”

‘뭐라고 대답할까?’ 헤스터는 혼자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안 된다! 만약 이것이 저 어린아이 동정심의 대가라고 한다면 나는 그 대가를 치를 수는 없다.’

그래서 헤스터는 언성을 높여서 말했다.

“바보 같으니라구! 그따위 질문이 어디 있니?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들이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이 많아. 목사님 가슴을 내가 알게 뭐니? 내 주홍 글씨야 금실이 하도 고와서 차지.”

지나간 칠 년 동안 헤스터는 자기 가슴의 표적에 대하여 마음속에서나마 속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엄중하고 가혹하고, 그러나 그의 도덕심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그 수호신은 그를 버렸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수호신은 아직도 그의 가슴을 감찰하고 있었지만 어떤 새로운 악념(惡念)이 가슴속에 스며들었던가, 혹은 옛날 악념의 일부분이 아직도 완전히 추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자신이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헤스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펄의 열렬한 표정은 벌써 얼굴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이 문제를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모녀가 밖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두어 서너 번, 저녁밥을 먹으면서 두어

서너 번, 헤스터가 펄을 자리에 눕힐 때에도 몇 번,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한 번은 펄이 자리에서 폭 잠이 들었으려니 했을 때 반짝 눈을 뜨고 새까만 눈동자에 장난기가 가득하여 불쑥 질문을 내던졌다.

"엄마, 그 주홍 글씨는 무슨 의미에요?"

이튿날 아침 어린아이가 잠이 깨어 베개에서 머리를 들며 처음 인사가 무엇이냐 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이 어린아이는 이 의문을 항상 주홍 글씨와 맞붙여 생각하는데 이유 없는 일도 아니다.

"엄마, 엄마. 목사님은 왜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조용히 해라, 못된 것 같으니라구!" 헤스터는 화를 내면서 대답했는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머니 속상하게 굴지 마라. 정 그러면 너 캄캄한 벽장 속에 가두어 버리겠다!"

16. 숲 속의 오솔길

헤스터 프린은 딤즈데일 목사의 우정 속에 잠입해 있는 한 인간의 본성을 기어이 그에게 알려 주고자 하는 결심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비록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에 어떤 고통이 생겨날지라도 그 최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라도 기어이 실현하겠다고 생각했다. 딤즈데일 목사는 매일 정해 놓고 반도 해안 또는 근처 숲 속을 명상하며 산책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헤스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일째 그런 기회를 엿보았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죄를 후회하려는 사람들이 이왕에도 딤즈데일 목사 집 서재를 방문하여 참 주홍 글씨에 표시되는 죄악만큼이나 깊은 죄를 고백했으니까, 설령 헤스터가 목사관을 찾아간대도 아무런 나쁜 소문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또는 목사의 순백한 평판에 대해서도 아무런 위험성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칠링워스 노인이 비밀리에 또는 공공연하게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들의 비밀을 모르는데 공연히 혼자서 겁을 집어먹는다는 이유도 있고, 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데는 적어도 우주의 대기를 호흡하며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탓도 있어, 헤스터는 적어도 푸른 하늘 밑에서 만나고 싶었다.

마침내 어떤 병자의 집에 구완을 갔다가—그 집에는 딤즈데일 목사도 기도를 위하여 초청 받고 있었다—헤스터는 딤즈데일 목사가 인디언 신자들 속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도(使徒) 엘리엇(Eliot)을 만나러 그전날 그리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다면 내일 오후 일정한 시간에 돌아오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좀 일찌감치 펄을 데리고 떠났다. 펄이 따라나서는 것이 좀 불편할 때에도 아이는 언제나 어머니의 동행이 되기 마련이었다.

두 보행인이 반도로부터 본토로 넘어서자, 길은 좁아져서 오솔길이 되고 말았다. 오솔길은 원시림 신비한 세계 속으로 삐뚤삐뚤 뚫고 들어갔다. 원시림이 길 좌우를 빽빽이 둘러싸서 하늘은 보일까 말까 했다. 그것은 헤스터의 마음 거울 속에 그가 지금까지 헤매어 오던 도덕의 광야를 그대로 비춰 주는 듯한 광경이었다. 날씨가 쌀쌀하고 음산했다. 머리 위에는 회색 구름이 덮이고, 바람이 불 때마다 약간

동요하였다. 그럴 때마다 뿌연 태양 광선이 번쩍 나타나서 쓸쓸한 길 위에서 희롱했다. 그러나 유쾌한 태양 광선은 언제나 숲 속의 긴 오솔길 맨 끝에서만 놀았다. 즐겁게 뛰어노는 태양 광선—날씨와 풍경이 이렇게도 처량하니 뛰어논대야 풀기가 없다—은 두 사람이 가까이 가면 물러나고 말았다. 두 사람은 태양 광선을 붙잡으려고 쫓아갔더니만큼 햇빛이 놀다가 떠난 자리는 더욱 쓸쓸해 보였다.

"엄마" 하고 펄은 말했다. "햇빛은 엄마를 좋아하지 않나 봐요. 엄마가 가면 달아나서 숨어 버리잖아요? 엄마 가슴 위에 있는 그 이상한 물건이 아마도 무서운 게죠. 자, 보세요. 저기서 햇빛이 놀고 있지요? 엄마는 여기 서서 기대리세요. 내가 가서 붙잡을 테니까. 난 아직도 어린아이이고, 또 가슴 위에 아무것도 달고 있지 않으니까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 영원히 달지 않기를 바란다." 헤스터는 말했다.

"그건 어째서 그래요? 엄마." 펄은 달음질을 하려던 발을 딱 멈추고 질문했다. "나두 어른이 되면 그 주홍 글씨가 저절루 나타나지 않아요?"

"어서 빨리 가서 해나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해가 도망가고 만다." 어머니는 대답했다.

펄은 전속력으로 뛰어갔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웃고 있는 동안에 펄은 과연 햇빛을 붙잡고 그 맨가운데 서서 웃고 있었다. 전신에 태양 광선을 받으면서 재빠르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펄의 모양은 반짝반짝했다. 태양 광선은 이런 훌륭한 동무가 생겨서 기쁜 듯이 고독한 어린아이 주변에서 감돌고 있었다. 그러자 어머니도 따라와서 거의 광선의 마술권(魔術圈) 안으로 들어올까 말까 하는 거리까지 왔었다.

"이제 가 버릴 거예요." 펄은 머리를 내저으며 말했다.

"너 봐라. 내가 손을 내밀어 해를 붙잡을 테니." 헤스터는 웃으면서 말했다.

헤스터가 손을 내밀자 과연 햇빛은 사라지고 말았다. 하기는 펄 얼굴 위에서 춤추고 있는 명랑한 표정을 가지고 판단해서 어머니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으리라—저 아이가 광선을 죄다 흡수했으니 나중에 우리들이 컴컴한 그늘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광선을 발산해 우리들의 길을 비춰 주려는가 보다. 이렇게 항상 활발

한 펄의 정신력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저 아이는 나한테서 유전받지 않은 전연 새로운 굳센 성질을 타고났나보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근대의 아동들은 그 조상들로부터 선병(腺病)과 동시에 비애라고 하는 병을 유전받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가 않았다. 강한 성질도 또한 병인데, 그것은 펄을 낳기 전에 헤스터가 맹렬히 비애와 싸우던 그 정력의 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이 아이의 성격에다 굳고 금속적인 광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매력이 될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비애는 사람을 인간답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게 하는 물건인데, 펄은 그 비애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하기는 일평생 비애를 못 갖는 사람도 있지만, 펄은 아직도 어리니까 앞으로 세월이 창창하다.

"펄, 이리 오너라." 헤스터는 아까 펄이 햇볕을 쏘이며 서 있던 자리에서 주위를 살펴보며 말했다. "잠시 숲 속에 앉아서 좀 쉬어 가자."

"엄마, 난 피곤하지 않아요." 펄은 말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해 주려거든 앉아 쉬어도 좋지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헤스터는 말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아, 저 악마의 이야기해 주세요." 펄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빤히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하는데, 절반은 열렬한 표정이고 절반은 희롱하는 표정이었다. "그 악마가 이 산속에 드나들면서 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요. 그 책은 크고 무거운데, 무쇠 정을 박았고, 흉악한 악마는 산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책하고 무쇠 펜을 내놓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피로 제 이름을 적고, 그러면 악마는 그 사람 가슴 위에다 표적을 달아 주고 한다는 이야기. 엄마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 주든?" 헤스터는 요새 유행하는 미신이구나 생각하면서 물어보았다.

"그 이야기해 준 사람은 엄마가 어젯밤에 밤샘해 주던 집 방구석 굴뚝 곁에 앉았던 노파에요. 노파는 그 이야기할 때에 아마도 내가 잠든 줄 알았나 봐요. 수천 명 사람이 악마를 만나서 이름을 쓰고, 그래서 가슴에다 표적을 달고 다닌다고 노파는 말했어요. 성질이 고약한 히빈스 양도 그중의 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엄마 그 노파는 또 엄마 가슴에 있는 주홍 글씨도 악마의 표적인데, 엄마가 밤에 산속에서 악마

를 만날 때에는 그 글씨가 환히 비친다고 말했는데, 정말이에요? 엄마, 참말로 밤에 악마 만나러 가세요?"

"너 밤에 잠이 깨서 내가 없어진 것 본 일 있니?" 헤스터는 질문했다.

"그런 일은 생각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대답했다.

"밤에 집을 나가는 것이 무섭거든 나 데리고 가세요. 얼마든지 동행해 드리죠. 그런데 엄마, 이번에는 꼭 가르쳐 주세요. 악마는 참말로 있는 건가요? 엄마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리구 그 표적두 악마의 표적인가요?"

"한 번 말해 주면 너 귀찮게 굴지 않으련?" 어머니는 물었다.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잠자코 있겠어요."

"옛날 어떤 때 내가 악마를 만났다. 이 주홍 글씨는 그의 표적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모녀는 꽤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 속에 들어가면 우연히 오솔길을 지나가는 통행인에게 들키지 않고 안전히 숨을 수가 있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무지하게 큰 이끼 방석 위에 걸터앉았다. 그 이끼 방석은 전 세기 어떤 시대에는 큰 소나무—뿌리와 줄기는 그늘 속에 묻혀 있고 가지는 높이 하늘을 찌르던 소나무였다. 그들이 앉아 있는 곳은 작은 시내였고 좌우에는 가랑잎이 깔린 시내 둑이 슬며시 높아져 있고, 안개 속을 흘러 내려오는 시냇물이 가라앉은 낙엽 바닥 위로 흘러갔다. 시내 위에 굽어 있는 나무들은 간간이 가지를 날려 흘러가는 물을 막고, 그래서 군데군데 소용돌이와 깊은 웅덩이가 생겼다. 그러나 물이 빨리 흘러가는 부분에는 조약돌과 누렇고 반들반들한 모래의 개울 바닥이 나타나 있었다. 눈을 던져 물줄기를 따라가면 숲 속 가까운 거리까지는 물 위에 반사되는 햇빛을 붙잡을 수가 있었으나, 곧 나무줄기들과 잔가지들이 얼기설기한 데다가 회색빛 이끼 돋은 큰 바위들이 여기저기 솟아 있어 마치 혼돈세계 같은 속에서 그 자취를 잃고 말았다. 이 모든 큰 나무들과 화석의 둥근 바위들은 이 시냇물을 완전히 비밀로 해 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모양같이 보였다. 잠시도 쉬지 않는 그 재잘거림으로 시냇물의 근원이 되는 옛날 숲 가슴속의 이야기들을 속삭이지나 않을까, 또는 그 비밀을 빤빤한 호수 위에다 비춰 놓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서. 시냇물은 흘러가면서 쉴 새 없이 재잘거렸다. 쓸쓸한 사람들과 침울한 사건들 속에서 아무 재미

도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처럼 다정스럽고 고요하고 위안적이지만 우울한 재잘거림.

"망할 시냇물! 왜 그리 바보처럼 심심하냐!" 한참 시냇물 소리를 듣다가 헤스터는 소리 질렀다. "넌 왜 그리도 구슬프냐? 좀 기운을 내려무나. 그렇게 밤낮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지만 말고!"

그러나 시냇물은 원시림 나무들 사이에서 짧은 일생을 지내오는 동안에 어떻게도 많이 장엄한 체험을 겪어 왔는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또 그 밖에는 이야깃거리도 없는 모양이었다. 펄도 그 생명의 흐름이 신비로운 샘물에서 흘러나온 것이며, 또 흘러오는 도중에 침통하고 우울한 장면을 많이 겪어 온 것이며, 모든 점에 있어 이 시냇물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시냇물과는 달라서 펄은 흘러가면서 춤을 추고 빛을 발산하고 경쾌하게 재잘거렸다.

"엄마, 이 슬픈 시냇물은 무어라고 지껄이고 있어요?" 펄은 물었다.

"네가 무슨 슬픔이 있으면 시냇물은 너에게 그 슬픔을 말하고, 내게는 또 내 슬픔을 말한다. 그런데 펄, 이 길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나뭇가지들 헤치는 소리도 들리는구나! 넌 저기 가서 혼자 놀고 있어라. 저기 오시는 분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다."

"그 사람은 악마인가요?" 펄은 물었다.

"제발 가서 놀고 있거라, 펄." 어머니는 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그렇지만 숲 속으로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내가 부르면 곧 와야 한다."

"네, 갈게요." 펄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 양반이 악마라면 난 좀 여기 있다가 보구 가겠어요. 겨드랑이에 큰 책을 끼고 있나."

"어서 가라. 바보 같으니라구."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다. "악마는 아니다. 이제 오시면 나무 틈으로 볼 수 있다.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렇지!" 어린아이는 말했다. "그럼 엄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오실 테죠! 그건 목사님이 책에다 이름을 적을 때 악마가 가슴에다 표적을 달아 줘서 그러구 다니나요? 그러면 왜 엄마처럼 가슴 밖에다 달고 있지 않나요?"

"어서 가 보아라, 우리 아가. 요 다음에 네 이야기를 들어 주마." 어머니는 큰 소리

로 말했다. "너무 먼 데로 가지는 마.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어, 응."

어린아이는 시냇물 줄기를 따라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다. 그리고 우울한 시냇물 소리에다 자기의 경쾌한 노래 곡조를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시냇물은 어린아이의 노래에는 위안되지 않는 양 여전히 과거에 일어난 무슨 슬픈 신비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지껄이고 있었다. 혹은 이 무시무시한 숲 속에서 장차 생겨날 무슨 사건을 한탄조로 예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기의 조그만 세계에서도 장차 생겨날 무슨 사건을 한탄조로 예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기의 조그만 세계에서도 이미 인생의 그늘을 많이 치러 온 펄은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시냇물과는 동무 삼지 않기로 정했다. 그래서 오랑캐꽃과 할미꽃 그리고 바위 틈에 자라는 주황색 매발톱꽃을 따서 모으기 시작했다.

요정 같은 어린아이가 물러갔을 때에 헤스터 프린은 숲 속의 오솔길 쪽으로 두어 서너 걸음 가까이 갔다. 그러나 아직도 깊은 나무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다. 목사가 혼자서 길가에서 꺾은 듯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것이 보인다. 안색이 초췌하고 근력이 없어 아주 실망하고 낙담한 상태가 그 태도 위에 나타나 있었다. 그가 거류지를 걸어 다닐 때나 또는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 있을 때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태도였다. 숲 속의 고적한 자연이 그의 정신에 대해서 무거운 압박이 되는 모양이다. 만사가 귀찮은 듯한 걸음걸이였다. 한 걸음을 내디딜 이유도 욕망도 없었고 만약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은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중 가까운 나무 밑에 몸을 던져 영원히 쓰러져 눕는 일이었으리라. 그러면 낙엽이 그의 신체 위에 쌓이고 차츰 흙이 모여서 조그마한 무덤이 될 테지—그 속에 생명이야 있건 말건. 주검은 분명한 것이라 바랄 수도 없는 일이요, 피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언젠가 어린 펄도 말한 것처럼 딤즈데일 목사는 가슴 위에다 손을 얹는 일 말고는 명확하고도 활발한 고민의 징조는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헤스터의 눈에는 보였다.

17. 목사와 신자

목사는 느릿느릿 걸어왔지만 거의 지나칠 무렵에야 헤스터 프린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소리쳤다. 마침내 성공했다.
"아서 딤즈데일!" 헤스터는 불렀다. 처음에는 약한 목소리로, 그 다음에는 좀 더 높은 목소리로, 그러나 목쉰 소리였다. "아서 딤즈데일!"
"누구십니까?" 목사는 대답했다.
급히 정신을 차리며 그는 똑바로 섰다. 마치 남에게 발견당하기를 꺼려하는 기분 속에서 별안간 암습을 당한 사람과 같은 표정이었다. 말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불안스런 시선을 던지니 나무 그늘에 희미하게 사람 모양이 보인다. 옷이 너무도 수수하고 흐린 하늘과 무수한 나뭇잎이 해를 가려 컴컴한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인생행로에는 과거에 이와 같이 그의 사상 속에서 슬그머니 나타나는 유령들이 출몰했었는지도 모른다.
목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서 주홍 글씨를 발견했다.
"헤스터 프린!" 목사는 말했다. "당신이오? 살아 있소?"
"과연 살아 있습니다." 헤스터는 대답했다. "기나긴 칠 년 동안 살아 있었던 것처럼 살아 있습니다. 아서 딤즈데일 당신도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서로 과연 그 육체가 현실적으로 살아 있는지를 묻고 또 자기 스스로의 육체적 존재를 의심했다는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니었다. 침침한 숲 속에서 하도 이상하게 만나게 되니 죽어 저승에서 두 혼령—전생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두 혼령이 처음 만나 서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격이었다. 두 영혼은 아직도 서로의 상태를 잘 모르며 또 이렇게 육체를 해탈한 정신 상태에서 서로 만나는 것이 아직도 서먹서먹했다. 두 사람은 마치 서로 보고 놀라는 유령들 같았다. 그들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놀라고들 있었다. 이 아슬아슬한 장면이 갑자기 그들의 의식을 각성시켜 이런 절박한 순간이 아니고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각자 과거의 경력과 체험을 각자의 마음속에 환히 비춰 주었기 때

문이다. 영혼은 흘러가는 시간의 거울 속에서 그 자체의 얼굴을 보았다. 목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검처럼 차디찬 헤스터 프린의 손을 잡았다. 악수는 비록 차디찼으나 두 사람 사이에 몹시도 무시무시하던 공기를 헤치고 말았다. 그들은 적어도 같은 세계의 주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다시 한마디 말도 없이 누가 먼저 안내하는 것도 아니요 다만 무언의 동의로 두 사람은 아까 헤스터가 나오던 숲 속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아까 헤스터와 펄이 앉아 있던 이끼 방석 위에 앉았다. 이윽고 말문이 열리자 우선 나오는 소리는 아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으레 할 만한 소리였다—날씨가 흐립니다, 폭풍이 올 것 같은데요, 요새 건강은 어떠십니까?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한 걸음 그들 가슴속에서 가장 깊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로 들어갔다. 운명과 주위 환경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오래 떨어져 지내 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우선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꺼내면서 차츰 정작 하고 싶은 말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게끔 가슴의 문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었다.

한참 있다가 목사는 헤스터의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헤스터, 영혼의 평강을 발견하셨습니까?"

헤스터는 쓸쓸히 웃으면서 자기의 가슴 위를 굽어보았다.

"당신은요?" 헤스터도 물었다.

"아니요.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는 대답했다.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나 같은 인간에게 다른 무엇이 있겠소이까? 내가 만일 야수적인 본능밖에는 양심도 아무것도 없는 무신론자라면 나는 벌써 전에 평강을 발견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처음부터 평강을 잃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이렇게 돼먹었으니, 원래 내 속에 있었던 모든 능력—하느님이 고르고 골라 나에게 주신 모든 재질(才質)이 이제 와서는 정신적 고민의 집행자가 되고 말았단 말씀입니다. 헤스터, 세상에서 나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헤스터는 말했다. "또 당신은 확실히 그들 사이에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으로 위안이 되지 않아요?"

"더욱 불행합니다. 헤스터! 그러니 만큼 더욱 불행해요!" 목사는 씁쓸하게 웃으면

서 대답했다. "겉으로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나,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전연 신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망상이 될 수밖에요. 나같이 타락한 영혼이 다른 영혼들의 구제에 대해서 무슨 도움이 되며, 나같이 부패한 영혼이 그들 영혼의 정화에 대해서 무슨 힘이 될 것입니까? 나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이라고요? 차라리 그것이 멸시와 증오심으로 변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강단에 서서 마치 내 얼굴에서 천당의 광명이나 솟아나는 것처럼 나를 우러러보고 있는 그 숱한 눈들과 마주쳐야만 하고, 마치 펜테코스트(Pentecost)가 나와 이야기나 하는 것처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진리에 굶주린 양 떼들을 봐야만 하는데, 그러나 내 속을 들여다볼 때에 그들이 우상처럼 숭배하는 실체가 흉악망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위안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의 외양과 나의 실체를 비교해 보고 기가 막히고 가슴이 쓰라려서 스스로 비웃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사탄이 웃습니다!"

"당신은 그 점에 있어 너무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십니다." 헤스터는 자애롭게 말했다. "당신은 이때까지 깊고 아프게 뉘우쳐 왔습니다. 당신의 죄는 먼 과거에 버리고 오셨습니다. 당신의 현재 생활은 세상 사람들 안목에 비치는 바로 그대로 가장 진실합니다. 이렇게 선행으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회개 속에 어째서 현실성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정신의 평강을 가져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헤스터, 아닙니다!" 목사는 대답했다. "그 회개 속에는 아무 실질도 없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차디찬 물건이라, 나에게는 아무런 효험도 없습니다! 후회야 많이 했지만, 회개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했다면야 이 신성을 흉내 내는 목사복을 벗어던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최후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될 그러한 나 자신을 폭로했어야만 될 일입니다. 헤스터, 그렇게 가슴 위에다 버젓이 주홍 글씨를 차고 다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주홍 글씨는 비밀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칠 년 동안이나 고민해 온 끝에 나의 본체를 인식하는 한 사람의 눈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상 구원이 되는가를 당신은 모를 겁니

다. 나에게 있어—혹은 가장 무서운 원수라 해도 좋고—매일 온 세상 사람들의 칭송에 구역질이 나서 집에 돌아올 때에 그 사람한테 찾아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나의 영혼은 그것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같이 생각됩니다. 그런 정도의 진실일지라도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가 거짓이고, 모두가 흉내이고, 모두가 주검입니다!"

헤스터 프린은 목사의 얼굴을 들여다볼 뿐, 말하기를 주저했다. 그러나 목사는 오래 참아오던 감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그 말은 도리어 헤스터가 일부러 여기에 찾아온 그 목적을 말할 수 있는 적당한 기회를 주었다. 헤스터는 공포심을 극복하고 말을 시작했다.

"당신이 원한다고 이제 말씀하시던 친구—당신과 더불어 당신의 죄를 슬퍼할 친구, 그 친구는 그 죄의 동범자가 되는 제가 되오리다!" 여기서 또 주저했다. 그러나 무척 힘을 들여 말을 꺼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원수도 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서 당신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목사는 벌떡 일어서더니 숨을 헐떡이며 마치 심장을 뜯어내려는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아!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는 부르짖었다. "원수라니요! 같은 지붕 밑에 살다니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헤스터는 이 불행한 사람을 악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수중에다 그렇게도 여러 해 동안—사실은 일순간도 끔찍한데—내맡겨 둠으로 해서 얼마나 그에게 해를 끼쳤는가, 지금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비록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든지 간에 원수가 가까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벌써 아서 딤즈데일과 같은 예민한 인간의 자장(磁場)을 동요시키는 데 충분했다. 헤스터가 이런 생각을 이처럼 예민하게 가지고 있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 헤스터는 자기 환란에 모든 인간이 귀찮았고 또 목사의 운명은 자기 운명과 비교하면 아직도 수월하다 생각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운명을 참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목사가 밤샘하던 날 밤 이래로 목사에 대한 헤스터의 심정은 퍽 부드러워졌고 동정심

은 강해졌다. 헤스터는 지금 목사의 심정을 똑똑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로저 칠링워스가 악의라고 하는 비밀 독소를 가지고 주위 공기를 전염시키며, 또 의사의 자격으로써 목사의 육체와 정신에 정정당당하게 간섭하면서 항상 곁에 붙어 있음으로써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그 잔인한 흉계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헤스터는 의심하지 않았다. 이러한 수단으로써 환자의 양심은 항상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그래서 건전한 고통을 주어서 병을 치료해 주지는 않고, 도리어 그 정신 상태를 파괴하고 부패시키는 경향이 있을 뿐이었다. 그 결과는 이 지상에서는 정신병밖에는 될 수 없고 내세에서는 선과 진리로부터 영원히 분리하는 일밖에는 될 수 없다. 정신병이란 이러한 상태의 현세적인 표본일 것이다.

과거에 사랑하던—뿐만 아니라 숨김없이 말하면 현재에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사람에게 헤스터 자신이 끌어온 파멸이란 이러한 것이었다. 로저 칠링워스에게도 말한 바이지만 헤스터가 목사를 위해서 취한 현재와 같은 길보다는 도리어 그의 명예를 희생하고 목숨까지라도 희생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뻔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중대한 잘못을 자백하기보다는 차라리 낙엽 위에 누워 아서 딤즈데일 발밑에서 죽고 싶었다.

"아아, 아서!" 하고 헤스터는 부르짖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당신의 이익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명예가 문제되는 경우 말고는 오직 진실이 내가 극단적으로 사수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도덕이었으며 또 사실상 사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만에 저는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주검이 우리를 위협할 때에라도 거짓말은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저 노인 말입니다! 세상에서 로저 칠링워스라고 부르는 저 의사는 저의 이전 남편이었습니다."

목사는 전신의 분노심을 불태우면서 잠시 동안 헤스터를 노려보았다. 그 분노심은 그의 좀 더 높고 좀 더 순결하고 좀 더 부드러운 성질과 서로 얼크러져 있었다. 그의 인격 중에서 이 분노심의 부분은 악마가 자기의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며, 또 그것을 수단 삼아 나머지 다른 부분까지도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이었다. 헤

스터는 그렇게도 시커멓고 그렇게도 무서운 얼굴을 처음 보았다. 그런 표정은 잠시 계속되었을 뿐이지만, 그동안은 참으로 암담한 변모였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의 고민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격은 아주 미약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저급한 정력조차도 일시적인 투쟁을 하는 이상의 능력은 없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다.

“알만도 한 일이었건만!” 그는 중얼거렸다. “그걸 조금도 몰랐구나! 그자를 처음 볼 때에 그다지도 가슴이 꿈틀하더라니! 그 후에도 그자를 볼 때마다 자연이 은밀하게 그것을 내게 알려 주었었지! 왜 그걸 내가 몰랐단 말인가? 아아, 헤스터 프린, 이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당신은 조금도, 조금도 몰라요! 그 수치! 그 창피! 병들고 죄 깊은 마음을 바로 그놈—좋아서 싱글벙글하는 그놈—눈앞에다 내놓았으니, 그 무섭고도 추잡한 꼴이라니! 여인이여, 여인이여, 이것은 그대의 책임이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기어이 당신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헤스터는 목사 곁의 낙엽 위로 몸을 던지며 부르짖었다. “처벌은 하느님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은 용서하십시오!”

별안간 미칠 듯한 애정이 솟아나서 헤스터는 두 팔로 남자를 껴안고, 남자의 머리를 자기 가슴에다 덮어 눌렀다. 남자의 볼이 주홍 글씨에 닿는 것도 불고했다. 남자는 뿌리치려고 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헤스터는 그가 또다시 눈을 흘기고 볼까봐 무서워서 남자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칠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온 세상 사람이 이 고독한 여인을 흘겨보았지만, 헤스터는 모두 다 참아 왔다. 한 번도 그 단호하고도 슬픈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았었다. 하늘도 또한 그를 흘겨보았지만 헤스터는 죽지 않았다. 그러나 초췌하고 약하고 죄 깊고 비애에 병든 이 사나이의 흘겨보는 얼굴은 헤스터가 도저히 참고 살 수 없는 물건이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헤스터는 같은 소리를 다시금, 다시금 되풀이했다. “눈을 흘기지 마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헤스터, 당신을 용서합니다!” 목사는 마침내 깊은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것은 깊은 비애 속에서 우러나오는 음성이었으나 분노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었다. “이제 나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헤스터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

은 아닙니다. 타락한 목사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 있습니다. 저 노인의 복수는 나의 죄보다도 더 흉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냉혈적으로 인간 심정의 성역(聖域)을 범했습니다. 헤스터, 당신과 나는 그런 일은 안 했어요!"

"절대로, 절대로!" 헤스터는 속삭였다. "우리들이 행한 일은 그 자체의 신성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서로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말을 잊으셨어요?"

"쉿, 그런 소리는 맙시다." 아서 딤즈데일은 땅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 말은 잊지 않았소."

그들은 쓰러져 나무 이끼가 돋은 줄기 위에 서로 손목을 잡고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 평생에 이렇게도 침통한 순간은 없었다.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은 이 일점을 지향하고 가만가만히 걸어왔는데, 가까이 올수록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 일점은 일종의 마력을 내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연연불거(戀戀不去)하게 했고,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이렇게 자꾸만 시간을 지연시키게 했다.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삼림은 침침했고, 모진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끽끽 소리를 냈다. 나뭇가지들이 두 사람 머리 위에 무겁게 늘어져 있는데, 장엄한 늙은 나무 하나가 그 밑에 앉아 있는 남녀 한 쌍의 슬픈 이야기라도 전하는 것처럼, 혹은 또 장차 올 불행을 마지못해 예언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늙은 나무에게 뭐라고 구슬프게 중언부언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머뭇거렸다. 거류지로 돌아가는 길은 진정으로 쓸쓸해 보였다. 돌아가는 날이면 헤스터는 그 수치의 무거운 짐을 걸머져야하고, 목사는 내용 없는 명성의 흉내를 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지체했다. 비록 황금 같은 태양 광선이라 할지라도 이 어두운 삼림의 침침한 그늘보다도 귀하지는 못했다. 목사밖에 보는 눈이 없는 여기서 다시는 주홍 글씨가 타락한 여자의 가슴 위에서 불붙을 필요가 없다! 헤스터밖에는 보는 눈이 없는 여기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하여 거짓된 아서 딤즈데일은 일순간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딤즈데일은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솟아나서 깜짝 놀랐다.

"헤스터, 또 하나 새로운 걱정이 생겼소." 목사는 부르짖었다. "당신이 로저 칠링

워스의 비밀을 폭로시키려는 의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을 거요. 그렇게 되어도 그가 과연 우리들의 비밀을 지켜줄까? 대체 이 복수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도 비밀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헤스터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런 데다가 숨어서 복수를 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더 자라났습니다. 노인이 그 비밀을 폭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무슨 다른 방법으로 그의 흉측스러운 욕망을 만족시키려 들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오? 어떻게 그 무서운 원수와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앞으로 살아가란 말이오?" 아서 딤즈데일은 내심 벌벌 떨며, 흥분해서 가슴에다 손을 대고 말했다.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대는 것은 딤즈데일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버릇이었다. "내 일을 좀 생각해 주시오! 헤스터, 당신은 굳센 사람이오. 나를 위해서 무슨 결정을 지어 주시오!"

"그 사람하고 이 이상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헤스터는 느릿느릿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이 이상 그 악독한 눈의 감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참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운 일일 겁니다." 목사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무슨 수로 피합니까?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까 그 사람 말을 할 때 하던데 내 스스로 여기에 쓰러져 누우란 말입니까? 여기에 주저앉아 당장에 죽어야 옳습니까?"

"아아,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도 파멸을 당하고 말았어요!" 눈물을 쏟으며 헤스터는 말했다. "약함 때문에 죽으시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심판이 내 위에 내리고 있소." 양심의 가책에 못 이기는 목사는 대답했다. "그 힘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도 벅찬 일입니다."

"하느님은 자비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헤스터는 반박했다. "당신이 그 기회를 잘 이용하실 힘만 있다면."

"나를 위하여 강한 사람이 되어주시오." 그는 대답했다. "어떻게 할지 말하여 주시오."

"세계가 그렇게도 좁습니까?" 헤스터는 깊은 시선으로 목사를 쏘아보며 말했다. 스스로 똑바로 서 있을 만한 힘이 없을 만큼 여지없이 파쇄되고 굴곡당한 정신에

대하여 헤스터는 본능적으로 마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저기 보이는 저 고을 안만이 세상입니까? 저 고을은 몇 해 전만 해도 가랑잎이 흩어져 있는 황무지라 우리가 있는 이 산속처럼 쓸쓸한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 숲 속의 오솔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거류지의 후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당신은 말씀하실 테죠. 옳습니다. 그러나 그 앞으로도 더 갑니다. 그 길은 가면 갈수록 황무지가 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여섯 마일만 가면 누른 낙엽 속에 백인들의 발자취는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거기만 가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두어 서너 걸음만 길을 걸으면 당신이 그렇게 불행하게 지내오시던 세계로부터 아직도 행복할 수 있는 세계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망망한 삼림 속에 로저 칠링워스의 눈초리로부터 당신의 마음속을 감출만 한 그늘이 없단 말씀입니까?”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가랑잎 속에 파묻혀야만 되는 일입니다.” 목사는 슬픈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다음에는 넓고 넓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헤스터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길은 당신을 이 땅으로 실어 왔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 길은 다시 당신을 싣고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고국에만 가면 먼 시골에 가든지, 넓은 런던 안에서 살든지, 혹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즐거운 이탈리아에 가든지, 확실히 당신은 그가 전연 알지 못하는 세계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쇠로 만든 것 같은 이 땅 사람들 및 그들의 여론과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너무도 오래 당신을 속박해 왔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는 대답했는데 마치 꿈이라도 실현하자는 말을 들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갈 힘이 없어요! 비록 타락하고 죄가 많은 놈이지만 그래도 하느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세계에서 지상 생활을 끌고 나가겠다는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은 비록 길을 잃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감히 내 직소(職所)를 떠날 용기가 없습니다. 비록 그 직소를 지키는 나는 충실하지 못한 보초병입니다만. 그래서 이 지루한 파수가 끝날 때에 내가 받는 보수는 확실히 주검

과 불명예밖에는 없을 겁니다만.”
“칠 년 동안이나 불행의 무거운 힘에 눌려서 당신은 완전히 쭈그러들고 말았군요!” 헤스터는 그의 원기를 북돋아 주려고 열렬히 희망하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갈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런 것들이 당신의 걸음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만약 바다를 건너가시기로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배에다 실어도 안 됩니다. 이 파멸과 패망은 그것이 발생한 이 땅에다 버리십시오. 다시는 돌아다보지도 마십시오! 순연히 새로 시작하십시오! 이번 한 번 실패에 당신의 능력은 죄다 없어지고 말았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도 시련과 성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향락할 수 있는 행복이 있고, 해야 할 좋은 일이 있습니다. 현재의 거짓된 생활을 진실한 생활과 바꾸십시오. 당신의 정신적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거든 인디언 사회에 가서 교사 겸 사도가 되십시오. 혹은 또—이것이 당신 성미에 맞는 일일 겁니다만—교양 있는 사회에 가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가 되시며 가장 어진 철인(哲人)이 되십시오. 설교하십시오! 저술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가만히 누워서 죽는 일 말고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아서 딤즈데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공포도 수치도 없이 가지실 수 있는 이름을 가지는 높으신 다른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매일매일 고민 속에서 주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오래 당신의 생명을 좀먹는 그 고민, 당신은 의지력도 실천력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들고 마는 그 고민, 당신에게 회개할 힘조차도 남겨 두지 않을 그 고민! 일어나서 떠나십시오!”
“아아, 헤스터!” 아서 딤즈데일은 부르짖었다. 그의 두 눈 속에 일순간 광선이 번쩍 비쳤는데, 그것은 열광심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번쩍하고는 사라지고 말았다. “당신은 무릎에 힘이 없어 부들거리는 사람 보고 달음박질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넓고 낯설고 험난한 세계로 혼자서 뛰어 나갈 근력도 용기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파멸한 정신의 실망과 낙담에 대한 마지막 표현이었다. 그는 지금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행운을 손을 내밀어 붙잡을 만한 정력도 없었다.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혼자서? 헤스터!”

“혼자서 가시지는 않습니다.” 헤스터는 깊은 귓속말로 대답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

아서 딤즈데일은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그러나 일종의 공포심이 섞인 표정으로 헤스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공포심은 그가 막연히 암시했을 뿐 감히 입 밖에 내서 말하지 못했던 것을 헤스터가 대담스럽게 말한 데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헤스터는 천성 대담하고 진취성이 있는데 다가 여러 해 동안 사회에서 떨어져 살 뿐만 아니라 실로 추방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목사 같으면 전연 꿈도 못 꿀 그러한 자유로운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다. 헤스터는 규칙도 안내도 없이 도덕의 광야를 방랑해 왔다. 그 도덕의 광야는 지금 그들이 침침한 가운데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며 있는 깊고 그늘진 원시림만큼이나 넓은 것이었다. 그의 이지와 감정은 말하자면 사막이 고향이라서 마치 원시림 속에 사는 인디언들처럼 마음대로 광야를 방랑할 수 있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이 인류 사회를 떠난 입장에서 교직자나 입법자들이 세워 놓은 인간 제도 일체를 관찰했고, 또 모든 것을 비관해 왔는데 그것은 인디언들이 목사의 허리띠나 법관의 옷이나 형대나 교수대나 가정의 노변이나 교당 같은 것을 볼 때에 아무런 존경심도 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존경심도 없는 비판이었다. 그의 운명과 팔자는 그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경향이 있었다. 주홍 글씨는 다른 여자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나라로 그를 안내하는 통행권이었다. 수치, 절망, 고독! 이들은 그의 선생이었다—엄하고 과격한 교사들이었다. 그들은 헤스터를 강하게 만들었으나, 또 잘못 가르친 점도 많았다.

이와 반대로 목사는 기성 법칙의 세계를 고의적으로 넘어가는 인생 체험을 해 본 일은 없었다. 다만 한 번 기성 법칙 중에서도 가장 신성한 법칙을 범한 일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신성한 법칙을 범한 일은 있었다. 그것은 열정의 죄였지, 결코 원칙상으로 한 일은 아니었으며 심지어 목적하고 한 일도 아니었다. 그 불행한 때 이래로 그는 병적이라고 할 만큼 열심히 또 세밀히 주목해 왔는데, 그가 주목하는 바는 자기의 행동이 아니라—행동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자기 감정의 호흡, 자기 사상의 일거일동이었다. 목사라면 그 시대 사회 조직의 우

두머리였으니까 그는 그만큼 더 모든 규칙과 원칙, 심지어 선입견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다. 목사라고 해서 사회 질서의 틀은 그를 꼼짝 못 하게 가둬 놓고 말았다. 과거에 죄를 지었고, 그러나 그 후 양심이 늘 살아 있어 합창되지 않은 상처의 자극으로 말미암아 항상 신경이 예민해 있는 인간이었으니만큼 그는 전연 죄를 범한 일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도덕심이 견고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헤스터 프린에 관해서 말한다면 칠 년 동안의 추방과 수난의 생활은 오늘 이 시간을 위한 준비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서 딤즈데일은 어떤가? 이러한 인간이 만약 다시 한 번 타락하는 날이면 그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로 진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 다음과 같은 말들이나 그에게 다소 유리한 재료가 될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여러 해 동안 극도의 고통을 받아서 그의 건강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 공연한 범죄인으로서 도망을 가는 일과 위선자로서 머물러 있는 일 사이에 그의 양심은 균형을 취할 수가 없었다. 주검과 불명예와 이루 예측할 수 없는 원수의 흉계를 피하고 싶다는 것은 인정의 상례이다. 끝으로 병들고 약하고 비참하게 지루한 사막 길을 걸어가는 이 가엾은 순례자 앞에 인간의 애정과 동정심의 희미한 광명이 나타났다. 지금도 그가 죄를 갚아 가고 있는 무거운 운명 대신에 새로운 진실한 생명의 광명이 나타났다—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 영혼 속에 생겨난 상처는 이 인간에게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가혹하고도 슬픈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파수를 세워 그 성벽의 상처를 지킬 수는 있다. 그러면 적군은 또다시 그 상처로 해서 성안에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딴 길로 해서 침입해 들어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너진 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승리를 다시 한 번 얻으려고 그 부근에서 움직거리는 은밀한 적병의 발소리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그는 생각하기를, '지나간 칠 년 동안에 단 한 순간일지라도 마음의 평강이나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낼 수가 있다면 그것을 하느님의 자비심에 대한 보증으로 믿고 참아도 보겠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다시는 취조할 수 없는 운명의 판결을 받고 있다. 그러니 죄수가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잠깐 허락받는 위안을 내가 받아

서 안 될 이유는 무엇이냐? 헤스터가 설명하는 것처럼 만약 이것이 좀 더 좋은 생활로 인도하는 길이라 할진대 그 길을 따라가 봤자 그보다도 더 훌륭한 생활을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리라. 그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는 헤스터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의 지지해 주는 힘이 그렇게도 강하고, 위안해 주는 힘이 그렇게도 다정하다! 오오, 하느님, 하느님에 대해서 저는 감히 눈을 들 용기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죠!'

"어서 가십시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칠 때에 헤스터는 말했다.

일단 이렇게 정하고 나니 그의 마음속에 사무친 근심 위에 이상야릇한 기쁨이 환한 광선을 던졌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지옥에서 갓 도망 나온 죄수가 하느님의 구제를 받지 못한 비그리스도교의 무법한 나라에서 신선하고 자유로운 대기를 마시는 데서 생겨나는 기쁨이었다. 그의 정신은 말하자면 단숨에 하늘 가까운 데까지 뛰어올라 간 것 같았다. 비참한 몇 해 동안 그는 땅 위에서 기어 다닐 뿐이었다. 원체 깊이 종교적인 성질을 타고난 사람인지라 그의 현재 기분 속에는 일종의 경건한 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정말로 다시 한 번 기쁨을 맛보려는가?" 그는 자기 자신에 놀라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기쁨의 씨가 내 가슴속에서 영영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 헤스터 당신은 나의 수호천사요. 나는 마치 병들고 죄악에 더럽히고 비애에 그을린 내 몸뚱이를 이들 가랑잎 위에 내던졌다가 전연 새로운 인간이 되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자비하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된 것이나 같습니다. 이미 이것은 신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좀 더 빨리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가?

"다시는 뒤를 돌아다보지 맙시다!" 헤스터 프린은 대답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저는 이 표적과 함께 일체의 과거와 인연을 끊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헤스터는 옷가슴에서 주홍 글씨를 잡아떼고, 먼 낙엽들 속으로 팽개쳤다. 신비로운 표적은 시내 둑 위에 날름 올라앉았다. 한 뼘쯤만 더 멀리 날았더라면 그것은 시냇물 위에 떨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시냇물이 여전히 뭐라고 중얼중얼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외에도 하나 싣고 가야 할 슬픔을 던져 주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놓은 글씨는 시내 둑 위에 떨어져서 마치 길에서 잃어버린 보석처럼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재수 없는 나그네가 그것을 줍는 날이면 앞으로 두고두고 불가사의한 죄악의 환영들의 침노를 받아 정신이 침울해지고 까닭 없는 불행에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다.

죄악의 표적을 버리고 나서 헤스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과 더불어 수치와 고민은 그의 정신으로부터 사라지고 말았다. 아아, 이루 형언할 수 없이 거뜬하다. 자유를 느낄 때까지는 그 무게를 모르고 있었다! 또 새로운 충동이 생겨나서 헤스터는 그 머리털을 감추던 딱딱한 모자를 벗어 버렸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두어깨 위에 쏟아져 내려왔다. 짙고 호화로운 머리카락—풍족한 속에 명암이 동시에 나타나 얼굴에다 보드라운 매력을 주었다. 여자의 가슴속에서 솟아나오는 듯한 환하고 다정한 미소가 입 언저리에서 뛰어놀고, 두 눈에서 흘러나왔다. 여러 해 동안 그렇게도 창백하던 두 볼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무를 수 없는 과거라 하지만 과거로부터 그의 여성과 청춘과 풍족한 미가 다시 돌아와서, 처녀와 같은 희망과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행복과 함께 마술이 지배하는 이 순간 속에서 엉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까지의 땅과 하늘의 어둠은 마치 이 두 인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왔던 것처럼 그들의 슬픔이 떠나는 동시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에 마침 하늘이 별안간 웃음을 터뜨린 것처럼 햇볕이 나타나 컴컴한 숲 속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왔다. 푸른 잎들은 기뻐서 날뛰고 누른 낙엽들은 황금으로 변하고, 엄숙한 고목들의 시커먼 줄기는 밑까지 번들거렸다. 지금까지 그늘을 만들던 모든 물체가 이제는 광명을 구현하였다. 이제는 작은 시냇물도 그 즐거운 광채를 따라 깊은 숲 속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다. 그 숲 속은 이미 기쁨의 신비로 변하고 있었다.

한 번도 인간의 법칙에 굴복한 일이 없고 높은 진리의 광명을 받아본 일도 없는 이 세계의 황무한 자연 원시림의 대자연이 이들 두 영혼의 축복에 공명하는 모양은 이상과 같았다. 사랑은 그것이 새로 탄생되었거나 주검 같은 잠에서 깨어났거나 간에, 필연코 태양 광선을 창조한다. 그 광선은 가슴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히 외부 세계로 넘쳐흐르게 된다. 설혹 숲이 아직도 침침한 그늘을 지니고 있었다 할지

라도 헤스터와 아서 딤즈데일 두 사람 눈에는 환하게 보였을 것이다.
딤즈데일을 바라보고 있는 헤스터의 가슴속에는 또 새로운 기쁨이 치밀어 올라왔다.
"당신은 펄을 아실 테죠." 헤스터는 말했다. "우리 어린 펄 말입니다. 기왕에 보셨으니까—네,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은 별다른 눈으로 그 아이를 보시게 될 겁니다. 참 이상스러운 아이예요! 어떻게 된 아이인지 전 도무지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나 당신은 그 아이를 무척 귀여워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가 나를 알면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는 약간 불안스러운 듯이 질문했다. "아이들은 내게 곁을 주지 않고 나만 보면 도망가려고들 하니까 나는 아이를 보면 용기가 나지 않아요. 펄도 무서워요!"
"아, 민망해라!" 헤스터는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을 퍽 따를 거예요. 당신도 귀여워하실 거구요. 그리 먼 데는 가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 불러올게요. 펄! 펄!"
"아, 저기 보입니다." 목사도 말했다. "저기 해가 비치는 데 서 있군요. 꽤 멉니다. 시내 저쪽 둑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를 따르리라고 생각하신다구요?"
헤스터는 방긋이 웃고 또 한 번 펄의 이름을 불렀다. 목사가 말한 것처럼 펄은 상당히 먼 곳에서 햇볕을 쬐며 서 있었다. 그 햇볕은 활 모양으로 된 나뭇가지들을 새어 내려오는데, 펄은 마치 광선의 옷을 입은 환영 같았다. 태양 광선은 떨리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마다 펄의 모양도 환해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했다. 좀 어두워지면 현실계의 아이 같고, 다시 환해지면 도로 어린아이의 혼령으로 변하고 말았다. 펄은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숲 속을 걸어왔다.
어머니가 목사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펄도 심심하지는 않았다. 이 시커먼 큰 숲은 이 세상의 죄악과 환란을 그 가슴속에 끌어들인 사람들에게는 엄하게 보였지만, 이 고독한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데까지 장난 동무가 되었다. 침침하기는 하지만 가장 친절한 표정을 띠고 펄을 맞아주었다. 숲은 펄에게 산딸기를 진상(進上)했다. 작년 가을에 열려서 금년 봄에 익었던 것이 지금은 마른

잎사귀 위에서 꼭 핏방울처럼 빨개졌다. 펄은 그 열매들을 따서 모았다. 향기가 좋았다. 작은 산짐승들은 펄이 가는 길을 일부러 비키려고도 하지 않았다. 열 마리의 새끼를 거느린 뇌조(雷鳥) 한 마리가 펄을 위협하는 것처럼 앞으로 달려왔으나 이내 자기의 태도를 뉘우치고, 새끼들에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꼬꼬꼬 울었다. 얕은 나뭇가지에 홀로 앉아 있던 비둘기는 펄이 그 밑에 오는 대로 내버려두고 울었는데, 그 우는 소리는 경고를 의미하는 동시에 환영을 의미했다. 다람쥐 한 마리는 그가 살고 있는 높은 나무 깊은 가지 속에서 뭐라고 재잘거리며 펄의 머리 위에다 밤을 한 알 내리굴렸다. 그 재잘거리는 소리가 성나서 하는 소리인지 즐거워서 하는 소리인지, 다람쥐는 원체 성도 잘 내고 즐거워하기도 잘하는 짐승이라,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 밤톨은 작년 치라, 벌써 다람쥐의 이빨 자국이 나 있었다. 펄이 가랑잎을 밟는 바삭 소리에 여우 한 마리가 잠이 깨어 수상스러운 눈으로 펄을 바라다보았다. 슬그머니 도망가는 것이 옳을지, 그대로 자야 옳을지, 의문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이었다. 여기서부터는 좀 이야기가 황당해지는데, 하여튼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그때에 이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펄의 옷 냄새를 맡고 쓰다듬어 달라고 머리를 디밀었다 한다. 대자연의 숲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날짐승들이 이 인간 아동 속에서 친근한 야생미(野生味)를 발견했다는 것이 아마도 진상인 듯싶었다.

펄은 양옆에 잔디가 깔려 있는 길거리나 헤스터가 사는 오두막집에 있을 때보다도 이 숲 속에서 더 얌전했다. 꽃들도 그것을 아는 듯싶었다. 그래서 펄이 지나갈 적에 꽃들은 서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예쁜 아가씨, 나를 가지고 치장하시오! 나를 가지고 치장하시오!" 펄은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비꽃, 아네모네, 매발톱꽃, 눈앞에 늘어지는 고목 가지에서 새파랗게 돋아나는 새순 등을 따서 모았다. 이 꽃들과 나뭇가지로 머리와 허리를 치장한 펄은 아주 어린 요정이 되고 말았다. 혹은 어린 드라이어드(dryad)〔숲 속에 사는 요정〕와 같다고 해도 좋고, 또 고대 삼림 속에 사는 무슨 혼령 같다고 해도 좋다.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펄은 이런 모양으로 차리고 천천히 걸어왔다.

펄은 천천히 걸어왔다—목사를 보았기 때문이다.

19. 시냇가의 어린아이

"당신도 이제부터는 저 아이가 무척 귀여워질 겁니다." 목사와 같이 앉아서 어린 펄이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헤스터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예쁘다고 생각지 않으셔요? 꽃들을 가지고 저렇게 단장을 한 천연스러운 솜씨를 좀 보세요! 숲 속에서 진주나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보석을 모았다 할지라도 저보다도 더 저 아이에게 어울리지는 않을 거예요. 참 놀라운 아이예요! 하지만 저 아이 이마가 누구를 닮았는지 나는 잘 알아요!"

"헤스터." 목사는 좀 불안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늘 당신 곁에 따라다니는 저 귀여운 아이 때문에 내가 무척 겁을 냈다는 것을 알겠죠? 내 얼굴 모습의 일부분이 저 아이 얼굴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편 기이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나를 닮아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나 않을까 생각하면 무섭기도 해요. 그러나 저 아이 얼굴은 대부분 당신 것입니다."

"천만에요! 대부분은 아니죠!" 어머니는 고요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저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하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이 되죠. 하지만 들꽃을 가지고 저렇게 머리를 치장하니 참 유난히 예뻐 보여요! 우리가 정든 고향에 버리고 온 선녀가 저 아이를 저렇게 단장시켜서 우리들에게 보낸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펄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그들이 그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던 감정이었다. 그 어린아이 속에 그들을 결합시키는 띠가 나타나 있었다. 그 아이는 지나간 칠 년 동안 그들이 숨기려고 그렇게도 남모르게 애를 쓰던 비밀을 표시하는 산 글씨로서 세상에 나타나 있었다. 불길한 글씨를 해독할 줄 아는 예언자나 마술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이 속에 모든 비밀이 기록되어 있고 모든 것이 명백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펄은 그들 두 사람 생명의 결합이었다. 과거의 죄야 어떻든 간에 지금 그들이 결합하고 앞으로 영원 무궁히 같이 살게 되는 육체적 결합과 정신적 이념을 눈앞에 볼 때에 그들의 지상 생활과 장래의 운명이 결합되었다는 것을 어찌 의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 또 뭐라고 규정지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걸어오는 어린아

이 주변에다 엄숙한 광선을 던져 주었다.
“저 아이에게 말을 건네실 때 열정적이거나 열렬하거나 하여튼 보통이 아닌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헤스터는 귓속말로 일렀다. “우리 펄은 이따금 까닭 없이 화를 내고, 화를 내면 무섭게 난리 치는 아이입니다. 특히 남이 성을 내거나 미워할 때에 그 이유를 모르면 절대로 그런 감정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정의 힘은 강합니다. 저를 무척 사랑해요. 그러니 당신도 사랑할 겁니다.”
“펄과 만나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한편 조바심 난다는 것을 모르시겠소?” 목사는 헤스터를 곁눈질로 보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나를 따르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 무릎 위에 올라오려 하지도 않고, 내 귀에다 대고 재잘거리려 하지도 않고, 웃어 보여도 대신 웃어 주지도 않고, 뚝 떨어져서 나를 이상스럽게 볼 뿐입니다. 갓난아이들까지도 내가 안아 주면 몹시 울어대. 그렇지만 펄은 그 짧은 생애 중에서 두 번 내게 다정해 본 일이 있소. 한 번은 당신이 잘 아실 테고, 또 한 번은 저 엄한 장관 댁에서 있었소.”
“그때에 당신은 저 아이와 저를 위해서 참 용감하게 변호해 주셨죠!” 어머니는 대답했다. “저는 잘 기억합니다. 그 아이도 기억할 겁니다. 두려워하실 것 없어요! 처음에는 좀 서툴러서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이내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벌써 펄은 시냇가에까지 와 있었다. 저쪽 둑 위에 서서 두 사람이 나무 그루터기 위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잠자코 보고 있었다. 헤스터가 서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시냇물은 웅덩이가 되고 있었다. 어떻게도 맑고 고요한지 꽃과 나뭇잎으로 치장하여 그림같이 고운 어린아이의 모양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물속의 그림자는 실재 인물보다도 더 세련되고 정신화되고 있었다. 살아 있는 펄과 거의 똑같은 그림자는 그 자체의 그림자 같은 형체 없는 성질을 어린아이 자신에게 전달하고 있는 듯싶었다. 숲 속의 어둠침침한 데서 두 사람을 유심히 바라다보고 있는 펄의 모양은 퍽도 괴상하였다. 펄 자신이 마치 무슨 공감에 끌려 그리로 간 것처럼 환히 비치는 태양 광선 속에서 찬란했다. 그 아이 밑에 있는 물속에는 또 한 아이가 있었다. 딴 아이면서 또 같은 아이—황금 같은 광채도 똑같다. 헤스터는 막연하고도 안타까운 기분에 빠져, 펄과 인연이 멀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마

치 어린아이가 혼자서 숲 속을 소풍하는 동안에 모녀가 같이 살던 세계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지금 돌아오려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러한 인상 속에는 진실과 잘못이 두 가지 다 있었다. 어린아이와 어머니는 사이가 멀어졌는데, 그것은 헤스터의 탓이지 펄의 탓은 아니었다. 펄이 어머니 곁을 떠나서 소풍하는 동안에 또 한 식구가 어머니 감정 속에 들어와서 집안 모양을 일변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소풍하다가 돌아온 펄은 자기가 앉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여 어리둥절하고 말았다. “나는 좀 이상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예민한 목사는 말했다. “이 시냇물이 두 세계의 경계선이 되는데, 당신은 다시는 펄과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아요. 혹은 또 우리들이 어렸을 때 들은 옛날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저 아이는 시냇물을 건너오지 못하게 된 요정입니까? 제발 저 아이를 빨리 불러오시오. 저 아이가 저렇게 주저하는 것을 보니 걱정입니다.”
“우리 아가, 어서 이리 온.” 헤스터는 얼러주듯이 두 손을 벌리고 말했다. “어찌 그렇게 느리니? 그전에는 그리 느리지 않더니! 여기 어머니 동무가 한 분 계신데, 네 동무도 되신다. 오늘부터는 네가 나한테서 받던 사랑의 갑절이나 사랑을 받게 돼. 그 시내를 뛰어넘어 이리로 오너라. 너 어린 사슴처럼 잘 뛰지!”
펄은 이런 달콤한 말에는 아무 대답도 없이 여전히 시내 둑 위에 서 있었다. 반득반득한 눈으로 처음에는 어머니를 보고, 그다음에는 목사를 보고, 마지막에는 두 사람을 함께 보았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를 발견하고 그 이유를 스스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어린아이의 시선이 자기 위로 오는 것을 느끼자 목사는 무슨 이유인지 자기도 모르게 손이 평소의 버릇대로 저절로 가슴 위로 올라갔다. 마침내 어린아이는 엄숙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고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가리켜 보였다. 밑에서는 시냇물의 거울이 꽃단장을 해서 환한 펄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 그림자도 똑같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너도 참 이상스러운 아이다! 어째서 나한테 오지 않니?” 헤스터는 부르짖었다. 펄은 아직도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다. 이마를 찡그리고 있다. 그 얼굴이 아직 갓난아이 같은 애잔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찡그린 것이 더욱 인상 깊다. 어머니는 아직도 손짓을 해서 부르고 얼굴은 전에 없이 희색이 만연한 것을 보고 펄은 더욱 거만스

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발을 구르고, 얼굴을 찡그렸다. 또다시 시냇물 속에는 낯을 찡그리고 거만스러운 행동으로 손가락질하는 그림자가 비쳐서 아름다운 펄의 모양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빨리 오너라. 펄. 너 정 그러면 나 성낸다!” 헤스터 프린은 고함을 질렀다. 다른 때에는 이러한 어린아이 심술에 익숙했었지만, 이제는 자연히 좀 더 얌전한 태도를 가져 주기를 열망했었다. “빨리 시내를 건너뛰어 오너라. 못된 년! 네가 안 오면 내가 간다!”

그러나 펄은 어머니가 애원을 해도 들은 척도 아니했거니와 위협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별안간 화를 내면서 맹렬히 팔짓, 발짓을 하면서 몸부림을 쳤다. 그와 동시에 산속이 쩽쩽 울릴 만큼 소리를 빽빽 질렀다. 펄 혼자서 어린아이처럼 까닭 없이 화를 부리는 소리였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숨어서 이 아이에게 동정을 표시하고 장려하는 것 같았다. 물속에는 또다시 성난 펄의 그림자가 비쳤다. 머리와 허리에 꽃을 꽂고 발을 구르고 몸짓을 하면서도 여전히 헤스터의 가슴을 손가락질하는 그림자였다.

“저 아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았습니다.” 헤스터는 목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근심과 속상한 것을 감추려고 애를 쓰지만 얼굴은 벌써 파랗게 질리고 있었다. “애들이란 늘 눈앞에 보는 것이 조금만 달라져도 잠자코 있지 않기 마련입니다. 내가 늘 몸에 달고 있던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여보, 제발.” 목사는 대답했다. “저 아이를 달래는 재주가 있거든 곧 달래 주시오! 히빈스 양과 같은 늙은 마녀의 심술부리는 것 말고는 아이들이 성내는 것처럼 싫은 건 없어요. 그 쭈그렁 바가지 마녀(히빈스 양)와 마찬가지예요. 저 어린아이 속에서도 분노는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냅니다. 나를 사랑하거든 빨리 저 아이를 달래시오!”

헤스터는 다시 한 번 펄이 있는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두 볼이 활짝 달고, 일부러 목사를 곁눈질해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두 볼의 홍조는 물러가고 시체와 같이 하얘졌다.

"펄!" 어머니는 슬픈 목소리로 불렀다. "네 발밑을 보아라! 거기 있다—바로 네 앞에—시내 이쪽 둑 말이다."

어린아이는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돌렸다. 주홍 글씨는 바로 시냇가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금실 수가 물속에 비쳐 있었다.

"그걸 이리로 가져오너라!" 헤스터는 말했다.

"엄마가 와서 가져가요!" 펄은 대답했다.

"원, 저런 아이가 있나!" 헤스터는 목사를 보면서 혼잣말처럼 했다. "아참, 저 아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일이 많아요. 하지만 이 보기 싫은 표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 아이 생각이 옳거든요. 저는 좀 더 저 고통거리를 달고 다니지 않아서는 아니 될 겁니다. 앞으로 며칠만 더 차면 됩니다—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꿈에서 본 나를 돌아다보듯이 뒤돌아다보게 될 때까지만. 이 숲도 저것을 감출 수는 없어요! 넓은 바다가 내 손에서 저것을 받아 영원히 삼켜버릴 테죠."

이렇게 말하면서 헤스터는 시냇가로 가서 주홍 글씨를 주워들고 다시 가슴에다 달았다. 조금 전에만 해도 희망을 가지고 그 표적을 깊은 바다에다 내던진다고 했지만, 지금 운명의 손으로부터 치명적인 상징을 또다시 받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숙명감이 헤스터를 내리덮었다. 아까는 그것을 무한한 허공에다 내던졌었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했었다. 그런데 지금 불행한 주홍빛은 또다시 돌아와 옛날 장소에서 빛나고 있지 않은가! 죄악이 이와 같이 상징화되거나 아니 되거나 간에 숙명의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헤스터는 다음에는 무거운 머리카락을 끌어올려 다시 모자 속에다 가두고 말았다. 이 글씨 속에는 생명을 말라가게 하는 무슨 마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헤스터의 여성미와 온정미(温情味)와 호화성은 저물어가는 태양처럼 금시에 사라져 버리고, 얼굴 위에 검은 그늘이 내려앉았다. 처량한 변모를 치르고 나서 헤스터는 펄 앞으로 두 손을 벌렸다.

"이제는 너희 어미를 알아보니?" 비난하는 말씨나 분을 꿀꺽 참는 음성이었다. "이제 엄마가 다시 수치를 뒤집어쓰고 슬퍼하니 제발 시내를 뛰어넘어 와서 엄마라고 불러다오."

"네, 그럴게요." 펄은 깡충 뛰어 시내를 넘어와서 어머니의 두 팔을 붙잡으며 말했

다. “이제는 우리 엄마에요! 난 어린 펄이구요!”
전에 없이 다정한 기분이 생겨 펄은 어머니의 머리를 끌어당기고 이마와 두 볼에다 키스를 했다. 우연히 어머니에게 위안을 준 다음에는 반드시 가슴을 아프게 해주는 무슨 고집스러운 이 아이의 버릇이 또 생겨나서 펄은 입을 벌리고 주홍 글씨에다 키스를 했다.
“그건 친절한 일이 아니다!” 헤스터는 말했다. “너는 내게 애정을 조금 보이고는 나를 조롱하는구나!”
“목사님은 왜 저기 앉아 있어요?” 펄은 질문했다.
“너를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어머니는 대답했다. “어서 가서 목사님의 축도를 받아라! 목사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또 너희 엄마도 사랑하신다. 너 목사님을 사랑하지? 어서 가 봐라. 몹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목사님이 우리들을 사랑해요?” 펄은 몹시도 총명한 얼굴을 쳐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질문했다.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들과 손목을 잡고 셋이서 거리로 들어갈까요?”
“지금은 안 된다, 아가야.” 헤스터는 대답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집과 난로를 가진다. 그때에는 네가 저분 무릎 위에 앉게 된다. 그러면 저분이 너에게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 주시고 또 너를 끔찍이 사랑하시리라.”
“그리고 언제나 가슴에다 손을 얹구요?”
“망할 것! 그따위 질문이 어디 있어?” 어머니는 꾸짖었다. “어서 가서 목사님의 축도나 받아라.”
귀염을 받던 아이가 별안간 애정의 경쟁자가 나타날 때에는 본능적으로 질투심을 일으키는 모양인데, 펄도 그런 감정에 지배를 받았는지 혹은 그 변덕스러운 천성에서 그러했는지 모르나 펄은 목사에 대해서 좀처럼 호의를 표시하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강제로 끌어다가 목사 앞에까지 갖다놔도 펄은 뒤로 물러나서 괴상히 찌푸린 낯으로 싫다는 감정을 표현했다. 이 아이는 갓 태어났을 적부터 여러 가지로 낯을 찌푸려 보이는 특징이 있어 움직이기 쉬운 그 얼굴을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제각기 독특한 의미를 표현했다. 목사는 몹시 당황해서 혹 키스나 해 주

면 이 어린아이의 좀 더 친절한 애교를 받게 하는 부적이 될까 하여 몸을 구부리고 어린아이 이마 위에다 키스를 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으로부터 몸을 뿌리치고 시내로 달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이마를 닦았다—키스 자국이 깨끗이 씻겨 흘러가는 물 위에서 사라질 때까지 닦았다. 그러고 나서 멀리 떨어져서 어머니와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묵묵히 바라다보며 서 있었다. 그동안에 두 사람은 새로운 입장에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 준비 절차와 앞으로 실행해야 할 그들의 목적 같은 것을 서로 이야기했다.

이제 숙명적인 두 사람의 회담은 끝났다. 골짜기는 또다시 어두워졌고, 늙은 나무들도 고독으로 돌아간다. 나무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여기서 생겨났던 일—어느 인간도 알지 못할 비밀—을 속삭일 것이다. 우울한 시내는 이미 가슴에 벅찬 신비에다가 이 이야기를 또 하나 덧붙여 가지고 영원히 그 이야기를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나 그 음성은 지나간 수천 년 동안에 비하여 조금도 유쾌하지는 못했다.

20. 미로에 서 있는 목사

헤스터 프린과 어린 펄보다 앞서 떠난 목사는 가다가 뒤돌아다보았다. 숲 황혼 속으로 점점 사라져 가는 모녀의 흐릿한 자취나 모양밖에는 안 보이려니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생활 속에 나타난 그렇게도 큰 변화를 그는 즉석에서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러나 헤스터와 회색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여전히 나무줄기 옆에 서 있었다. 이 나무는 옛날에 바람이 불어 쓰러진 이래로 이끼가 덮이고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죄과를 걸머지고 있는 이 두 운명의 남녀는 그 위에 앉아서 한 시간의 휴식과 위안을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침입해 온 제삼자가 물러갔으니까 펄도 기뻐서 시냇가로부터 경쾌한 춤을 추며 어머니 곁으로 돌아와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목사는 지금까지 잠을 자거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목사는 유난히도 불안스러운 생각으로써 자꾸만 마음을 괴롭히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막연하고 애매한 이중인상(二重印象)을 뿌리치려고, 아까 헤스터와 그 자신이 서로 이야기하던 출발에 관한 계획을 더 철저히 머릿속에 그려 보았다. 군중과 도시들을 가지는 구세계(유럽)는 뉴잉글랜드나 아메리카 전체보다도 그들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적합한 피신처가 되리라 하는 것을 둘이서 결정했었다. 과연 아메리카에서 산다면 인디언의 오두막집을 선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안 일대에 드문드문 깔려 있는 백인 식민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가혹한 숲 생활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목사의 건강 상태는 차치하고라도 그의 소질과 교양과 발전은 세련된 문명사회 속에서라야만 마음의 고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문명 상태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인간은 더욱 미묘하게 적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택을 더 촉진시키느라고 그때에 마침 배 한 척이 항구에 와서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전연 해적선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지극히 무책임한 성격을 가지고 해상을 횡행하는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수상스러운 순라선(巡邏船)의 하나였다. 이 배는 스패니쉬메인(Spanish Main)지방으로부터 최근에 도착하여 수삼 일 내에 브리스틀(Bristol)로 떠날 예정이었다. 헤스터는 그 직업이 자기 면허의 성모동정회 회원이었기 때

문에 선장과 뱃사람 등을 친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극비밀리에 어른 두 명과 어린 아이 한 명의 배편을—절대 비밀로 해 달라는 전제하에—얻는 일을 헤스터가 맡아서 할 수 있었다.
목사는 정확하게 어느 날이면 배가 떠날 예정이냐고 적지 않은 흥미를 가지고 헤스터에게 물어보았다. 나흘 후면 아마도 떠나게 될 거라고 대답했다. "그건 참 다행한 일이로군!" 목사는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무엇 때문에 딤즈데일 목사가 그날을 그렇게도 다행하게 생각했든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차마 폭로하기를 주저하는 바이다. 그러나 독자에게 무슨 일이나 숨기지 않기 위하여 그 이유를 설명한다면, 사흘 후에 그는 장관 선거 축하 설교를 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행사는 뉴잉글랜드의 목사 일평생 중 가장 명예스러운 기회가 되느니만큼 딤즈데일은 그의 교직 생활을 끝마치는 데 이보다도 적당한 방식과 시기를 만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후일에라도 내가 공적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는 말을 하게 될 테지!" 이 모범적 인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가엾은 목사처럼 심각하고 예민한 자기 반성력을 가지는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도 스스로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우리가 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좀 더 나쁜 결점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도 더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처럼 그 성격의 약점이 드러난 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오래전부터 그 성격의 실질 속에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던 미묘한 고질병의 지극히 사소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이번처럼 뚜렷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얼굴을 가지고 군중에 대해서는 딴 얼굴을 가지는 사람이 마침내 어느 것이 진실한 자기의 얼굴인지 분간할 수 없이 되고 만다는 것은 만인에 공통하는 바이다.
헤스터와 만나고 돌아올 때에 딤즈데일 목사의 감정은 흥분하여 전에 없이 원기가 솟아났다. 그래서 거리를 향하여 빨리 길을 걸었다. 숲 속의 길은 그가 집을 나오면서 걸어가던 때의 기억과 비교하면 길이 좀 더 쓸쓸하고, 천연적인 장애물도 좀 더 많아져서 걷기가 더 거북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닌 자취도 적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군데군데 웅덩이를 건너뛰고, 몸에 덤벼드는 덤불을 헤치고, 언덕을 올

라가고 움푹 파인 데로 뛰어내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피로한 줄을 모르는 원기를 가지고 모든 난관을 돌파했다. 겨우 엊그제만 해도 그가 같은 길을 얼마나 힘없이 걸어가다가 숨이 가빠서 번번이 발을 멈추고 한참씩 쉬고 했던가를 회상했다. 거리에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광경이 기왕에 익숙하던 모양과는 전연 딴판으로 변해 버린 듯한 인상을 받았다. 그가 이 거리를 떠난 것은 엊그제 일 같지 않고 여러 날 전 혹은 여러 해 전 일같이 생각했다. 길 자취도 그가 기억하고 있는 옛날 모양 그대로였고, 집집마다 제각기 특징 있는 처마 모양이며, 그의 기억이 손가락질하는 곳마다 지붕 위에 서 있는 바람개비며, 모두 다 옛날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변했다는 인상이 짓궂게 불쑥불쑥 내달았다. 그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과 그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이 거리의 인간 생활도 또한 그러했다. 그들은 더 늙어 보이지도 않고 더 젊어 보이지도 않았다. 노인들의 수염이 더 하얘지지도 않았고, 어제 기어 다니던 어린아이들이 오늘 별안간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과 작별한 것이 겨우 엊그제밖에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목사의 영혼 속에 있는 제 육감은 그들의 변화를 알려 주고 있었다. 그가 그 자신의 교당 담 밑을 지나갈 때에 동일한 인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교당 건물은 그에게 그렇게 눈에 익으면서도 그렇게도 낯설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꿈속에서만 교당을 봤던가. 혹은 지금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가! 목사는 이렇게 두 갈래 생각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가지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우주 현상은 또 지금도 외면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익은 풍경을 보는 인간의 변화는 하도 돌발적이었고 또 중대했기 때문에 중간의 단 하루가 마치 수년의 경과처럼 그의 의식에다가 어떤 작용을 일으켰던 것이다. 목사 자신의 의지력과 헤스터의 의지력과 또 두 사람 사이에 자라난 운명이 이러한 변화 작용을 일으키고 말았다. 거리는 어제와 같은 거리였다. 그러나 숲으로부터 같은 목사가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를 만나 인사하는 친구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을지도 모른다—"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오! 나는 그 사람을 저 숲 속 비밀한 골짝 이끼 돋은 나무 옆과 우울한 시냇가에

버리고 왔소! 가서 당신의 목사를 찾아보시오! 그의 초췌한 몸과, 여윈 볼과, 희고 침통하고 고통에 주름 잡힌 이마가 마치 벗어던진 옷처럼 거기에 내던져 있지 않은가 가보시오!" 그러면 그의 친구들은 틀림없이 그와 논쟁을 했을 것이다—"당신 자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그들의 잘못이지 그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딤즈데일 목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내면적 인간[33]은 그의 사상과 감정의 세계 속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별개의 증거를 그에게 표시해 주었다. 내면세계에서 왕조가 바뀌고 도덕법칙이 완전히 변했다고나 설명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스스로 놀라고 있는 이 불행한 목사[34]가 지금 받고 있는 감정의 격동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한 걸음마다 그는 무슨 괴상하고 무궤도하고 부도덕한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을 받았는데 그러한 행동은 한편 자발적이 아니면서도 고의적이며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솟아나오면서도 그런 충동에 반대하는 자아보다는 좀 더 깊은 자아 속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그는 집사 한 사람을 만났다. 이 점잖은 노인은 아버지의 애정과 장로의 특권을 가지고 목사에게 인사했다. 연령으로 보나 곧고 거룩한 성품으로 보나 교회의 지위로 보나 당연히 이 목사에게 말을 걸 자격이 있었다. 이러한 애정과 목사에 대한 깊은 숭배심이 함께 나타나 있었는데 그것은 목사라는 지위와 동시에 그 목사의 인물이 당연히 요구하는 바였다. 노년의 위엄과 지혜가 윗사람에 대한 복종과 숭배심과 얼마나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범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딤즈데일 목사와 흰 수염을 휘날리는 점잖은 집사 사이에 이야기가 두어 서너 마디 오고 가고 하는 도중에 목사는 성찬식에 관해서 가슴속에 솟아나는 어떤 불경스러운 언사를 토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을 억지로 꽉 누르고 참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혓바닥이 무서운 말

33 딤즈데일은 여기서 인격 분열을 일으켜서 이중인격이 된다. 내면적 인간은 속에 숨어 있는 본능적 자아이다.

34 "스스로 놀라는 불행한 목사"는 평소의 이성적 자아이다. 왕조가 바뀐다는 말은 인간 딤즈데일의 통제력이 바뀐다는 의미이다.

들을 지껄이게 되지나 않을까, 그래서 자기의 본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지만 부지불식중에 그런 말을 했노라고 변명하게 되지나 않을까 하여 목사는 얼굴이 재처럼 하얘지고 몸이 자꾸만 떨렸다. 그리고 이 거룩한 장로가 목사의 불경한 언사를 듣고 얼마나 대경실색할까를 생각하매 그는 한편 무서우면서도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거의 참을 수가 없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다. 분주히 길을 걸어가던 딤즈데일 목사는 신자 중 가장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났다. 종교심이 지극한 모범적인 노부인이었다. 가난하고 쓸쓸한 과부라 마치 공동묘지에 유서 깊은 비석이 가득 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슴속에는 죽은 남편과 어린아이들, 여러 해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친구들의 추억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 같으면 무거운 비애가 되었으련만 이 여자에게는 종교적 위안과 성경의 진리—삼십 년 이상 그는 부절히 성경의 진리를 섭취하고 있었다—로 말미암아 열렬한 영혼에 대한, 거의 엄숙한 기쁨으로 변하고 있었다. 딤즈데일 목사가 그를 담당하게 된 이래로 이 훌륭한 노파가 지상 생활에서 받는 가장 큰 위안은—지상의 위안이 또한 천상의 위안이 되지 못한다면 이 노파에게는 전연 위안이 되지 않는다—우연하게든지 또는 일부러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든지 그의 목사를 만나서 향기롭고도 따뜻한 하느님의 입김이 배어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다정한 목사의 입술로부터 어두운, 그러나 열렬하게 정신 차리고 있는 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목사의 입술이 노파의 귀에 와서 닿는 순간까지, 영혼 불멸을 반대하는 짧고 신랄하고 단정적인 몇 마디 말밖에는 성경 문구나 기타 적절한 말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만약 그런 말이 실지로 노파의 정신 속에 주입되었더라면 이 거룩한 자매는 마치 무슨 극심한 독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을 것이다. 그때에 실제로 무슨 말을 했었는지 목사는 조금도 생각해 낼 수가 없었다. 다행하게도 그때에 목사의 발음이 혼란하여 이 점잖은 미망인이 이해할 만한 분명한 사상을 전연 전달하지 못하고 말았다. 혹은 또 하느님의 섭리가 그 말들을 적당히 해석해서 들려주었는지도 모른다. 목사가 뒤돌아보았을 때에 그는 확실히 주름살이 쭈글쭈글하고 재처럼 흰 노파의 얼굴 위에 마치 천국의 도시로부터 오는 광명처럼 빛

나는 신성한 감사와 감격의 표정을 발견했다.

또다시 이러한 사건이 세 번째로 있었다. 늙은 신자와 작별한 뒤에 그는 신자들 중 가장 젊은 자매와 만났다. 이 처녀는 딤즈데일 목사가 밤을 새우고 난 다음날 주일에 그의 설교를 듣고 신자가 된 여자였다. 그날 설교의 내용은 뜬세상의 향락과 천당의 희망을 맞바꾸어라, 인생이 차츰 어두워지면 그 희망은 더욱 빛나리라. 그리고 마지막 영광으로써 순연한 암흑을 금칠하리라 하는 것이었다. 그 처녀는 과거의 낙원에 피었던 백합처럼 곱고 순결했다. 목사는 순결무구한 이 처녀가 그의 가슴속 신성한 사당 속에 자기 자신의 초상을 모셔 놓고, 그 초상화 변두리에다 눈처럼 흰 커튼을 늘이고 종교에다 사랑의 온정미를 주는 동시에 사랑에다 종교적 순결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에 사탄은 분명 이 가엾은 처녀를 그의 어머니 곁에서 유인해 내다가 몹시도 유혹받는 이 사나이—타락하여 절망에 빠진 사나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가 걸어가는 길 위에 던져두게 되었다. 처녀가 가까이 올 때에 악마의 괴수는 그의 귀에다 속삭여 말하기를 이내 검은 꽃이 피고지면 검은 열매를 맺을 악의 씨를 조그맣게 줄여서 연약한 저 처녀의 가슴속에다 떨어뜨리라 하였다. 자기를 철저히 믿고 있느니만큼 이 처녀의 영혼에 대한 자기의 세력은 참 크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지 못한 눈초리로 한 번만 쏘아보면 천진난만한 동산의 초목들을 죄다 말려 버리고, 말 한 마디로써 순진한 것을 전연 반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는 이때까지 참아 오던 것보다도 더 큰 인내력을 가지고 제네바 코트로 얼굴을 가리고 못 본 척하면서 분주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뒤에 남은 젊은 자매는 목사의 무례한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어리둥절했다. 처녀는 마치 자신의 주머니나 반짇고리처럼 해롭지 않은 자질구레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양심 속을 구석구석 뒤져 보았다. 그리고 이 가엾은 처녀는 있지도 않은 과실을 상상해 내서 그 과실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책하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두 눈이 퉁퉁 부어서 집안일을 보고 있었다.

목사가 이 마지막 유혹에 이기고 난 것을 스스로 축하할 겨를도 없이 그는 또 별개의 충동—좀 더 우스꽝스럽고 거의 같은 정도로 무서운—을 받았다. 그것은 말

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서 놀고 있는,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나쁜 말을 가르쳐 주고 싶은 충동이었다. 목사복의 체면을 보아서도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충동을 물리치고 났을 때에 그는 술 취한 뱃사공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스패니쉬메인 지방에서 온 뱃사공의 한 사람이었다. 다른 모든 악을 용감하게도 단념했으니까 적어도 여기서 얼굴이 시커먼 무뢰한과 악수를 하고 음란한 뱃사공들이 풍부히 가지고 있는 망측스러운 농담이나 몇 마디하고, 재미나고 아무 거리낌도 없고 착실하고 속이 시원하고 하느님을 무시하는 쌍소리를 연발해서 흥취를 삼아 볼까 했다. 이 위기를 무사히 돌파하게 된 원인은 무슨 고원한 원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천성 타고난 고상한 취미와 목사의 예절을 지키는 엄격한 습성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의 정신을 침노하고 나를 유혹한 자는 무엇이냐?" 목사는 마침내 길 위에서 발을 멈추곤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치면서 부르짖었다. "내가 미쳤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악마에 팔려갔단 말인가? 숲 속에서 악마와 계약을 하고 내 피로 서명을 했단 말인가? 그래서 지금 악마는 그가 상상해 낼 수 있는 갖은 악행을 실행하라고 나에게 제안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딤즈데일 목사가 이렇게 자문자답하고 손으로 이마를 때리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유명한 마녀 미스트레스 히빈스가 그의 곁을 지나갔다고 한다. 그 여자가 어마어마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높은 두건을 쓰고, 호화스러운 우단 치마를 입고, 그와 특별히 친한 앤 터너(Ann Turner)가 토마스 오버버리(Thomas Overbury) 암살 사건 때문에 사형 집행을 받기 바로 전에 그 비결을 가르쳐 준 주름 깃—누른 풀을 먹여 뻣뻣하다—을 달고 나왔다. 마녀가 목사의 심중을 알아차렸는지 못 알아차렸는지는 모르나 그의 앞에 와서 딱 정지하더니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의 얼굴을 쏘아보고 능글맞게 빙그레 웃었다. 이 여자는 평소에 목사들과 이야기 할 생각은 꿈에도 없는 여자이지만, 이렇게 딤즈데일 목사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지, 그저 목사님도 숲 속에 찾아갔더랬죠!" 마녀는 목사를 향하여 높은 두건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요 다음번에는 좀 미리 알려 주세요. 그러면 내 자랑삼아 동행해 드릴 테니까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 말 한 마디면 어떤 초면일지라도

당신이 잘 알고 계시는 저 산속의 왕(악마)한테서 환영을 받게 될 겁니다.”

“마님” 하고 목사는 지극히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이 부인의 지위도 지위려니와, 목사 자신의 가정교육이 이렇게 공손한 말을 쓰게 하였다. “저는 제 양심과 성품에 걸고 맹세합니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산속의 왕을 만나러 숲으로 갔던 것은 아닙니다. 또 장래에도 그러한 인물로부터 환영을 받기 위하여 숲을 찾아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던 이유는 저의 거룩한 친구인 엘리엇 사도를 만나 그가 이교 세계로부터 구제해 온 다수의 귀중한 영혼들을 그와 함께 기뻐하자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하하!” 마녀는 여전히 목사를 보고 높은 두건머리를 끄덕이며 암탉이 우는 듯한 꺡꺡 소리를 내면서 웃어댔다.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들은 백주에는 으레 그런 점잖은 소리를 하기 마련이죠. 참 능란하십니다. 하지만 밤중이나 숲 속에서는 또 이야기가 딴판이라니까요.”

마녀는 노부인다운 점잔을 빼면서 지나갔다. 그러나 자주 돌아보면서 그를 보고 웃었다. 그것은 마치 내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보고 알았다는 듯 웃는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내 자신을 저 악마에게다 팔아 버렸구나!” 목사는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의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저 누른 풀을 먹인 주름깃과 우단 치마를 입은 저 마녀가 자기의 임금이며 낭군으로 선택한 그 악마!”

타락한 목사! 그는 바로 이러한 계약을 이미 맺었던 것이다. 행복한 꿈에 유혹을 받아 그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바 죄악에 일부러 굴복했는데, 이것은 전에는 없던 일이다. 그 죄악의 독소가 순식간에 그의 도덕 체계 전체로 퍼지고 말았다. 그것은 축복받은 감정을 모두 다 마비시키고, 그 대신 좋지 못한 감정의 족속을 싱싱하게 활동시켰다. 멸시, 원한, 까닭 없는 악의, 까닭 없이 남을 해치려는 욕망, 선하고 신성한 것이면 무엇이나 비웃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모든 것들이 눈을 뜨면서 그를 유혹했다. 그는 스스로 놀라면서도 그 유혹을 받았다. 미스트레스 히빈스와 길에서 만났다는 것이 만약 현실적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인간들과 간악한 망령들의 세계에 대한 그의 공감과 우정을 증명하는 데 지나

지 않는 것이었다.

이때에 벌써 그는 공동묘지 맨 끝에 있는 자기의 주택에 도착했다. 그는 급히 층계를 올라가서 서재 속에 숨었다. 거리를 지나오는 도중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던 괴상망측한 충동들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성을 폭로시키지 않고 집까지 돌아오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했다. 그는 낯익은 방에 들어가서 주위를 돌아다보았다. 그는 산골에서 거리로 나오는 도중, 거리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도중 줄곧 그의 정신을 침노하던 신기한 감각을 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책들과 창들과 벽난로와 벽전이 걸려 있는 아득한 벽을 바라다보았다. 여기서 그는 연구하고 저술했다. 여기서 그는 단식과 철야기도를 행하였고, 그것이 끝날 때에는 반송장이 되어 나왔었다. 여기서 기도하려고 분투했었고, 무수한 고민을 겪었다. 저기에 성경이 있다—풍족한 고대 히브리어로 쓴 성경. 모세와 예언자들이 나와서 직접 그에게 말을 하고 하느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경! 저기 책상 위에는 잉크가 묻은 펜이 옆에 놓인 채 완성되지 않은 설교 원고가 있다. 문장이 중간에서 끊어지고 말았는데, 이틀 전에 그의 사색은 여기에서 딱 막히고 말았다.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당선 축하 설교 원고를 써 내려온 초췌하고 안색이 창백한 목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멀리 떠나서 과거의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듯, 동정하는 듯, 그러면서도 한편 부러워하는 듯한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싶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별개의 인간이 숲에서 돌아왔다. 단순하던 과거의 자기 자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숨은 신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좀 더 지혜로운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 지식이란 쓰디쓴 종류의 지식이었다.

이러한 사색에 묻혀 있을 때 문에 노크 소리가 났다. 목사는 “들어오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슨 마귀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심이 없지도 않았다. 과연 마귀가 들어왔다. 들어오는 사람은 로저 칠링워스였다. 목사는 말없이 창백한 얼굴로 한 손은 히브리 성경 위에다 얹고, 또 한 손은 가슴 위에 펼치고 서 있었다.

“선생님,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의사는 말했다. “그래, 엘리엇 사도는 어떻게

나 지냅디까? 그러나 선생님, 신색이 좋지 못합니다. 아마도 광야의 여행이 고되었던 모양이죠. 내일 당선 축하 설교를 하시려면 원기를 회복시켜 드리는 데 제 간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오. 그럴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딤즈데일 목사는 대답했다. “오래 서재에 갇혀 있다가 길을 걷고, 거기 있는 거룩한 사도를 만나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하니 대단히 기분이 상쾌합니다. 물론 선생께서 친절하게 지어 주시는 거지만, 다시는 선생의 약이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아까부터 로저 칠링워스는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엄숙하고도 열렬한 시선으로 목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외면적으로 가장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자기가 헤스터 프린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적어도 자신 있게 추측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의사도 또 목사가 보는 것에 자기가 벌써 신뢰를 받는 친구가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판명된 이상 그 일부분을 발표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우리라 생각했다. 언어가 사실을 구체화하기까지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다. 또 어떤 문제를 서로 회피하려고 하는 두 인간이 그 문제의 바로 곁에까지 가면서도 정작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물러난다는 것도 기묘한 일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버티고 있는 진정한 입장에 관해서 로저 칠링워스가 명백한 말로써 건드리리라고 목사는 근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그 내숭스러운 방식으로 무섭게 비밀로 다가들었다.

“오늘 밤에는 제 의술을 이용하심이 좋지 않을까요?” 그는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당선 축하 연설이라고 하는 중대한 행사를 위해서 근력이 왕성하시도록 우리는 참으로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선생에게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그들의 목사는 떠날지도 모른다고 근심들하고 있는 모양이니까요.”

“옳습니다. 딴 세상으로 떠납니다.” 목사는 공경스러운 단념을 가지고 대답했다. “그 세상이 제발 좋은 세상이 되어 주었으면 좋으련만! 사실 나는 앞으로 일을 또 나의 양 떼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지체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선생의 약은, 친절한 말씀입니다만 현재의 내 체질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반갑습니다." 의사는 대답했다. "이때껏 오랫동안 약을 써도 아무 효력도 없었던 것이 요새에 와서 비로소 효험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일 이 치료에 성공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며 또 뉴잉글랜드의 감사를 받을 자격이 충분할 것입니다."

"다념(多念)도 하십니다,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는 엄숙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기도로써 선생의 선행에 보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한 사람의 기도는 순금의 보상이 됩니다!" 로저 칠링워스는 물러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주조인(鑄繰印)이 찍혀 있는 신 예루살렘의 금화입니다!"

의사가 나가고 혼자 있게 되자, 목사는 하인을 불러 식사를 명했다. 식사가 그의 앞에 준비되었을 때에 그는 욕심 사납게 먹었다. 그 뒤에 이미 다 된 당선 축하 설교 원고를 불에 집어넣고 즉시에 새로 착수했다. 무슨 영감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도 생각할 만큼 사상과 감정이 흘러나와 순식간에 써 내려갔다. 하느님이 자기와 같이 비열한 풍금을 통해서 그 장엄하고 엄숙한 선탁(宣託)의 음악을 인류에 전달시키는 것을 적당하다고 보신 것이 이상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비밀은 자연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혹은 영구히 미해결로 남겨 두고, 그는 심히 분주하게 황홀한 정신 상태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갔다. 밤은 마치 날개 있는 말이고, 그는 그 말을 타고 달리는 것처럼! 어느덧 밤이 새고 아침이 와 커튼 틈으로 엿보고 낮을 붉혔다. 마지막으로 아침 해가 황금빛 광선을 서재 속으로 던지매 목사는 몹시도 눈이 부셨다. 아침 햇볕을 쪼이며 목사는 앉아 있었다—두 손가락 사이에 펜을 잡고, 곁에다가는 무수한 원고를 쌓아 놓고!

21. 뉴잉글랜드의 시제일(視祭日)

새 장관이 백성들의 손으로부터 직권을 받게 되는 날, 아침 일찌감치 헤스터 프린과 어린 펄은 장터로 들어왔다. 장거리에는 장인(匠人)들과 기타 평민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었다. 그중에는 투박스럽게 생긴 사람들도 섞여 있었는데, 그들의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은 그들이 이 식민지의 조그만 수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삼림 거류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과거 칠 년 동안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매양 그러했지만 오늘 이 공식 축제일에도 헤스터는 험한 회색빛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빛보다도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독특한 옷 모양이 이 여인의 개성을 전연 사라지게 하는가 하면, 그 반면에 주홍 글씨가 희미한 그늘 속으로부터 이 여인을 도로 불러내다가 도덕면을 암시하는 그 광명 속에 폭로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 거리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눈에 익은 얼굴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전에 보던 그대로 대리석 같은 고요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가면 같았다. 혹은 죽은 여자의 얼굴에서 오는 싸늘한 무표정이었다. 얼굴이 이렇게도 처참하게 주검을 연상시키는 원인은, 이 여자가 세상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죽어 이 세상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에 있다.

바로 이날 헤스터의 얼굴 속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혹은 세상 사람들이 발각할 만큼 선명하지는 못한 어떤 표정이 나타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표정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는 관상가가 먼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내고 그다음에 얼굴 위에 나타나 있는 그 마음의 특징을 찾아본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 정신적인 예언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표시로서, 또는 그것을 참는 것이 엄중한 종교적 의무라고 생각해서 비참한 칠 년 동안 뭇사람의 주목을 받아 온 끝에 지금 최후로 다시 한 번 자유로이 자진해서 군중의 시선과 맞섰는데, 그 목적은 과거에 고민이었던 것을 승리로 바꾸는 데 있었다. 군중의 피해자이며 평생의 노예(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가 되는 이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른다. "주

홍 글씨와 그 주홍 글씨를 달고 있는 여인을 마지막으로 보아 두어라! 몇 시간만 지나면 그 여인은 너희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리라! 몇 시간 후에는 깊고 신비로운 바다가 너희들이 가슴에 채워주었던 표적의 불을 꺼버리고 영원히 감추리라!" 자기의 생존과 깊게 맺혀진 고통으로부터 장차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이 순간에 헤스터의 마음속에는 섭섭한 감정이 있었다고 추측한대도 그것은 인간성에 대한 과히 어긋난 추측은 아닐 것이다. 혹은 또 이 여인이 나이 들면서부터 항상 그 냄새에 젖어서 지내오던 쑥과 노회(蘆薈)의 쓰디쓴 약 잔을 마지막으로 숨도 쉬지 않고 쭉 들이켜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욕망이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까? 앞으로 이 여인 입술에 바쳐질 인생의 술은 양각(陽刻) 순금 술잔에 부은 참으로 진하고 맛있고 즐거운 술이 아니어선 아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준한 감로주에 취하듯이 이 여인이 쓰디쓴 술찌끼를 마셔오던 끝에 피할 수 없는 권태를 남기고 말 테다.

펄은 화려하게 차리고 있었다. 눈부시게 환한 정령 같은 이 어린아이가 침침한 회색 형체〔헤스터〕의 몸에서 생겨났다고 추측하기는 전연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또는 이 어린아이의 옷을 꾸며내는 데 필요했던 현란하고도 섬세한 상상력이 좀 더 곤란한 사업—헤스터의 소박한 옷에다가 그렇게도 뚜렷한 특징을 주는 데 성공한 것과 동일한 상상이었다고 추측하기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어린 펄의 몸에 그렇게도 잘 어울리는 그 옷은 이 어린아이의 성격이 천연적으로 흘러나와 외부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발전상이었기 때문에 나비의 날개나 고운 꽃의 화판으로부터 그 다채로운 광택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옷과 성격을 분리하기는 불가능했다. 자연계의 동물과 식물이 그러한 것처럼 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였다. 이 어린아이의 복색은 그 성질과 동일한 이념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중대한 행사가 있는 이날 어린아이의 기분은 몹시도 설레고 흥분했었다. 그 기분은 무엇보다도 다이아몬드—그 보석을 가슴에다 차는 사람의 높고 얕은 심장 고동에 따라 천태만상으로 반짝반짝 번들번들하는 다이아몬드—와 비슷했다. 애들이란 자기들과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의 흥분 속에서 언제나 공감을 갖기 마련이다. 특히 집안에 무슨 환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때나, 또는 어떤 변동이 절박했다는 것을

눈치챈 때에 그러하다. 그래서 펄은 어머니의 불안한 가슴 위에 매달려 있는 보석이니만큼 헤스터의 이마에 나타난 대리석 같은 무표정 속에서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정신의 무용으로써 표현하고 있었다.

희희낙락한 기분으로 말미암아 펄은 어머니 곁에서 걸어간다기보다는 새처럼 뛰어다니고 있었다. 쉴 새 없이 빽빽 소리를 지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귀를 찌를 듯한 음악 소리를 내었다. 장거리까지 다 왔을 때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며 그 장소 일대에 활기가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는 한층 더 기분이 흥분되었다. 이 장소는 평소에는 거리의 상업 중심지라기보다는 어떤 시골 집회소 앞의 쓸쓸한 풀밭 같았기 때문이다.

"와, 엄마, 이거 웬일이에요? 뭣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은 모두 다 일을 쉬고 나와 있나요? 오늘은 온 세상이 휴일인가요? 자, 보세요. 저기에 대장장이가 있어요! 숯에 그을린 얼굴을 오늘은 아주 말쑥하게 씻고, 주일 나들이옷을 차려입고, 누가 친절하게 웃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나도 한번 웃어 보겠다는 듯한 얼굴이에요! 전옥(典獄) 미스터 브래킷도 와 있군요! 저 사람은 왜 나를 보고 머리를 끄덕거리며 싱글싱글 웃나요?"

"갓난아기 때의 너를 알고 있으니까 웃는 거다." 헤스터는 대답했다.

"그래두 날보고 머리를 끄덕거리며 싱글싱글 웃는 거 나는 싫어요. 얼굴이 꺼멓고 침침하고 눈이 흉악한 저 노인이!" 펄은 말했다. "웃고 싶거든 엄마 보고나 웃지! 엄마는 회색 옷을 입고 주홍 글씨를 달았으니까. 그런데 엄마, 낯선 사람이 참 많아요. 인디언들도 있고 뱃사공들도 있고! 저 사람들은 뭘 하러 이 장거리에 와 있나요?"

"저 사람들은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헤스터는 대답했다. "지금부터 새 장관 이하 여러 관리들이 행차하신단다. 그리고 목사들과 그 밖에 높은 어른들과 훌륭한 양반들이 악대와 군인들을 앞세우고 행진한단다."

"그러면 그 목사님도 나오시나요?" 펄은 물었다. "그리고 엄마가 저 냇가에서 나를 데리고 갔을 때처럼 엄마와 나의 손을 잡아 주실까요?"

"그분도 오신다." 어머니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들을 보고도 아는 체

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너도 그분에게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참 이상하고 슬픈 양반이에요, 그분은!" 어린아이는 반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밤에는 저기 있는 저 형대 위에서 우리들이 그분과 같이 섰을 때처럼 우리들을 곁으로 오라 하고 손을 잡아 주죠. 그리고 듣는 귀라고는 늙은 나무들밖에 없고, 보는 눈이라고는 나무 틈으로 엿보이는 좁은 하늘밖에 없는 깊은 숲 속에서는 이끼 방석 위에 앉아서 엄마와 이야기하죠! 또 내 이마에다 키스도 해 주시죠. 시냇물에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는 키스를! 그러나 환한 대낮 길거리,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우리를 모르는 체하죠. 또 우리가 그 양반을 아는 체해도 안 되고! 언제나 가슴 위에다 손을 얹고 있는 그분은 참 이상하고도 슬픈 양반이에요."
"좀 잠자코 있어라, 펄! 너는 아직도 이런 일들은 이해하지 못해." 어머니는 말했다. "지금은 목사님 생각은 말고 네 주위를 돌아다보아라. 모든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유쾌한가를 보아라. 애들은 학교에서 오고 어른들은 공장과 밭에서 왔다. 다들 즐기려고 일부러 왔다. 오늘은 새 장관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날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류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던 시대 이래의 관습대로 사람들은 재미나는 노름을 하고 즐거워한다. 마치 빈약한 구(舊) 세계는 마침내 끝나고 좋은 황금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전에 없는 기쁨으로 사람들의 얼굴이 환히 빛나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은 헤스터가 말한 그대로였다. 이것은 벌써부터 있는 일이었고 또 이 세기 반의 대부분을 계속해 내려온 일이지만, 청교도들은 약한 인간성에 대하여 이것쯤은 용서해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즐거움과 공적인 기쁨을 일 년 중에 하루밖에 없는 오늘 이 축제일 속에다 압축했었다. 이날만은 평소의 침울한 구름을 헤쳐 버린다. 그런댔자 다른 사회 같으면 무슨 전체적인 고난의 시기를 당한 때의 표정만큼이나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검고 칙칙한 색채는 분명히 이 시대의 기분과 풍습의 특색이었지만, 우리들은 확실히 그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보스턴 장거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침울한 청교도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아버지들이 명랑 현란한 엘리자베스 시대에 살고 있던 순 영국 태생들이었

다.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민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개관할 때에 영국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위풍당당하고 장엄하고 유쾌한 시대였다. 만약 그들이 선천적인 취미대로 갔다면 뉴잉글랜드의 이주민은 공적으로 중요한 무슨 행사가 있을 때에 불놀이와 연회와 꽃수레와 행렬 같은 것으로써 단장했을 것이다. 또 엄숙한 예식을 지킴에 있어 유쾌한 오락과 엄숙한 기분을 결합하고, 말하자면 이러한 축제날에 국민이 몸에 걸치는 대례복에다가 기괴 현란한 수를 놓는 것쯤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식민지의 정치력(政治曆)이 시작되는 이날을 축하하는 방식 속에는 이런 종류의 치장을 해 보려고 한 자취가 약간 나타나 있었다. 영국 왕의 대관식까지는 몰라도 런던 시장의 취임식 때에 그들이 사랑스럽고 그리운 런던에서 본 광경의 자취를 이곳 식민지의 조상들이 매년 장관 취임식에 관해서 창설해 놓은 관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찬란하던 기억을 더듬어 이모저모로 흉내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낡고 광택이 사라졌다. 이 나라의 건국 조상들—정치가, 목사, 군인 등—은 외모를 갖추고 위엄을 차리는 것을 일종의 의무로 생각하고 있었다. 구식에 의하면 이런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마땅히 입어야만 하는 복색이라고 간주되어 있었다. 모두들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렬에 참가하고 이리해서 새로 건설된 정부의 간소한 테두리에다가 필요한 존엄미를 부여하려고 했다.

또 평소에는 종교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엄중한 근로의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날 그 실시를 다소 완화한다는 것을 별로 장려하지는 않지만 묵인해 주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나 제임스 왕 시대의 영국 같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었던 민중 행락의 모든 시설이 이곳 식민지에는 하나도 없었다. 극장의 성질을 띠는 추잡스러운 흥행도 없었다. 수금(竪琴)을 가지고 전설의 가요를 부르는 소리꾼도 없었다. 음악에 맞추어 원숭이가 춤을 추게 하는 광대도 없었다. 마술을 흉내 내는 요술사도 없었다.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재담가도 없었다. 이 재담이라는 것은 무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는 것이지만 웃기를 좋아하는 일반 대중의 심리에 호소하는 것이라서 아직도 효력이 있었다. 재주를 부리는 이 여러 가지 부문의 전문가들은 법률에서 엄금될 뿐만 아니라 법률에다 생

명력을 주는 일반 국민의 감정으로도 엄금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위대하고 정직스러운 얼굴들은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다소 심각하지만 희색이 만연하다. 스포츠도 없지는 않았다. 오래전 영국 장거리나 시골 풀밭에서 혹은 구경하고 혹은 직접 참가도 해 본 스포츠들이었다. 일반 주민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용기와 담력을 위해서 이러한 스포츠를 새로운 땅에다 살려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국 콘월(Cornwall) 지방과 데본샤이어(Devonshire) 지방에서 유행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씨름을 장거리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한 모퉁이에서는 목검 시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소설의 독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형단 위에서는 두 명의 검술선생이 방패와 진검을 가지고 시합을 시작하여 구경꾼의 흥미를 가장 많이 끌고 있었다. 그러나 형리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 시합은 중지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신성한 장소를 이렇게 남용함으로써 법률의 존엄성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형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식민지 백성들은 한참 시절에 유쾌하게 지낼 줄 알고 있던 영국 조상들의 자손들이고, 또 아무 흥취도 없는 청교도의 예절이 갓 시작되던 때의 사람들이라, 축제일을 지키는 점에 관해서 우리들처럼 시대가 퍽 뒤떨어진 후손들과 비교할 때에 대체로 그들이 나은 편이었다고 주장한대도 그다지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들의 직손, 다시 말하면 초기 이민들의 다음 세대 사람들은 청교도주의의 가장 암흑한 색채를 띠고 그것으로써 국민의 용모를 컴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후 몇 해가 걸려도 그 얼굴을 명랑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우리들은 잃어버린 향락의 방법을 앞으로 배우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장거리에 나타나 있는 인생 생활도(生活圖)는 그 전반적인 색채가 영국 이민들의 회색 또는 밤색이 아니면 흑색이었지만, 약간 다채한 색채로 말미암아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인디언의 일행이 사슴 가죽에다 기묘한 수를 놓은 그들만의 화려한 복색을 입고 조개껍데기를 꿰서 만든 띠를 띠고, 몸에다 주황색 흙칠을 하고, 머리에다 새 깃을 달고, 활과 살과 석창(石槍)으로 무장을 하고 한편에 떨어져 서 있는데 청교도도 감히 따르지 못할 만큼 딱딱하고 엄숙한 얼굴 모양을 차리고들 있었

다. 울긋불긋 칠을 한 이 인디언들은 야만인이라고는 하지만 이 자리에 나타나 있는 중 가장 야만적인 얼굴들은 아니었다. 가장 야만적이라는 명예는 일부 뱃사람들이 당연히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날 선거일의 구경을 하려고 일부러 상륙한 스패니쉬메인 지방에서 온 뱃사공들의 일부분이었다. 해에 탄 얼굴에다 굉장한 수염을 달고 있는 험상궂은 무뢰한들이었다. 그들의 통이 넓고 짧은 바지는 허리띠로 졸라매고, 군데군데 거칠거칠한 금판때기로 찍어맸다. 그리고 허리에는 항상 긴 나이프를 차고, 때로는 군도를 찼다. 파초 잎으로 만든 챙이 넓은 모자의 그늘 아래 두 눈알이 섬섬한데, 온화하고 유쾌할 때에도 동물적인 영악성이 있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서슴지 않게 위반했다. 형리 바로 코 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거리 사람 같으면 한 모금에 1실링씩 벌금을 바쳐야 할 일이다. 주머니용 술병에서 술이나 주정을 따라서 마음대로 마시며 주위에서 입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권했다. 우리들은 이 시대를 엄격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바닷사람들에게 행동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도덕이 아직도 불완전했었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기분을 내는 데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상인 바다에서 좀 더 난폭한 짓을 하는 데 대해서도 자유가 허락되어 있었다. 그 시대의 선원은 현대로 치면 해적으로 몰릴 만한 짓을 하는 것이 예사였다. 예를 들면 바로 이 배의 선원들만 해도 바다를 왕래하는 족속 중에서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털어놓고 말하면 스페인 상선들을 약탈한다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 현대 재판소에서 재판을 한다면 모두 다 목이 달아날 일이었다.

그러니 그 시대의 바다는 제멋대로 높아지고 물이 차고, 거품이 일고 했다. 인간의 법률을 가지고 단속해 보자는 노력은 전연 없었고, 다만 폭풍의 지배를 받을 뿐이었다. 바다 위에서 해적 노릇을 하던 자가 그 직업을 버리고 스스로 원한다면 바로 육지로 올라가서 청렴 정직하고 경건한 신사가 될 수도 있었다. 일평생 난폭한 뱃사공을 본업으로 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거래하거나 간간이 상종하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은 장옷을 입고 풀 먹인 띠를 띠고 운두가 뾰족한 모자를 쓴 청교도 장로들이 이들 유쾌한 바닷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와 무례한 행동을 보고도 그저 너그럽게 웃고 지냈다. 그래서 의사 로저 칠링워스와 같은 점잖은 사람이 수상한 배의 선장과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장거리로 들어와도 놀라운 감정이나 비난 소리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나중 보이는 사람은 복장에 한해서는 군중 어디를 가 보아도 가장 화려하고 늠름한 차림이었다. 그는 옷에다 무수한 리본을 달고, 모자에다 금실 레이스를 두르고, 순금 사슬을 감고, 꼭대기에다가는 새의 깃을 꽂고 있었다. 허리에는 칼을 차고, 이마에는 칼로 인한 흉터가 있었다. 머리카락은 일부러 손질해서 그 상처를 숨기려는 것보다는 도리어 자랑삼아 보이려고 하는 듯싶었다.
육지 사람이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얼굴 모양으로 뽐내고 다녔다면 법관 앞에 가서 문초를 받고 십중팔구는 벌금을 바치거나 구금을 당하거나, 잘못하면 칼을 쓰고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여튼 무사히 지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선장에 한해서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물고기에 비늘이 달린 것처럼 이 사람의 천성에 부속되는 것이라고 보고들 있었다.
의사와 작별한 뒤에 브리스틀로 가는 배의 선장은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장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헤스터 프린이 서 있는 곳에 가까이 왔다. 그는 여자를 알아보고 서슴지 않고 말을 걸었다. 헤스터가 서 있는 곳이면 어디나 조그만 공간—일종의 마력권(魔力圈)이 늘 주위에 생겨났다.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서 서로 팔꿈치로 꾹꾹 찌르고 야단들이지만 감히 그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주홍 글씨가 그 숙명적인 주인공을 둘러싸고 마는 도덕적 고립의 한 유력한 표본이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의 절반은 헤스터 자신의 신중한 데 있었고, 절반은 동포 인간들이 벌써 특별히 불친절하다는 것은 아니나 본능적으로 물러가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왕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헤스터와 뱃사람이 남한테 들리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주홍 글씨가 대단한 생색을 내었다. 세상 사람들 안목에 헤스터 프린의 평판은 아주 일변했었기 때문에, 설혹 도덕심이 견고하기로 거리에서 가장 이름이 높은 부인이 이렇게 뱃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무슨 소문거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머니" 하고 선장은 말했다. "당신이 계약한 것보다는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하도록 급사장에게 명령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뱃길에 괴혈병(壞血病)이나 티푸스의 염려는 없습니다! 원래 배에는 외과 의사가 한 명 있었던 데다가 이번에 또 이 내과 의사가 들어오니까 아무 염려도 없을 테고, 만약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약품이나 환약에서 오는 위험일 겁니다. 그 증거로서 내가 스페인 상선과 무역한 약품이 배에 잔뜩 실려 있습니다."[35]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헤스터는 표면으로는 심상한 듯하나 내심으로 퍽 놀라면서 물었다. "또 한 명 승객이 있단 말씀입니까?"

"아, 여기에 사는 의사—자기 말로 칠링워스라고 합디다만—가 당신네들과 같이 우리 배를 타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왜 아실 텐데. 그 사람의 말이 자기는 당신네들과 일행이며 또 당신이 말씀하시던 신사의 친구라고 하던데요. 그 신사는 이곳 성악(性惡)스러운 늙은 청교도 관리들에게 박해를 받아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면서요!"

"사실 두 사람은 서로 잘 알고 있죠." 헤스터는 가슴이 서늘했지만 표면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래 같이 살아왔으니까요."

선장과 헤스터 프린 사이에 이 이상 이야기는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로저 칠링워스가 장터 먼 한편 모퉁이에서 자기를 보고 빙그레 웃고 있는 것을 헤스터는 보았다. 그 웃음은 사람이 들끓는 넓은 마당을 건너고 군중의 이야기 소리, 웃음소리, 잡다한 사상과 기분과 흥미를 뚫고 나오면서 내밀하고도 무서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35 약이 너무 많아서 의사들이 잘못 쓰던가, 혹은 극약을 함부로 쓰든가 하면 위험하다고 약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만, 헤스터는 이 선장의 말을 좀 더 심각하게 해석하며, 독살을 연상했을지도 모른다.

22. 행렬

헤스터 프린이 정신을 수습해 가지고 새롭고 놀라운 이 판국에서 장차 해야 할 실현성 있는 일을 미처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이웃 거리로 가까이 오는 군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교당을 향해서 가는 관리들과 시민들의 행렬이 진행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교당에서는 관례에 따라서—그 관례는 이렇게 초기부터 제정되었으며 그 후도 늘 지켜 왔다—딤즈데일 목사가 선거연설을 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얼마 안 가서 행렬의 선두가 나타났다. 행렬은 느릿느릿하고도 당당한 보조로 길목을 돌아 장터를 건너오고 있었다. 맨 처음에는 악대가 나타났다. 악대는 각종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악기들은 서로 음조가 잘 맞지 않고, 또 연주하는 기술도 그리 대단한 것은 못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북과 클라리온의 조화가 군중에게 호소하는 그 위대한 목적—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들 눈앞에 지나가는 생활 장면에다 좀 더 높고 좀 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는 목적에 도달하고 있었다. 어린 펄은 처음에는 손바닥을 두드렸지만, 아침나절 희희낙락해서 날뛰던 흥분 상태를 잠시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 아이는 묵묵히 바라다보면서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길게 높아지고 팽창하는 군악 소리를 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악대 뒤에 따라오는 의장병대(儀仗兵隊)의 병기와 갑옷들 위에 태양 광선이 섬섬하게 빛나는 것을 보자 또다시 앞서 기분으로 끌려 내려왔다. 이 병대는 지금도 단체 생활을 유지하고 고대로부터 유서가 깊은 명예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지만 결코 고용병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군대는 아니었다. 대열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신사들이었다. 그들은 군인 감정의 약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 일종의 문장료(紋章寮)[36]를 설립하고자 하고들 있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마치 템플 기사단

36 문장료(紋章寮)는 영국왕 리처드(Richard) 3세 때(1483년)에 창설된 기관이다. 군인상권(軍人賞勸)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그 중요한 목적이었다.

(Knights Templars)[37]의 단원들처럼 병학(兵學)을 배우고 평시의 연습이 가리킬 수 있는 데까지 병술도 배울 목적이었다. 그 시대에 군인 성격에다 얼마만큼 높은 존경을 두고 있었는지는 이 군단의 개개 군인들의 의기충천한 기상 속에 나타나 있었다. 그들의 일부는 유럽 네덜란드 기타의 전장(戰場)에 근무하여 군인이라는 명칭을 갖고 그 화려한 복장을 차릴 수 있는 자격을 정정당당하게 벌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번들거리는 갑옷을 입고 찬란한 투구 위에 새 깃을 휘날리는 이 군대 전체는 보기에 현란했는데, 그것은 현대의 군복이 감히 따를 수 없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호위병대 바로 뒤에 따라오는 지위 높은 문관들은 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좀 더 많았다. 그 외모에조차 존엄한 특징이 나타나 있어, 그것과 비교하면 군인들의 거만한 걸음걸이는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는다 해도 야비해 보였다. 그 시대는 우리가 보통 재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보다도 훨씬 중요성이 적고 그 대신 안정성과 위엄을 만들어 내는 견실한 소질을 좀 더 중요시하던 시대였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존경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성질이 후손들 속에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퍽 적고, 또 공직자들을 선거하고 혹은 평가하는 데 있어 그 힘이 퍽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를 겸하는 것이 아마도 보통일 것이다. 그 옛날에 황무한 해안에 상륙한 영국 이민들은 왕과 귀족과 기타 모든 정도의 높은 지위를 버리고 왔지만 그 반면에 존경하는 마음과 존경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존경을 백발노인에 바쳤고, 오래 단련을 받은 고결한 인격에 바쳤고, 견실한 지혜와 착실한 경험에 바쳤고 무엇에나 영구적이라는 이념을 주고 또 보통 점잖다는 개념 밑에 분류되는 엄숙하고 무게 있는 종류의 소질에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브래드스트리트(Bradstreet), 엔디콧(Endicott), 더들리(Dudley), 벨링햄이니 하는 인물이 선거로 말미암아 권세에 올라간 건국 초기의 관리들은 그다지 재주가 능한 사람들 같지는 않았고, 지력의 활동보다는 무게 있는 침착성으로 말미암아 출중했

37 템플 기사단은 1118년경 예루살렘에 설립된 군사 목적을 겸한 종교단체이다. 성지순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었다.

었다. 그들은 강직한 태도와 자주적인 정신을 가졌었고, 위급한 시기를 당하면 마치 폭풍의 파도를 막아 내는 해안의 절벽처럼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들고 일어섰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격의 특징들은, 새로운 식민지 관리들의 모가 난 얼굴과 잘 발달된 장대한 체격 속에 나타나 있었다. 천연적인 품위를 갖추는 외모에 한해서 말한다면, 이들 실제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일류 인사들이 귀족원의 감투를 쓰거나 추밀원 고문관에 선임되는 것을 본대도 모국은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관리들 다음에는 젊고 출중한 목사—사람들이 바로 그의 입술에서 오늘 기념제의 종교 연설을 듣기로 기대하고 있는 목사—가 나타났다. 그의 직업은 이 시대에 있어 정치가의 생활보다도 좀 더 두뇌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이었다. 하느님에 봉사한다는 그 높은 동기는 여기서 말하지 않더라도, 목사의 직업이란 인생의 대망(大望)을 품는 청년들의 야심을 가장 힘 있게 끌어들일 수 있는 직업이었다. 인크리스 마더(Increase Mather)[38]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사로서 성공하면 정치적 권력까지도 손쉽게 잡을 수가 있었다.

딤즈데일 목사가 뉴잉글랜드 해안에 처음으로 발을 올려놓던 때 이래로 지금 행렬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걸이와 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러한 정력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 그를 목격한 모든 사람이 관찰한 바였다. 다른 때처럼 그 발걸음은 약한 데가 없었고, 그의 몸은 구부정하지도 않았고, 또 그 손을 불길하게 가슴 위에 얹지도 않았다. 그러나 목사의 모양을 똑바로 관찰한다면 그 힘은 육체의 힘이 아닌 듯싶었다. 그것은 정신의 힘—천사가 주입시켜 주는 정신의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열렬하고 오래 계속된 사색의 용광로 뜨거운 불길 속에서만 증류될 수 있는 강력한 강심제가 활기를 도와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그의 예민한 기질이 천상을 향하여 높아지며 그를 음파에다 떠싣고 올라가는 음악에서 활기를 얻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멀거니 정신이 없어서 보는 사람은 과연 그가 음악 소리를 듣고 있는지 어떤지를 의심

38 인크리스 마더(Increase Mather 1639~1723)는 나중에 하버드 대학 총장까지 지낸 미국 교회의 거물이다. 종교 이외에 정치와 과학 방면에도 활동이 많았고, 저서는 130종이나 된다.

할 지경이었다. 과연 그의 육체는 전에 없는 힘을 가지고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어디 있었나? 그 자신의 세계—깊은 가슴속에서 장차 출발하려는 당당한 사상의 행렬을 지휘할 준비에 분주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했다. 다만 정신적인 대기가 약한 그의 몸뚱이를 안아 올리려다가 무거운 줄도 모르고 떠싣고 나가면서 그것을 자체와 같은 정신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비범한 지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병적으로 될 때에는 간간이 이러한 위대한 노력의 힘을 갖게 된다. 그들은 이 순간에다 며칠 분의 생명을 던져 넣는데, 그것이 끝나면 또다시 죽은 사람처럼 활기가 없어지고 만다.

꾸준히 목사를 바라다보고 있던 헤스터 프린은 무서운 감화력이 와서 전신을 덮어 누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또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몰랐다. 목사는 헤스터 자신의 세계와는 아무 인연도 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한 번쯤은 시선의 교환이 있으리라고 헤스터는 상상하고 있었다. 고적한 골짜기와 사랑과 고민과 이끼 돋은 나무가 있는 숲, 서로 손을 잡고 앉아서 슬프고 열렬한 이야기를 우울한 시냇물 소리와 어울리게 하던 손을 헤스터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에는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이 서로 이해하고 있었던가? 그런데 바로 저 사람이 그때의 그 사람일까? 지금 헤스터는 그를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 말하자면 화려한 음악에 싸여서 존엄하고 거룩한 장로들의 행렬에 끼어서 자랑스럽게 걸으며 지나갔다. 그의 사회적 지위도 따라갈 수 없거니와 동정심 없는 그의 사상 세계에서, 더군다나 따라갈 수 없는 세계에서 걷고 있는 그들. 헤스터는 사상을 통하여 잠깐 엿보았을 뿐이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은 망상이었다. 그리고 비록 자기는 모든 것을 역력히 꿈꾸고 있었지만 사실은 목사와 자기 사이에 아무런 인연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헤스터의 마음은 침울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헤스터 속에는 아직도 여자의 성질이 많이 남아 있어 남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었다—무엇보다도 그들의 가까워져 오는 운명의 무거운 발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분명히 들려오는 이때 남자가 이렇게 두 사람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자기는 혼자서 어둠 속에서 더듬으며 차디찬 손을 내밀지만 그를 발견할 수 없는데.

펄은 어머니의 감정을 눈치채고 그것에 응답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안간 목사가 구름 속에 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초월하여 붙잡을 수 없이 된 것 같은 분위기를 스스로 느꼈거나, 둘 중 하나였다. 행렬이 지나가는 동안 어린아이는 흥분해서 마치 장차 날아가려고 하는 새처럼 퍼덕이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행렬이 완전히 지나간 뒤에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린아이는 말했다.

"엄마, 저 목사님은 시냇가에서 제 이마에 키스해 주시던 분과 같은 목사일까요?"

"좀 잠자코 있어라, 펄!" 어머니는 귓속말로 말했다. "우리들은 언제나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장거리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같은 목사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오늘은 그분이 참 이상해 보이는데요." 펄은 여전히 말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않았으면 뛰어가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키스해 달라고 청했을 텐데. 저기 침침한 숲 속에서 했던 것처럼. 그랬으면 목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가슴 위에다 손을 얹고 나를 흘겨보면서 저리 가라고 했을까요?"

"지금 키스할 시간 없다. 그리고 키스란 건 장거리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이렇게 대답했을 테지. 그런 소리 안 하기를 잘했지 뭐야, 어리석은 아이 같으니라구!"

이와 같은 감정이지만 좀 색깔이 다른 딤즈데일 목사에 관한 감정을 표현한 사람은 저 괴벽한 사람—괴벽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광증(狂症)이라고 해야 옳을 행동과 습관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리 사람들이 좀처럼 하지 못하는 일—헤스터와 이야기한다는 일을 한 사람이 있다. 그것은 히빈스 양이었다. 오늘은 굉장히 차려입고—세 겹 깃, 수놓은 스터머커(stomacher),[39] 호화로운 우단 가운, 순금 대가리가 달린 지팡이—행렬을 구경하러 나왔다. 이 노처녀는 그 당시에 자꾸만 유행하던 마술 노름의 주동자라는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판 때문에 이 여자는 후에 생명을 잃게 되었다) 군중은 길을 비켰다. 그 호화로운 치마폭 주름 속에는 역

39 15~16세기 유행하던 옷으로 빳빳한 심(芯)을 넣고 값비싼 천이나 리본, 보석, 자수로 만든 여자의 드레스 가슴 장식을 말한다.

병이라도 들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 치맛자락이 몸에 와 닿는 것을 두려워했다.

헤스터 프린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친절심을 느끼고 있었지만, 히빈스 양이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공포심은 배가되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군중 전체가 움직여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거야 인간의 상상력 가지고 생각할 수 있나!" 노파는 헤스터에게 은근히 말했다. "저기 있는 저 목사님 말이오! 다들 지상의 성자라고 떠받들지요—또 사실 그렇게 보이죠! 지금 행렬 속에서 걸어가는 저 목사를 보고 같은 목사가 바로 며칠 전에 자기 서재에서 나와서 성경의 히브리 문구를 인파 속에서 중얼거리며 숲 속에 소풍 갔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소? 그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아아, 참, 우리들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진정 말이지 나도 그것이 같은 인간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양반(산속의 마왕)이 바이올린을 켤 때에는 지금 악대 뒤를 따라가는 다수의 신자들이 나와 같이 곡조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나는 보았어요. 인디언 마술사나 라플란드(Lapland) 마술사가 우리들과 손에 손을 잡고 춤이 벌어지는 수도 있었지요. 이 세상 물정을 아는 여자가 볼 때에는 그런 건 다 예사에요. 그렇지만 이 목사야! 헤스터 당신은 분명히 아시겠죠? 숲 속 오솔길에서 당신과 만나던 사람이 바로 저 목사였다는 것을."

"마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헤스터 프린은 대답했다. 이 노파가 미친 여자가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그렇게도 다수의 사람들과 마왕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도 놀랍고 두려웠다. "딤즈데일 목사님과 같은 유식하고 거룩한 선생님을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저는 못할 일입니다."

"피이, 왜 이러는 거야? 이 여자가. 피이." 노파는 헤스터를 대고 손가락을 내흔들면서 말했다. "내가 그렇게 자주 산에 가면서도 거기에 누가 와 있었는지를 알아맞힐 만한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시오? 알고말고. 춤출 때 머리에 썼던 화환 꽃잎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도 다 알아요! 헤스터, 난 당신이 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표적을 보았으니까. 당신이 그것을 공공연하게 달고 다니니까 문제는 없어

요. 하지만 그 목사는? 내 당신에게만 이야기하리다. 마왕이 자기의 졸병 중에서 서명날인을 하고도 딤즈데일 목사처럼 그것을 세상에 공표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볼 때엔 한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백주에 온 세상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표적을 폭로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단 말씀이에요! 대체 목사가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오? 에? 헤스터!"

"히빈스 할머니, 그건 뭔가요?" 펄이 열심히 물었다. "할머닌 그걸 보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딸아!" 히빈스는 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대답했다. "언제든 네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세상 사람들이 너는 마왕의 후손이라고 하더라! 아무 날 밤이건 날씨가 좋은 밤에 너 나하고 말 타고 너희 아버지 만나러 가지 않으련? 그러면 목사가 왜 항상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다!"

장거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웃으면서 마술 노파는 떠나가 버렸다.

그때엔 벌써 교당 안에서는 기도가 끝나고 딤즈데일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는 감정에 끌려 헤스터는 바싹 가 섰다. 신성한 건물은 초만원이어서 한 사람도 더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헤스터는 형대 바로 곁에 자리를 잡았다. 설교 소리가 충분히 귀에 들어올 만한 거리였다. 말소리는 일일이 분명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변화성이 많은, 마치 시냇물이 중얼거리며 흘러가는 것 같은 목사의 독특한 음성이었다.

목사의 성대부터가 벌써 풍족한 천부의 소질이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그 말의 의미는 하나도 모르면서도 순연히 그 음조와 억양에 끌려 자연히 몸이 앞으로 뒤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음악과 마찬가지로 목사의 음성은 인종 여하를 막론하고 인간 심정에 고유한 언어로써 열정과 비애의 감정, 높은 감정과 자애로운 감정을 호흡하였다. 말소리가 교당 담벼락을 뚫고 나오는 도중에 가려지기는 했지만 헤스터 프린은 그렇게도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도 친밀하게 공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지 않은 말들을 떠나서, 한 의미를 그에게 전해 주었다. 이 말들을 좀 더 분명히 들었다면 도리어 사상 전달의

매개로서는 불순하기 때문에 정신적 의미를 방해했을지도 모른다. 마치 바람이 저절로 가라앉는 듯한 저음이 들리는가 하면, 그다음부터 차츰 곱고 힘차게 높아지다가, 마지막에는 그 성량이 두렵고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 헤스터를 휘감아버리고 마는 것이다. 때때로 음성이 존엄한 음조를 띠기는 하지만, 그 음성 속에는 항상 구슬픈 그 본바탕 성격이 있었다.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사무치는 나직한 고민의 표현—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고민하는 인간성의 속삭임같이도 들리고 비명같이도 들렸다. 어떤 때에는 깊은 비애의 음조가 들릴 뿐이었고, 또 어떤 때에는 전연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다만 처량한 침묵 속에 탄식 소리만이 남았다. 그러나 목사의 음성이 높아지고 명령적 어조를 띨 때에도 또는 치밀어 올라오는 힘으로 쏟아져 나올 때에도, 또는 최대한도로 강해져서 교당 벽을 뚫고 밖으로 퍼져 나올 때에도, 듣는 사람이 열심히 뜻을 가지고 듣는다면 여전히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었던가? 비애와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심정이 그 비애와 죄악의 비밀을 위대한 전 인류의 심정에다 하소연하는 신음이었다. 말끝마다 동정과 용서를 빌지만 부질없이 흘러가고 마는 소리였다. 이 목사에게 적절한 힘을 주는 것은 이러한 깊고 계속적인 저음이었다.

설교를 듣는 동안 헤스터는 초상처럼 부동한 자세로 형대 밑에 서 있었다. 설혹 목사의 음성이 그를 붙들어 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장소에는 헤스터를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는 지남철의 힘이 있었다. 대저 그의 치욕의 생활 첫 순간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또 뚜렷한 사상이 되기에는 너무도 막연한 것이지만 그의 생활 궤도 전체는 전후를 통하여 이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마치 그 생활에다 통일을 주는 중심처럼 되어 있다는 의식이 헤스터의 머릿속에 있었다.

그동안 펄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장거리를 제멋대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마치 알록달록한 날개를 가진 새가 깊은 나뭇잎 속에서 절반은 숨고 절반은 나타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침침한 나무 전체를 환히 밝혀주는 것처럼, 이 아이도 잠시도 쉬지 않고 반들거리는 광채로써 침울한 군중에게 명랑한 기분을 주었다. 그 신체는 물결치듯이 부드러운 곡선을 긋다가도 별안간 예각적(銳角的)이며 불규칙한 운동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정신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특히 오늘은 어머니의 불안한 감정에 영향을 받아 발끝으로 춤을 추고 있느니만큼 더욱 피곤한 줄을 몰랐다. 항상 활동하고 방황하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무엇이 보일 때 펄은 곧 달려가서 그 사람이나 물건을 좋건 싫건 자기의 소유로 차지했다. 그렇지만 상대자가 그 답례로서 잠시라도 자기를 붙잡으려 할 때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다. 청교도들은 그 아이를 보며 미소를 띠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이 아이가 악마의 소생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토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작은 신체에서 발견되며 운동과 더불어 광채를 발하는 그 미(美)와 기괴성의 형언하기 어려운 매력을 보고 하는 말들이었다. 펄은 달려가서 인디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인디언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야생적인 자연미를 이 아이 속에서 발견했다. 그다음에는 선천적인 대담성과 그 특색 있는 신중한 성질로 뱃사공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 갔다. 인디언이 육지의 야인이라면 뱃사공은 얼굴이 검은 바다의 야인이다. 그들은 놀랍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다보았다. 그리고 바다의 물거품이 어린 계집애의 모양을 취하고, 밤에 배를 저어가면 뱃머리 밑에서 번쩍번쩍하는 바닷불의 넋을 타고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들 바닷사람 중의 한 사람—아까 헤스터 프린과 이야기하던 선장—펄의 몸맵시에 하도 탄복하여 재빠르게 키스를 할 작정으로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붙잡는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붙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모자에 감았던 순금 사슬을 벗겨 어린아이에게 던져 주었다. 펄은 금시에 그것을 목과 허리에 감았는데 그 솜씨가 어떻게도 묘하던지, 일단 감아 놓고 본즉 어린아이 신체의 일부가 되다시피 했고, 그것이 없는 펄을 상상하기는 불가능했다.

“너희 어머니는 저기 있는 저 주홍 글씨를 차고 있는 부인네지?” 선장은 말했다. “너 어머니한테 내 말 전해 주련?”

“내 맘에 드는 말이면 전해 드리죠.” 펄은 대답했다.

“그럼 말이야, 저 얼굴이 검은 곱사등이 늙은 의사를 만났더니 어머니도 잘 알고 계신 신사양반을 자기가 안내하여 배를 타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어

머니하고 너하고만 생각하면 그만이라고. 요 마동(魔童)아 내 말을 전해 줘!”

“히빈스 양이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마왕이래요.” 펄은 장난꾸러기다운 웃음을 띠며 부르짖었다. “내게 그런 나쁜 소리 하면 마왕님한테 이를 거예요. 그러면 마왕님은 폭풍으로 당신의 배를 후려갈길 거예요!” 펄은 갈 지(之)자 걸음으로 장거리를 건너 어머니한테 돌아와서 선장이 하던 말을 전했다. 목사와 자기가 비밀한 미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막 열릴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컴컴하고 심각한 얼굴이 용서 없는 비웃음을 띠며 그들의 길 맨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헤스터의 굳세고 침착하고 꾸준히 참아 오던 정신은 폭삭 가라앉고 말았다.

선장의 통지를 받고 무섭게 마음이 어지럽고 괴로운 데다가, 헤스터는 또 한 가지 시련을 받게 되었다. 전국으로부터 무수한 사람이 이날 장거리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주홍 글씨라는 말만 듣고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본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주홍 글씨는 거짓된 혹은 과장된 무수한 소문으로 말미암아 터무니없이 무서운 물건이 되어 있었다. 가지가지의 오락에 싫증 난 이 사람들은 지금 무례하게도 염치없이 헤스터 주위에 모여들었다. 평소에 서슴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수 야드의 원진(圓陣)을 치고 그 이상은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 거리에서 그들은 한편으로 흥미를 느끼면서도 또 한편 신비로운 표적이 일으키는 혐오의 원심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치에 정지되고 말았다. 뱃사공의 일행도 또한 구경꾼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또 주홍 글씨의 의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그들의 햇볕에 타고 악한(惡漢)다운 얼굴을 사람들 틈으로 들이밀었다. 인디언들까지도 백인의 호기심이 던지는 싸늘한 그늘에 좀 으쓱해졌는지 사람들 틈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뱀 같은 새까만 눈초리로 헤스터의 가슴을 노려보았다. 찬란한 수를 놓은 표적을 가슴에 단 이 여인은 백인들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리라고 아마도 그들은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마지막으로 거리 사람들에게 주홍 글씨는 묵은 이야기였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흥미를 느끼는 것을 보고 일종의 공감으로 그들도 약간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은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서 평소부터 냉랭한 시선으로 눈에 익은 수치의 표적을 노려보느니만큼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층 더 헤스터를 괴롭혔다. 헤스터가 칠 년 전에 옥문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며 서 있었던 여인네들과 꼭 같은 얼굴들도 보였다. 다만 그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적고 가장 동정심이 많던 여자의 얼굴만이 보이지 않았는데, 헤스터는 언젠가 이 여자의 수의를 지어 준 일이 있었다. 앞으로 얼마 안 가면 불타는 그 주홍 글씨를 영영 내던지게 되는 이 마지막 시간에 그것은 사람들의 구경과 흥분의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것을 가슴에 달던 날 이래 어느 때보다도 아프게 그의 가슴을 태우게 되었다는 것은 얄궂은 운명이었다.

헤스터가 치욕의 마술권 안에 서 있는 동안—간사하고도 잔인한 그의 판결문은 그를 영원히 이 마술권 안에다 고정시켜 놓았던 것이다—저 감탄할 설교가는 신성한 강단으로부터 군중—가장 깊은 정신이 그의 지배에 굴복되고 있는 군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교당 안에 있는 성자가 된 목사! 장거리에 서 있는 주홍 글씨의 여인! 똑같이 살을 태우는 화인이 이들 두 사람 가슴 위에 나타나 있다고 천만부당한 상상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23. 주홍 글씨 나타나다

마치 굽이치는 바다 물결처럼 청중의 영혼들을 천상까지 떠밀고 올라가던 웅변 소리는 마침내 끝났다. 일순간 깊은 침묵이 나타났다. 신령한 신탁이 발언된 뒤에 나타날 만한 침묵이었다. 그다음에는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절반은 숨소리를 죽인 이야기 소리가 일어났다. 마치 청중은 마술의 힘으로 잠시 남의 정신세계 속으로 끌려들어 갔다가 다시 놀라운 마음이 가득하여 자기의 세계로 풀려 나오는 듯싶었다. 잠시 뒤에 군중은 교당 문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설교가 끝났으니 좀 별다른 공기를 호흡할 필요가 있었다. 교당 안의 공기는 목사의 설교로 말미암아 불길 같은 언어로 변했고 그 사상의 구수한 향기가 충만해 있었으나, 이제는 추잡한 지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 좀 더 적합한 별다른 공기가 필요했다.
교당 밖으로 나오자 청중의 황홀한 정신은 언어로 쏟아져 나왔다. 온 길거리와 온 장터가 온통 목사의 칭찬으로 와글와글했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잘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만족하게 표현하거나 들을 줄은 모르는 설교의 내용을 서로 토론하기 전에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일치한 말에 의하면 오늘 설교를 한 그 목사처럼 그렇게도 지혜롭고 높고 거룩한 정신으로 말한 사람은 과거에 한 사람도 없었다. 또 하느님의 영감이 이번처럼 분명하게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일도 없었다. 말하자면 성령의 힘이 그에게 강림하여 그를 붙잡고,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설교 원고로부터 부절히 그를 끌어올리고 청중은 물론 그 자신에게도 기적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사상을 충만하게 해 주는 것을 사람들은 볼 수 있었다. 설교의 주제는 하느님과 인류사회와의 관계인 듯싶었는데, 특히 그들이 이곳 광야에서 식민을 개시하고 있는 뉴잉글랜드에 관련되는 이야기였다. 연설이 결말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언자와 같은 정신이 그에게 강림하여 마치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처럼 지금 이런 목표로 그를 추진시키고 있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유대 예언자들은 그들의 나라에 대한 최후 심판과 파멸을 선언했지만, 그는 이곳에 새로 보인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높고 영광스러운 운명을 예언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설교 전체를 통해서 침

통한 비애의 저음이 있었다. 그것은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의 천연적인 석별의 정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었다. 과연 그렇다. 그들이 몹시 사랑하던 목사, 또 그들을 몹시 사랑하던 목사—그는 한숨이 없이 천당으로 떠나지는 못할 것이다—는 자기가 요절하리라는 예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머지않아 눈물 속에 그들을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이 생각은 이 설교가 빚어낸바 효과에다 마지막 힘을 주었었다. 마치 하늘로 올라가던 천사가 잠시 그들 위에서 환한 날개를 저으며—그것은 그늘이면서도 광명이었다—황금 같은 진리를 소낙비처럼 그들 머리 위에 뿌리고 간 것 같았다.

각 분야에서 허다한 사람들의 일평생 중 전무후무한 찬란하고 승리가 가득 찬 시기가 찾아오지만 그들 자신은 훨씬 지난 뒤까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시기가 딤즈데일 목사를 찾아왔다. 이 순간에 그는 가장 자랑스러운 출세의 절정에 서 있었다. 교직자 그 자체가 높은 지위에 처해 있던 뉴잉글랜드 초기에서도 천부의 지력과 풍부한 학식과 우수한 웅변력과 또 그중 순결하다는 평판이 목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였다. 설교가 끝나고 그가 강단 방석 위에서 앞으로 머리를 수그리는 순간 딤즈데일이 점령하는 지위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 그동안 헤스터 프린은 형대 옆에 서 있었고, 주홍 글씨는 여전히 그 가슴 위에서 불붙고 있었다.

또다시 음악 소리가 울리고 걸음걸이를 맞춘 호위병대의 발소리가 나타났다. 행렬은 공관으로 향할 예정이었고, 공관에서는 장엄한 만찬회를 열어 이날 예식을 완결하게 된다.

다시 한 번 존엄한 장로들이 군중을 헤치고 넓은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장관과 관리들과 노인들과 목사들과 기타 저명한 사람들이 군중 가운데로 올 때 그들은 공경스럽게 양쪽으로 길을 비켰다. 일행이 훨씬 장터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만세 소리가 일어났다. 이 만세 소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으레 위정자들에게 바치는 어린아이다운 충성심에서 좀 더 우렁차게 나왔겠지만, 원은 아직도 그들 귓속에서 윙윙 울리고 있는 웅변의 높은 곡조로 말미암아 청중의 가슴속에 불이 붙는 열광심이 저절로 터져 나온 것이었다. 사람마다 같은 충동을 느꼈고 또 동일한

정신을 호흡하는 이웃 사람의 열광심에 감염되었다. 교당 안에서도 열광심은 거의 누를 수가 없었다. 푸른 하늘 아래서 그것은 하늘 꼭대기까지 울려 나왔다. 인간도 넉넉히 있었고 고도로 흥분된 교향악적인 감정도 충분했기 때문에, 풍금 소리나 우레 소리나 바다의 파도가 우짖는 소리보다도 더 인상 깊은 음향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다. 많은 목소리가 전체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한 목소리로 융합되었다. 전체적인 감정이란 언제나 이와 같이 다수의 마음을 위대한 한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뉴잉글랜드의 땅으로부터 이러한 만세 소리가 떠올라 간 일이 없었다! 뉴잉글랜드의 땅 위에 이 목사처럼 동포 인간들에게서 존경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군인들과 관리들이 전진할 때에 모든 사람의 눈은 목사가 그들 속으로 가까이 오는 방향으로 쏠렸다. 군중의 일부분이 때때로 그의 모양을 발견하자 부르짖는 소리는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라앉았다. 그의 모든 승리 속에서 어쩌면 저렇게도 힘이 없고 창백해 보일까! 그 정력, 정력이라기보다는 영감—천상에서 내려와서 그 신성한 메시지의 연설을 끝낼 때까지 그를 버티어 주던 영감—은 그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니 이제는 물러가고 말았다. 조금 전까지도 그의 볼에서 벌겋게 타오르던 홍조는 마치 나중까지 타는 장작개비 속에서 힘없이 까부라지는 불길처럼 완전히 꺼지고 말았다. 꼭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이었다. 그렇게 근력 없이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터벅터벅 길을 걸으며 쓰러지지는 않았다.

동료 목사 한 사람—그는 점잖은 존 윌슨 목사였다—은 지력과 감수성이 샘물처럼 물러간 뒤에 딤즈데일 목사가 빠져 있는 상태를 보고 바삐 부축해 주려고 앞으로 달려 나왔다. 목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노인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한 운동도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는 아직도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어머니가 두 팔을 벌리고 "이리 온!" 하며 유혹할 때에 어머니의 품 안을 보고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기의 노력과 비슷한 것이었다. 지금 그의 걸음걸이는 거의 알아볼까 말까 한 정도였으면서도 그는 벌써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비바람에 낡아진 형대 맞은편까지 왔다. 퍽 오래전 일이었고 그간 지루하게도 허구한 날

이 지나갔지만, 이 장소에서 헤스터는 온 세상 사람의 치욕적인 응시를 당했다. 그 장소에 어린 펄의 손목을 잡고 헤스터는 서 있었다. 그리고 주홍 글씨도 그 가슴 위에 있었다. 악대는 여전히 당당하고 유쾌한 행진곡을 울리고 있었건만 목사는 여기서 정지했다. 음악은 연회 장소로 그를 부르고 있었건만 그는 여기서 정지했다.

벨링햄은 앞서부터 불안한 눈으로 그를 주목해 왔었다. 지금 딤즈데일 목사의 얼굴 모양으로 보아 필경 그는 쓰러지리라고 판단하고, 행렬 중의 자기의 위치를 떠나 도와주고자 앞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목사의 표정 속에는 장관을 물리치는 그 무엇이 있었다. 벨링햄은 물론 이심전심으로 오는 막연한 위협에 쉽사리 굴복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동안 군중은 두렵고 놀라운 가슴으로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지상의 기절은 천상의 원기를 증명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증거였다. 비록 그가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며 희미해지다가 좀 더 환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아주 천당의 광명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도 신성한 사람이 만들어 내기에 지나치게 높은 기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형대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두 팔을 벌렸다.

"헤스터, 이리 오시오!" 그는 말했다. "나의 어린 펄, 이리로 오너라!"

두 사람을 바라다보는 그의 눈은 처참했다. 그러나 그 눈 속에는 자애롭고 이상야릇하게 의기양양한 그 무엇이 있었다. 어린아이는 그의 특색 있는 새와 같은 동작으로 그의 앞으로 날아와서 두 팔로 그의 무릎을 부둥켜안았다. 헤스터 프린은 마치 자기의 본의는 아니면서도 피치 못할 운명에 끌리는 듯이 느릿느릿 걸어와서 그의 앞에 도달했다. 바로 이때에 늙은 로저 칠링워스는 그의 피해자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려고 군중을 뚫고 나왔다. 그 얼굴이 그렇게도 검고 흥분되고 흉악스러운 것을 보면 혹은 지옥에서 솟아났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어쨌건 이 노인은 앞으로 달려 나와서 목사의 팔을 붙잡았다.

"이 미친 사람, 멈추시오! 뭘 하려는 것이오?" 그는 귓속말로 말했다. "저 여자를 물리치시오! 이 아이를 버리시오! 모든 일이 다 잘될 겁니다! 당신의 명성을 더럽

히고 불명예 속에서 죽지 마시오! 나는 아직도 당신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성한 직업을 망치려는 것입니까?"

"에라, 이 악마 같은 유혹자야, 너는 이미 늦었다!" 목사는 무서운 듯한 그러나 단호한 시선으로 그를 마주 쏘아보며 대답했다. "너의 실력은 벌써 이전 같지는 않다! 하느님의 원조로 나는 지금 너로부터 도망간다!"

그는 다시 한 번 주홍 글씨의 여인 앞으로 두 팔을 벌렸다. "헤스터 프린!" 하고 그는 가슴을 찌를 듯한 열정적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내가 나의 중한 죄와 비참한 고민에 대해서 칠 년 전에 하지 못하고 말았던 일을 지금 행하게 해 주시는 두렵고도 자비로운 주님의 이름에 의하여, 이리 와서 두 팔로 나를 힘 있게 붙잡아 주시오! 헤스터, 그대의 힘을 빌려주시오! 그러나 그 힘은 하느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의지력에 지도를 받도록 하시오! 아내를 빼앗긴 불행한 저 노인이 전력으로—자신의 힘과 악마의 힘을 합쳐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헤스터, 이리 오시오! 와서 나를 부축하여 저기 형대로 올라가게 해 주시오!"

군중은 야단법석이었다. 좀 더 바로 목사 주위에 서 있던 지위가 높은 점잖은 사람들은 하도 뜻밖의 일이라 어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하여—그 설명이란 뻔히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설명을 상상해 낼 수도 없고 해서—그저 묵묵히 서서 하느님이 장차 행하시려는 듯싶은 심판의 구경꾼 노릇을 할 따름이었다. 그들은 목사가 헤스터의 어깨에 기대고 껴안아 주는 두 팔의 지지를 받으면서 형대 앞으로 가까이 가서 층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동안 죄악 속에서 나온 어린아이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늙은 로저 칠링워스는 그들 자신이 배우가 되어 출연하는 죄악과 비애의 연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마지막 장면에 당연히 등장할 자격이 있다는 듯이 따라 올라갔다.

"비록 네가 전 지구를 찾아보았다 할지라도!" 칠링워스는 험악한 눈초리로 목사를 보며 말했다. "바로 이 형대밖에는 나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비밀 장소는 높고 얕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 데도 없었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느님에게 감사하노라!" 목사는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떨고 있었다. 그리고 의혹과 불안의 표정으로 얼굴을 헤스터에게로 돌렸는데, 입술에는 힘없는 미소가 떠돌고 있었다. "우리가 숲 속에서 꿈꾸던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지 않소?" 그는 귓속말로 말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헤스터는 급히 대답했다. "나을까요? 글쎄요. 우리들은 이렇게 죽어 없어지고 펄도 따라 죽고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지요!"

"당신과 펄에 대해서는 하느님 처분에 맡깁시다. 하느님은 자비하십니다! 나는 하느님이 내 눈앞에 명백히 나타나게 해 주신 그 뜻을 그대로 행하게 해 주시오. 헤스터, 나는 아무래도 죽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지체 말고 수치를 받도록 합시다!"

한편 헤스터 프린에게 부축되고 한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딤즈데일 목사는 얼굴을 돌려 위엄을 갖춘 늙은 위정자들과 그의 동료인 거룩한 목사들과 군중을 보았다. 군중은 놀라서 여지없이 혼을 뺐지만, 그래도 그 위대한 마음에는 눈물겨운 동정심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죄악이 가득 차 있을지 모르나 그와 동시에 고민과 회개도 충만해 있을 무슨 심각한 인생 문제가 장차 그들 앞에 폭로되리라 함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정을 지날까 말까 한 태양이 목사를 내리쪼이며 영원한 심판석 앞에서 자기의 유죄를 선언하기 위하여 대지에 우뚝 서 있는 그의 모습을 환히 비춰 주었다.

"뉴잉글랜드의 주민 여러분!" 하고 그는 부르짖었다. 그들 머리 위에서 높고 엄숙하고 존엄하게 떠오르는 목소리였지만 항상 떨리는 음성이었고, 또 간간이 끝없이 깊은 참회와 고민의 나락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음성이었다.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던 여러분! 언제나 나를 신성하다고 보아 주시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자리에 이 세상의 죄인이 서 있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응당 칠 년 전에 이 자리 섰어야만 하는 자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여인—내가 이 형대로 기어올라 온 약한 힘보다도 세차게 이 여인은 나를 부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무서운 순간에 땅에 엎드러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헤스터가 차고 있는 주홍 글씨를! 여러분은 그것을 볼 때마다 떨었습니다. 그 불행한 짐을 떠메고 안식을 찾고자 오죽이나 헤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어디를 가나 주홍 글씨는 이 여인의 주위에 처참하게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광선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수치의 표적을 보고 여러분이 떨지 않은 죄인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목사는 나머지 비밀을 폭로치 않고 묻어 둘 수밖에 없을 것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신체적인 무기력, 그보다도 자꾸만 그를 지배하려 드는 마음의 비겁을 단연코 물리쳤다. 그는 모든 보조를 뿌리치고 정열적인 걸음으로 여인과 어린아이보다 앞에 썩 나섰다.

“죄악의 표적은 그자 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맹렬한 기세로 말을 계속했다. 그는 비밀 전부를 토설하려고 그렇게도 굳은 결심을 하고 있었다. “하느님의 눈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천사들은 언제나 그것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불붙는 손가락으로 항상 쑤석거렸습니다. 그러나 그자는 교활하게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숨기고 여러분과 같이 걸어 다녔습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자기만은 순결하니까 슬프다는 듯한 표정과 천당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슬프다는 듯한 표정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지금 최후 순간을 당하여 그는 여러분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다시 한 번 헤스터의 주홍 글씨를 보라고 청합니다. 그것은 신비롭고 무서운 표적이지만 그자의 가슴 위에 있는 표적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자의 가슴 위에 있는 표적조차도 그의 깊고 깊은 영혼을 태우는 표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시오! 그 증인을 여기서 보시오!”

죽을힘을 다하여 그는 그의 앞가슴으로부터 목사 띠를 잡아 뜯었다. 표적은 나타났다! 그러나 나타난 모양을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부적당하다. 공포에 질린 군중의 시선은 한순간 처참한 기적 위에 집중되었다. 그동안 목사는 마치 급성병의 위독한 순간에 승리를 획득한 사람처럼 그 얼굴에 승리의 영체를 보이며 서 있었다. 그러다가 형대 위에 쓰러졌다. 헤스터는 그의 반신을 일으키고 머리를 자기

가슴에 기대어 주었다. 늙은 로저 칠링워스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멍하니 얼빠진 그의 얼굴에는 이미 생명이 떠나고 없는 것처럼 보였다.
“기어이 나로부터 도망갔구나! 기어이 나로부터 도망갔구나!” 그는 두 번 세 번 같은 소리를 되풀이했다.
“하느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심을!” 목사는 말했다. “당신도 또 깊은 죄를 지었소.” 그는 가물어져 가는 눈을 노인에게 돌리고 여인과 아이를 보았다.
“나의 어린 펄.” 그는 약하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정신이 깊은 안식으로 가라앉는 듯한 다정하고도 자애로운 미소가 얼굴에 떠돌고 있었다. 아니 이제 무거운 짐을 벗어놓으니까 어린아이와 희롱이라도 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다. “예쁜 펄, 내게 키스해 주련? 저기 숲 속에서는 키스해 주지 않았지! 이제는 키스해 주겠지!” 펄은 그의 입술에다 키스했다. 막혔던 감정이 터졌다. 어린아이 자신이 한 역할을 보고 있는 이 위대한 비애의 장면은 그 아이의 동정심을 철저히 발생시켰다. 눈물이 아버지의 볼 위에 떨어질 때에 그것은 이 아이가 인간의 기쁨과 슬픔 속에서 자랄 것이며, 결코 언제까지나 이 세상과 싸우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여자가 되겠다는 맹세였다. 또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고민의 사자(使者)로서의 펄의 사명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헤스터. 부디 잘 있어요!” 목사는 말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까요?” 헤스터는 그의 얼굴에 바짝 얼굴을 대며 속삭였다. “같이 영원한 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요? 확실히, 확실히 우리들은 이 모든 고난으로써 우리의 몸값을 치렀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원한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그 영롱한 임종의 눈으로! 그러면 무엇이 보이는지 저에게 일러 주세요!”
“조용히, 헤스터. 조용히.” 그는 엄숙하게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깨뜨린 율법! 여기에서 완전히 드러난 죄악! 이 두 가지만을 마음속에 가지시오! 나는 무서워요! 나는 무서워요! 우리들이 우리의 하느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들이 서로서로의 영혼에 대한 존경을 범했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 영원하고 순결한 생활을 가질 수 있으면 하고 희망한대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아십니다. 하느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느님은 무엇보다도 나의 고통 속에서

그 자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불타는 고통의 표적을 가슴에 차라고 나에게 주심으로 저 암흑하고 무서운 노인을 보내시어 그 고통의 표적을 항상 새빨갛게 달게 하심으로써,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이나마 승리의 주검을 맞이하게 해 주심으로써 그 자비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찬양되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안녕히 계시오!" 이 마지막 말은 넘어가는 숨과 동시에 나왔다. 그때까지 묵묵하던 군중은 별안간 괴상하고 깊은 목소리로 두렵고 놀라운 감정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감정은 아직도 적당한 표현의 말을 발견치 못해서 다만 떠나간 혼령의 뒤를 따라 무겁게 굴러가는 중얼거림으로 나타날 따름이었다.

24. 후일담

며칠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앞장에서 이야기한 사건에 관하여 저마다 생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자 그들이 형대 위에서 목격한바 사실에 대한 설명은 구구했다.

구경꾼들의 대부분은 불행한 목사의 가슴 위에서 주홍 글씨—헤스터 프린이 차고 있던 것과 꼭 같은 주홍 글씨—가 살에 찍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 시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그 전부가 억측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딤즈데일 목사는 헤스터 프린이 처음으로 그 수치의 표적을 달던 바로 그날 속죄 행위의 과정을 시작했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부질없는 방법으로 계속했었는데 그것은 스스로 체형(體刑)을 가하는 방법이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훨씬 지난 뒤에 유력한 마술사인 로저 칠링워스가 마술과 독약의 힘을 빌려 나타나게 할 때까지 그 표적은 없었다고 했다. 또다시 목사의 특별한 예민성과 육체 위에 나타나는 그 정신의 놀라운 작용을 가장 잘 이해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으로 속삭이기를 쉬지 않고 마음을 깨무는 회개의 이빨이 정신 내부로부터 외부로 쏟아져 나오다가 마침내 눈에 보이는 글씨로써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을 표시한 것이라 하였다. 이들 설명 중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는 독자의 자유에 맡긴다. 이 흉한 증조에 대해서 나는 힘자라는 데까지 밝혀 보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그 표적이 할 일을 다 했으니 우리의 뇌리로부터 그 깊은 흔적을 지워 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도 오래 두고 생각하니까 반갑지도 않은 표적이 너무도 뚜렷하게 우리의 뇌수 속에 고착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때의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었고 도중에 한 번도 딤즈데일 목사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었다고 언명하는 어떤 사람들이 목사의 가슴 위에는 전연 아무런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은 갓난아기의 가슴처럼 말짱했었다고 말한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그의 임종 때의 말이라는 것이 그들의 보고에서 인증되지는 않았고 또 헤스터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주홍 글씨를 달고 다니게 된 원인의 죄악에 대하여 목사 자신이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암시하는 말도 없었다. 지극히 존경할 만한 이들 증인의 말에 의한즉 목사는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군중의 숭배심이 이미 자기를 성자나 천사의 지위로 높였다는 것도 알고, 기왕이면 타락한 여자의 품에 안기어 마지막 숨을 거둠으로써 인간 자체의 옳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는 것이다. 인류의 정신적인 행복을 위하여 일평생을 바친 뒤에 그는 자기의 죽음의 방식을 하나의 우화로 만들어 영원히 순결한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들은 다 같이 죄인이라는 위대하고도 슬픈 교훈을 그의 숭배자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다. 우리들 중에서 가장 신성한 사람이 동포 인간들보다 높은 경지에 도달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지상을 내려다보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좀 더 분명히 식별하고, 하늘을 갈망하듯 쳐다보는 인간의 미덕이라는 환상을 좀 더 철저히 떨쳐 버리는 정도임을 가르치려는 것이었다.

이렇듯 중대한 진리를 이러니저러니 논의하는 일은 그만두고, 딤즈데일 목사의 이야기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을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니 독자 여러분은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것은 인간의 친구들, 특히 목사의 친구들이 모든 증거가 주홍 글씨를 비추는 백주의 태양처럼 분명해서 그가 거짓되고 죄악에 더럽힌 먼지 터럭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입증할 때에도, 그의 인물을 지지해 주는 그 충성심에 대한 한 실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까지 의거해 오던 전적은 허다한 사람들—그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헤스터를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그때의 목격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의 구두 증언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원고인데, 그 전적은 위에서 말한 견해를 충분히 확증한다. 이 가엾은 목사의 불행한 체험이 우리들에게 절실히 가리키는 허다한 교훈 중에서 다만 다음과 같은 것만을 문자화(文字化)하기로 하자—“진실하거라! 진실하거라! 진실하거라! 비록 그대의 최악의 죄는 아닐지라도 최악의 죄를 추론할 수 있는 특징을 세계에다 숨기지 말고 표시하라!”

딤즈데일 목사가 죽은 거의 직후에 세칭 로저 칠링워스라고 하는 노인의 외모와 용모에 나타난 변화처럼 현저한 것은 없었다. 그의 모든 체력과 정력, 생명력과 지력은 금시로 그를 버리고 간 듯싶었다. 그 결과 그는 영 말라 시들어 버려 마치 뿌

리를 뽑아 놓은 잡풀이 햇볕 속에서 말라 드는 것처럼 형편없이 쪼그라들어 거의 눈에 보일 듯 말 듯했다. 이 불행한 노인은 그의 생존 원리 자체가 조직적으로 복수를 실천하는 데 있게끔 되어 있었다. 그 원리의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아 복수가 완성됨으로 해서 그 이상 그를 지지해 주는 재료가 남아 있지 않게 되었을 때에, 요컨대 그가 실천해야 할 악마의 일이 벌써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 비인간적인 인간은 그의 선생 사탄한테로 달려갈 일밖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선생은 그에게 충분한 일거리를 마련해 줄 것이며 또 그에게 정당하게 삯을 치러 줄 것이다. 독자들에게 오래 친숙한 이들 그늘 속의 존재들—로저 칠링워스는 물론 그의 동료들까지라도—에 대해서 우리들은 될 수만 있으면 자비심을 가지고 싶은 일이다. 미움과 사랑이 근본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재미나는 관찰과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극도로 발달된 미움과 사랑은 인간 심정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전제로 삼는다. 미움이나 사랑을 가지는 사람은 그 감정과 정신생활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 의존하게 된다. 그 감정의 대상이 물러갈 때에 열렬히 사랑하는 자나 열렬히 미워하는 자는 홀로 남아서 슬프고 쓸쓸해진다. 그런고로 철학적으로 고찰할 때에 이 두 가지 열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처럼 생각된다. 다만 사랑은 천상의 광명 속에 나타나고 미움은 컴컴하고 처참한 광선 속에 나타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늙은 의사와 목사는 서로서로 피해자였지만, 정신세계에 있어서는 지상에서의 그들의 증오와 반감의 대상이 황금 같은 사랑으로 변신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철학적인 논의는 그만두고, 나는 독자에게 전해야 할 이야깃거리가 또 하나 있다.

로저 칠링워스가 죽을 때 (그것은 일 년 이내에 생겨난 일이다) 그는 유언으로써—유언 집행인은 장관과 윌슨 목사가 되었다—뉴잉글랜드와 영국에 있는 그의 상당한 재산을 헤스터 프린의 딸 펄에게 유증했다.

그때까지 일부의 사람들은 짓궂게도 이 아이를 요동이니 악마의 소생이니 불렀지만 펄은 뉴잉글랜드에서 제일 부자 상속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평가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그럴 법한 일이다. 그

래서 만일 모녀가 이 땅에 머물러 살았더라면 어린 펄은 혼기가 됐을 때에 그 야생적인 피를 이 땅에서 가장 열렬한 청교도의 후손과 섞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죽은 뒤 얼마 안 가서 주홍 글씨의 여인은 사라졌다. 펄도 같이 사라졌다. 여러 해 동안 마치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적힌 형체 없는 널조각이 해안에 떠밀려 올라오듯이 막연한 소문이 간간이 바다를 건너 들려오곤 했지만, 그들에 대한 믿을 만한 소식은 한 번도 입수된 일이 없었다. 주홍 글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마력은 아직도 강해서 가엾은 목사가 죽은 형대는 헤스터 프린이 살고 있던 바닷가의 오두막집과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무서운 장소가 되어 있었다. 이 오두막집 근처에서 어느 날 오후 수 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때에 회색 옷을 입은 키가 큰 부인네 하나가 오두막집 문간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보았다. 이 몇몇 해 문은 한 번도 열어 놓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여인이 문쇠를 열었는지, 썩은 나무문이 미는 대로 저절로 열렸는지, 혹은 그 부인네가 그림자처럼 장해물을 통과했는지 모르나 하여튼 부인네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턱에서 여인은 발을 멈추고 반쯤 몸을 돌렸다. 이전에 그렇게도 기가 나서 살던 집에 단지 홀몸으로 그렇게도 변한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아마도 참을 수 없이 쓸쓸하고 처량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주저는 다만 일순간 일이었다. 일순간이었지만 그동안 가슴 위에 있는 주홍 글씨는 충분히 표시되었었다.

헤스터 프린은 돌아왔다. 그리고 오래 버렸던 수치를 몸에다 찼다! 그러나 어린 펄은 어디 있었나? 아직도 살아 있다면 지금쯤은 얼굴이 활짝 피어올라 오는 꽃 같은 처녀가 되었을 것이다. 그 요동이 때아닌 처녀 무덤 속에 들어갔는지 또는 그 야생적이며 풍족한 성질이 부드럽고 온화해져서 여자의 고요한 행복을 받을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 후도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헤스터의 여생을 통하여 주홍 글씨의 은사(隱私)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애정과 흥미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었다. 문장(紋章)의 봉인이 찍힌 편지가 가끔 왔다—요 문장은 영국 문장에는 전연 없는 종류였지만—오두막집에 들어가 보면 헤스터가 전연 쓸 생각이 없는,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애정 있는 사람이어야만 보내 줄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안 재료의 사치품들

이 있었다. 그 밖에 자질구레한 물건들, 작은 장식품들, 다정한 마음이 솟을 때마다 섬세한 손으로 만들었을 것이 분명한, 부절한 애정의 아름다운 기념품들이 있었다. 어떤 때 헤스터는 무지개 같은 공상을 아낌없이 쏟아 놓으며 갓난아기 옷에 수를 놓고 있었다. 만약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옷을 입고 빛깔이 수수한 우리 사회에 나타났다면 세상 사람들이 떠들고 야단을 했을 것이다.

결국 펄은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또 그 어머니를 몹시 소중히 여겨서 될 수만 있으면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 당시의 소문은 전했고, 1세기 후에 이 이야기를 조사해 본 검사관(檢査官) 퓨(Pue) 씨[40]도 믿었고, 또 최근 그의 후임으로 온 사람도 충실히 믿고 있다.

그러나 헤스터 프린을 위해서는 펄이 가정을 가지게 된 미지의 땅보다, 이곳 뉴잉글랜드에 더 진실한 생활이 있었다. 여기서 그의 죄가 지어졌고, 여기에 그의 슬픔이 있었고, 여기서 그의 회개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만 했다. 그래서 헤스터는 돌아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침울한 이야기의 상징인 주홍 글씨를 다시 몸에 찼다. 비록 무쇠같이 엄격한 그 당시의 관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강제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것은 전연 자유의사에서 한 일이었다. 그 후 한 번도 주홍 글씨는 그의 가슴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헤스터의 일평생 고생스럽고 근심 많고 그러나 헌신적인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주홍 글씨는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분노를 끌어들이는 죄의 표적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같이 슬퍼해 주고 두려우나 그러나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무엇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헤스터는 이기심이란 전연 없었고 또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향락을 위해서 사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슬픈 일이나 난처한 일이 있을 때에는 그를 찾아와서 그의 의견을 물었다—그 자신이 과거에 굉장한 환란을 겪은 사람이라고 해서 특히 여자들—사랑의 번민, 헛된 사랑, 빼앗긴 사랑, 비륜(非倫)의 사랑, 탈선의 사랑,

40 호손은 이 소설의 자료를 세일럼(Salem) 세관(稅關) 2층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이 소설의 서장 〈세관〉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호손은 좀먹고 빛이 낡은 주홍 글씨와 그것에 첨부된 기록을 보았는데, 그 기록을 쓴 사람은 검사관 퓨(Pue) 씨였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다 호손의 창작이다. 서장은 소설 속 이야기와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번역에서는 제외했다.

죄 많은 사랑 등등 끊임없이 나타나는 시련에 고민하는 여자들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 주지 않기 때문에 쓸쓸한 가슴을 부둥켜안고 다니는 여자들이 찾아와서 "어째서 우리들은 이렇게도 불행할까요? 무슨 도리가 없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것이었다. 헤스터는 힘자라는 데까지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충고의 말을 주었다. 또 자기의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좀 더 좋은 세상이 돌아와서 이 세상 기운이 익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남녀 관계를 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좀 더 튼튼한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리라고. 젊은 시절에 헤스터는 자기 자신이 예언자가 될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본 일도 있었다. 그러나 신성하고 신비로운 진리의 사명이 자기처럼 죄에 더럽혀지고 수치에 굴신(屈身)하고 혹은 일평생 비애의 무거운 짐을 떠메고 다니는 여자에게 위탁된다는 것은 전연 불가능한 일이라 함을 깨달은 지가 이미 오래였다. 장차 진리를 나타낼 천사나 사도는 높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야 할 것이며, 지혜롭되 어둠침침한 비애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기쁨의 매개를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라야 할 것이며 실제로 행복한 생활에 성공하는 진정한 인생 시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인이라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헤스터는 슬픈 눈을 내리떠 주홍 글씨를 굽어본다.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낡고 가라앉은 무덤 근처에 또 하나 새 무덤이 생겼다. 장소는 그 후에 킹스 채플이 건축된 부근 공동묘지였다. 새 무덤의 위치는 낡고 가라앉은 무덤 근처였고 그 안에 잠들고 있는 두 개의 혼령은 결합할 권리가 없다는 듯이 두 개의 무덤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지만 두 무덤에 비석은 하나였다. 그 주위에는 가문(家紋)을 조각한 다른 기념비들이 서 있었다. 간소한 이 비석 위에는 방패 모양의 조각 비슷한 흔적이 희미하게 나타나 있어 호기심을 가지는 조사가들은 지금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한다. 방패 모양 속에는 비명(碑銘)이 새겨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끝난 우리 이야기에 대하여 간단한 제명(題銘)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없이 음침한 비면(碑面)에 다가가 보면 언제나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주홍 글씨 A자가 있어 약간의 변화를 보일 뿐이나 그

붉은 빛은 검은 바탕의 비면보다도 더 침침한 빛이었다.
검은 바탕에 주홍 글씨.

지은이 소개 | **너대니얼 호손** Nathaniel Hawthorne (1804~1864)

19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세일럼(Salem)의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다. 1850년 발표한 대표작 《주홍 글씨》는 17세기 청교도 식민지 보스턴에서 일어난 간통 사건을 주제로 했다. 청교도의 엄격함과 죄인의 심리를 정교하게 묘사하면서 그 상징성을 긴밀하게 구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교도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전통을 계승한 호손은 종교적 죄악에 빠진 사람들, 자기중심벽이나 고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내면을 도덕 · 종교 · 심리의 세 측면으로 깊이 있게 표현했다. 《트와이스 톨드 테일스(Twice-Told Tales)》 《일곱 박공의 집(The House of the Seven Gables)》 《블라이스데일 로맨스(The Blithedale Romance)》 《대리석 목신상(The Marble Faun)》 등의 작품을 남겼다.

옮긴이 소개 | **최재서** (1908~1964)

문학평론가이자 영문학자. 황해도 해주 출신. 1931년 경성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1933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런던 대학 유학 후 보성전문학교 ·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광복 후 연세대 · 동국대 · 한양대 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문학원론》 《문학과 지성》 《셰익스피어 예술론》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햄릿》 《아메리카의 비극》 외 다수가 있다.

주홍 글씨

©사단법인 올재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이상민 김지훈
편집 · 교열 | 황인정
표지제호 | 강병인
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

Olje Classics

01 한글논어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2 국가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3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저 | 라종일 역
04 고운집 최치원 저 | 이상현 역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05 한글맹자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6 소크라테스의 변명 외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7 유토피아 토머스 모어 저 | 주요섭 역
08 청성잡기 성대중 저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 번역
09 한글중용 · 대학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10 팡세 파스칼 저 | 정봉구 역
11 군주론 마키아벨리 저 | 임명방 역
12 기측체의 최한기 저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 번역
13 우서 유수원 저 | 한영구 역 |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14 채근담 홍자성 저 | 송정희 역
15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프리드리히 니체 저 | 김정진 역
16 천로역정 존 버니언 저 | 주요섭 역
17 조선경국전 정도전 저 | 한영우 역
18, 19 계원필경집1, 2 최치원 저 | 이상현 역
20 꿈의 해석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장병길 역
21 명심보감 추적 저 | 이민수 역
22 서경 | 권덕주 역
23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저 | 박은수 역
24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황문수 역
25 택리지 이중환 저| 이민수 역
26, 27 열하일기1, 2 박지원 저 |이가원 역
28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 | 최재서 역
29 유혹자의 일기 쇠렌 키에르케고어 저 | 황문수 역
30 에밀 장 자크 루소 저 | 박은수 역
31 땅의 양식 앙드레 지드 저 | 박은수 역
32 격몽요결 이이 저 | 정후수 역
33 훈민정음통사 방종현 저 | 이상규 주해
34 방법서설 르네 데카르트 저 | 김형효 역
35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 저 | 이정식 역
36 역옹패설 이제현 저 | 남만성 역
37 유리알유희 헤르만 헤세 저 | 노태한 역
38, 39 국부론1, 2 애덤 스미스 저 | 최임환 역
40 도덕경 노자 저 | 이석명 역
41 마음 나쓰메 소세키 저 | 김성기 역
42~45 수호지1~4 시내암 저 |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팀 역
46 난중일기 이순신 저 | 이은상 역
47 징비록 유성룡 저 | 구지현 역
48, 49 쇄미록1, 2 오희문 저 | 이민수 역
50 장자 장자 저 | 신동준 역
51 열자 열자 저 | 정창영 역
52 바가바드 기타 | 정창영 역
53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 | 이인웅 역
54 산해경 | 장수철 역
55 박물지 쥘 르나르 저 | 손석린 역
56, 57 춘추좌전1, 2 좌구명 저 | 신동준 역
58~61 서유기1~4 오승은 저 |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 역

62 대당서역기 현장 저 | 권덕주 역

63 손자병법 손무 저 | 임용한 역

64 오자병법 오기 저 | 임용한 역

65 전술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 | 이영남 역

66 포화 앙리 바르뷔스 저 | 정봉구 역

67 시경 | 신동준 역

68 문심조룡 유협 저 | 김관웅 · 김정은 역

69 시학 · 데 아니마 아리스토텔레스 저 | 김완수 역

70 주홍 글씨 너대니얼 호손 저 | 최재서 역

71, 72 지봉유설1, 2 이수광 저 | 남만성 역

73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저 | 이민재 역

74 비글호 항해기

찰스 다윈 저 | 권혜련 · 김정석 · 박완신 · 이혜진 역

75~78 홍루몽1~4 조설근 저 | 연변인민출판사 번역팀 역

79~83 동주 열국지1~5 풍몽룡 저 | 신동준 역

84, 85 카라마조프네 형제들1, 2 도스토옙스키 저 | 이동현 역

86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스 저 | 조순 역

87, 88 법, 입법 그리고 자유1, 2 하이에크 저 | 양승두 외 역

89~93 금병매1~5 난릉 소소생 저 | 김관웅 · 김정은 역

94, 95 한비자1, 2 한비 저 | 신동준 역

96 상군서 상앙 저 | 신동준 역

97, 98 회남자1, 2 유안 저 | 이석명 역

99 금강경 동봉 역

100 동의수세보원 이제마 저 | 이을호 · 홍순용 역 | 주종천 보補

101, 102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1, 2

조르조 바자리 저 | 이근배 역 | 최병진 감수

Olje Selections

01 한글논어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2 국가 플라톤 저 | 조우현 역

03 조선경국전 정도전 저 | 한영우 역

04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저 |최재서 역

05 한글맹자 이을호 역 | 현암학술문화연구소 보補

06 훈민정음통사 방종현 저 | 이상규 주해

07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저 | 라종일 역

08 도덕경 노자 저 | 이석명 역

09~12 수호지1~4 시내암 저 |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팀 역

13, 14 열하일기1, 2 박지원 저 |이가원 역

15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 황문수 역

16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저 | 이인웅 역